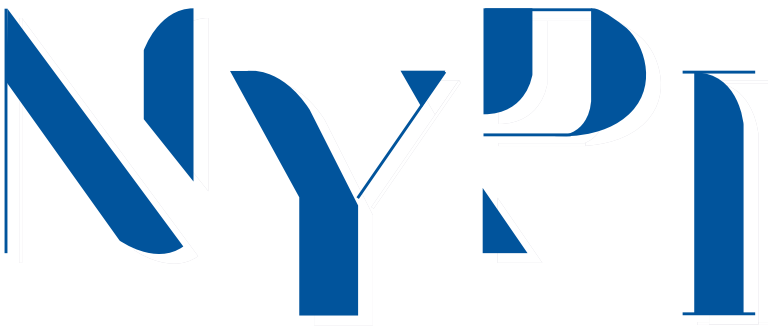
연구보고 19-R17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학교 졸업예정자

책임연구원 김기헌
공동연구원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9-60-01
연구보고 19-R17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책임연구원_ 김기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연구보고원_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졸업예정자”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 졸업예정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졸업예정자-해외사례 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	-
협력 연구 기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정지운 부연구위원	-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 및 정책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차 연도 연구인 이번 연구에서 핵심정책 대상은 1차 연도 청년 니트(NEET)에 이어 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정하였다.

학교 졸업예정자를 교육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중등교육단계에서 고교시절 학교에서 취업처를 연계해 주는 것이 잘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결정한 진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때 이를 바꾸는 진로변경이 힘들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고등교육단계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제는 주로 학부 학생들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모두 90% 이상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졸업 후 상황과 이행경로를 살펴본 결과, 졸업 후에 취업이나 진학 여부를 알 수 없는 미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학의 경우 전공계열별로 취업성과의 차이가 컸으며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은 외부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분석결과,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 등의 이행이 길어지고 공백이 있을 경우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면접조사 결과,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와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들은 진로 선택과정에서 충분한 진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과정은 학교별, 전공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장실습의 연이은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지만,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면담 결과, 대학 선택과 전공과의 선택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불충분하며, 대학의 현장실습은 진로에 대해 파악하거나 경력을 개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① 대상 중심 접근, ② 예방적 접근, ③ 통합적 접근, ④ 연계 협력 접근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교육단계 구분 없이 학교-기업 취업 연계를 체계화하고 공정 채용 및 채용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가 청년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졸업 후에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재학생들의 청년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중등교육단계에서 진로교육 및 진로변경 지원을 체계화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개편하는 한편, 일반계고 직업과정을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대학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내실화하고 대학원 학생 중심으로 R&D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정책영역과 우선순위, 신규 및 기존 정책 여부, 법률 제, 개정 여부, 마지막으로 과제 추진 예산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년정책, 학교졸업예정자, 학교-기업 연계, 현장실습, 교육통계연보,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청년들 중에서 1차 년도 청년 니트에 이어 학교 졸업예정자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대한 2차 분석,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IDI)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핵심정책대상의 특성을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동시에 청년 핵심정책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정책분석을 토대로 각 정책대상별로 청년정책에 대한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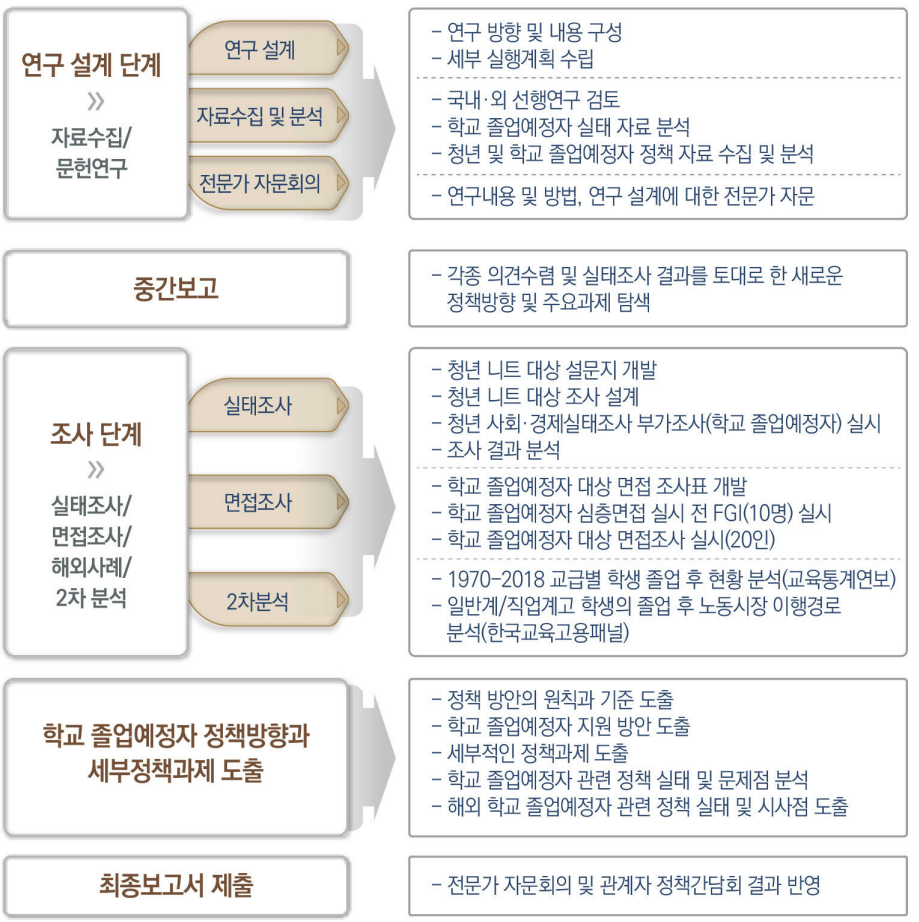
- 이 연구에서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이행 경로와 관련하여 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삶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동연구로 추진하였음. 본원 연구진은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외사례 분석과 더불어 총괄적으로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였음.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공동연구원으로 협동연구에 참여하며 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실태를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시 공동연구원 형태로 참여하며 교육고용패널조사 등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 연구는 설계단계에서 출발하여 조사단계를 거쳐 정책을 도출하는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연구 절차를 진행하였음. 설계 단계에서는 이번 연구의 연구 방향을 정하고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등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음. 조사단계에서는 설계에 기반하여 실태조사, 면접조사, 해외사례, 2차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정책도출단계에서는 국내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해외사례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해 보았음.

3. 연구내용

- 이 연구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분석을 통해 정책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였음. 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졸업예정자로서, 여기서 고등학교는 다시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교는 2-3년제 전문대와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하였음.

- 이 연구는 학교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음. 동시에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사건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등을 통해 실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는 초점집단면접 10명과 개별심층면접 20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직업계, 일반계 직업반), 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질적분석 프로그램(NVivo)을 활용해 분석함.

- 이 연구는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된 문헌연구, 국·내외 정책분석, 2차자료 분석,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4. 분석 결과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취업처를 연계해 주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고등학생 중에서 자신이 결정한 진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때 이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고등교육단계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공별로 취업 준비기간이 달랐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17개월로 다른 전공 분야에 비해 매우 길었으며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매월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거 문제는 주로 학부 학생들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모두 90% 이상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들의 참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자기 계발이나 스터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활동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졸업 후 상황과 이행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을 시행하였음. 첫 번째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졸업 후에 취업이나 진학 여부를 알 수 없는 미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대학의 경우 전공계열로 취업성과의 차이가 컸으며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은 외부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두 번째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1차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활용한 분석으로, 2004-2014년까지의 개인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 등의 이행이 길어지고 공백이 있을 경우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면접조사 결과,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와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들은 진로 선택과정에서 충분한 진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과정은 학교별, 전공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음. 현장실습의 연이은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지만,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면담 결과, 대학 선택과 전공과의 선택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불충분하며, 대학의 현장실습은 진로에 대해 파악하거나 경력을 개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원 졸업예정자 면담 결과,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연구실 생활은 졸업 이후의 취업준비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졸업 이후의 공백기를 길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현장실습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수업의 일종으로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채용절차법의 경우 신규 졸업자에 한해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인증제도를 추진 중인 일본 사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최근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서는 학습근로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반영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기본법안에서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 사업에서는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이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대표적인 청년 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사업들은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를 지원 대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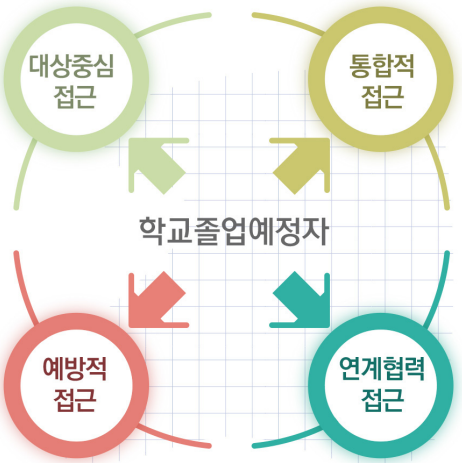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 준비라는 측면에서 재학생은 제외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졸업예정자들과 졸업유예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향후 2020년부터 통합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졸업예정자와 유예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청년 능력개발사업은 대부분 재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의 경우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유예자가 제외됨.

● 지자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정책사업이 최대 10배에 이를 정도로 큰 편차를 보여주었음. 정책 영역별로는 주로 일자리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청년들의 활동이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족하였음. 기존에 졸업예정자와 유예자를 지원해 오던 지자체 청년 수당 관련 사업들이 중앙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졸업, 중퇴 후 2년 초과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원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15세부터 18세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마지막으로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달체계는 일자리중심인데다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대상만 달리하거나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향후 이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5.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안)

● 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정책 방향은 조사 분석 및 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① 대상 중심 접근, ② 예방적 접근, ③ 통합적 접근, ④ 연계 협력 접근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음.



- 먼저 첫 번째 정책방향은 대상 중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기존의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사업들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향후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정책의 방향은 당사자들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두 번째 정책방향은 예방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사업들은 주로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 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후적 접근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향후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청년들을 지원해 사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세 번째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통합적 접근은 정부정책이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처간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책 방향을 의미함.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정책은 기능중심이 아닌 대상중심 정책으로 삶과 일에 관한 다양한 기능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연계·협력 접근임.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능통합과 함께 이미 구축되거나 설치된 조직, 기관이나 시설들이 함께 협력해 학교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청년들을 돕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광역,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학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안)은 모두 10가지이며, 각 정책과제(안)별 세부정책과제는 총 28개를 제안함.

● 교육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제안한 정책과제는 5개이며, 중등교육단계에서는 3과제를, 고등교육단계에서는 2과제를 제시하였음.

핵심 정책대상	과제명	영역	우선순위	담당부처
전체 학교졸업 예정자	학교-기업 취업 연계 체계화	일자리	1	교육부 고용노동부
	공정 채용 및 채용정보 공개 활성화	일자리	3	고용노동부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지원대상 확대	전 영역	6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졸업 후 경제적 자립 여건 조성	주거 및 생활안정	2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재학생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참여 및 활동	9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중등 교육 학교졸업 예정자	진로교육 및 진로변경 지원 체계화	능력개발	8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편	능력개발	4	교육부
	일반계고 직업과정 실효성 제고	능력개발	7	교육부
고등 교육 학교졸업 예정자	대학 현장실습 및 인턴십 내실화	능력개발	5	교육부
	대학원 학생 중심 R&D 지원 확대	능력개발	10	교육부

- 학교-기업 취업 연계체계화 과제는 1-1 취업지원관 및 마이스터고 확대로 중등교육 취업기능 강화, 1-2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내 센터 취업지원팀 전환, 1-3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 학교-기업 연계 점검반 운영, 1-4. 취업연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통합추진체계 추진 등임.

- 공정 채용 및 채용정보 공개 활성화 과제는 2-1 학교졸업예정자 등 청년 대상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2-2 우수 인증기업 채용정보 공개 의무 법제화, 2-3 우수 중소기업 종합 관리기관 설치 고려, 2-4 채용 과정 연령차별 제한 등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등임.

-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지원대상 확대 과제는 3-1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지원대상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포함 추진, 3-2 청년 내일채움공제 15세에서 18세 미만 지원 대상 확대, 3-3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사업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포함 검토 등임.

- 졸업 후 경제적 자립여건 조성 과제는 4-1 어린 시기부터 5년 이상 장기형 자산형성 지원제도 마련, 4-2 재학생 포함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확대, 4-3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및 저신용 대학생 생활자금 대출 확대 등임.

- 재학생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과제는 5-1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관련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5-2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참여기구 구성 등임.

- 진로교육 및 진로변경 지원 체계화 과제는 6-1 수업시수 감축과 고1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활성화, 6-2 중등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활동 활성화, 6-3 진로변경 기회와 정보제공 강화 등 지원시스템 강화 등임.

-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편은 7-1 초중등교육법 수업 정의 현장실습 수업 포함 추진, 7-2 고교 현장실습을 협약학과 형태로 단계적 전환 추진, 7-3 도제학교 양질의 교육훈련을 통한 수업 형태로 추진 등임.

- 일반계고 직업과정 실효성 제고 과제는 8-1 취업지원센터 일반고 미진학자 전담 취업지원관 배치, 8-2 융·복합교육 중심의 종합고등학교 체계 구축 등임.
- 대학 현장실습 및 인턴십 내실화 과제는 9-1 대학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재편 및 확대, 9-2 한국형 에라스무스+(Erasmus+) 추진 등임.
- 마지막으로 대학원 학생 중심 R&D 지원 확대 과제는 10-1 대학원생 연구비 직접 지원 사업 확대, 10-2 대학원생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 등임.
- 이 연구에서는 세부 정책과제별로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1~2023) 및 3단계(2024~)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각 세부 정책과제별로 신규/기존 여부와 법률 제·개정 여부, 마지막으로 과제 추진 예산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음.

차 례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연구보고 19-R1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추진체계 ····· 6
3. 연구내용 ····· 10
4. 연구방법 ····· 12

Ⅱ. 연구배경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 ····· 21
2. 청년정책 영역 논의 ····· 25
3. 학교 졸업예정자 논의 ····· 32

Ⅲ. 학교 졸업예정자의 생활실태와 특징

1.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방법, 조사문항 ····· 43
2. 실태조사 결과 ····· 55
3. 요약 및 시사점 ····· 94

Ⅳ.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과 이행경로

1.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 변화추이 (1970-2017) ····· 99
2.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이행경로 ····· 170
3. 요약 및 시사점 ····· 179

Ⅴ.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 :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목소리

1. 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 개요 ····· 185
2. 학교 졸업예정자 심층면접의 주요 과정 및 방법 ····· 188
3.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 ····· 193
4. 요약 및 시사점 ····· 257

Ⅵ. 우리나라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정책 실태와 문제점

1.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 263
2.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270
3.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287
4. 요약 및 시사점 ····· 298

Ⅶ. 정책제언

1.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과정 ····· 303
2.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방향 ····· 321
3.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과제 ····· 323
4.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과제 추진 로드맵(안) ····· 348

참고문헌 ····· 351

부 록 ····· 359

1. 2018년 청년 니트 관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설문 내용 수정 사항 ····· 361
2. 졸업 후 상황 분석 결과 ····· 370
3.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중·고등학생용) ····· 402
4.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청년용) ····· 420

표 목차

표 Ⅰ-1 설문조사 개요 ····· 13
표 Ⅰ-2 전문가 자문 ····· 14
표 Ⅰ-3 초점집단면접 주요 내용 ····· 15
표 Ⅰ-4 심층면접 주요 내용 ····· 15
표 Ⅰ-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내용 ····· 17
표 Ⅰ-6 청년정책포럼 추진 내용 ····· 18
표 Ⅱ-1 주요국 및 OECD 청년 핵심정책 대상 ····· 23
표 Ⅱ-2 해외 법률 및 기본계획 정책 영역 비교 ····· 26
표 Ⅱ-3 아동 및 청소년 기본계획 정책 영역 비교 ····· 27
표 Ⅱ-4 청년기본법안 주요 내용 비교 ····· 29
표 Ⅱ-5 청년기본조례 정책분야 17개 광역시·도 비교 ····· 29
표 Ⅱ-6 청년정책 영역(안) ····· 31
표 Ⅲ-1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문항 비교 ····· 45
표 Ⅲ-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선별을 위한 신설문항 ····· 46
표 Ⅲ-3 진로와 직업 프로그램 문항 비교 ····· 47
표 Ⅲ-4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계열/전공 추가 문항 ····· 48
표 Ⅲ-5 대학 졸업(예정)자 선별을 위한 변경 및 신설문항 ····· 50
표 Ⅲ-6 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 관련 신설문항 ····· 51
표 Ⅲ-7 전체 응답자 취업준비 신설문항 ····· 52
표 Ⅲ-8 전체 응답자 취업준비 지원 신설문항 ····· 53
표 Ⅲ-9 전체 응답자 취업준비 비용 및 시간 관련 신설문항 ····· 54
표 Ⅲ-10 전체 응답자 청년 고용 정책(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삭제 및 신설문항 ····· 55
표 Ⅲ-1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예비조사 학교 졸업예정자 개요(N=50) ····· 56
표 Ⅲ-12 고교 재학 시 계열 및 전공 변경 여부 ····· 59
표 Ⅲ-13 고교 재학 시 진로, 직업, 취업 상담 여부 및 도움 정도 ··· 61

표 Ⅲ-14 고교 재학 시 진로와 직업 수업 여부 및 도움 정도 ····· 63
표 Ⅲ-15 고교 재학 시 진로, 직업체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64
표 Ⅲ-16 고교 재학 시 학과, 전공체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66
표 Ⅲ-17 고교 재학 시 특강, 설명회, 박람회 여부 및 도움 정도 ····· 67
표 Ⅲ-18 고교 재학 시 취업처 연계 제공 여부 및 도움 정도 ····· 69
표 Ⅲ-19 고교 교육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도 ····· 70
표 Ⅲ-20 고교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 71
표 Ⅲ-21 고교 전공의 적합 정도 ····· 72
표 Ⅲ-22 대학 미진학 이유 ····· 74
표 Ⅲ-23 대학 교육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도 ····· 76
표 Ⅲ-24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 78
표 Ⅲ-25 대학 전공의 적합 정도 ····· 79
표 Ⅲ-26 학원 통학 및 온라인 교육훈련, 연수 경험 ····· 83
표 Ⅲ-27 취업준비 중 면접, 자소서, 컨설팅 및 현장실습 경험 ····· 84
표 Ⅲ-28 취업을 위한 자격증, 인턴, 봉사활동, 동아리
및 스터디 활동 경험 ····· 85
표 Ⅳ-1 군집별 학업 및 노동시장 성과 ····· 175
표 Ⅳ-2 노동시장 이행 군집화에 미치는 영향 ····· 176
표 Ⅳ-3 군집별 학업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177
표 Ⅴ-1 학교 졸업예정자 심층면접 개요 ····· 187
표 Ⅴ-2 심층면접 주요 질문 ····· 189
표 Ⅴ-3 학교 졸업예정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 190
표 Ⅴ-4 학교 졸업예정자 심층면접조사(IDI) 참여자 ····· 191
표 Ⅵ-1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관련 법률 현황 ····· 264
표 Ⅵ-2 일본의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265
표 Ⅵ-3 청년기본법안 학교졸업예정자 관련 주요 내용 ····· 269
표 Ⅵ-4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사업 현황
····· 272
표 Ⅵ-5 청년일자리대책(3.15대책)에서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사업 현황 ····· 274
표 Ⅵ-6 청년고용촉진방안에서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사업 현황 ····· 275
표 Ⅵ-7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에서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사업 현황 ····· 276
표 Ⅵ-8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주요 내용
····· 278

표 Ⅵ-9 중앙부처 청년정책 정책사업(재학생 및 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부처별 추진 현황 ····· 281
표 Ⅵ-10 중앙부처 청년정책 정책사업(재학생 및 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정책영역별 추진 현황 ····· 282
표 Ⅵ-11 중앙부처 청년정책 정책사업(재학생 및 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대상별 추진 현황 ····· 283
표 Ⅵ-12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사업 재학생(예정, 유예자 포함) 지원대상 포함 여부 ····· 284
표 Ⅵ-13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사업 개편 내용 ····· 285
표 Ⅵ-14 중앙부처 청년 능력개발사업 재학생(예정, 유예자 포함) 지원대상 포함 여부 ····· 285
표 Ⅵ-15 중앙부처 주거 및 생활안정사업 재학생(예정, 유예자 포함) 지원대상 포함 여부 ····· 287
표 Ⅵ-16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사업(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시도별 추진 현황 ····· 288
표 Ⅵ-17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사업(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정책영역별 추진 현황 ····· 289
표 Ⅵ-18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사업(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대상별 추진 현황 ····· 290
표 Ⅵ-19 광역지자체 청년 직접금전지원 관련 사업 재학생(예정, 유예 포함) 지원 대상 포함 여부 ····· 291
표 Ⅵ-20 광역지자체 대표적인 능력개발 및 청년 참여, 활동 사업 재학생(예정, 유예 포함) 지원 대상 포함 여부 ····· 293
표 Ⅵ-21 광역지자체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재학생(예정, 유예 포함) 지원 대상 포함 여부 ····· 294
표 Ⅵ-22 광역지자체 청년 주거 관련 사업 재학생(예정, 유예 포함) 지원 대상 포함 여부 ····· 295
표 Ⅶ-1 청년기본법안 제19조 수정(안) ····· 327
표 Ⅶ-2 공정채용법 개정 사항(안) ····· 331
표 Ⅶ-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개정 사항 ····· 333
표 Ⅶ-4 청년기본법안 제15조 수정(안) ····· 338
표 Ⅶ-5 초중등교육법 제24조 개정 사항 ····· 342
표 Ⅶ-6 학교졸업예정자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안) ····· 349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 7
그림 Ⅰ-2. 연구추진체계 ····· 8
그림 Ⅰ-3. 연구진행절차 ····· 9
그림 Ⅰ-4. NYPI 청년정책포럼 진행 장면 ····· 18
그림 Ⅱ-1. 일본의 청년 고용정책 대상별 전달체계 현황 ····· 22
그림 Ⅱ-2. 청년정책 영역(안) ····· 30
그림 Ⅱ-3. 우리나라의 학제 현황에 따른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 ····· 33
그림 Ⅱ-4.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추이(1980-2018) ····· 34
그림 Ⅱ-5.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2017) ····· 35
그림 Ⅱ-6. 고등교육 학제별 취업률 ····· 37
그림 Ⅱ-7. 고등교육 학제별 유지취업률 ····· 38
그림 Ⅱ-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취업 준비기간(학부/대학원) ····· 39
그림 Ⅲ-1. 대학 미진학 사유 ····· 73
그림 Ⅲ-2. 복수 전공 여부와 복수 전공계열 ····· 74
그림 Ⅲ-3. 졸업 유예 여부와 졸업을 유예한 이유 ····· 75
그림 Ⅲ-4. 취업준비 여부와 취업 준비 기간(개월) ····· 80
그림 Ⅲ-5. 대학 전공계열별 취업 준비 기간(개월) ····· 81
그림 Ⅲ-6. 공시, 고시, 국가 자격시험 준비 비율 ····· 82
그림 Ⅲ-7. 전체 및 대상별 취업준비 비용(만원) ····· 86
그림 Ⅲ-8. 대상별 취업준비 도움 여부와 정도(%) ····· 86
그림 Ⅲ-9. 청년들이 생각하는 노동공급(개인, 교육) 차원
일자리 해법(%) ····· 87
그림 Ⅲ-10. 재학생 및 취업자, 미취업자(학생 제외) 부모 동거 여부 ·· 88
그림 Ⅲ-11. 미혼 1인 가구 비율 ····· 89
그림 Ⅲ-12. 주거에 대한 청년 재학생 등의 인식 ····· 90
그림 Ⅲ-13. 청년 재학생 등의 생활비(만원) 및 부모지원 비율(%) ··· 90
그림 Ⅲ-14. 청년 재학생 등의 부채 여부(%) ····· 91

그림 Ⅲ-15. 고교 재학 시 청년 재학생 등의 참여활동 여부(%) ····· 92
그림 Ⅲ-16. 청년 재학생 등의 청년 참여기구 및 스터디 참여활동 여부(%) ····· 92
그림 Ⅲ-17. 청년 졸업예정자에 대한 기성세대 배려 및 정부, 지자체 지원(%) ····· 93
그림 Ⅳ-1. 일반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 101
그림 Ⅳ-2. 일반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 102
그림 Ⅳ-3. 일반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 103
그림 Ⅳ-4.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 104
그림 Ⅳ-5.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 105
그림 Ⅳ-6.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 106
그림 Ⅳ-7.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 107
그림 Ⅳ-8.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 108
그림 Ⅳ-9.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 109
그림 Ⅳ-10.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 110
그림 Ⅳ-11.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 111
그림 Ⅳ-12.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 112
그림 Ⅳ-13.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 113
그림 Ⅳ-14.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 114
그림 Ⅳ-15.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 115
그림 Ⅳ-16.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전 지역 ····· 116
그림 Ⅳ-17.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수도권 ·· 117
그림 Ⅳ-18.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서(충청)권 ····· 118
그림 Ⅳ-19.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강원권 ·· 119
그림 Ⅳ-20.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남(제주)권 ····· 120
그림 Ⅳ-21.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영남권 ·· 121
그림 Ⅳ-22.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전 지역 ····· 122
그림 Ⅳ-23.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수도권 ·· 123
그림 Ⅳ-24.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서(충청)권 ····· 124
그림 Ⅳ-25.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강원권 ·· 125

그림 Ⅳ-26.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서(제주)권 ····· 126
그림 Ⅳ-27.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영남권 ·· 127
그림 Ⅳ-28.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 128
그림 Ⅳ-29.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 129
그림 Ⅳ-30.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충청)권 ····· 130
그림 Ⅳ-31.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 131
그림 Ⅳ-32.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 132
그림 Ⅳ-33.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 133
그림 Ⅳ-34.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 134
그림 Ⅳ-35.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 135
그림 Ⅳ-36.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충청)권 ····· 136
그림 Ⅳ-37.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 137
그림 Ⅳ-38.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 138
그림 Ⅳ-39.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 139
그림 Ⅳ-40.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 140
그림 Ⅳ-41.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 141
그림 Ⅳ-42.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충청)권 ·· 142
그림 Ⅳ-43.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 143
그림 Ⅳ-44.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 144
그림 Ⅳ-45.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 145
그림 Ⅳ-46.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인문계열 ····· 146
그림 Ⅳ-47.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사회계열 ····· 147

그림 Ⅳ-48.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교육계열 ····· 148
그림 Ⅳ-49.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공학계열 ····· 149
그림 Ⅳ-50.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자연계열 ····· 150
그림 Ⅳ-51.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의약계열 ····· 151
그림 Ⅳ-52.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예체능계열 ···· 152
그림 Ⅳ-53.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인문계열 ··· 153
그림 Ⅳ-54.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사회계열 ··· 154
그림 Ⅳ-55.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교육계열 ··· 155
그림 Ⅳ-56.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공학계열 ··· 156
그림 Ⅳ-57.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자연계열 ··· 157
그림 Ⅳ-58.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의약계열 ··· 158
그림 Ⅳ-59.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예체능계열 ····· 159
그림 Ⅳ-60.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인문계열 ···· 160
그림 Ⅳ-61.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사회계열 ···· 161
그림 Ⅳ-62.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교육계열 ···· 162
그림 Ⅳ-63.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공학계열 ···· 163
그림 Ⅳ-64.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자연계열 ···· 164
그림 Ⅳ-65.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의약계열 ···· 165
그림 Ⅳ-66.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예체능계열 ····· 166
그림 Ⅳ-67. 졸업 후 취업률 상황(1999-2018) ····· 168
그림 Ⅳ-68. 졸업 후 진학률 상황(1999-2018) ····· 169
그림 Ⅳ-69. 졸업 후 미상률 상황(1999-2018) ····· 169
그림 Ⅳ-70. 중학교 3학년 이후 10년의 이행 ····· 171
그림 Ⅳ-71. 실업고 3학년 이후 10년의 이행 ····· 173
그림 Ⅳ-72. 일반고 3학년 이후 10년의 이행 ····· 174
그림 Ⅳ-73. 실업고 3학년 이후 10년의 이행: 졸업 직후 무직 경험자 ····· 178
그림 Ⅴ-1. 심층면접 질문의 주요 흐름 ····· 188
그림 Ⅴ-2. 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 : 진로결정에서부터 취업까지의 핵심정책대상별 경로 ····· 193
그림 Ⅴ-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주요 단어 도식 (word cloud) ····· 195
그림 Ⅴ-4. 대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주요 단어 도식(word cloud) ·· 210

그림 Ⅴ-5. 대학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주요 단어 도식(word cloud) ····· 225
그림 Ⅴ-6.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바라는 사회적 변화: 주요 단어(word cloud) ····· 244
그림 Ⅴ-7. 심층면접 질문의 주요 흐름 ····· 257
그림 Ⅵ-1.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자 수 추이(개, 명) ····· 267
그림 Ⅵ-2.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비전, 목표와 주요과제 ····· 271
그림 Ⅵ-3.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의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 277
그림 Ⅵ-4.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 279
그림 Ⅵ-5.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교/기관 수 변화 추이 ····· 286
그림 Ⅵ-6. 학교졸업예정자 포함 청년지원 전달체계 현황(2018) ···· 297
그림 Ⅶ-1. 학교졸업예정자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과정 ····· 303
그림 Ⅶ-2. 조사 분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305
그림 Ⅶ-3. 고교 재학 시 진로 및 취업지원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 306
그림 Ⅶ-4. 60세 이상 자녀 동거 이유 응답 결과(%) ····· 308
그림 Ⅶ-5. 거처유형별 가구수 구성비(%) ····· 308
그림 Ⅶ-6. 고시원/고시텔 거주자의 주거 복지 수혜 여부와 분야(%) ····· 309
그림 Ⅶ-7.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졸업 후 미상률 추이(%) ····· 310
그림 Ⅶ-8.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률 추이(%) ····· 311
그림 Ⅶ-9. 전문대, 4년제대, 대학원 졸업 후 미상률 추이(%) ····· 312
그림 Ⅶ-10. 전문대, 4년제대, 대학원 졸업(진학률 포함) 후 취업률 추이(%) ····· 312
그림 Ⅶ-11. 4년제대 전공별 졸업 후 취업률 추이(%) ····· 313
그림 Ⅶ-12. 대학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스펙” 관련 주요 단어 ··· 317
그림 Ⅶ-13. 정책 분석 주요 내용 및 개선점 ····· 319
그림 Ⅶ-14.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정책 방향 ····· 322
그림 Ⅶ-15. 핵심정책 대상별 정책제언(안) ····· 32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1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은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되고 청년실업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청년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과 정부위원회가 구성된 지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2019년 들어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청년들의 고용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청년 문제는 고용만이 아니라 주거비 및 학자금 부담, 부채 확대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상황은 좋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청년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줄어들고 있다. 청년 시기에 필요한 건강한 사회 활동인 봉사활동, 청년단체 활동, 사회적 기부활동 등도 감소하고 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 건강만이 아니라 척추나 소화기관 등 신체건강도 나빠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국제적 쟁점으로 확대되었다. 국제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청년들 중에서 핵심정책 대상을 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1) 이 장은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김기헌, 이윤주, 유설희, 2017).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가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청년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는 청년집중지원프로그램을 수행 중인 통합고용센터(Pôle Empoi) 외에 청년 니트를 지원하는 청년보장제(Garantie Jeunes) 지원기관인 미시옹 로컬(Mission Locale)을 별도로 450개의 지역사회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김기헌, 2018a). 청년보장제를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기 전에 이미 실시하고 있던 북유럽 국가들 중 핀란드는 청년들의 사회적인 배제(social exclusion)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은 물론 청년들의 학습과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원스톱 가이던스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일본 정부는 니트 문제를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식통계를 2004년부터 노동경제백서에서 공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이하 서포스테)을 통해 커리어 상담원이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 중이다. 서포스테는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173개소에 이르며 2016년 1년 동안 서포스테를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14,157명에 이르고 있다. 니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정책 대상인 은둔형 외톨이(ひきこもり)를 지원하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2018년 4월 현재 67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미국은 청년 니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청년들을 의미하는 단절 청년(disconnected youth)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혜, 2018). 단절 청년은 16세에서 24세로 1년 이상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 대상을 구체화하는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정책연구 수준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정책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청년 니트의 경우 2006년부터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책대상인 청년 니트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으며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유일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지원대상이 100명에 미치지 못할 만큼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김기헌, 배상률, 성재민, 2018). 통계청에서 공식통계를 새롭게 제시한 경우는 2014년 고용보조지표가 유일한데 이 지표는 청년만을 특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령에 대한 확장실업률과 실망 실업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연속과제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여러 선진국들에서 핵심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고 있는 청년 니트(NEET)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연도 연구에서는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과 고등교육(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을 앞둔 학교 졸업예정자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교 졸업예정자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예방적인 접근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업자나 니트가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파급효과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정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독일은 이러한 예방적인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김기헌, 2018a). 스위스와 더불어 독일 정부는 일찍부터 직업교육을 시작해 취업을 연계하는 이원화제도(dual system)를 통해 중등교육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연방고용청의 지역사무소 직원들을 165개 대학에 파견해 취업을 위한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지원팀(hochschulteam)을 운영해 졸업 전에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역시 졸업 전에 학교추천제를 통해 기업에 취업하는 취직내정률 통계를 내는 국가로 예방적인 접근의 대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연구 대상 선정과 관련 고등교육에서 대학원 박사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정책적인 접근에 있어서 이질성이 너무 크고 연령대가 청년기를 지난 시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대학 재학생과 대학원 석사 재학생 역시 이행기에 있어 이질성이 존재하나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큰 차이가 없어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졸업예정자에 관한 정책적인 제안에 있어서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기보다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년들 중에서 1차 연도 청년 니트에 이어 학교 졸업예정자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핵심정책대상인 학교 졸업예정자의 특성을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상에 대한 정책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이행 경로와 관련하여 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추진체계

청년핵심정책 대상에 대한 연구는 2018년 청년 니트를 시작으로 2019년 학교 졸업예정자를 거쳐 2020년 청년 이직자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연도 연구가 청년 핵심정책 집단 중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주요 집단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의 시급성이 가장 큰 미취업자로 청년 니트(NEET)에 주목하였다. 2차 연도 연구는 예방적 접근으로 졸업 전에 이행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마지막 3차 연도 연구는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짧은 근속 후에 이직을 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청년 이직자, 혹은 퇴사자와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 취업자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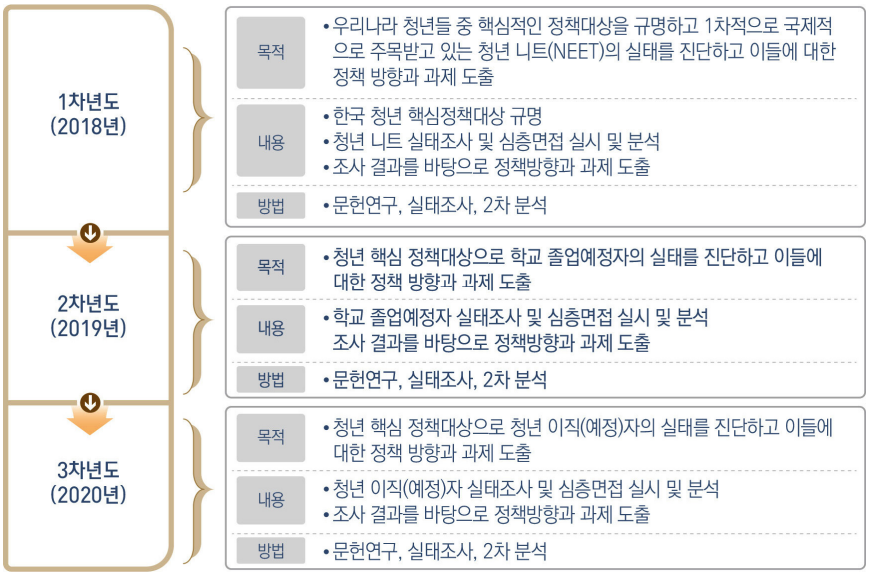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올해는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동연구로 추진하였다. 본원 연구진은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협동연구기관인 학교교육개발원에서는 공동연구원으로 협동연구에 참여하며 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실태분석을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또 다른 협동연구기관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시 공동연구원 형태로 참여하며 교육고용패널조사 등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설계단계에서 출발하여 조사단계를 거쳐 정책을 도출하는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연구 절차를 진행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이번 연구의 연구 방향을 정하고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등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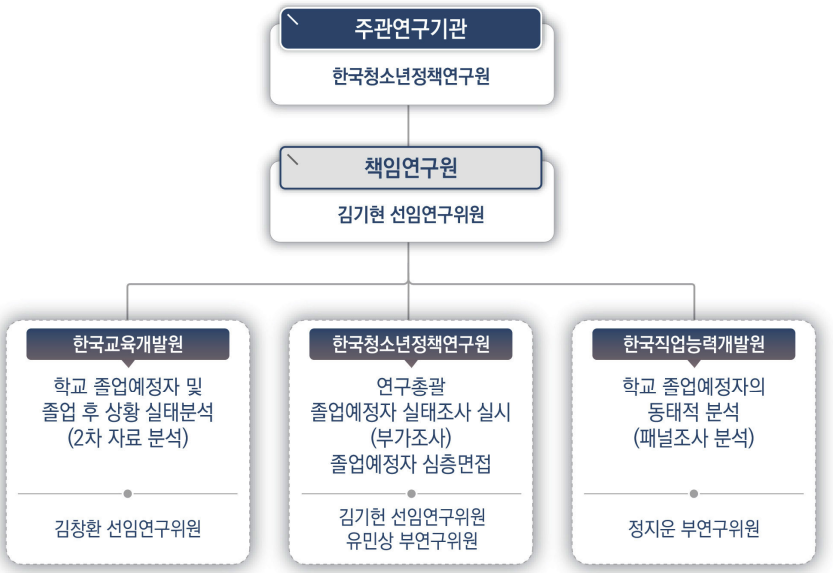


그림 Ⅰ-2. 연구추진체계

조사단계에서는 설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실제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실태조사, 면접조사, 해외사례, 2차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태조사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부가조사 형태로 학교졸업예정자와 관련된 문항을 추가해 이들에 대한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를 표본틀로 활용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청년 연령은 15세에서 39세로 다루었는데 이는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향후 시계열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포괄적으로 청년 연령을 정의한 것이다. 동시에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학교 졸업예정자 청년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과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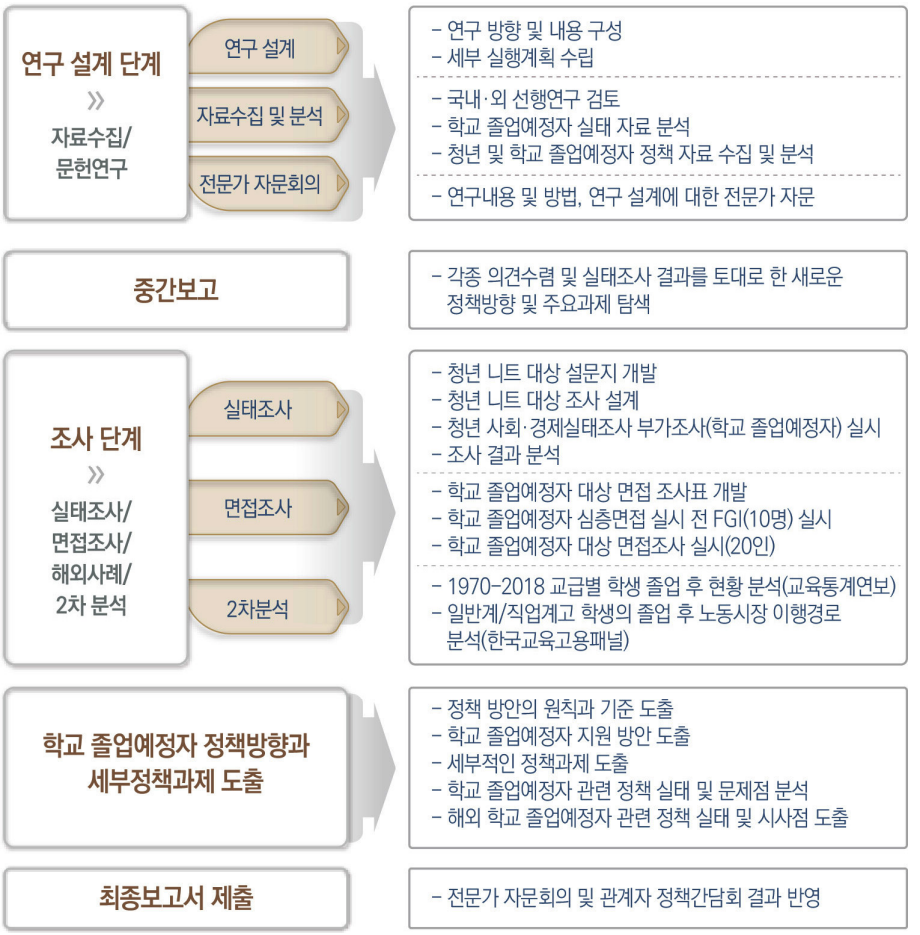


그림 Ⅰ-3. 연구진행절차

정책도출단계에서는 국내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선형 학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과 복선형 학제를 갖고 있는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과 핀란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3. 연구내용

1) 학교 졸업예정자 맞춤형 대책과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분석을 통해 정책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특성 및 실태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국내·외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school-to-work transition)'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졸업예정자 지원정책을 생애 경력 개발 경로에 따라 분석하였다. 해외사례 검토는 각 국가에서 진행하는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프로그램 상황 등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정책 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실태 및 특성 분석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졸업예정자로서, 여기서 고등학교는 다시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교는 2-3년제 전문대와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이지만 졸업 이후 교육, 훈련, 취업 등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청년 니트로 진입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현황 및 인식을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파악하여 이들의 진학과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적 방법의 조사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높은 고교진학 및 대학진학의 특성상 적절한 수의 대상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학교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유용한 데이터로서 활용될 것이다.

질적 방법의 조사는 초점집단면접(FGI)과 심층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청년

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고교, 대학, 대학원 예정자들을 면담하여 이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예상, 정부와 사회에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게 된 동기, 진로결정의 영향요인, 진로결정에 대한 주변의 반영 등 개인의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특성은 매우 이질적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 학교 졸업 후 상황 분석과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분석

이 연구는 학교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졸업 이후의 다양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 훈련, 취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일자리에서 학습으로'의 이행 등 다양한 이행경로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 추진방안과 과제 도출

학교 졸업예정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니트로 진입하지 않은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청년 니트 예방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예방적 정책은 학교 졸업예정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된 문헌연구, 국·내외 정책분석, 2차자료 분석,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 추진

방안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이 연구 성과가 우리사회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개년도 연속과제 중 2차 연구인 올해의 연구는, 1차 연구에서 도출된 청년 니트와 관련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청년 니트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청년기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정책설계를 하는데 이론적,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는 핵심정책 대상별 정책과 고교, 대학 졸업예정자의 일과 삶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실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검토한 문헌들은 졸업예정자들의 실태와 현황 및 관련 이론에 관한 문헌들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풍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외사례를 별권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해외사례는 국가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영미권, 유럽권(대륙유럽, 북유럽), 아시아권 국가의 사례를 취합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한 국가들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5개 국가이며 해외사례 분석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2) 양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졸업예정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통계청 승인통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구주택총조사(2015)를 표본틀로 3,500명을 조사할 것이다.

표 Ⅰ-1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17개 시도의 15세~39세 청년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표본수	3,500명 내외	
표집방법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	
조사시기	6월~8월(기준일은 6월 1일)	

3)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은 반복횡단조사 분석을 통한 추이 분석, 패널자료를 활용한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 경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반복횡단조사를 통한 추이 분석은 협동연구기관인 학교교육개발원에서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상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패널자료분석은 협동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해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전문가 자문

이 연구에서는 청년과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할 것이다. 청년과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하여 연구경험이 있는 학계 연구진과 사업주관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Ⅰ-2 전문가 자문

일시	자문영역	자문진
4.2	연구방향 및 실태 및 면접조사 자문	• 신인철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 • 문유진 대표(청년복지국가네트워크) • 변금선 선임연구원(노인인력개발원)
4.3	연구방향 및 실태 및 면접조사 자문	• 이승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준 선임연구위원(직업능력개발원) • 김문길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 김유빈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조성호 부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8.20	국내 청년정책 분류 및 정책방향 자문	• 이인용 과장(국무조정실) • 신부섭 사무관(국무조정실) • 김문길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10.8 10.18	해외 청년정책 사례 자문	• 김기수 교수(외국어대) • 배정희 박사(미국 조지아대) • 유진형 부연구위원(직업능력개발원) • 유야마 아쓰시 박사(서울대) • 허재연 박사(영국 브리스톨대)

5)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면접 설계 시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 대상은 상대적으로 면접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별 각각 5명 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1일에 실시하였다.[2)]

2)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201904-HR-고유-009-01). 질적면접에서 성인 연구참여자에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았으며, 미성년 청소년 연구참여자에게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Ⅰ-3 초점집단면접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담참여자 수	10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직업계 고교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된 면접방식 / 집단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집단별 2시간 씩 1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6)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학교 졸업예정자이며 학교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최소 5개 집단(일반계고/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예정자)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각각 4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Ⅰ-4 심층면접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담참여자 수	20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일반계고/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전문대/4년제대 졸업예정자, 대학원 졸업예정자(석사)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면접방식 / 개별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1인당 2시간 내외, 1회 면담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 질적자료의 분석은 질적자료 조사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질적연구 분석을 시행하였고, 도식화(visualization) 기능을 활용하여 주요어 빈도분석 도식(word cloud)과 주요어에 대한 맥락 분석(word tree)을 시행하여 보고서에 추가하였다. 모든 면접과 자료의 분석은 연구진이 담당하였다.

7) 기타 연구방법

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여성가족부와 1차 년도 연구와 관련하여 '청년 니트 예방을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해 정책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요청으로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당·정·청 회의 전에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년기본법안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연구책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청년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진술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회의에서 청년 채용정보 미스매치 및 공정 채용 관련 정책방안에 대한 제안을 진행하였다.

8월 13일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신설된 청년소통정책관실과 국무조정실에 신설 예정이던 청년정책추진단 관련자들과 함께 청년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Ⅰ-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내용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비고
1차	청년기본법 추진방향 및 청년 니트 지원정책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1월 18일	
2차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대상별 청년지원정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3월 05일	
3차	청년기본법 제정 공청회 진술인 참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3월 29일	
4차	청년 취약계층 정책방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4월 10일	
5차	청년 채용 정보제공 미스매치 대응방안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4월 16일	
6차	청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실 · 국무조정실	8월 13일	
7차	고졸(예정)자 취업지원 방안 1차 논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9월 10일	
8차	청년 고용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방향 논의	고용노동부	10월 10일	
9차	고졸(예정)자 취업지원 방안 2차 논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11월 5일	

10월 10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포럼에 참석하여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책임자가 포럼에 참여하여 청년 고용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원 대상 연령에서 15세~18세 미만 및 예정자와 유예자를 포함한 재학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청년TF에서는 하반기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본원 과제 중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는 고졸(예정)자의 취업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를 9월 10일에 이어 11월 5일에 진행하였다.

표 Ⅰ-6 청년정책포럼 추진 내용

차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비 고
1회	NYPI 청년정책포럼 청년 니트(NEET) 현황과 정책방안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총 50명	12월 5일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 확산과 관련하여 1차 연도에서 연구한 청년 니트(NEET)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년정책포럼은 정부부처,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2019년 12월 5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ypi.re.kr/).

그림 Ⅰ-4. NYPI 청년정책포럼 진행 장면

주제 발표는 연구책임자인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좌장은 공동연구원인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연구본부장과 강영배 대구한의대 교수, 변금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연구 성과 발표회는 연구 결과를 확산하고 정책 반영도를 높이는데 활용하였다.

제2장 연구배경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
2. 청년정책 영역 논의
3. 학교 졸업예정자 논의

2 연구배경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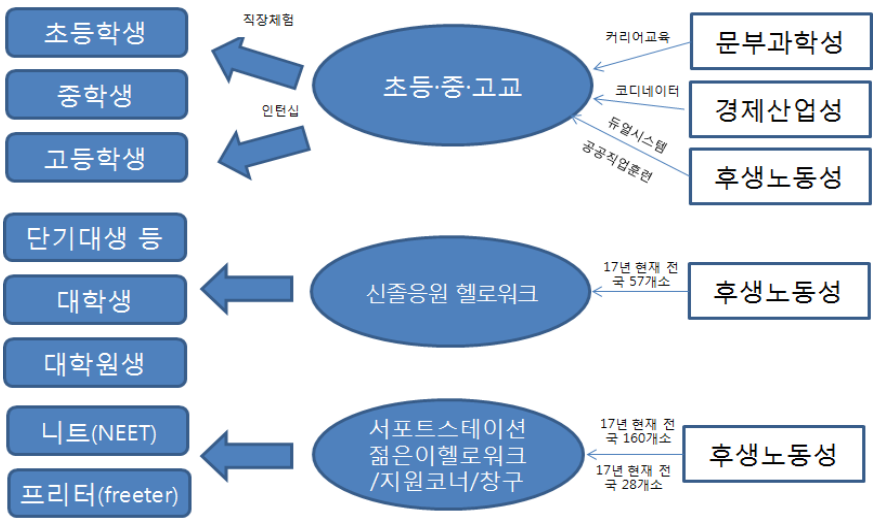
청년 핵심정책 대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국이다. 영국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부위원회로 사회배제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가 1999년 구성되었다. 사회배제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정책 대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갖지 않고 배회하는 10대 청소년들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일도, 학업도, 훈련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니트(NEET)로 불리었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청년 니트는 사회배제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4)]의 명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영국에서 학술적으로 다루어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10대들을 지칭하는 개념(Status Zero)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Rees, Williamson & Istance, 1996).

일본은 핵심정책 대상별로 규모를 추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에서 시작한 청년 니트에 관한 논의를 정책 사업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청년 니트 이전에 일본 정부가 주목한 청년 정책 대상은 프리터(フリーター)였다(김기헌, 2004). 프리터는 자유를 의미한 프리(free)와 시간제 노동을 의미하

3) 이 절은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4)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Social Exclusion Unit.

는 아르바이트(arbeit)를 합성한 일본식 조어로 노동성(현 후생노동성)에서 발간하는 노동백서에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 2000년이었다(労働省, 2000). 여기에서 프리터는 15세에서 34세로 취업자 중 5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가사를 주로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 자료: 内閣府(2018).「平成30年版 子ども・若者白書」.
* 출처: 김기헌(2018a:5). [그림 3]에서 재인용(p. 5)

그림 Ⅱ-1. 일본의 청년 고용정책 대상별 전달체계 현황

청년 프리터에 관한 정책은 정사원(せいしゃいん, 정규직에 대한 일본식 표현)이 되지 않고 프리터로 생활하는 청년들을 줄이기 위해 정사원으로 안내하는 젊은이 헬로우워크(若者向けハローワーク, 헬로우워크는 공공직업안정소를 의미함)를 전국 2017년 현재 28개소에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김기헌, 2018a). 젊은이 헬로우워크에서는 정사원 전환 시에 고용을 장려하는 트라이얼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까지 약 31만 여명을 정사원으로 취업시켰으며 2016년 한해

에 약 2만 5천여 명이 트라이얼 고용 장려금으로 훈련을 수료하고 73%가 정사원으로 취업하였다.

청년 니트는 프리터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며 2004년부터 일본 정부가 새롭게 주목한 청년 핵심정책이다. 이는 영국의 청년 니트에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으며 주로 10대에 주목한 영국과는 달리 30대 초반까지를 포괄해 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서포스테를 통해 청년 니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1 주요국 및 OECD 청년 핵심정책 대상

구분	주요 정책 대상
영국	**청년 니트(NEET)** : 16세에서 18세로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은 젊은이
	지위 제로(Status Zero) : 16세에서 17세로 대학교육을 받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비롯한 직업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젊은이
일본	**청년 니트(ニート, 若年無業者, 無業青少年[법률용어])** : 15세에서 34세로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미혼으로 가사를 주로 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젊은이
	청년 프리터(フリーター) : 15세에서 34세로 취업자 중 5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가사를 주로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청년
	학교졸업예정자(学校卒業見込者[법률용어]) : 학교(유치원과 초등학교 제외)와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학생 또는 생도로 졸업할 예정인자
미국	**단절 청년(disconnected youth)** : 16세에서 24세로 1년 이상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EU	**청년 니트(NEET)** : 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로 교육과 훈련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formal education)에 한함.
OECD	**청년 니트(NEET)** : 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신규진입자(new entrants) : 학교교육은 마쳤으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에 직면한 대학졸업자(job mismatch) : 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대학졸업자

* 출처: Social Exclusion Unit (1999), 厚生勞動省(2004), 內閣府(2018), Rees, Williamson and Instance (1996), Eurofound (2012), OECD (2014), OECD는 김문희 (2015:113)에서 재인용

일본이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큰 문제가 없었던 대학 신규 졸업자들 중 다수가 실업자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신규 대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졸자 응원 헬로우워크(新卒応援ハローワーク)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57개소가 설치되었고 전국의 747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정책 대상인 신규졸업자와 관련하여 큰 변화는 2016년 3월 시행된 청소년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の雇用促進等に関する法律) 개정안이다. 이 법률에서 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채용 모집을 할 경우 모집 및 채용 정보,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에 관한 정보, 직장에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대처에 관한 정보,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청소년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13조). 시행령에 제시한 15개 청소년고용정보 항목 중에서 노동시간 관련 정보(잔업시간, 유급휴가 시간, 직무교육시간, 연수 기간 등)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청소년 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동법에 포함되었다. 이는 일본사회에서 문제가 된 블랙기업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업의 갑질 논란과 유사한 쟁점사항이었다. 이 법률에서 제시한 개념 중 적직(適職)은 구직자인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지식수준에 적합한 직업을 의미하며 처음으로 법률에 청년 니트가 포함되고 이를 지원하는 조항(제23조, 제24조, 제25조)이 포함되었다.

미국에서는 좀 더 장기간에 걸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채창균 외, 2018). 단절청년(disconnected youth)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로 현재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규모를 추정하고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미국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단절 청년은 사회와 단절할 가능성이 높은 재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단절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단절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스 빌드(Youth Build)나 직무기업(Job Corps)과 같은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유스 빌드는 16세에서

24세 단절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공공주택건설 관련 산업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직무 기업은 16세에서 24세 단절 청년들 중에서 소수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년 고용정책 중 하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3가지의 우선 지원 청년 정책 대상을 제시한 바 있다(OECD, 2014). 첫 번째 정책 대상은 청년 니트이며 두 번째 정책 대상은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신규졸업자들이고 마지막 정책 대상은 하향취업(over-education) 등 직무 불일치 상태에 놓여 있는 대학 졸업자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 청년 니트에 이어서 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후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해 보았다. 이어서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졸업예정자의 실태와 관련 정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연구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청년정책 영역 논의[5)]

청년 핵심정책 대상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틀로 청년정책에 대한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자리라는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이루어져 왔지만 해외 주요국들과 유럽연합(EU)에서는 고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함하여 정책 영역을 제시해 왔다. 정책 영역에 관한 논의는 법률에 제시되거나 법률에 기초한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럽연합과 대표적인 청년정책 추진국가인 독일, 일본,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정책 영역에서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는 모든 경우에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통합이나 복지지원을 다루는 정책 영역과 학습, 교육,

5) 이 절은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훈련 등도 모든 경우에 다루어지고 있다. 청년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이며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교육문제와 일자리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표 II-2 해외 법률 및 기본계획 정책 영역 비교

구분	유럽연합	독일	일본	핀란드
취업 및 창업	○	○	○	○
사회통합(복지 지원)	○	○	○	○
참여와 권리	○	○	-	○
학습(교육과 훈련)	○	○	○	○
삶의 질	○	-	○	-
활동	○	○	○	○
국제교류	○	-	-	-
문화 활성화	○	-	-	-
유해환경 보호	-	-	○	-
비행 및 범죄 예방	-	-	○	-
양육 및 보육	-	○	-	-
사회적응	-	○	-	-

* 출처: 김기헌(2018b:140). 청년기본법(안) 검토 및 제정방향.

이어서 참여와 권리는 일본을 제외하고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상 중심 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 노동, 문화, 복지 등 기능 중심 정책과는 달리 당사자주의가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삶의 질, 문화 활성화, 국제교류, 유해환경 보호, 비행 및 범죄 예방 등은 나라별로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별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글로벌화나 교류와 같은 정책 영역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양육 및 보육, 사회적응과 같은 정책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은 유해환경 보호나 비행, 범죄 예방과 같은 보호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3 아동 및 청소년 기본계획 정책 영역 비교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1-1. 아동기 역량강화 1-2. 꿈과 끼를 살라는 교육 실현 1-3. 아동의 참여권 보장 1-4. 놀이·여가 권리보장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1-1 청소년 참여 확대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2. 건강한 삶 2-1. 생활공간 기반 마련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2-2.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
3. 안전한 삶 3-1 생활 안전 3-2 사회 안전 3-3 아동안전 체계 구축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4. 함께하는 삶 4-1.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4-2.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 종합대책 마련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강화 4-2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5.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5-1.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5-2.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5-3.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5-4. 민간과의 협력 강화 5-5.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4).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관계부처합동(201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우리나라는 아직 청년기본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이 있다. 두 법률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정책 영역을 다룰 때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 영역은 유사 연령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14년 처음으로 제1차 계획으로 발표되었으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에 적용될 제6차 기본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정책 영역은 정책 추진체계를 제외하고 ① 미래를 준비하는 삶, ② 건강한 삶, ③ 안전한 삶, ④ 함께하는 삶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한 삶은 아동기에 중요한 정책 영역이나 청년기와 관련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4번째 정책영역인 함께하는 삶 역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어 청년기와 관련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참여와 활동, 문화 영역과 연결되며 건강한 삶은 건강 문제가 최근 청년기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정책영역은 추진체계를 제외하고 3가지로 ①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②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③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참여, 권리증진, 활동은 청년기에도 요구되는 정책 영역이며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분야는 청년기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결국 두 가지 생애전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해 볼 때 참여, 활동 등의 영역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20대 국회에 발의 중인 법률안은 8가지에 이르고 있다. 다른 법률안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 정당이 참여해 구성한 청년 미래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정당 간 수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 법률안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국회 청년 미래특별위원회에서 정당 간 합의로 제출한 이명수 대표발의 법안은 청년정책 영역을 ① 권리, 참여확대, ② 고용확대, ③ 창업지원, ④ 능력개발, ⑤ 복지지원, ⑥ 금융생활, ⑦ 문화활동, ⑧ 국제협력, ⑨ 청년 단체, 시설 등 9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표 II-4 청년기본법안 주요 내용 비교

신보라	박홍근	이원욱	김해영	박주민	강창일	채이배	이명수 (미래특위)
권리·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능력개발, 복지지원, 금융생활, 문화활동, 국제협력, 청년단체·시설	참여확대,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국제협력, 자원봉사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주거안정, 금융지원, 결혼·출산, 복지증진, 청년문화, 국제협력	정책·정치참여, 고용촉진, 능력개발, 창업지원, 국제협력, 자원봉사	참여확대,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부채경감, 청년문화, 권리보호	권리보호,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청년문화, 정치참여, 청년단체	권리보호, 참여확대, 정치참여, 고용촉진, 인적자원개발, 복지증진, 청년단체·시설	권리·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능력개발, 복지지원, 금융생활, 문화활동, 국제협력, 청년단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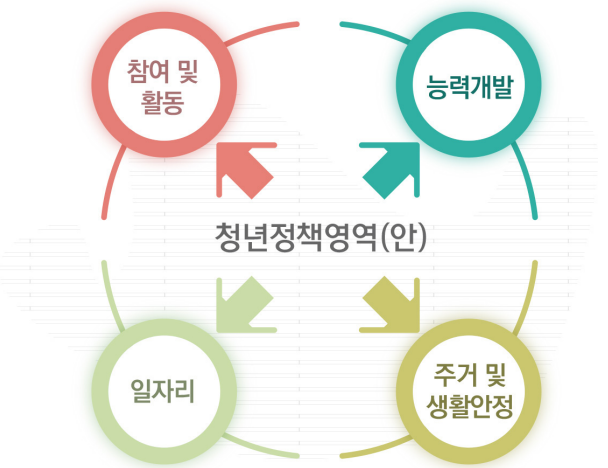
* 출처: 김기헌(2019:6). 〈표 1〉에서 인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 진술인 자료로 해당 위원회 외의 법안을 추가함.

표 II-5 청년기본조례 정책분야 17개 광역시·도 비교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년의 참여 확대	○	○	○	○	○	○	○	○	○	○	○	○	○	○	○	○	○
청년의 능력 등 개발	○	○	○	○	·	○	○	○	○	○	○	○	○	○	○	○	○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	○	○	○	○	○	○	○	○	○	○	○	○	○	○	○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	○	○	·	○	○	○	○	○	○	○	○	·	·	·	·
청년의 생활 안정	○	○	○	○	○	○	○	○	○	○	○	○	○	○	○	○	○
청년 문화 활성화	○	○	○	○	○	○	○	○	○	·	○	○	○	○	○	○	○
청년의 권리 보호	○	○	○	○	○	○	○	○	○	○	○	○	○	○	○	○	○
청년의 창업 지원	·	·	·	○	○	·	·	·	·	○	·	·	○	·	○	·	·
청년의 부채 경감	○	·	○	·	○	·	·	·	·	·	·	·	·	·	·	·	·
청년의 건강권 보장	·	·	·	·	·	○	·	·	·	·	·	·	○	·	·	·	·
청년의 복지 증진	·	·	·	·	·	·	·	·	·	·	·	·	○	·	·	·	·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	·	·	·	·	·	·	·	·	·	·	·	·	○	·	·
청년의 교류 확대	·	·	·	·	·	·	·	·	·	·	·	·	·	·	○	·	○

* 출처: 김도형, 박승규 (2017) 울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수요 분석. Policy Issue Report.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 청년기본조례 결과를 추가함(자치법률정보시스템 elis.go.kr에서 10월 2일 검색).

최종적인 청년정책 영역은 현재 이미 통과되어 운영 중인 17개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의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청년미래특위 법안의 정책 분야는 지자체의 기본조례에서 제시한 정책영역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과 조례의 정책 분야 영역은 매우 유사하나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대다수 광역지자체 조례에 포함된 정책영역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의 생활 안정, 청년의 부채 경감 및 건강권 보장 등으로 국회 법안과 차이를 보여준다.



* 출처: 연구진 자체작성

그림 Ⅱ-2. 청년정책 영역(안)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사례나 국내 법률, 법안, 조례 및 기본계획의 정책 영역을 종합해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영역을 ① 청년 일자리, ② 청년 능력개발, ③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④ 청년 참여 및 활동으로 구분해 보았다. 대분류에서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실시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자리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청년들의 소득이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에 일자리보다 청년들의 소득이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창업 지원은 사회적 경제나 영농, 귀농 지원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6 청년정책 영역(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청년 일자리	1-1. 취업 지원	소득지원/자산형성 제외
	1-2. 창업 지원	
	1-3. 고용 환경 개선	노동조건, 권익보호 등
2. 청년 능력 개발	2-1. 교육, 연수 지원	
	2-2. 훈련, 자격 지원	
3.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3-1. 주거 지원	기숙사 포함
	3-2. 소득·자산형성 지원	
	3-3. 비용·부채 경감	학자금, 장학금 포함
4. 청년 참여 및 활동	4-1. 청년 참여 및 권리	
	4-2. 청년 활동	

* 출처: 연구자 자체작성.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교육 영역에서 다루어지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기숙사의 경우도 교육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틀을 활용하여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정책 영역 분류를 활용해 접근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청년 일자리와 능력개발 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분석 수준은 중분류 단계가 아닌 대분류 단계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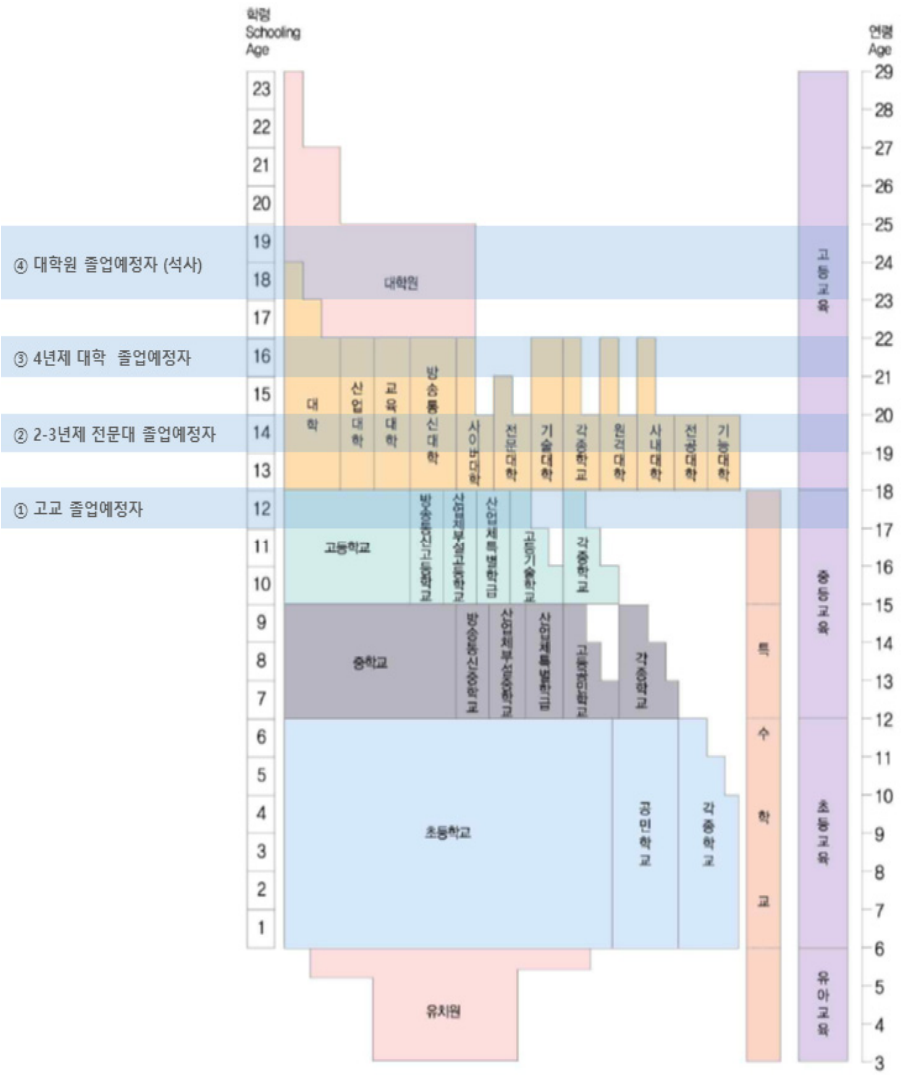
3. 학교 졸업예정자 논의[6)]

학교 졸업예정자는 학교 졸업을 앞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각각의 교육과정에서 졸업을 앞둔 최종 학년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자를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는 1-3학년 중 3학년,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는 1-2학년 중 2학년,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는 1-4학년 중 4학년을 의미한다.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서는 졸업예정자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분석대상을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한정하고 석사 2년차 이상만을 졸업예정자로 정의하였다 (그림Ⅱ-3 참조).

이 연구에서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주목하는 것은 이행 혹은 전환(transition)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취업, 직업훈련, 대학진학 등의 경로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니트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다.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활성화(activation) 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이나 취업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진로는 대학 진학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에 11.4%, 1990년, 23.6%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52.5%, 2010년 70.1%로 급증하였다. 2010년대 들어 정체기로 접어들기는 하였으나 2018년 67.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학 진학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주요한 이행 경로인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Ⅱ-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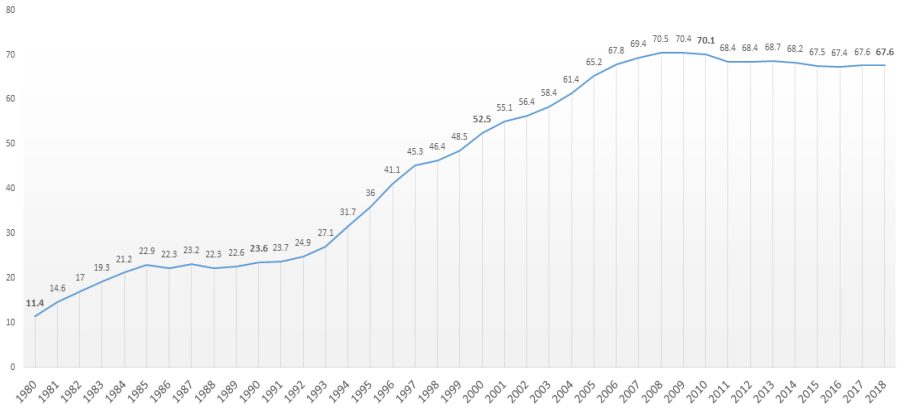
6) 이 절은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a). 간추린 교육통계. p.63.의 내용을 연구진이 수정하였음.

* 주)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① 고교 졸업예정자, ② 2-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자, ③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④ 대학원 졸업예정자(석사) 임.

그림 II-3. 우리나라의 학제 현황에 따른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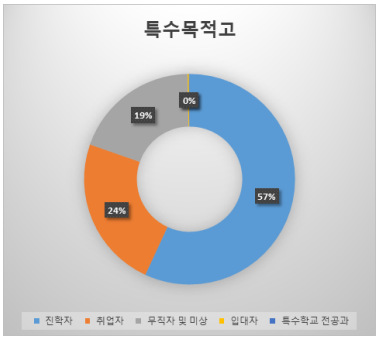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통계청(2017. 6) 장래추계인구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취학률 및 진학률 현황. 2019.02.1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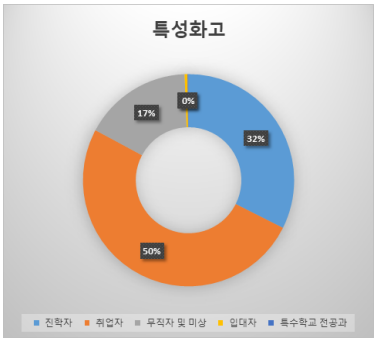
그림 II-4.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추이(198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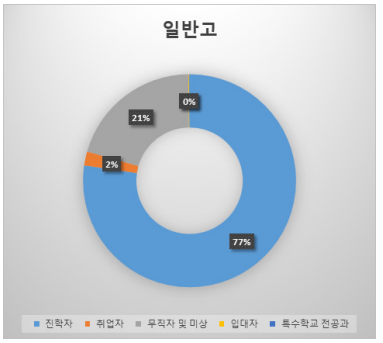
고등학교 내에서도 진로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이들 고등학교의 진로 및 취업현황은 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고등학교의 진학률은 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취업률은 2%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50%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대학진학률은 32%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외고, 과고 등이 속해있는 특수목적고의 취업률도 24%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특수목적고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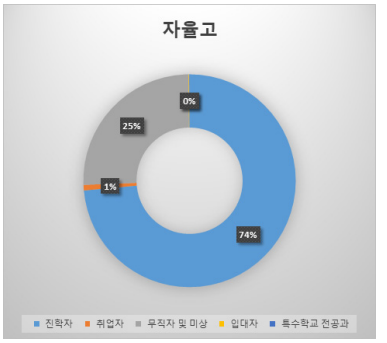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졸업 후 진로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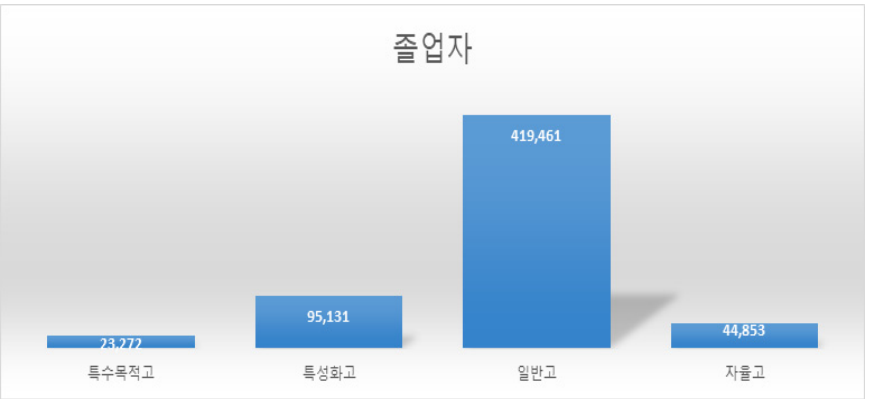
7) 고등학교 형태 중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고등학교를 '직업계 고등학교'로 지칭할 수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포함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가 여기에 포함된다.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통계연보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1)'에서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자료를 재가공하여 도식화하였음.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를 포함함.

* 주) 단위: 파이 그래프는 %, 막대그래프는 졸업자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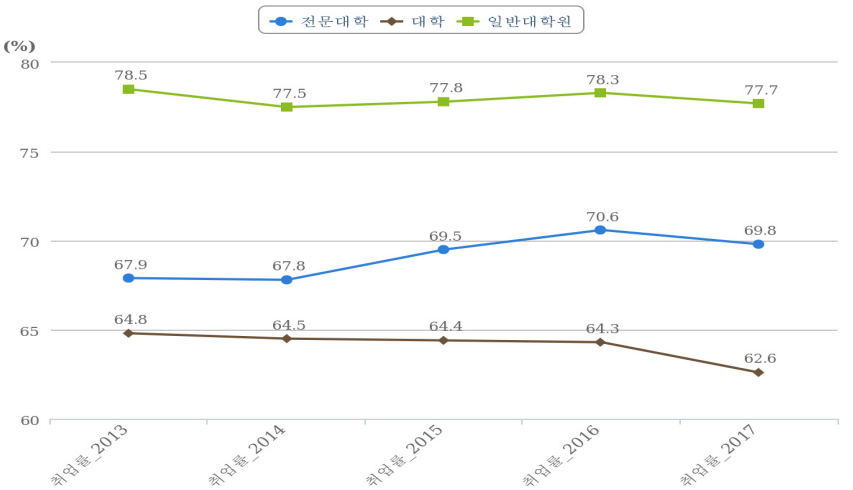
그림 II-5.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2017)

직업계 고등학교의 2013년도 취업률 자료를 보면 특성화고가 77.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가 87.0%로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양정승, 김유미, 2014). 이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지원은 취업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8)]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로에서 주목할 점은 네 가지 유형의 고등학교에서 '무직자 및 미상'의 비율이 최소 17%(특성화고)에서 최대 25%(자율고)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이후 진로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통해 이후 전환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취업률은 66.2%, 진학률은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발원, 2018). 이 중에서 2-3년제 전문대의 취업률은 2013년 67.9%에서 2017년 69.8%로 약간 증가하였고,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2013년 64.8%에서 2017년 62.6%로 약간 감소하였다. 일반대학원의 취업률은 78.5%에서 77.7%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림Ⅱ-6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취업률은 일반대학원 〉 2-3년제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8b).

8) 다만,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제도는 연이은 현장실습생들의 사고로 인하여 신중한 접근을 요하고 있다. 현장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강화는 산업체들의 참여를 저하시켜 학생들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완화는 현장실습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장실습생들의 비극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향후 희망하는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주) 2017년 2월 및 2016년 8월 졸업자 대상임.

그림 II-6. 고등교육 학제별 취업률[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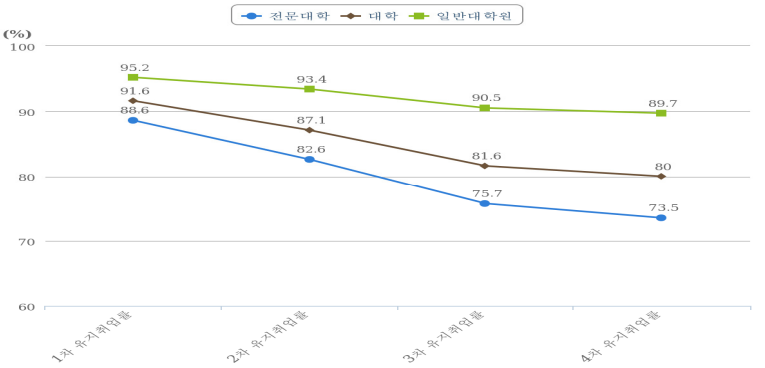
반면 학제별로 1년 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전문대 졸업생의 비율이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Ⅱ-7 참조). 일반대학원 졸업생의 1년 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89.7%로 나타났지만, 4년제 대학 졸업생은 80%,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는 73.5%였다. 이것은 일자리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졸업생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진입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9) 취업률(%)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교육개발원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ㅇ 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취업대상자}} \times 100$

①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해외취업자 + 농림어업종사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1인창(사)업자 + 프리랜서

②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주) 2017년 2월 및 2016년 8월 졸업자 대상임.

그림 II-7. 고등교육 학제별 유지취업률[10)]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취업준비기간을 살펴보면, 학부 졸업생들은 입학 전 취업을 한 경우는 3.83%에 불과하였고, 졸업 전에 취업을 한 경우는 30.06%였다. 대학원은 입학 전 취업을 한 경우가 18.20%였고, 졸업 전 취업을 한 경우는 32.58%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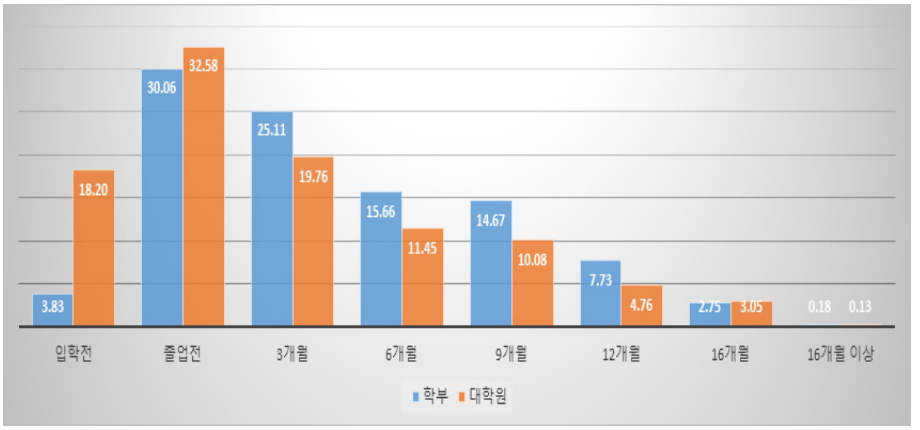
10) 유지취업자의 정의와 유지취업자 산출 산식은 다음과 같음 (교육개발원『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① 유지취업자: 조사기준일(12월 31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3, 6, 9, 11개월)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

- 1차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익년도 3월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
- 2차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익년도 3월, 6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
- 3차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익년도 3월, 6월, 9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
- 4차 유지취업자 :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익년도 3월, 6월, 9월, 11월 모두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

② 유지취업률(%)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 1차 유지취업률 : $\frac{\text{1차 유지취업자}}{\text{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2차 유지취업률 : $\frac{\text{2차 유지취업자}}{\text{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3차 유지취업률 : $\frac{\text{3차 유지취업자}}{\text{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4차 유지취업률 : $\frac{\text{4차 유지취업자}}{\text{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times 100$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재가공하여 도식화하였음

* 주) 2017년 2월 및 2016년 8월 졸업자 대상이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상황임.

그림 II-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취업 준비기간(학부/대학원)

학부와 대학원 모두 졸업을 한 이후에는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16개월 순으로 높게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통계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 미취업자들은 통계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실업자 등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제3장 학교 졸업예정자의 생활실태와 특징

1.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방법, 조사문항
2. 실태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3 학교 졸업예정자의 생활실태와 특징[11)]

1.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방법, 조사문항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개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결혼, 출산, 교육, 훈련, 건강, 참여, 가치관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3년도와 2015년도에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위탁용역과제로 본원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는 2016년도부터 청년위원회의 제안으로 본원 고유과제(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연구)로 추진되었으며 2017년 조사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조사대상은 15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심의 중인 청년정책법안이 포괄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정의를 따른 것으로 향후 시계열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이며 법안 통과 후 조사 대상을 법률 상 정의와 동일하게 가져갈 예정이다. 동시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2013년에 처음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연령정의를 15세에서 39세로 하고 있어 과거 자료와의 시계열도 고려한 것이다(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김기헌, 2015).

이 조사는 조사원이 응답자를 직접 만나 면접을 진행하는 개별방문면접조사로

11) 이 장은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조사표는 학생이 응답하는 만15-18세용과 학생이 아닌 청년이 응답하는 만19-39세용의 두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가조사 형태로 필요한 문항을 포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가조사 문항은 만15-28세용에도 일부 포함되지만 만19-39세용을 중심으로 부가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질문 문항 수정도 이루어졌다(〈부록 1〉 참조).

2) 학교 졸업예정자 신설 문항

(1) 고등학교 관련 문항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문항은 졸업예정자로 특정하지 않고 졸업자들의 경우에도 응답을 하게 해 학교 졸업 예정 상태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신설 문항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학교 졸업예정자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문항이다. 학교 졸업예정자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전공이나 계열, 학년, 재학 여부 등이 필요하다.

먼저 고등학교는 고교 유형과 재학 중인 경우 학년에 대한 식별이 특별하다. 고교 유형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차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해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표적인 패널조사에서 사용하는 고교 유형 변수는 포괄범위가 동일하지만 우선순위나 구분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표 Ⅲ-1).

이 연구에서 고교 유형은 가급적 선택지를 줄이더라도 모든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교유형은 총 7가지로 구분하였다. 7가지 유형은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 ③ 특성화고(특목고),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

체육고(특목고), ⑧ 기타 등이다. 특목고의 경우 학생수가 많지 않지만 전공과 계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다른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세분화해 구분하였다.

표 Ⅲ-1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문항 비교

구분	문항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① 일반 고등학교 ③ 특수목적 고등학교(예술고) ⑤ 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고) ⑦ 특수목적 고등학교(마이스터고) ⑨ 특성화 고등학교 (체험/대안 고등학교) ⑪ 특수 학교 (시각/청각/지체장애, 정신지체 등)	② 자율형 고등학교(공립/사립) ④ 특수목적 고등학교(체육고) ⑥ 특수목적 고등학교(외국어/국제고) ⑧ 특성화 고등학교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등 직업계) ⑩ 기타 학교 (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⑫ 방송통신고등학교
한국교육종단연구	① 일반고 ③ 외국어고/국제고 ⑤ 예술고/체육고 ⑦ 자율형공립고 ⑨ 대안학교	② 직업교육특성화고(구 실업계) ④ 과학고/영재고 ⑥ 마이스터고 ⑧ 자율형사립고 ⑩ 해외유학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KEEP)	① 일반고등학교 ③ 특성화 고등학교 ⑤ 외국어고등학교 ⑦ 체육고등학교	② 자율고등학교 ④ 과학고등학교 ⑥ 예술고등학교 ⑧ 마이스터고등학교
청년패널 (Youth Panel)	① 일반계/인문계(종합고 인문계 포함) ③ 자율형 고등학교(공립, 사립) ⑤ 특성화고(공업계) ⑦ 예술·체육고교 ⑨ 기타(대안학교, 해외고교, 방송통신고 등)	② 특목고(과학고, 외고) ④ 특성화고(상업계) ⑥ 특성화고 기타 계열 (농업계, 가사/해양직업계, 종합고 등) ⑧ 마이스터고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2017). 한국교육개발원 KEDI 조사 자료 홈페이지(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널연구 홈페이지(2017).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시스템(2019).

위의 고등학교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표 Ⅲ-2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선별 문항을 신설하였다. 고교시기에 경험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를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청년패널의 문항을 비교분석하였고(표 Ⅲ-3), 이를 토대로 표 Ⅲ-4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Ⅲ-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선별을 위한 신설문항

구분	문항
중·고등 학생용 (만15-18세)	문8) 귀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① 그렇다 ➡ 문 8-1로 이동 ② 아니다 ➡ 문 9로 이동 문8-1)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 ③ 특성화고(특목고)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기타(적을 것 : _____) 문8-2) 현재 몇 학년이십니까? (1 / 2 / 3)학년
청년용 (만19-39세)	문25)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 26으로 이동 문25-1)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 ③ 특성화고(특목고)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기타(적을 것 : _____)

진로와 직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분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계열이나 전공 등 대상 식별을 위해 추가적으로 질문한 문항 이외에 두 가지 질문을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고교 재학 시에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경우가 없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고교 재학 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고에서 이루어지는 문과와 이과의 변경을 비롯하여 일반계와 직업계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표 Ⅲ-3 진로와 직업 프로그램 문항 비교

구분	문항
한국교육종단연구	① 진로 및 직업상담 ②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수업 ③ 진로직업특강 및 설명회(기업CEO, 현직종사자, 전문가) ④ 대학교 방문 및 전공 체험 ⑤ 현장견학(직업관련 홍보관, 진로교육원, 기업체, 공공기관 등) ⑥ 현장직업체험(실제 업무 체험 또는 인터뷰) ⑦ 가상직업체험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KEEP)	[전체 응답자] ① '진로와 직업' 수업 ②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③ 진로심리검사 ④ 진로상담 ⑤ 진로동아리 ⑥ 직업인 멘토 특강(진로체험) ⑦ 현장 견학(진로체험) ⑧ 학과 체험(진로체험) ⑨ 현장 직업 체험(진로체험) ⑩ 직업 실무 체험(진로체험) ⑪ 진로 캠프(진로체험)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응답자] ① 취업 상담 ② 채용기업정보 제공 ③ 구직활동 지도(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인·적성검사 등) ④ 취업박람회 또는 채용설명회 참여 ⑤ 취업캠프 ⑥ 졸업생 멘토링 ⑦ 취업처 연계
청년패널 (Youth Panel)	① 개인상담(1:1 면대면 상담) ② 개인상담(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상담) ③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 상담 ④ 직업진로관련체험학습(잡스쿨 등) ⑤ 심리검사 ⑥ 직업 및 진로 관련 동영상 시청 ⑦ 진로지도관련 전문가 강의 ⑧ 기타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KEDI 조사 자료 홈페이지(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널연구 홈페이지(2017).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시스템(2019).

표 Ⅲ-4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계열/전공 추가 문항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계열/전공
변경 문항</td><td>문25-2)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①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없다
② 문과(이과)에서 이과(문과)로 변경하였다
③ 일반계(직업계)에서 직업계(일반계)로 변경하였다
(일반고 직업과정, 특성화고 대입반 포함)
④ 예·체능계(일반·직업계)에서 일반·직업계(예·체능계)로 옮겨갔다
⑤ 전문교과나 전문분야를 변경하였다(예: 공업→상업, 미술→음악 등)
⑥ 기타(적을 것 : _____)</td></tr>
<tr><td>진로/직업
프로그램
경험 문항</td><td>문25-3)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25-3-1)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table>
<tr><th rowspan="2">문 항</th><th rowspan="2">문25-3)
받은 경험</th><th colspan="5">문25-3-1) 도움이 되는 정도</th></tr>
<tr><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
이다</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진로, 직업, 취업 상담</td><td>①예 ➡
② 아니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진로와 직업 수업</td><td>①예 ➡
② 아니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td><td>①예 ➡
② 아니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td><td>①예 ➡
② 아니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td><td>①예 ➡
② 아니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취업처 연계</td><td>①예 ➡
② 아니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td></tr>
</table>

일반계와 직업계의 변경은 일반고를 다니다가 특성화고로 옮기는 것과 같이 학교를 옮기는 경우와 일반고에 다니면서 직업과정 혹은 위탁과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동시에 특성화고에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술과 체육 전공자가 일반고나 특성화고로 옮기는 경우가 있으며 전문교과나 전문분야를 특성화고와 예, 체육고에 다니면서 바뀌는 경우도 존재한다.

두 번째 질문은 고교시기에 경험한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선행조사들에서는 수업, 상담, 체험 등을 물어보고 있는데 학습형태에 따라서 질문을 세부적으로 물어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는 상담과 수업, 체험을 나누고 단순 체험인 특강이나 설명회, 박람회 참석을 구분하였다. 취업처 연계는 주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에서 이루어지나 일반고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질문 문항에 추가하였다. 상담은 내용면에서 진로와 직업, 취업 상담으로 나누어지고 형식면에서 1대 1인지, 집단인지 등이 나누어지지만 포괄적으로 상담으로 묶어 질문하였다. 체험은 진로나 직업체험분야와 학과 및 전공체험을 나누어서 질문하고자 한다.

(2) 대학 및 대학원 관련 문항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신설문항은 대학계열(전문대와 일반대)과 대학 전공, 현재 학년 등이다. 고교 단계에서 진로 변경 문제를 다루었다면 대학 단계에서는 복수 전공을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심화나 연계 전공 등을 하였는지 질문하고 해당 전공계열을 묻고자 한다.

표 Ⅲ-5 대학 졸업(예정)자 선별을 위한 변경 및 신설문항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대학
재학
및 졸업
정보</td><td>
문16-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 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table>
<tr><th>학교
유형</th><th>학교
소재지
(*보기
1참조)</th><th>전공
계열
(*보기
2참조)</th><th>입학
년월</th><th>졸업여부</th><th>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
년에 응답)</th><th>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th></tr>
<tr><td>① 전문대
(2-3년제)
② 대학교
(4-6년제)</td><td></td><td></td><td>____년
____월</td><td>① 졸업 → 졸업년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문 17</td><td>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td><td>`_____년
_____월</td></tr>
</table>
* 보기1(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보기2(전공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td></tr>
<tr><td>복수
전공
부전공
여부</td><td>
문20) 귀하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을 하고 있거나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 21로 이동
문19-1)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기타(적을 것 : _____)
</td></tr>
</table>

대학원 재학 및 졸업 관련 식별 문항들은 대학원 진학 의사 문항에서 이미 대학원에 진학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어서 대학원 재학 상태를 물어보며 대학원 진학 및 재학/졸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Ⅲ-6 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 관련 신설문항

구분	문항
대학원 진학 의사 문항	문22) 귀하는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 문 2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25로 이동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대학원 정보파악 문항	문22-1)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2-2)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십니까? ① 재학 ② 휴학 ③ 수료 ④ 졸업 ➡ 응답 후 문25로 이동

(3) 공통 질문 추가 문항

마지막으로 공통문항으로 포함될 신설문항으로는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어떤 취업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과 어디로 부터 지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 등이 있다. 취업 준비 유형은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을 하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와 온라인상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어학 관련부분은 앞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만 매우 많이 받고 있는 교육 및 훈련분야라는 점에서 별도로 분리하였다. 동시에 어학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는 비용이 매우 높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별도로 질문하였다.

표 Ⅲ-7 전체 응답자 취업준비 신설문항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취업
준비기간
신설문항</td><td>문26-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까?
(　　) 년 (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td></tr>
<tr><td>취업준비
신설문항</td><td>문27)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table>
<tr><th>문 항</th><th>취업준비 경험</th></tr>
<tr><td>(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6) 자기소개서 작성(인터넷 포함)</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8) 현장실습 경험</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10) 인턴 경험</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11) 봉사활동 경험</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13) 기타 (구체적으로 　　)</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able></td></tr>
</table>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취업준비 유형으로 면접 훈련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전문회사의 자문이나 컨설팅 등을 물어보았고 그 밖에 현장실습,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인턴 경험, 봉사활동 활동, 동아리나 스터디 활동 경험 등을 질문하였다. 취업준비에 도움을 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학교와 공공기관, 사설기관 등 기관을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개인으로는 부모님이나 친인척, 친구나 선후배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Ⅲ-8 전체 응답자 취업준비 지원 신설문항

구분	문항
취업준비 지원 신설문항	문28)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8-1)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8)도움 받은 경험	문28-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 (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 (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구체적으로)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문28-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8에서 '예'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공공기관 (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사설기관 (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6) 기타(구체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 (3)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28-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28-4로 이동

취업준비 비용과 취업준비에 투자한 시간을 묻는 문항을 신설하여 취업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정보를 얻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2018년 조사에서 채무 여부만 묻던 것에서 추가로 채무관계를 가지게 된 기관을 물어봄으로써 청년들의 채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자 한다.

표 Ⅲ-9 전체 응답자 취업준비 비용 및 시간 관련 신설문항

구분	문항
취업준비 비용 및 시간 신설문항	문28-3) (문28-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 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 만원
	문28-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 만원
	문28-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 시간
채무기관 신설문항	문36-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2018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여부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이외 정부 추진 청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사업 참여 여부 등을 물어보았는데, 이 조사가 지자체별 결과를 추정하기에는 표본수 등의 한계가 지자체별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자체 정책 참여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였다. 정부와 지자체 추진 청년 사업 문항 대신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와 참여의향을 묻는 문항을 2019년도에 신설하였다.

표 Ⅲ-10 전체 응답자 청년 고용 정책(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삭제 및 신설문항

구분	문항
정부추진 사업참여 삭제 문항	문49)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이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대책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참여하고 있다(참여사업명:) ② 참여한 적이 있다(참여사업명: , 참여년도: 년)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0) 귀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참여하고 있다(참여사업명:) ② 참여한 적이 있다(참여사업명: , 참여년도: 년) ③ 참여한 적이 없다
정부추진 사업 참여 신설 문항	문53)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2. 실태조사 결과

1) 예비조사 결과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조사표에 대한 예비조사는 5월 2일부터 5월 10일에 걸쳐 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우선 조사표를 작성하게 한 후 작성한 조사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참가자들은 중·고등학생용의 경우 10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15.9세였다. 성별은 5대 5명씩 조사가 이루어졌다. 청년용 설문지를 작성하고 의견을 제시한 청년들은 총 40명이며 평균 연령은 26.8세였다. 청년용 역시 성별은 5대 5로 각각 20명씩 이루어졌으며 40명 중 기혼자는 14명이었고 미혼자는 26명이었다. 참가자들이 설문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총 27.58분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예비조사 학교 졸업예정자 개요(N=50)

(단위: 세, 분)

ID	대상	연령	성별	혼인여부	경활상태	조사소요시간
1	중고등학생용	15	여자	-	-	21
2	중고등학생용	15	남자	-	-	30
3	청년용	23	여자	미혼	비경활	30
4	청년용	19	남자	미혼	비경활	30
5	청년용	23	여자	미혼	경활	29
6	청년용	24	여자	미혼	경활	20
7	청년용	28	남자	미혼	경활	35
8	청년용	24	남자	미혼	경활	30
9	청년용	38	남자	기혼	경활	40
10	청년용	36	여자	기혼	경활	30
11	청년용	31	여자	미혼	비경활	22
12	청년용	37	남자	미혼	비경활	21
13	중고등학생용	15	남자	-	-	20
14	청년용	27	여자	미혼	경활	25
15	청년용	32	남자	미혼	경활	30
16	청년용	28	남자	미혼	비경활	30
17	청년용	34	여자	기혼	경활	25
18	청년용	28	남자	미혼	비경활	30
19	청년용	26	여자	미혼	비경활	30
20	청년용	25	남자	미혼	경활	30
21	청년용	31	남자	미혼	비경활	30
22	중고등학생용	17	남자	-	-	20

표 Ⅲ-1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예비조사 학교 졸업예정자 개요(N=50, 계속)

(단위: 세, 분)

ID	대상	연령	성별	혼인여부	경활상태	조사소요시간
23	중고등학생용	16	여자	-	-	
24	청년용	32	여자	미혼	비경활	30
25	청년용	25	여자	미혼	비경활	20
26	중고등학생용	16	여자	-	-	20
27	중고등학생용	16	여자	-	-	15
28	중고등학생용	18	남자	-	-	15
29	청년용	28	남자	기혼	경활	20
30	청년용	29	여자	기혼	경활	17
31	청년용	22	남자	미혼	비경활	15
32	청년용	21	여자	미혼	비경활	30
33	청년용	30	남자	미혼	경활	15
34	청년용	36	남자	기혼	경활	20
35	청년용	37	여자	기혼	경활	18
36	청년용	35	여자	미혼	경활	20
37	청년용	38	남자	미혼	비경활	16
38	청년용	32	여자	기혼	비경활	
39	청년용	27	남자	미혼	비경활	40
40	중고등학생용	16	여자	-	-	30
41	청년용	33	남자	기혼	비경활	35
42	청년용	28	여자	미혼	경활	40
43	청년용	37	남자	기혼	경활	40
44	청년용	32	여자	기혼	비경활	30
45	중고등학생용	15	남자	-	-	35
46	청년용	23	남자	미혼	경활	35
47	청년용	25	여자	미혼	비경활	40
48	청년용	33	남자	기혼	비경활	40
49	청년용	30	여자	기혼	비경활	40
50	청년용	32	여자	기혼	경활	40

이 조사에서는 문항자들에게 별도로 1점을 최소점으로, 5점을 최고점으로 문항 난이도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문항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중·고등학생용의 경우 문항 난이도는 평균 1.88점으로 나타났으며 불편함은 1.71점이었다. 청년용의 경우 같은 응답에 대해 1.94점과 2.13점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난이도나 불편함 정도는 낮은 수준인데 청년용의 불편함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부분적으로 설문 분량이 청년용의 경우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교 졸업예정자 부가조사 문항 중에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응답하기 불편한 문항은 없었다. 전체 조사 문항 중에서는 교육에 대한 의견(학벌, 학력 등)이나 기성세대, 노인에 대한 인식, 정책이나 참여활동에 관한 질문, 체형이나 성형수술 관련 질문에 대한 부분이었다.

2) 실태조사 결과

여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고교 재학 시와 대학 진학자의 대학 재학 시를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취업준비 실태와 정부와 지자체의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 정도에 관한 부분,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 등을 살펴보았다.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하여 일자리와 능력개발이라는 정책영역 외에 참여와 활동, 주거 및 생활안정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값으로 사례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각 응답 비율만 제시하고자 한다. 연령의 경우 현재 청년기본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19~34세의 결과도 추가로 제시하였다.

(1) 고교 및 대학 재학 시 능력개발

고교 재학 시에 고교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

자 중 3.4%만이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과에서 이과 혹은 반대로 바꾼 경우가 진로변경 중 2.0%가 가장 많았고 그 밖의 경우가 1.4%로 나타났다.

표 Ⅲ-12 고교 재학 시 계열 및 전공 변경 여부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96.6	2.0	0.6	0.4	0.4
성별	남자	97.0	1.7	0.8	0.2	0.3
	여자	96.2	2.2	0.5	0.7	0.4
지역	서울특별시	94.3	3.8	1.3	0.3	0.4
	경기도	96.9	1.7	0.8	0.3	0.3
	광역시(서울 제외)	97.5	1.6	0.1	0.5	0.2
	시·도(경기도 제외)	97.3	1.2	0.5	0.6	0.4
연령	15 - 19세	96.6	1.2	0.4	1.3	0.6
	20 - 29세	96.2	2.4	0.9	0.3	0.3
	30 - 39세	97.0	1.8	0.5	0.3	0.4
	19 - 34세	96.3	2.3	0.8	0.3	0.3
교육 수준	대학 미진학	96.8	0.9	1.0	0.9	0.5
	전문대 진학	96.4	1.9	0.9	0.4	0.4
	4년제 대학교 진학	96.7	2.6	0.3	0.1	0.3
	대학원 석사 이상	94.6	4.4	0.0	1.0	0.0
학교 계열	일반고	96.7	2.4	0.4	0.3	0.2
	자율형 및 특목고	90.3	3.8	2.1	3.9	0.0
	직업계고	97.1	0.1	1.4	0.4	0.9
	기타	100.0	0.0	0.0	0.0	0.0
입학 유형	전문대(2~3년제)	96.4	1.9	0.9	0.4	0.4
	대학교(4~6년제)	96.6	2.7	0.3	0.2	0.3
전공 계열	인문계열	95.8	4.2	0.0	0.0	0.0
	사회계열(경상 제외)	97.7	1.6	0.2	0.5	0.0
	경상계열	95.8	3.6	0.0	0.0	0.6
	자연계열	94.3	4.8	1.0	0.0	0.0
	공학계열	98.0	1.6	0.2	0.0	0.2
	의/약학계열	96.9	1.7	1.4	0.0	0.0
	교육계열	94.2	3.0	0.0	0.5	2.2
	예체능계열	96.2	0.4	1.7	1.3	0.5
	기타	98.2	0.5	0.0	0.0	1.3

주) ①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없다, ② 문(이)과에서 이(문)과로 변경하였다, ③ 일반(직업)계에서 직업(일반)계로 변경하였다(일반고 직업과정, 특성화고 대입반 포함), ④ 예체능(일반·직업)계에서 일반, 직업(예체능)계로 옮겨갔다, ⑤ 전문교과나 전문분야를 변경하였다(예: 공업→상업, 미술→음악 등)

성별로 보면, 남자 청년(3.0%)이 여자 청년(2.8%)보다 약간 더 진로변경을 고교 재학 시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진로변경 경험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고 30대가 20대나 10대 후반보다 진로변경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원 석사 이상을 진학한 응답자들 중 진로변경을 고교 시에 하지 않은 비율(94.6%)이 가장 높았다. 계열별로 보면, 고교 시에 자율형고나 특수목적고에 다녔던 응답자들의 진로변경 비율이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목고에 포함된 예·체능고 학생들 중 진로변경 학생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외국어고에 다니는 학생들 중 문과에서 이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에 진학한 응답자들 중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 진학자들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공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이 고교 재학 시 진로변경을 가장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이 진로변경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문과와 이과의 변경은 자연계열(4.8%)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와 직업계고, 예체능계고 등 학교 간 변경은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교 재학 시에 진로, 직업, 취업 상담을 받은 경우는 64.9%였으며 도움이 되었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6.1%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상담을 받은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고 남자 청년(44.9%)보다 여자 청년(47.5%)이 더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로 서울지역(56.6%) 청년들이 진로, 직업, 취업 상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9세의 경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석사 이상에 진학한 경우가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볼 때 직업계고의 경우 진로, 직업, 취업상담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고나 특목고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양상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학 전공별로는 교육계열이 기타를 제외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경상계열이 가장 낮았다.

표 Ⅲ-13 고교 재학 시 진로, 직업, 취업 상담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 분		제공 받은 경험 있음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64.9	1.5	11.0	41.4	43.7	2.4
성별	남자	64.9	1.5	12.1	41.6	41.9	3.0
	여자	64.9	1.5	9.8	41.2	45.8	1.7
지역	서울특별시	61.5	1.0	10.4	32.1	54.3	2.3
	경기도	62.6	2.7	12.4	51.0	32.5	1.4
	광역시(서울 제외)	60.7	0.5	11.5	42.1	42.7	3.1
	시·도(경기도 제외)	73.2	1.4	9.9	38.9	46.9	2.8
연령	15 - 19세	65.9	0.0	6.5	33.7	54.4	5.4
	20 - 29세	67.9	1.5	12.7	44.0	39.7	2.0
	30 - 39세	61.7	2.0	10.7	41.3	44.3	1.8
	19 - 34세	66.4	1.8	12.1	42.6	41.4	2.1
교육 수준	대학 미진학	65.9	1.3	10.4	42.1	43.9	2.4
	전문대 진학	67.9	1.1	12.9	49.5	34.8	1.7
	4년제 대학교 진학	62.6	1.8	10.2	37.1	48.1	2.8
	대학원 석사 이상	66.0	3.1	14.0	31.3	49.5	2.0
학교 계열	일반고	60.8	1.1	10.3	41.3	44.8	2.5
	자율형 및 특목고	66.5	1.2	11.6	37.3	47.4	2.5
	직업계고	82.1	2.8	13.2	41.8	40.2	2.0
	기타	36.1	0.0	0.0	72.5	27.5	0.0
입학 유형	전문대(2~3년제)	67.9	1.1	12.9	49.5	34.8	1.7
	대학교(4~6년제)	62.8	1.8	10.4	36.8	48.2	2.8
전공 계열	인문계열	58.2	2.4	12.9	35.2	47.3	2.2
	사회계열(경상 제외)	66.7	1.1	7.1	46.5	41.4	3.9
	경상계열	62.6	0.5	16.8	51.4	31.3	0.0
	자연계열	64.8	2.5	12.1	37.1	44.7	3.7
	공학계열	64.2	1.9	11.2	41.6	43.6	1.6
	의/약학계열	79.5	0.0	6.9	43.2	47.9	1.9
	교육계열	70.2	1.1	8.5	32.0	53.1	5.2
	예체능계열	61.5	1.7	13.9	45.3	37.0	2.1
	기타	72.6	0.0	6.7	32.3	5.6	3.4
진로 변경	고교 진로변경 없음	64.5	1.5	10.7	41.6	43.8	2.4
	고교 진로변경 있음	76.3	1.2	17.2	37.8	41.9	2.0

이어서 고교 재학 시에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을 받았는지 여부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와 직업 수업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중 44.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년이 46.4%로 여자 청년(42.2%)보다 진로와 직업 수업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반대로 여자 청년 중 44.2%가 도움이 되었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자 청년(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이 50.3%로 진로와 직업 수업 이수 경험이 많았고 서울이 35.6%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여주었다. 진로와 직업 수업에 대한 도움 정도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이 48.6%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8.6%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최근 진로교육 활성화를 반영하여 15~19세 중 진로와 직업 수업을 들었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38.2%로 가장 낮았다. 도움 정도 역시 15~19세 중 50.5%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해 20대(41.4%)나 30대(3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교 재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 미진학인 경우가 51.3%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주었고 4년제 대학 진학자가 38.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도움을 받은 정도는 대학원 석사 이상 진학자가 55.4%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진학자가 35.9%로 가장 낮았다. 고교 당시 유형을 보면, 직업계고(68.0%)가 진로와 직업 수업을 받은 경험이 가장 많았고 일반고가 38.3%로 가장 적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정도는 반대로 일반고가 43.1%인데 반해 직업계고는 39.5%로 낮게 나타났다. 진로와 직업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자율형과 특수목적고 출신들이 4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출신을 구분해 살펴보면, 비슷한 양상으로 전문대가 4년제 대학 출신보다 진로와 직업 수업을 더 많이 받았으나 도움 정도는 4년제 대학 출신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 전공별로 보면, 의/약학계열의 경우가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비율(48.5%)이 가장 높았고 경상계열을 제외한 사회계열이 32.8%로 가장 낮았다.

표 Ⅲ-14 고교 재학 시 진로와 직업 수업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 분		제공 받은 경험 있음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44.4	2.1	11.0	44.8	38.7	3.4
성별	남자	46.4	1.7	12.2	45.7	36.5	3.9
	여자	42.2	2.7	9.5	43.6	41.4	2.8
지역	서울특별시	35.6	1.2	9.9	41.1	42.3	5.6
	경기도	46.6	3.6	11.5	56.1	26.9	1.9
	광역시(서울 제외)	42.5	1.9	12.2	40.8	41.6	3.5
	시·도(경기도 제외)	50.3	1.4	10.3	39.7	45.2	3.4
연령	15 - 19세	54.4	0.6	7.3	41.6	45.3	5.2
	20 - 29세	47.5	1.7	11.0	45.9	37.7	3.7
	30 - 39세	38.2	3.3	12.6	44.9	37.0	2.2
	19 - 34세	45.5	2.3	11.6	45.1	37.5	3.5
교육 수준	대학 미진학	51.3	0.8	9.5	45.4	40.3	3.9
	전문대 진학	46.8	2.1	13.2	48.9	33.6	2.3
	4년제 대학교 진학	38.5	3.4	10.8	42.5	39.9	3.3
	대학원 석사 이상	39.5	1.6	14.6	28.4	48.3	7.1
학교 계열	일반고	38.3	2.2	11.1	43.6	40.2	2.9
	자율형 및 특목고	54.3	3.1	11.8	37.6	39.9	7.6
	직업계고	68.0	1.9	10.7	47.9	35.5	4.0
	기타	33.0	0.0	0.0	70.0	22.2	7.8
입학 유형	전문대(2~3년제)	46.8	2.1	13.2	48.9	33.6	2.3
	대학교(4~6년제)	38.5	3.3	11.0	41.8	40.3	3.5
전공 계열	인문계열	32.5	3.0	8.0	41.6	43.9	3.5
	사회계열(경상 제외)	43.2	5.7	8.9	52.5	25.4	7.4
	경상계열	37.6	0.9	20.5	41.0	36.6	0.9
	자연계열	42.0	1.7	13.2	42.8	40.6	1.7
	공학계열	42.0	3.2	10.9	46.5	38.6	0.7
	의/약학계열	53.0	0.0	10.7	40.9	48.5	0.0
	교육계열	47.3	4.6	14.8	34.1	36.9	9.6
	예체능계열	45.2	3.1	14.2	42.2	35.9	4.5
	기타	39.6	0.0	8.8	58.5	30.1	2.6
진로 변경	고교 진로변경 없음	43.8	2.2	11.0	44.7	38.6	3.4
	고교 진로변경 있음	59.7	0.0	11.0	45.8	40.7	2.6

고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응답자 중 30.7%가 현장견학,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체험 경험이 많았지만 도움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체험 경험이 많았고 서울지역의 체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Ⅲ-15 고교 재학 시 진로, 직업체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 분		제공 받은 경험 있음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0.7	2.9	11.5	42.0	38.4	5.2
성별	남자	32.1	2.3	12.9	44.7	34.8	5.3
	여자	29.1	3.7	9.8	38.8	42.7	5.1
지역	서울특별시	22.5	0.9	8.8	40.6	42.3	7.4
	경기도	28.5	4.8	15.1	48.4	28.7	2.9
	광역시(서울 제외)	32.7	3.3	11.9	37.1	45.3	2.5
	시·도(경기도 제외)	36.9	2.2	9.7	41.7	38.4	7.9
연령	15 - 19세	36.0	1.2	5.4	34.0	50.5	8.9
	20 - 29세	33.6	2.3	13.3	41.1	38.0	5.2
	30 - 39세	26.2	4.4	11.8	46.6	33.6	3.5
	19 - 34세	32.8	3.1	12.3	42.9	37.0	4.6
교육 수준	대학 미진학	37.1	2.1	10.0	41.9	40.7	5.3
	전문대 진학	34.6	2.3	16.3	41.1	35.3	5.0
	4년제 대학교 진학	24.7	4.3	9.0	43.7	38.0	5.0
	대학원 석사 이상	20.1	0.0	30.6	20.9	38.0	10.6
학교 계열	일반고	23.4	3.7	9.8	43.0	38.4	5.1
	자율형 및 특목고	37.4	0.0	10.5	42.5	34.4	12.6
	직업계고	59.6	2.0	14.3	41.0	38.7	4.0
	기타	21.9	0.0	0.0	0.0	33.5	66.5
입학 유형	전문대(2~3년제)	34.6	2.3	16.3	41.4	35.3	5.0
	대학교(4~6년제)	24.5	4.2	9.8	42.8	38.0	5.2
전공 계열	인문계열	21.8	4.0	10.1	37.5	45.7	2.8
	사회계열(경상 제외)	26.4	5.4	8.2	54.0	16.1	16.2
	경상계열	28.0	2.7	15.5	44.3	37.5	0.0
	자연계열	31.3	4.2	7.7	38.7	45.2	4.2
	공학계열	26.4	2.3	13.5	50.5	30.0	3.7
	의/약학계열	42.2	0.0	18.3	25.7	56.0	0.0
	교육계열	32.4	5.7	8.8	31.5	47.7	6.3
	예체능계열	27.2	5.4	18.1	35.0	34.6	6.9
	기타	32.0	0.0	8.3	54.8	26.7	10.2

반면, 진로 및 직업체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및 직업체험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 서울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어릴수록 체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도움 정보 역시 큰 차이로 15-19세 응답 비율(59.4%)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교 재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 미진학자의 체험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석사 이상 진학자의 체험비율(20.1%)이 가장 낮았다. 도움 정보는 대학원 석사 이상 진학자가 48.6%로 대학 미진학자(46.0%)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교 재학 시 고교 유형별로는 직업계고 중 59.6%가 진로 및 직업 체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23.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진로 및 직업 체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자율형 및 특수목적고 출신들이 47.0%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출신들이 4년제 대학 출신보다 진로 및 직업체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도움 정도는 반대로 4년제 대학 출신들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의/약학 계열 출신의 도움정도가 56.0%로 가장 높았고 경상계열을 제외한 사회계열 출신(32.4%)이 가장 낮았다.

이어서 학과 및 전공체험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31.1%가 대학 학과 및 전공체험을 고교시기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는 50.2%가 도움이 되었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남자 청년의 체험비율이 높았지만 도움정도는 여자 청년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체험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도움 정도는 60.4%로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9세의 체험비율이 높았고 도움 정도 역시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진로 및 직업체험과는 달리 재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 미진학자(26.6%)보다 대학원 석사 이상 진학자가 35.8%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미진학자 중 재학생의 경우 저학년일 때 학과 및 전공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과 및 전공체험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움 정도 역시 대학원 석사 이상 진학자들이 49.7%로 4년제 대학 진학자(52.1%) 다음으로 높았다.

표 Ⅲ-16 고교 재학 시 학과, 전공체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 분		제공 받은 경험 있음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1	2.7	11.2	39.6	41.7	4.8
성별	남자	32.2	8.0	12.5	42.2	39.7	3.6
	여자	29.8	3.5	9.7	36.5	44.0	6.2
지역	서울특별시	25.8	1.1	5.5	33.0	54.2	6.2
	경기도	31.4	2.4	12.9	44.8	37.0	3.0
	광역시(서울 제외)	31.6	3.4	10.3	40.6	42.2	3.5
	시·도(경기도 제외)	34.2	3.4	13.7	38.0	38.4	6.5
연령	15 - 19세	37.1	1.7	9.4	32.1	44.4	12.4
	20 - 29세	33.7	1.3	11.3	41.5	42.2	3.8
	30 - 39세	26.7	4.9	11.9	40.7	39.9	2.7
	19 - 34세	32.7	2.5	11.2	41.9	40.7	3.8
교육 수준	대학 미진학	26.6	1.5	12.6	39.4	38.4	8.1
	전문대 진학	34.8	4.1	16.2	44.1	31.4	4.2
	4년제 대학교 진학	32.1	2.9	7.5	37.5	49.3	2.8
	대학원 석사 이상	35.8	0.0	14.7	35.5	39.8	9.9
학교 계열	일반고	29.1	3.0	9.2	38.8	44.2	4.9
	자율형 및 특목고	41.9	0.0	9.1	32.0	54.7	4.2
	직업계고	38.2	2.3	18.0	42.6	32.3	4.7
	기타	22.4	0.0	0.0	67.2	32.8	0.0
입학 유형	전문대(2~3년제)	34.8	4.1	16.2	44.1	31.4	4.2
	대학교(4~6년제)	32.3	2.7	7.9	37.4	48.7	3.2
전공 계열	인문계열	29.5	2.7	6.6	42.0	46.8	2.1
	사회계열(경상 제외)	32.0	7.0	10.3	42.0	33.2	7.4
	경상계열	28.1	4.1	18.2	34.1	41.3	2.3
	자연계열	36.6	3.1	10.6	36.6	43.3	6.4
	공학계열	33.0	2.0	12.1	42.5	42.8	0.7
	의/약학계열	44.7	0.0	12.5	32.3	51.1	4.1
	교육계열	44.2	5.4	8.0	26.1	56.4	4.1
	예체능계열	33.2	3.5	10.6	42.4	38.5	5.1
	기타	23.6	2.7	7.1	63.2	23.2	3.7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비교해 보면, 전문대의 체험 비율이 4년제 대학보다 높았지만 도움정도는 반대로 4년제 대학(51.9%)이 전문대(35.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교육계열이 60.5%로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고 경상계열을 제외한 사회계열이 40.6%로 가장 낮았다.

표 Ⅲ-17 고교 재학 시 특강, 설명회, 박람회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 분		제공 받은 경험 있음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2.0	2.6	10.4	44.9	39.3	2.8
성별	남자	32.1	2.1	12.7	44.9	36.9	3.5
	여자	31.8	3.2	7.9	44.8	42.0	2.1
지역	서울특별시	28.3	0.7	4.1	37.9	51.8	5.4
	경기도	33.8	1.7	12.4	45.8	38.2	2.0
	광역시(서울 제외)	28.5	2.3	11.4	50.6	33.5	2.3
	시·도(경기도 제외)	36.0	4.7	11.6	44.2	37.0	2.5
연령	15 - 19세	39.3	0.5	8.8	37.1	45.2	8.4
	20 - 29세	35.6	1.9	10.7	49.3	36.1	2.0
	30 - 39세	26.2	4.5	10.7	42.8	40.6	1.4
	19 - 34세	34.1	2.2	11.2	46.6	37.8	2.2
교육 수준	대학 미진학	29.7	0.7	10.6	48.0	36.5	4.2
	전문대 진학	33.6	4.4	15.9	45.6	32.2	1.9
	4년제 대학교 진학	32.9	3.0	7.2	43.6	44.0	2.1
	대학원 석사 이상	28.8	0.0	16.6	19.4	54.3	9.7
학교 계열	일반고	28.9	2.8	8.4	45.2	40.7	2.9
	자율형 및 특목고	43.0	4.0	16.8	35.8	41.1	2.3
	직업계고	43.6	2.0	15.1	45.1	34.9	2.9
	기타	12.0	0.0	0.0	32.7	67.3	0.0
입학 유형	전문대(2~3년제)	33.6	4.4	15.9	45.6	32.2	1.9
	대학교(4~6년제)	32.7	2.9	7.6	42.6	44.4	2.4
전공 계열	인문계열	26.4	5.1	6.0	37.9	50.5	0.6
	사회계열(경상 제외)	34.1	3.8	6.5	51.4	34.9	3.3
	경상계열	36.2	1.8	14.1	48.0	34.9	1.3
	자연계열	33.9	3.9	11.2	42.1	37.0	5.8
	공학계열	33.3	2.4	12.4	39.7	44.2	1.3
	의/약학계열	50.5	0.0	15.1	44.6	40.4	0.0
	교육계열	34.7	8.1	7.4	39.3	37.4	7.9
	예체능계열	30.8	4.6	9.2	49.8	35.1	1.3
	기타	28.6	2.3	9.6	45.6	36.9	5.6

다음으로 진로, 직업 특강, 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2.0%가 제공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정보는 남자 청년보다 여자 청년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체험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이 28.3%로 가장 낮았다. 반면, 도움정도는 서울지역이 57.2%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9세의 체험비율이 가장 높았고 도움 정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전문대 진학자가 33.6%로 체험비율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진학자가 32.9%로 가장 낮았다. 도움정도는 반대로 4년제 대학 진학자가 46.1%로 전문대 진학자(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교 유형별로는 직업계고의 체험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도움 정도는 자율형 및 특수목적고 출신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36.2%로 도움정도가 가장 낮았고 공학계열이 45.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취업처 연계 경험을 살펴보면, 응답자중 16.8%가 학교에서 취업처 연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정도는 응답자의 34.4%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성별로 보면, 고교 재학 시 취업처 연계 경험은 남자 청년(17.6%)이 여자 청년(15.9%)보다 높았으나 도움 정도는 여자 청년이 36.8%로 남자 청년(32.5%)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이 21.3%로 체험경험 비율이 높았으나 도움 정도는 서울지역이 53.5%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교 재학생을 포함한 15~19세 보다는 20대가 18.1%로 높게 나타났으나 도움정도는 15~19세가 40.8%로 28.9%에 그친 20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재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 미진학자가 24.2%로 가장 높았고 도움 정도 역시 대학 미진학자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교 재학 시 고교 유형별로 보면, 직업계고의 취업처 연계 경험이 46.5%로 가장 높았고 일반고가 9.4%로 가장 낮았다. 도움 정도 역시 직업계고 출신들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18 고교 재학 시 취업처 연계 제공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

구 분		제공 받은 경험 있음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6.8	6.5	14.2	44.8	29.4	5.0
성별	남자	17.6	5.3	17.0	45.1	28.4	4.1
	여자	15.9	7.9	10.8	44.4	30.6	6.2
지역	서울특별시	11.2	2.6	7.9	33.0	44.5	12.0
	경기도	18.5	7.6	16.0	51.7	20.6	4.1
	광역시(서울 제외)	14.5	6.5	20.7	44.8	24.7	3.3
	시·도(경기도 제외)	21.3	7.0	11.5	43.7	33.6	4.1
연령	15 - 19세	14.6	1.8	7.8	49.5	32.3	8.5
	20 - 29세	18.1	4.5	17.8	48.8	23.5	5.4
	30 - 39세	16.3	9.8	12.3	39.3	34.9	3.7
	19 - 34세	18.3	6.3	15.4	44.9	28.1	5.4
교육 수준	대학 미진학	24.2	2.7	10.8	49.0	33.6	3.9
	전문대 진학	20.1	6.9	16.1	44.8	24.6	7.5
	4년제 대학교 진학	10.2	11.6	17.8	38.4	28.1	4.1
	대학원 석사 이상	11.3	20.9	21.3	34.6	10.4	12.7
학교 계열	일반고	9.4	10.9	13.2	47.2	24.7	4.1
	자율형 및 특목고	22.8	3.2	32.5	35.6	14.6	14.1
	직업계고	46.5	3.0	14.0	43.3	34.3	5.3
	기타	3.9	0.0	0.0	100.0	0.0	0.0
입학 유형	전문대(2~3년제)	20.1	6.9	16.1	44.8	24.6	7.5
	대학교(4~6년제)	10.2	12.1	18.0	38.1	27.2	4.5
전공 계열	인문계열	10.0	12.3	8.1	44.7	34.9	0.0
	사회계열(경상 제외)	13.3	16.9	6.4	45.1	15.4	16.3
	경상계열	10.9	6.8	39.2	31.6	12.8	9.5
	자연계열	15.4	10.3	24.1	22.7	37.6	5.3
	공학계열	13.4	10.3	18.5	44.2	24.4	2.6
	의/약학계열	17.4	0.0	21.7	45.4	32.9	0.0
	교육계열	14.2	19.8	12.3	27.6	29.5	10.8
	예체능계열	17.3	3.7	17.6	47.5	23.5	7.7
	기타	11.7	5.6	0.0	68.7	11.2	14.5

전문대 출신들이 4년제 대학 출신들보다 고교 재학 시 취업처 연계 경험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도움 정도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출신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대학 계열별로 보면 도움 정도는 자연계열이 42.9%로 가장 높았고 경상계열이 22.3%로 가장 낮았다.

이어서 현재 고교생에게 고교 교육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물어보았다. 여기에서는 진로변경 여부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을 살펴보면, 5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고교생이 60.7%로 여자 고교생(5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이 60.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지역이 54.8%로 가장 낮았다. 계열별로는 직업계고 학생이 74.8%로 가장 높았고 일반고 학생이 47.9%로 가장 낮았다. 진로변경을 한 학생은 44.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은 52.2%가 그렇다고 응답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의 응답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19 고교 교육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4	11.3	28.5	42.8	13.9
성별	남자	1.8	11.4	26.2	46.2	14.5
	여자	5.1	11.2	30.9	39.4	13.4
지역	서울특별시	1.8	15.2	32.7	43.7	6.5
	경기도	1.7	11.5	32.0	33.7	21.1
	광역시(서울 제외)	4.5	11.7	25.0	45.1	13.8
	시·도(경기도 제외)	4.9	8.8	26.2	48.6	11.5
학교 계열	일반고	4.9	14.7	32.6	37.9	10.0
	자율형 및 특목고	0.0	16.0	0.0	34.8	49.2
	직업계고	0.0	8.0	25.1	46.4	20.5
	기타	1.5	2.9	20.9	56.0	18.8
진로 변경	고교 진로변경 없음	3.6	13.3	30.9	39.4	12.8
	고교 진로변경 있음	11.5	19.1	25.2	34.7	9.5

고교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3.7%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고생은 54.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여고생은 52.6%가 그렇다고 응답해 남고생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이 58.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서울지역은 46.9%가 그렇다고 응답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자율형 및 특수목적고가 67.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직업계고가 64.6%를 보여준데 비해 일반고가 33.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진로변경 여부에 따라 진로변경을 경험한 학생들 중 29.2%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Ⅲ-20 고교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3	17.3	25.8	42.3	11.4
성별	남자	3.1	16.0	26.2	43.4	11.2
	여자	3.4	18.5	25.5	41.1	11.5
지역	서울특별시	1.0	30.4	22.6	40.3	5.6
	경기도	0.5	18.7	28.7	37.1	14.9
	광역시(서울 제외)	6.2	14.2	25.4	44.6	9.6
	시·도(경기도 제외)	4.4	11.7	25.3	45.9	12.7
학교 계열	일반고	4.6	23.7	27.7	35.6	8.4
	자율형 및 특목고	0.0	16.0	17.0	49.5	17.5
	직업계고	0.0	7.1	18.3	47.6	27.0
	기타	1.5	4.5	25.8	58.4	9.7
진로 변경	고교 진로변경 없음	3.2	20.7	25.6	38.7	11.9
	고교 진로변경 있음	16.9	19.1	34.7	19.7	9.5

이어서 고교생에게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 선택이 적합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52.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고생의 긍정응답이 남고생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교 계열별로는 자율형 및 특수목적고가 74.8%로 가장 높았고 직업계 고등학생이 66.8%, 일반고 학생이 60.0%로 나타났다. 진로변경 학생은 42.4%만이 내가 선택한 전공이 적합하다고 응답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Ⅲ-21 고교 전공의 적합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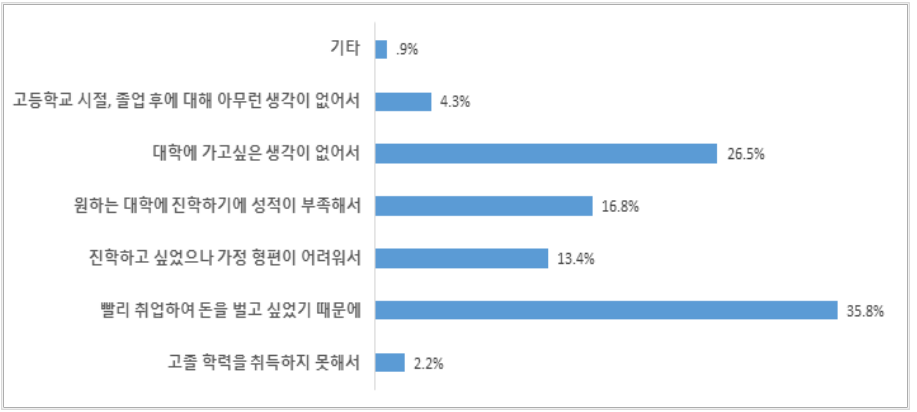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중학생)
전 체		0.7	5.8	24.0	38.0	10.6	20.9
성별	남자	0.5	4.5	27.6	35.6	9.5	22.3
	여자	0.8	7.2	20.4	40.3	11.8	19.5
지역	서울특별시	1.2	3.6	32.0	39.3	10.8	13.1
	경기도	0.5	8.6	28.1	37.7	10.2	14.9
	광역시(서울 제외)	0.3	5.2	21.7	38.3	10.8	23.7
	시·도(경기도 제외)	0.8	5.1	18.1	37.2	10.8	27.9
학교 계열	일반고	0.8	7.5	31.7	48.2	11.8	-
	자율형 및 특목고	0.0	0.0	25.2	57.3	17.5	-
	직업계고	1.4	8.0	23.9	46.2	20.6	-
	기타	0.0	0.0	0.7	0.0	0.0	99.3
진로 변경	고교 진로변경 없음	0.9	7.2	29.6	48.8	13.4	-
	고교 진로변경 있음	0.0	11.5	46.1	28.9	13.5	-

다음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학 미진학 이유를 살펴보았다. 대학 미진학 사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였다.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응답은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였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가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성별로 보면,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에 대해 여자가 15.3%로 남자(1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응답들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경우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는 30대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역시 30대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는 15~19세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교 유형별로는 취업 때문이라는 응답은 직업계고가, 가정형평은 일반고가, 성적 부족은 자율형고와 특수목적고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변경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성적 부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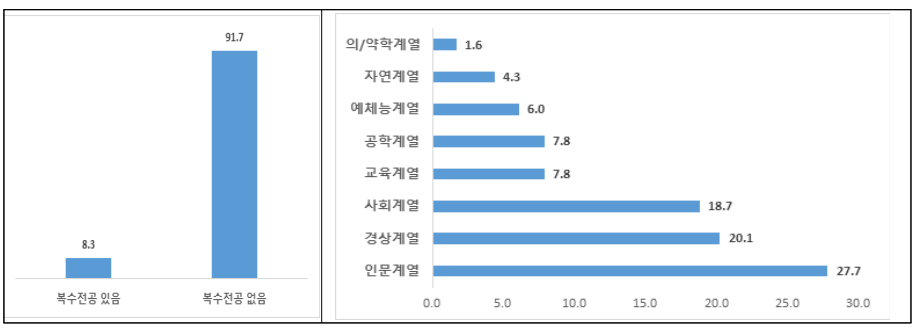
그림 Ⅲ-1. 대학 미진학 사유

표 Ⅲ-22 대학 미진학 이유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 체		2.2	35.8	13.4	16.8	26.5	4.3	0.9
성별	남자	2.8	35.9	11.7	16.3	27.4	4.2	1.7
	여자	1.6	35.7	15.3	17.4	25.5	4.5	0.0
지역	서울특별시	1.0	35.8	13.1	27.5	16.3	6.3	0.0
	경기도	2.5	35.2	13.6	18.2	23.6	5.1	1.7
	광역시(서울 제외)	3.0	34.9	15.8	11.1	33.2	1.0	1.0
	시·도(경기도 제외)	2.0	37.2	11.3	14.2	29.8	5.1	0.4
연령	15 – 19세	5.9	29.5	7.3	31.5	23.3	1.3	1.1
	20 – 29세	2.2	34.8	8.0	18.8	29.6	4.7	2.0
	30 – 39세	1.8	37.5	18.7	13.2	24.3	4.5	0.0
	19 – 34세	1.8	357	9.9	18.8	28.1	4.3	1.4
학교 계열	일반고	0.3	32.0	15.2	21.3	24.9	5.5	0.8
	자율형 및 특목고	0.0	23.1	0.0	37.8	29.2	6.1	3.8
	직업계고	0.0	23.1	0.0	37.8	29.2	6.1	3.8
	기타	40.5	18.7	10.1	6.5	20.6	3.6	0.0
진로 변경	고교 진로변경 없음	0.2	36.9	13.6	17.5	26.9	4.2	0.9
	고교 진로변경 있음	0.0	32.1	11.1	18.3	24.3	11.4	2.8

주)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④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대학에 가고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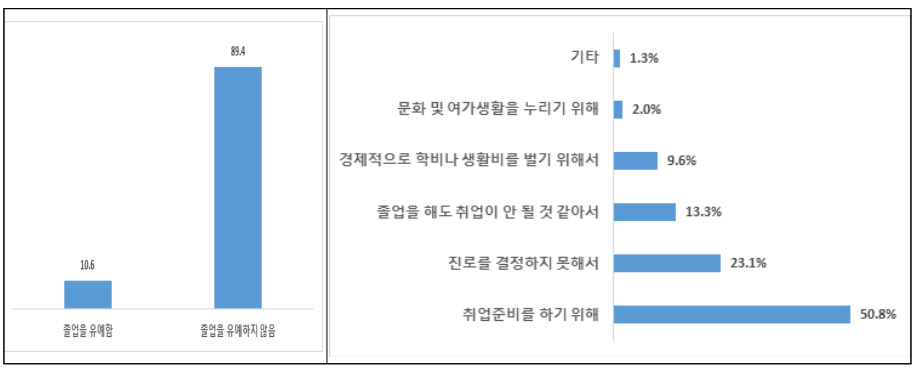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2. 복수 전공 여부와 복수 전공계열

다음으로 대학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복수 전공(부전공, 심화, 연계전공 포함) 여부와 전공계열을 물어보았다. 복수 전공을 한 응답자들은 전체 중 8.3%였으며 복수 전공한 전공계열은 인문계열이 27.7%로 가장 많았고 경상계열과 사회계열이 20.1%, 18.7%로 뒤를 이었다.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대학 재학 시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는지, 왜 졸업을 유예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졸업 유예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6%로 나타났으며 졸업을 유예한 이유로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23.1%)와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13.3%),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9.6%)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3. 졸업 유예 여부와 졸업을 유예한 이유

다음으로 대학 진학자들에게 고교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인생과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대학 진학 중 53.8%가 대학 교육이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지역이 62.7%로 매우 높게 나온 반면, 경기도지역은 42.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Ⅲ-23 대학 교육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3	14.0	32.3	43.3	7.1
성별	남자	3.5	15.7	33.6	40.8	6.5
	여자	3.1	12.2	31.0	46.1	7.7
지역	서울특별시	1.7	9.3	26.3	53.8	8.9
	경기도	6.6	16.6	34.8	36.8	5.2
	광역시(서울 제외)	1.7	11.5	33.9	48.0	4.9
	시·도(경기도 제외)	3.0	17.8	33.7	36.5	9.0
교육 수준	전문대 진학	5.6	18.4	38.9	33.3	3.8
	4년제 대학교 진학	2.1	12.3	29.5	47.4	8.7
	대학원 석사 이상	3.6	5.5	22.8	60.7	7.5
학교 계열	일반고	2.8	12.7	32.4	44.4	7.8
	자율형 및 특목고	8.9	1.3	31.9	55.8	2.1
	직업계고	5.5	26.0	32.9	31.9	3.7
	기타	6.2	15.0	18.4	60.5	0.0
전공 계열	인문계열	3.3	9.2	38.9	43.9	4.6
	사회계열(경상 제외)	2.3	12.4	36.7	44.0	4.6
	경상계열	6.2	14.8	34.4	39.6	5.0
	자연계열	4.6	13.3	32.4	43.6	6.1
	공학계열	2.9	17.9	31.3	40.8	7.0
	의/약학계열	0.0	8.6	24.8	52.4	14.1
	교육계열	0.3	9.2	33.8	43.6	13.2
	예체능계열	4.2	18.3	24.6	44.3	8.5
	기타	3.4	17.1	23.0	45.4	11.1
진로 변경	고교 진로변경 없음	3.4	14.1	31.9	43.6	7.1
	고교 진로변경 있음	0.8	11.8	43.9	36.5	7.1
복수 전공	대학 복수전공 없음	2.3	13.1	23.7	49.2	11.7
	대학 복수전공 있음	3.4	14.1	33.1	42.8	6.6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석사 이상을 진학한 경우가 68.2%가 대학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전문대학은 37.6%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고교 재학 당시 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율형 및 특수목적고 출신의 긍정 응답이 57.9%로 가장 높았고 직업계고 출신 응답은 35.6%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학 계열별로 보면, 의/약학 계열이 66.5%로 매우 높은 긍정응답 비율을 보여준데 비해 경상계열은 44.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고교 시 진로변경을 한 경우 43.6%만이 긍정적인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고 복수전공이 있는 경우도 49.4%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56.0%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52.9%)보다는 여자(57.3%)의 긍정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7.2%로 높게 나타난데 비해 경기도는 47.2%,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은 50.9%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9세의 응답비율이 59.8%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51.1%로 가장 낮았다.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있어서 대학원 진학 이상이 64.5%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진학이 43.3%로 가장 낮았다. 고교 재학 시절 고교 유형별로 보면 자율형 및 특수목적고 출신이 65.2%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데 반해 직업계고 출신은 37.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대학 전공계열별로 보면, 의/약학 계열이 70.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예체능계열이 49.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고교 시절 진로변경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고 대학 복수 전공이 없는 경우에 있는 경우보다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4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	14.1	29.0	46.9	8.1
성별	남자	2.0	16.8	28.3	45.0	7.9
	여자	2.0	11.1	29.7	49.0	8.3
지역	서울특별시	0.9	10.9	21.0	57.1	10.2
	경기도	3.7	18.7	30.4	40.1	7.1
	광역시(서울 제외)	1.9	8.1	33.9	50.5	5.6
	시·도(경기도 제외)	1.5	17.8	29.8	41.6	9.3
연령	15 - 19세	1.1	5.5	33.6	48.7	11.1
	20 - 29세	1.6	12.8	27.2	50.1	8.3
	30 - 39세	2.5	16.2	30.2	43.6	7.5
	19 - 34세	1.8	13.4	28.7	47.9	8.3
교육 수준	전문대 진학	2.8	19.2	34.6	37.4	5.9
	4년제 대학교 진학	1.5	11.7	26.5	51.3	9.1
	대학원 석사 이상	3.6	10.2	21.8	54.5	10.0
학교 계열	일반고	1.5	13.0	28.5	48.6	8.4
	자율형 및 특목고	2.4	8.7	23.7	57.5	7.7
	직업계고	5.2	23.5	33.8	32.1	5.4
	기타	7.6	9.4	22.5	51.9	8.6
전공 계열	인문계열	1.8	14.5	32.9	45.1	5.8
	사회계열(경상 제외)	0.9	12.7	33.9	47.3	5.1
	경상계열	5.1	13.7	29.0	44.1	8.0
	자연계열	2.3	11.9	25.9	54.1	5.8
	공학계열	2.1	15.0	28.2	45.5	9.3
	의/약학계열	0.0	5.9	23.9	50.9	19.3
	교육계열	0.0	6.9	27.2	54.6	11.3
	예체능계열	2.5	21.9	26.5	43.8	5.3
	기타	1.4	12.9	27.4	44.1	14.2
진로 변경	고교 진료변경 없음	2.0	14.0	29.0	47.0	8.0
	고교 진로변경 있음	2.0	15.3	27.2	46.0	9.5
복수 전공	대학 복수전공 없음	0.5	10.7	20.9	59.9	8.0
	대학 복수전공 있음	2.1	14.4	29.7	45.7	8.1

대학 전공 적합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46.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공적합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 응답자들의 전공적합도가 높았고 30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Ⅲ-25 대학 전공의 적합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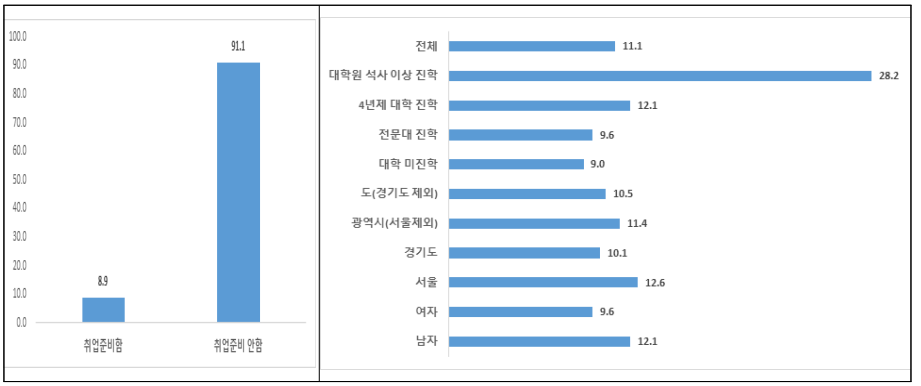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	13.7	36.7	40.5	6.0
성별	남자	3.6	15.5	36.6	38.7	5.6
	여자	2.6	11.7	36.8	42.4	6.5
지역	서울특별시	1.2	9.0	32.8	48.8	8.1
	경기도	4.6	16.3	41.1	32.6	5.3
	광역시(서울 제외)	2.9	12.3	36.6	44.1	4.0
	시·도(경기도 제외)	3.4	16.5	36.0	37.4	6.6
연령	15 - 19세	2.4	10.5	29.7	49.1	8.3
	20 - 29세	2.8	10.9	38.4	42.0	5.8
	30 - 39세	3.4	16.8	35.7	38.0	6.0
	19 - 34세	3.0	12.7	36.4	41.7	6.3
교육 수준	전문대 진학	4.7	17.5	40.4	33.8	3.7
	4년제 대학교 진학	2.5	12.2	35.5	43.1	6.8
	대학원 석사 이상	0.0	6.8	24.7	54.6	13.8
학교 계열	일반고	2.6	13.0	36.7	41.5	6.2
	자율형 및 특목고	4.8	11.4	32.5	42.4	8.9
	직업계고	5.6	19.6	39.0	31.7	4.1
	기타	7.6	10.8	23.1	49.9	8.6
전공 계열	인문계열	2.7	13.9	42.5	37.7	3.1
	사회계열(경상 제외)	1.9	13.7	41.3	40.3	2.7
	경상계열	4.9	11.8	38.4	38.4	6.5
	자연계열	4.7	19.4	34.2	37.3	4.4
	공학계열	2.7	15.4	36.8	39.7	5.4
	의/약학계열	0.7	11.6	31.9	45.6	10.2
	교육계열	0.8	7.3	27.6	46.9	17.5
	예체능계열	5.2	9.9	31.5	44.1	9.3
	기타	2.1	13.9	33.2	45.1	5.8
진로 변경	고교 진료변경 없음	3.1	13.6	36.7	40.7	6.0
	고교 진로변경 있음	2.8	17.5	36.5	35.7	7.5
복수 전공	대학 복수전공 없음	4.1	8.3	35.9	41.3	10.5
	대학 복수전공 있음	3.0	14.2	36.8	40.4	5.6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 진학자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대 진학자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 고교 재학 시 고교 유형별로 보면, 직업계고가 35.8%로 가장 낮았고 자율형 및 특수목적고가 51.3%로 가장 높았다. 대학 전공계열별로 보면, 교육계열이 64.4%로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이 40.8%로

가장 낮았다. 고교 시기 진로변경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공적합도가 높지 않았다. 복수전공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전공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2) 취업준비생의 능력개발과 취업준비

이 절에서는 취업준비생의 능력개발과 취업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였다. 취업준비생 중 취업준비기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11.1개월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2.1개월로 여자(9.6개월)보다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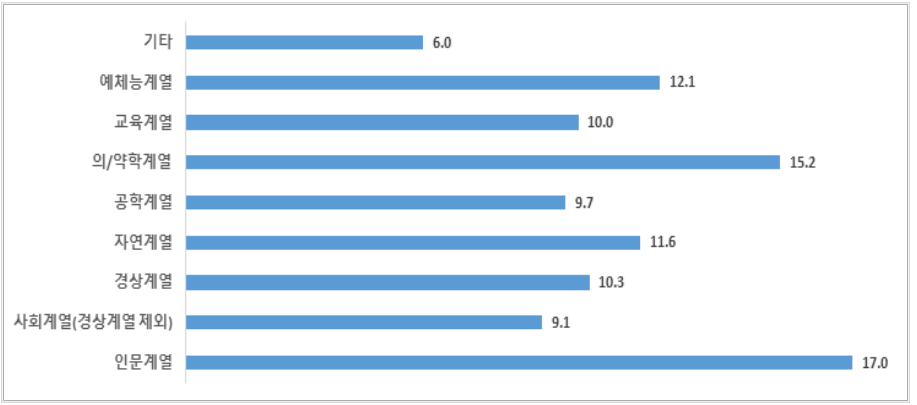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4. 취업준비 여부와 취업 준비 기간(개월)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12.6개월로 전체 평균보다 길었고 경기도 지역이 10.1개월도 평균보다 짧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9.0개월로 짧았으며 대학원 석사 이상은 28.2개월로 매우 길었다. 4년제 대학 진학자 역시 취업준비기간이 12.1개월로 길었다.

전문대 이상 대학 진학자의 전공계열별로 취업준비 기간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이 17개월로 압도적인 수준으로 길었고 이어서 의/약학계열이 15.2개월, 예체능계열이 12.1개월로 취업준비 기간이 긴 편이었다.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짧은 준비기간을 보여준 전공계열은 경상계열을 제외한 사회계열로 9.1개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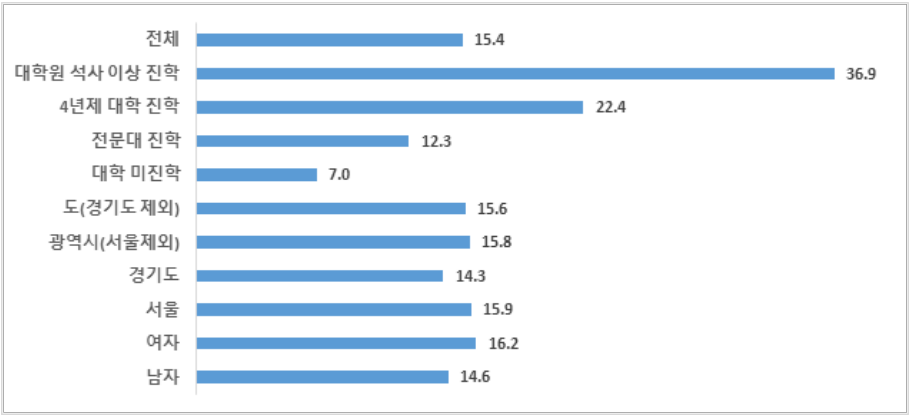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5. 대학 전공계열별 취업 준비 기간(개월)

전문대 이상 대학 진학자의 전공계열별로 취업준비 기간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이 17개월로 압도적인 수준으로 길었고 이어서 의/약학계열이 15.2개월, 예체능계열이 12.1개월로 취업준비 기간이 긴 편이었다.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짧은 준비기간을 보여준 전공계열은 경상계열을 제외한 사회계열로 9.1개월이었다.

이어서 어떻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15.4%가 공시, 고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16.2%로 남자(14.6%)보다 공시, 고시, 국가 자격시험 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1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교육 수준별로 보면, 대학원 석사 이상인 경우 36.9%가 공시, 고시,

국가 자격시험을 준비 중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대학 미진학자가 7.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6. 공시, 고시, 국가 자격시험 준비 비율

다음으로 어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표본수가 취업준비자로 제한적이어서 교육영역에 있어서 전문대와 대학교의 차이만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을 비롯하여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훈련, 외국어 관련 교육이나 훈련, 해외 및 어학 연수별로 살펴보았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학은 취업준비생 중 40.3%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의 활용은 48.6%, 외국어 준비는 43.4%, 해외 및 어학 연수는 9.1%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 및 훈련이 가장 높고 해외 및 어학 연수가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학과 해외 및 어학연수 비율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학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인터넷 강의는 물론 해외 및 어학연수 비율도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학과 해외 및 어학연수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았고 온라인이나 외국어는 20대가 가장 높았다. 취업준비생의 대학 유형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출신들이 모든 영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Ⅲ-26 학원 통학 및 온라인 교육훈련, 연수 경험

(단위: %)

구 분		직업훈련기관, 학원 통학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	영어회화, 토익, 토플 등 제2외국어	해외연수, 어학연수
전 체		40.3	48.6	43.4	9.1
성별	남자	42.9	48.2	43.7	11.6
	여자	36.6	49.3	42.8	5.5
지역	서울특별시	61.4	55.0	61.1	14.6
	경기도	27.2	39.9	40.3	9.7
	광역시(서울 제외)	45.1	52.8	48.8	8.2
	시·도(경기도 제외)	31.8	49.0	24.7	4.2
연령	15 - 19세	28.0	21.1	14.7	6.6
	20 - 29세	40.1	55.1	47.5	8.6
	30 - 39세	43.3	36.5	37.9	11.0
	19 - 34세	42.1	52.2	47.0	8.8
대학 유형	전문대(2-3년제)	33.4	38.5	35.3	5.0
	대학교(4-6년제)	45.2	61.3	56.9	12.5

이어서 취업준비 중에서 면접 훈련과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현장실습 경험들을 살펴보았다. 면접 훈련은 취업준비생 중 30.4%가 경험하였으며 자소서 작성 훈련은 51.4%, 컨설팅은 12.5%. 현장실습은 27.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현장실습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면접 훈련이 많았고, 경기도는 자기소개서 작성 훈련이, 취업번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및 현장실

습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면접 훈련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취업전문회사 컨설팅이나 현장실습은 15~19세가 가장 높았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문대 출신이 면접 훈련을 비롯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현장실습 모두 4년제 대학 출신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은 4년제 대학 출신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취업준비 중 면접, 자소서, 컨설팅 및 현장실습 경험

(단위: %)

구 분		면접 훈련 (인터넷 포함)	자조서 작성 훈련 (인터넷 포함)	취업전문회사 자문 및 컨설팅	현장실습
전 체		30.4	51.4	12.5	27.8
성별	남자	31.9	54.8	14.1	25.7
	여자	28.3	46.4	10.2	30.7
지역	서울특별시	38.5	52.4	17.7	23.1
	경기도	29.3	55.8	6.3	25.3
	광역시(서울 제외)	31.9	47.1	19.7	38.9
	시·도(경기도 제외)	22.7	49.8	7.5	22.8
연령	15 - 19세	18.2	40.6	18.4	31.6
	20 - 29세	32.5	52.8	14.3	26.7
	30 - 39세	27.3	49.8	6.5	29.7
	19 - 34세	32.6	52.5	12.9	26.8
대학 유형	전문대(2-3년제)	36.4	61.7	8.5	32.3
	대학교(4-6년제)	29.9	50.3	14.4	23.6

다음으로 취업준비 중 자격증 취득 준비와 인턴, 봉사활동, 동아리 혹은 스터디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은 취업준비생 중 50.4%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턴 경험은 18.0%, 봉사활동은 27.8%, 동아리 및 스터디 활동은 29.4%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자격증 취득과 스터디 활동 비율이 높았고 여자가 인턴, 봉사활동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가 자격증 취득, 인턴, 봉사활동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은 동아리 혹은 스터디 활동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자격증 취득 비율이 높았고 20대는 인턴 경험과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비교해 보면,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스터디 활동 모두 전문대 출신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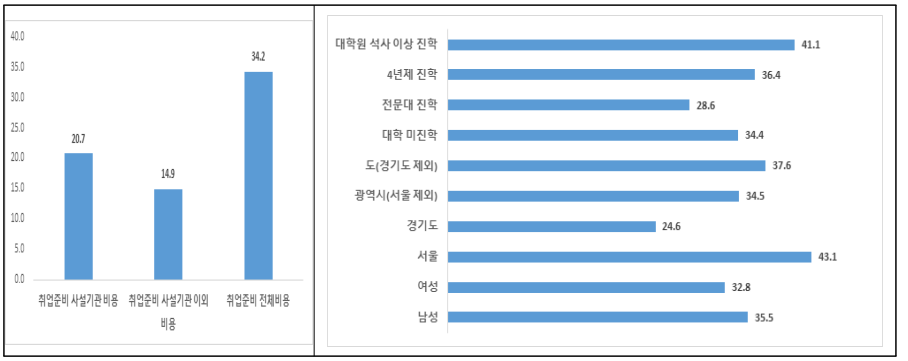
표 Ⅲ-28 취업을 위한 자격증, 인턴, 봉사활동, 동아리 및 스터디 활동 경험

(단위: %)

구 분		자격증 취득	인턴 경험	봉사활동	동아리 및 스터디
전 체		51.3	18.0	27.8	29.4
성별	남자	51.9	16.7	23.6	32.5
	여자	50.4	19.9	34.1	24.8
지역	서울특별시	54.2	23.7	18.6	47.5
	경기도	46.2	18.7	23.8	23.2
	광역시(서울 제외)	60.1	24.4	42.6	30.3
	시·도(경기도 제외)	45.2	4.7	25.3	19.1
연령	15 - 19세	47.6	0.0	26.1	22.4
	20 - 29세	49.4	19.7	29.1	32.6
	30 - 39세	57.1	16.9	24.8	21.7
	19 - 34세	50.9	19.9	28.3	33.0
대학 유형	전문대(2-3년제)	43.4	16.8	24.5	22.7
	대학교(4-6년제)	58.9	16.7	32.2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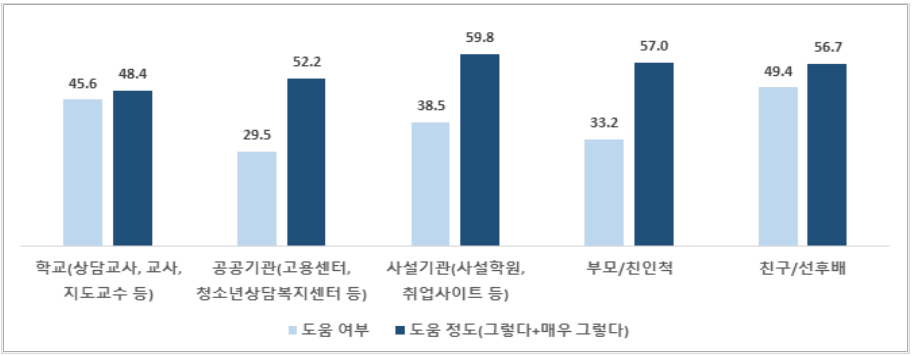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이 취업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매월 드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학의 경우 20.7만원이 월평균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합 이외의 비용은 14.9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취업준비에 드는 총 비용은 월평균 34.2만원이었다.

대상별로 보면, 남성 취업준비생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43.1만원으로 물가 등 때문에 가장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석사 이상의 경우 41.1만원으로 가장 비용이 컸고 전문대 진학자가 28.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7. 전체 및 대상별 취업준비 비용(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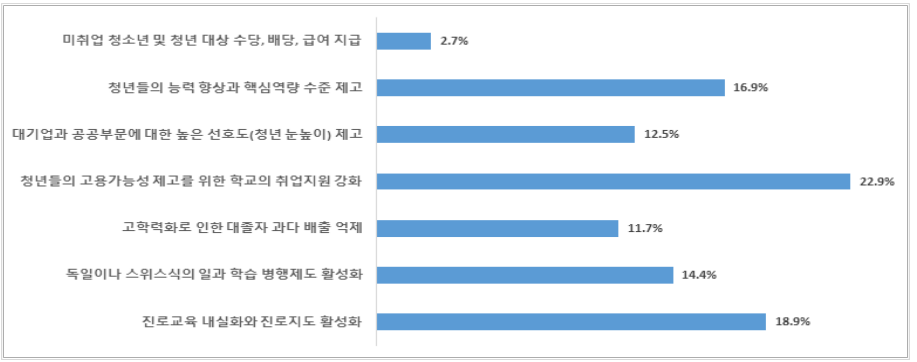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8. 대상별 취업준비 도움 여부와 정도(%)

이어서 취업준비생에게 학교, 공공기관, 사설기관을 비롯하여 부모님이나 친인척, 친구나 선후배가 취업을 도와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는 고교 시기 교사와 대학 시기 교수를 비롯해 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로 물어봤다. 공공기관은 고용센터를 비롯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영역에서 운영 중인 기관이나 시설에서 도움을 받았는지를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도움을 받은 비율은 친구와 선후배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29.5%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공공기관 서비스를 정책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도움 정도는 긍정응답비율이 사설시관의 경우 59.8%로 가장 높았고 학교가 48.4%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준비 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노동공급 차원에서 어떤 일자리 해법을 선호하는지 질문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가 22.9%로 가장 높았다. 학교로부터 받는 도움 정도가 가장 낮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해법은 다른 곳이 아닌 학교였다. 이 결과는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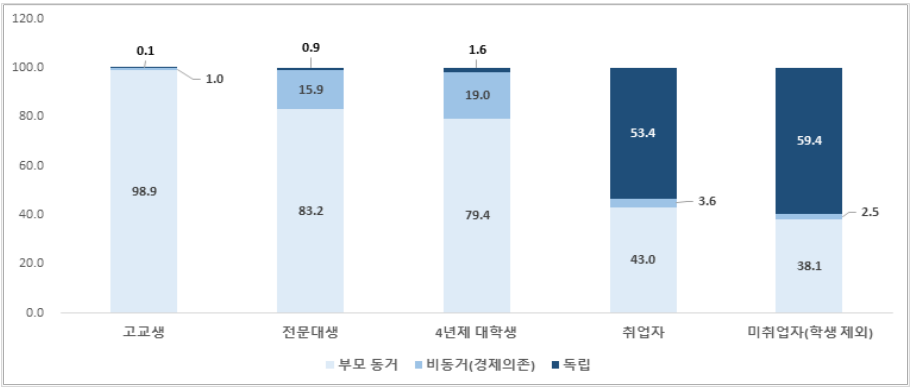
그림 Ⅲ-9. 청년들이 생각하는 노동공급(개인, 교육) 차원 일자리 해법(%)

학교 취업지원 강화에 이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해법은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이다. 이어서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제고 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3) 주거, 생활안정 및 참여 실태 및 정책 수요

이 절에서는 일자리와 능력개발이라는 쟁점 이외에 학교졸업예정자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실태와 더불어 정책 수요에 관한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고교 재학생의 경우 질문 문항이 일부 제외된 것이 있어 여기에서 고교생을 제외하고 결과를 제시한 이유는 학생용 설문지에 해당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학교 재학생들과 비교를 위해 취업자와 학생을 제외한 미취업자의 결과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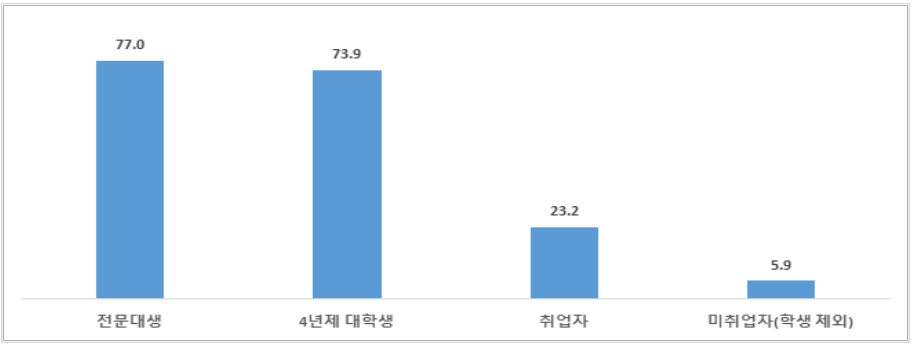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0. 재학생 및 취업자, 미취업자(학생 제외) 부모 동거 여부

먼저 주거와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면, 재학생 중 고등학교 학생의 98.9%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은 각각 83.2%와 79.4%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전문대상과 4년제 대학생은 각각 0.9%와 1.6%에 불과하였다. 이는 사실상 고교생과 대학생의 차이가 분가가 좀 더 이루어졌다는 것 외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대학 진학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분가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외국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빈곤율이 높지 않은 이유로 낮은 분가비율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미혼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전문대생이 77.0%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생도 73.9%로 1인 미혼 가구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생을 제외한 미취업자의 5.9%만이 미혼으로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주부가 상당수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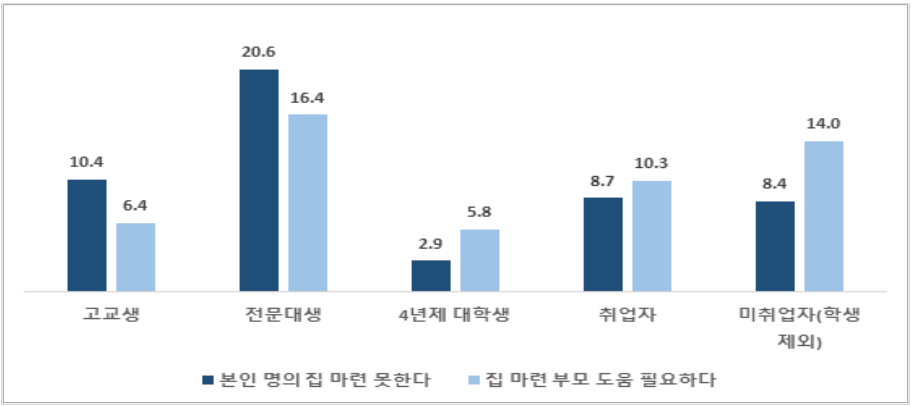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1. 미혼 1인 가구 비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주거에 대한 인식들을 물어보고 있다. 먼저 언제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서 전문대생의 경우 20.6%가 내 집 마련을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고교생도 10.4%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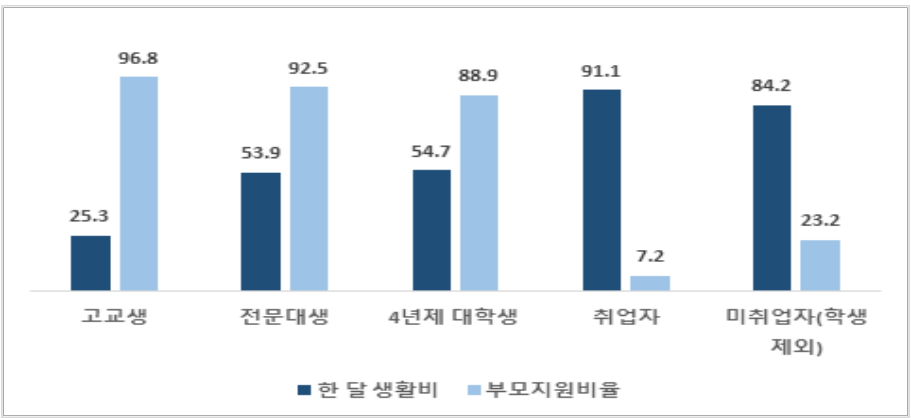
내 집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대생 중 16.4%가 그렇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고교생과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취업자나 학생을 제외한 미취업자보다 부모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수준이 낮았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2. 주거에 대한 청년 재학생 등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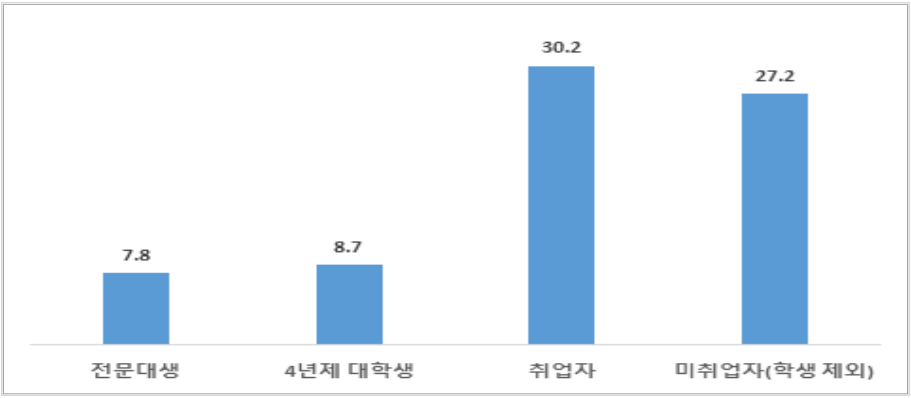
이어서 생활비를 살펴보면, 한 달 생활비는 고교생의 경우 25.3만원이 들었고 전문대생은 53.9만원, 4년제 대학생은 54.7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지원 비율은 고교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큰 차이 없이 90% 내외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3. 청년 재학생 등의 생활비(만원) 및 부모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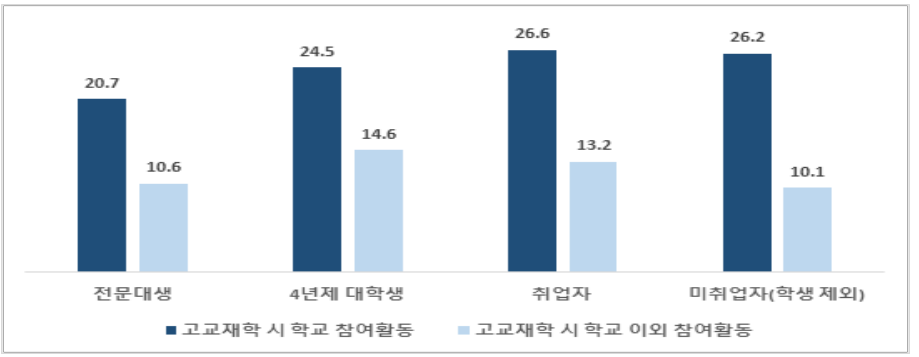
부채 여부를 보면, 전문대생은 7.8%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생의 경우 8.7%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부채 가 있는 비율이 30.2%로 가장 높았고 학생을 제외한 미취업자의 경우 부채비율은 27.2% 였다. 부채 이유와 관련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은 학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자와 학생을 제외한 미취업자는 주로 주거비 와 관련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4. 청년 재학생 등의 부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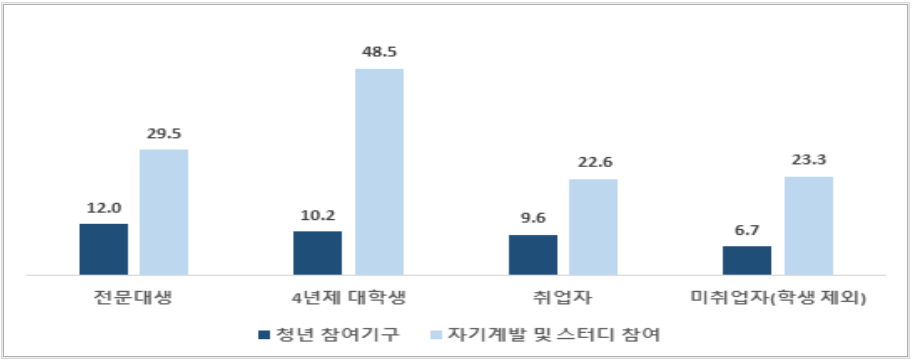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참여 활동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대생 및 4년제 대학생이 고교 재학 시에 학교와 학교 이외에 참여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문대생은 20.7%가 고교 재학 시에 학교 참여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은 24.5%가 학교 참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5. 고교 재학 시 청년 재학생 등의 참여활동 여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참여기구를 만들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 제공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자기계발이나 스터디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청년 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대생은 12.0%로 나타났고 4년제 대학생은 10.2%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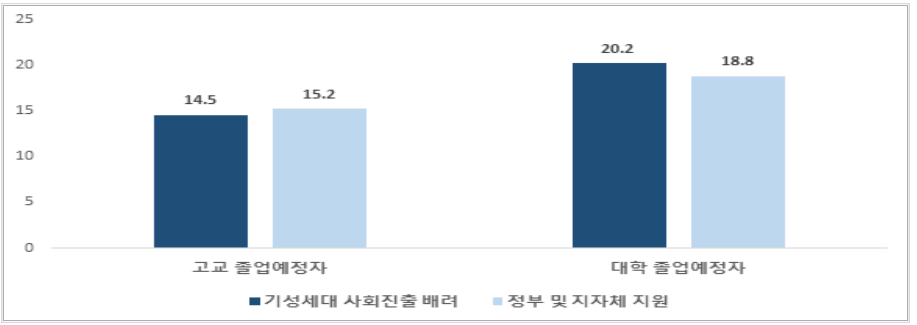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6. 청년 재학생 등의 청년 참여기구 및 스터디 참여활동 여부(%)

자기 계발 및 스터디 활동 참여는 4년제 대학생이 48.5%로 절반 가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대생의 경우 29.5%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4년제 대학생과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을 기성세대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얼마나 배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성세대의 경우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14.5%,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만이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을 하고 있어 기성세대가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보여주었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Ⅲ-17. 청년 졸업예정자에 대한 기성세대 배려 및 정부, 지자체 지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고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원은 각각 15.2%, 18.8%로 매우 낮은 응답을 보여 학교 졸업 예정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3. 요약 및 시사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결과를 요약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재학 시의 경험 중에서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과 진로변경이나 복수전공, 졸업유예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취업준비 내용과 과정, 비용, 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청년정책영역으로 볼 때 청년 능력개발과 청년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중등교육단계에서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취업처를 연계해 주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교 재학 시 진로 및 취업지원 경험 여부에서 취업처 연계는 16.8%만이 경험하였고 도움 정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고등학생 중에서 자신이 결정한 진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때 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계고의 취업 희망자와 직업계고의 진학 희망자들이 변경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변경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진로 변경 후 진학이나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교 단계에서 취업처 연계 강화와 진로변경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단계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취업 준비기간이 달랐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17개월로 다른 전공 분야에 비해 매우 길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매월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있으며 선후배나 부모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나 도움 정도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재학생에게도 취업에 대한 지원이 직접 방식이든, 간접 방식이든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등과 고등교육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였다. 청년들이 제기한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이 바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였으며 이어서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였다.

능력개발과 일자리 외에 이 연구에서는 주거를 비롯한 생활안정과 참여 및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거 문제는 주로 학부 학생들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모두 90% 이상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참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자기 계발이나 스터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활동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 청년들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본인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과 이행경로

1.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 변화추이(1970-2017)
2.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이행경로
3. 요약 및 시사점

4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과 이행경로

1.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 변화추이(1970-2017)[12)]

1) 개요

본 절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았다. 졸업 후 상황은 취업, 진학, 입대, 유학, 미상, 미취업 등 졸업 이후 진로를 의미한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률은 교육의 핵심 성과지표인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을 유예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졸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취업, 미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진학 상황을 분석하였다.

2) 분석 설명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통계

12) 이 절은 김창환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였음.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1999년부터 교육통계 조사를 컴퓨터 기반 조사로 전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부터 2018년도의 데이터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1970년부터 1998년까지의 데이터는 교육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으로 설정하였다. 시계열 흐름을 분석하되, 학교급, 지역, 성, 계열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고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학교급별/성별 졸업 후 상황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계열별 졸업 후 상황은 가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 데이터는 2018년 데이터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조사는 2010년부터 국가 DB(건강보험 DB 등)와 연계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 DB를 활용하면서 실 취업률이 파악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0년 취업률이 2009년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통계조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졸업 후 상황 가운데 취업자, 진학자, 미상자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취업자는 졸업 후 취업을 한 사람을 말한다. 진학자는 졸업 후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사람을 말한다. 미상자는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하거나 졸업 후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취업률을 산정하는 공식은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X100이다(한국교육개발원 취업률 산정 공식). 진학률을 산정하는 공식은 진학자/졸업자X100이다. 미상률을 산정하는 공식은 미상자/졸업자X100이다.

3) 졸업 후 상황 분석(1970-2018)

(1) 일반계고 졸업 후 상황

① 일반계고 전체

일반계고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17.3% 수준이었다가, 1995년 26.4%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8.8%까지 감소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40.2%에서 시작하여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1994년부터 급증하여 2003년에는 90.2%까지 상승하였다.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대학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진학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진학률은 20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는 77.2%까지 감소하였다. 정부의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졸자 취업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48.7%로 출발하여 1977년 58.3%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199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20.6%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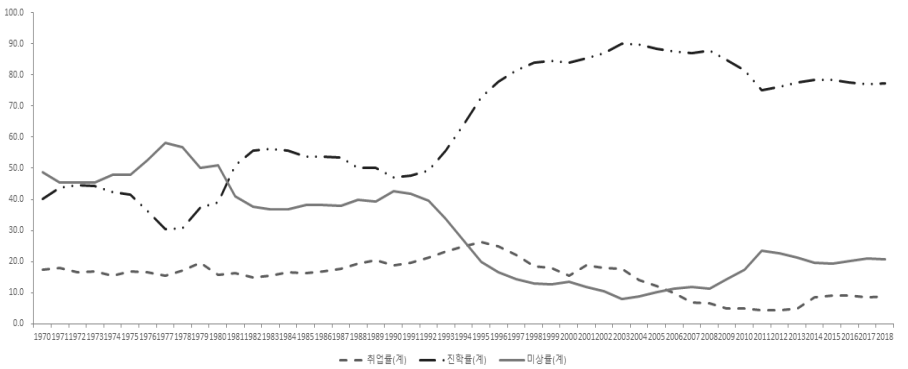


그림 Ⅳ-1. 일반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② 일반계고 남학생

일반계고 남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16.9% 수준이었다가, 1995년 25.0%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8.9%까지 감소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42.1%에서 시작하여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1994년부터 급증하여 2003년에는 89.8%까지 상승하였다.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대학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진학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진학률은 20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는 74.1%까지 감소하였다. 정부의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졸자 취업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46.7%로 출발하여 1977년 56.9%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199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23.3%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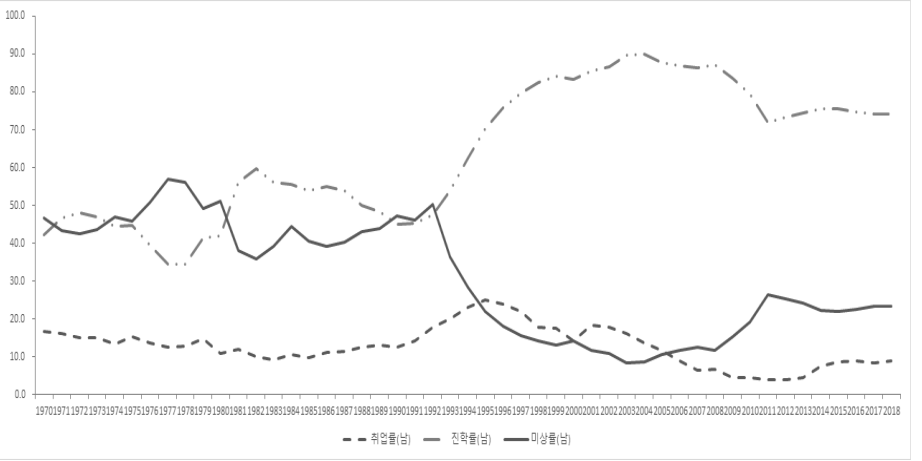


그림 Ⅳ-2. 일반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③ 일반계고 여학생

일반계고 여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17.9% 수준이었다가, 1995년 28.5%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8.6%까지 감소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37.3%에서 시작하여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1994년부터 급증하여 2003년에는 90.5%까지 상승하였다.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대학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진학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진학률은 20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는 80.4%까지 감소하였다. 정부의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졸자 취업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51.1%로 출발하여 1977년 60.1%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199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17.9%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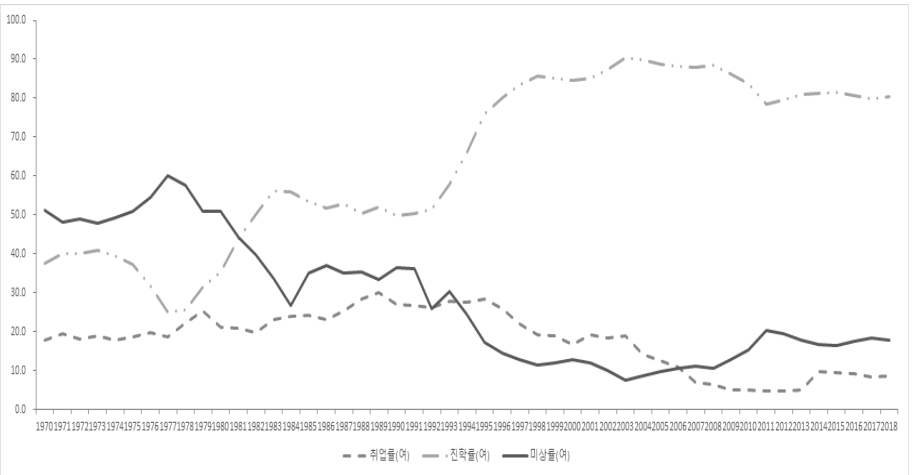


그림 Ⅳ-3. 일반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2)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

① 직업계고 전체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84.5% 수준이었다가, 1983년 52.6%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6년에는 91.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76.1%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취업률이 2017년 76.1%에서 2018년 67.1%로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슈가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10.1%에서 시작하여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1994년부터 급증하여 2009년에는 73.5%까지 상승하였다.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대학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진학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2018년에는 34.1%까지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점은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 효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12.3%로 출발하여 1982년 39.1%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03년에는 4.1%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완만히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1.3%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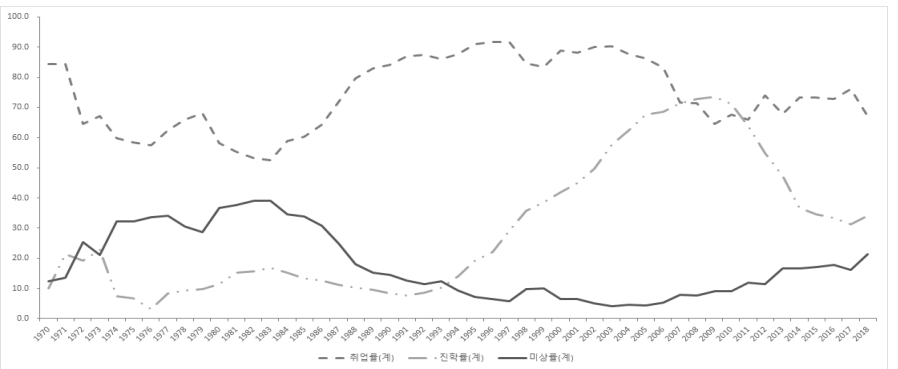


그림 Ⅳ-4.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② 직업계고 남학생

직업계고 남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84.7% 수준이었다가, 1983년 46.8%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7년에는 92.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76.7%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취업률이 2017년 75.7%에서 2018년 66.5%로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슈가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9.8%에서 시작하여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1994년부터 급증하여 2009년에는 75.8%까지 상승하였다.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대학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진학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2018년에는 32.1%까지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점은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 효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12.1%로 출발하여 1982년 41.5%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4.2%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완만히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2.1%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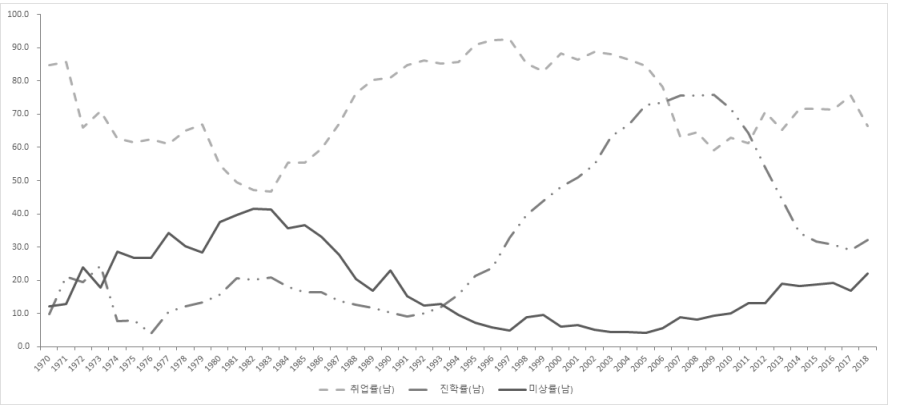


그림 Ⅳ-5.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③ 직업계고 여학생

직업계고 여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76.1% 수준이었다가, 1983년 59.0%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3년에는 92.0%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76.6%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취업률이 2017년 76.6%에서 2018년 68.0%로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슈가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23.5%에서 시작하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4년부터 급증하여 2009년에는 70.8%까지 상승하였다.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대학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진학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2018년에는 36.9%까지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점은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 효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19.3%로 출발하여 1976년 50.5%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03년에는 3.9%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완만히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0.1%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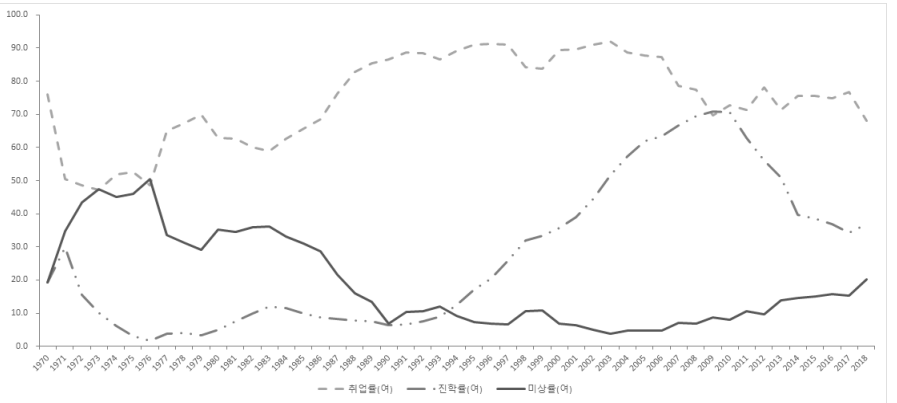


그림 Ⅳ-6.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3)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

① 전문대학 전체

전문대학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54.7% 수준이었다가, 1981년 41.2%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7년 75.5% 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IMF 영향으로 1998년 66.3%로 감소한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86.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55.6%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9.8%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23.5%에서 시작하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31.0%로 출발하여 소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9년 12.7%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7.2%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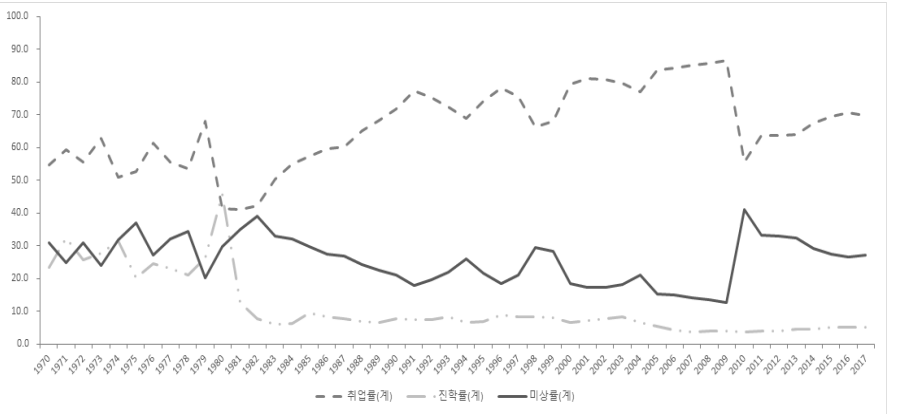


그림 Ⅳ-7.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② 전문대학 남학생

전문대학 남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65.2% 수준이었다가, 1982년 47.2%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7년 77.1% 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IMF 영향으로 1998년 67.8%로 감소한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86.9%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56.0%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8.5%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을 변경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29.9%에서 시작하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4.8%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18.4%로 출발하여 소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9년 12.1%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7.3%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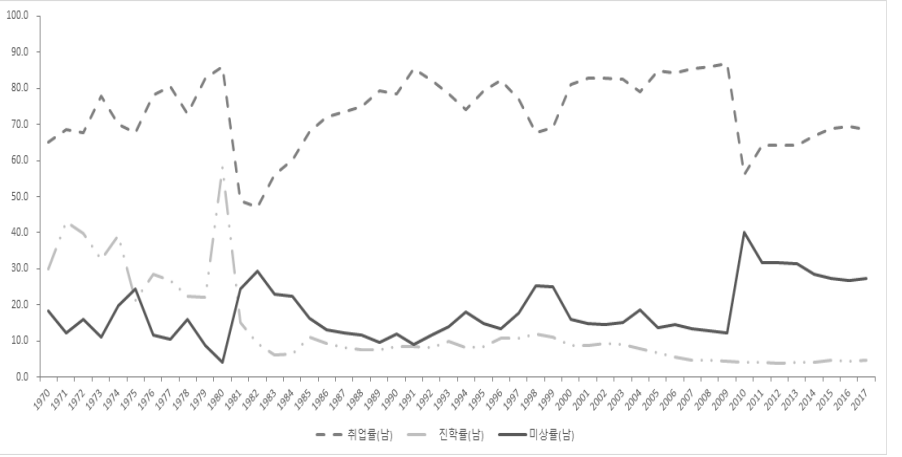


그림 Ⅳ-8.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③ 전문대학 여학생

전문대학 여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48.8% 수준이었다가, 1980년 31.9%까지 감소하였다가, 1997년 74.5% 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IMF 영향으로 1998년 65.4%로 감소한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86.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55.2%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0.8%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을 변경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17.9%에서 시작하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7%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42.0%로 출발하여 소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9년 13.1%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7.0%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Ⅳ-9.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4)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

① 4년제 대학교 전체

4년제 대학교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70.6% 수준이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1986년 45.7%까지 감소하였다. 1981년 시작된 졸업정원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7년에는 61.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IMF 영향으로 1998년 50.5%로 감소한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68.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51.9%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2.6%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을 변경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4.6%에서 시작하여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6.8%로 나타났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24.3%로 출발하였고 1986년 44.6%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7년에는 33.4%를 유지하고 있다. 미상률이 높은 이유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국가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졸업생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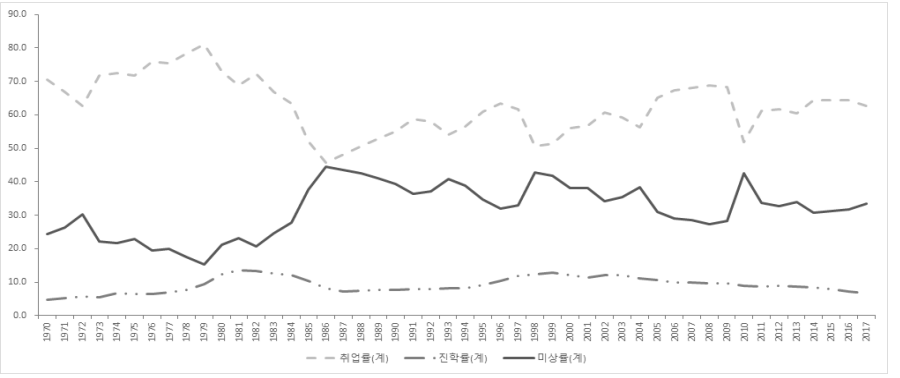


그림 Ⅳ-10.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② 4년제 대학교 남학생

4년제 대학교 남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79.3% 수준이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1986년 58.6%까지 감소하였다. 1981년 시작된 졸업정원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7년에는 68.7%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IMF 영향으로 1999년 52.6%로 감소한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70.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55.7%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4.9%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을 변경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5.0%에서 시작하여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7.7%로 나타났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16.2%로 출발하였고 1986년 30.7%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7년에는 31.0%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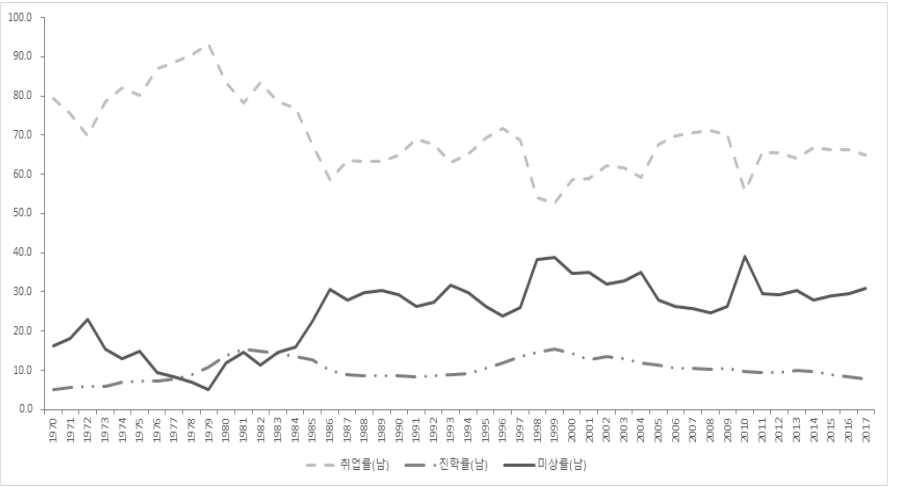


그림 Ⅳ-11.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③ 4년제 대학교 여학생

4년제 대학교 여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50.5% 수준이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1986년 28.2%까지 감소하였다. 1981년 시작된 졸업정원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7년에는 52.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IMF 영향으로 1998년 45.8%로 감소한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66.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47.9%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0.4%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을 변경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3.7%에서 시작하여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6.0%로 나타났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47.7%로 출발하였고 1986년 68.5%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35.7%를 유지하고 있다. 미상률이 미취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학생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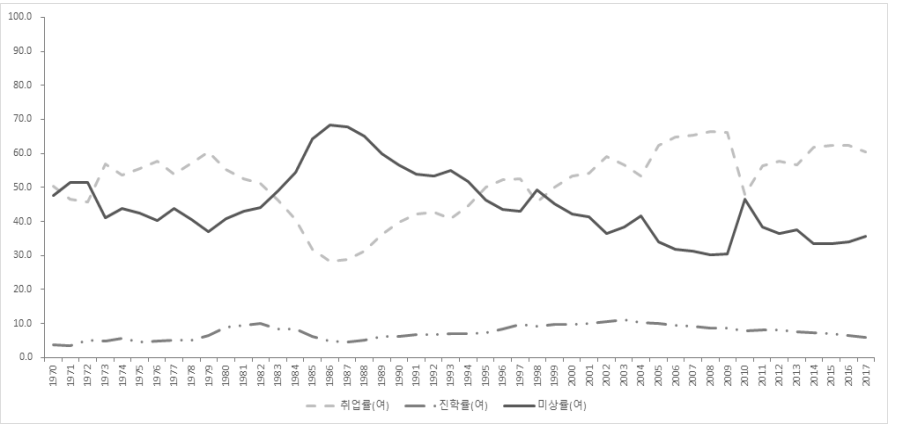


그림 Ⅳ-12.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5)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

① 일반대학원 전체

일반대학원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96.5% 수준이었다가,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감소하여 1998년에는 82.9%를 기록하였다. IMF 사태 이후 1999년에는 74.5%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79.9%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70.7%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7.7%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을 변경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2.4%에서 시작하여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6.3%로 나타났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3.4%로 출발하였고 완만한 추세로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17.7%를 유지하고 있다. NEET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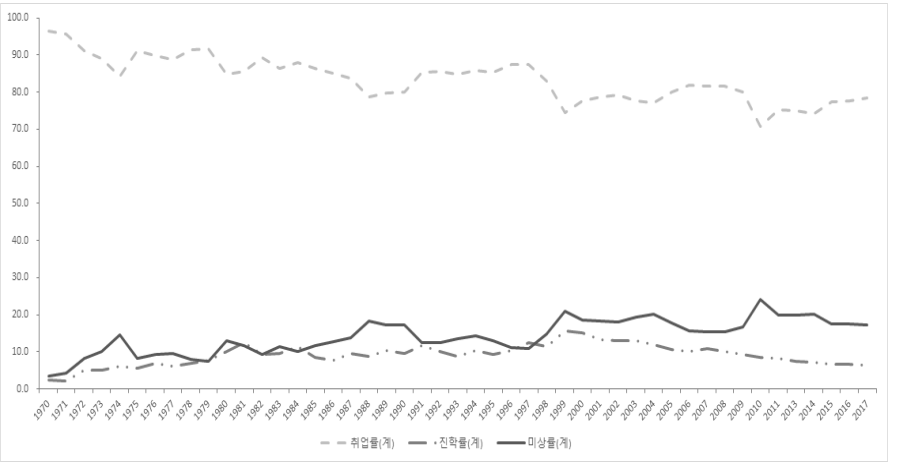


그림 Ⅳ-13.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70-2018) - 전체

② 일반대학원 남학생

일반대학원 남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97.8% 수준이었다가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감소하여 2017년에는 82.9%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대학원 남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96.5% 수준이었다가,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감소하여 1998년에는 88.1%를 기록하였다. IMF 사태 이후 1999년에는 78.6%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83.6%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82.1%로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2.9%를 기록하였다.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과 달리 일반대학원 남학생의 경우, 2010년 취업통계조사 방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2.1%에서 시작하여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6.7%로 나타났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2.1%로 출발하였고 완만한 추세로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13.8%를 유지하고 있다. NEET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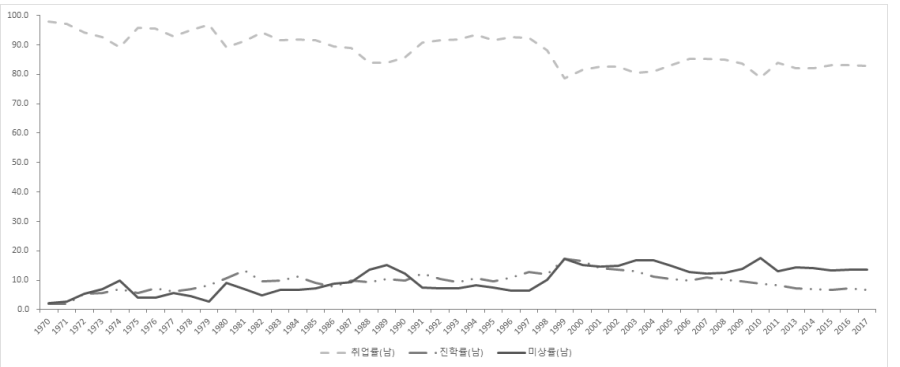


그림 Ⅳ-14.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70-2018) - 남학생

③ 일반대학원 여학생

일반대학원 여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85.3% 수준이었다가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감소하여 2017년에는 71.3%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대학원 여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70년 85.3% 수준이었다가,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감소하여 1998년에는 71.0%를 기록하였다. IMF 사태 이후 1999년에는 65.3%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09년에는 74.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58.3%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1.3%를 기록하였다. 일반대학원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2010년 취업통계조사 방식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이 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5.2%에서 시작하여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5.7%로 나타났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14.0%로 출발하였고 완만한 추세로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22.3%를 유지하고 있다. 고학력 NEET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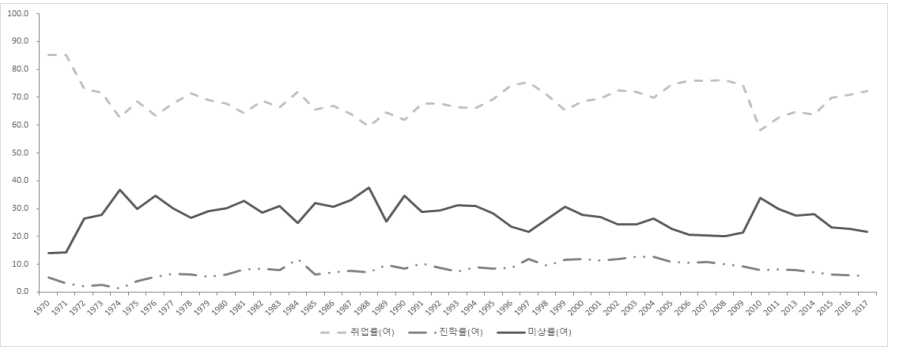


그림 Ⅳ-15.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70-2018) - 여학생

2) 지역별 졸업 후 상황 분석(1999-2018)

(1) 일반계 고등학교

①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전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18.1%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8.8%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84.0%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77.2%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2.6%였다가 2018년에는 23.3%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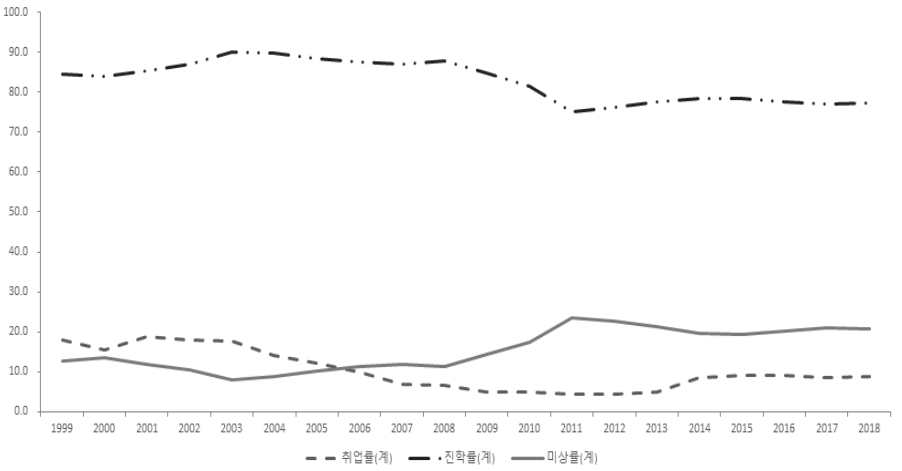


그림 Ⅳ-16.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전 지역

②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수도권

일반계 고등학교 수도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14.0%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8.5%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76.5%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69.0%까지 감소하였다. 정부의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졸자 취업난이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0.1%였다가 2018년에는 28.1%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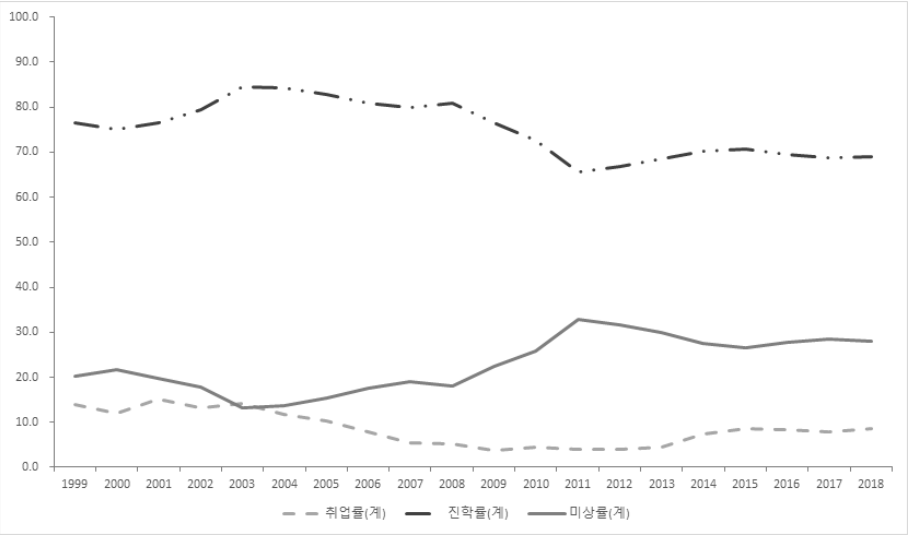


그림 Ⅳ-17.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수도권

③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 - 호서(충청)권

일반계 고등학교 호서(충청)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33.5%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14.0%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90.3%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83.6%까지 감소하였다. 정부의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졸자 취업난이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6.4%였다가 2018년에는 13.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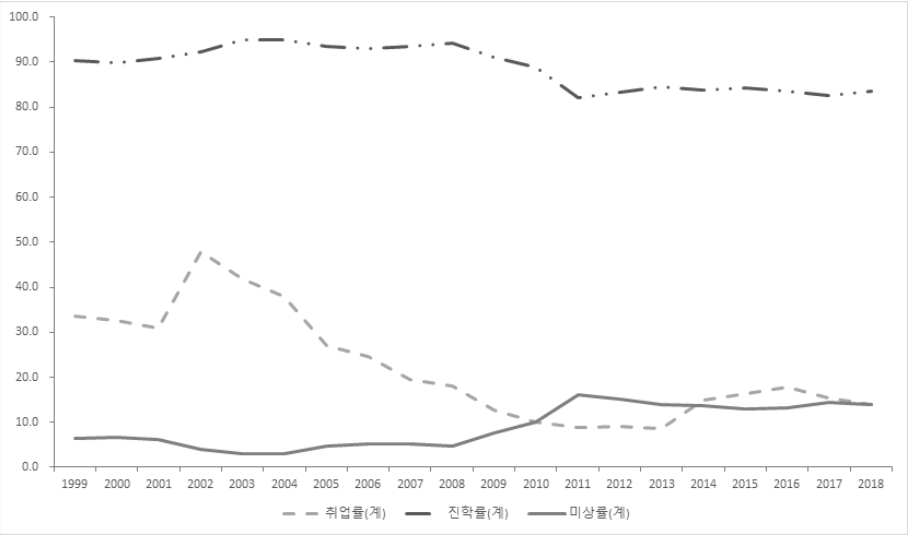


그림 Ⅳ-18.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서(충청)권

④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 - 강원권

일반계 고등학교 강원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51.5%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18.7%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90.3%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85.4%까지 감소하였다. 정부의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졸자 취업난이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6%였다가 2018년에는 11.7%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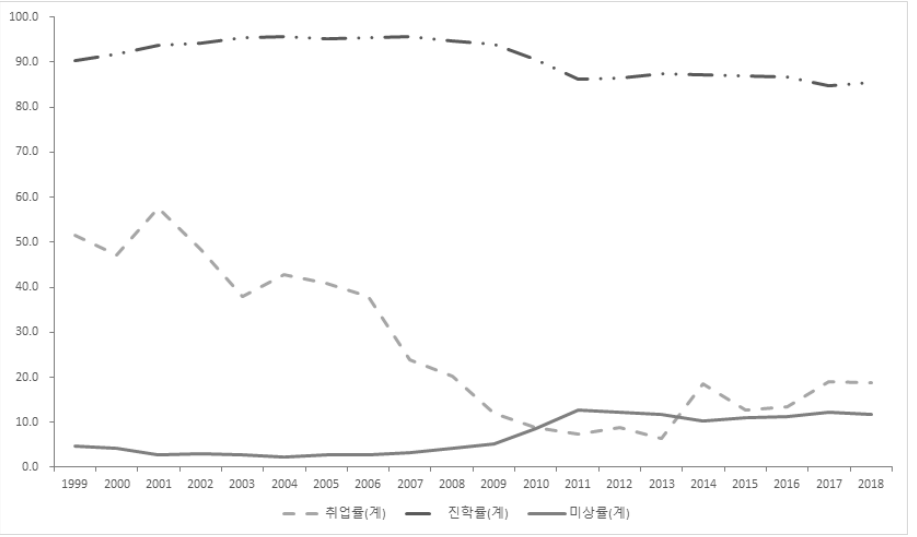


그림 Ⅳ-19.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강원권

⑤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 - 호남(제주)권

일반계 고등학교 호남(제주)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21.5%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9.8%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92.9%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84.2%까지 감소하였다. 정부의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졸자 취업난이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5.6%였다가 2018년에는 14.1%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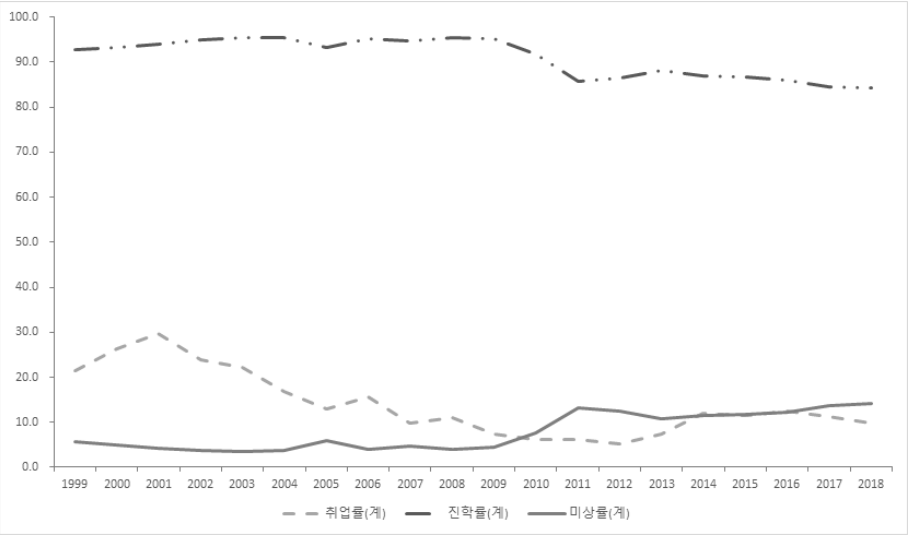


그림 Ⅳ-20.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남(제주)권

⑥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 - 영남권

일반계 고등학교 영남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24.5%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5.4%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90.6%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85.9%까지 감소하였다. 정부의 고졸자 취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졸자 취업난이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7.0%였다가 2018년에는 13.2%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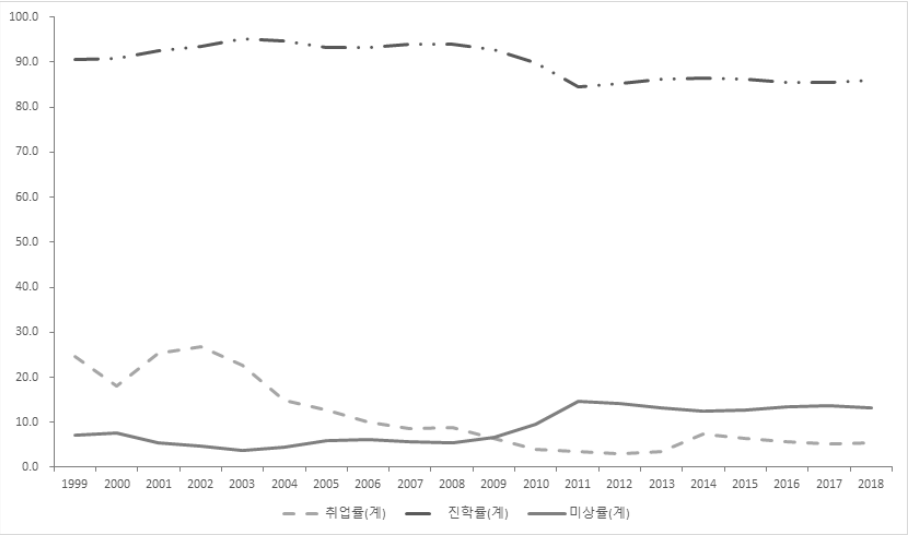


그림 Ⅳ-21.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영남권

(2) 직업계 고등학교

①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전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3.4%였다가 2009년 64.7%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6.1%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취업률이 2017년 76.1%에서 2018년 67.1%로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슈가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38.5%였다가 2009년 73.5%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31.2%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0.1%였다가 2018년에는 16.2%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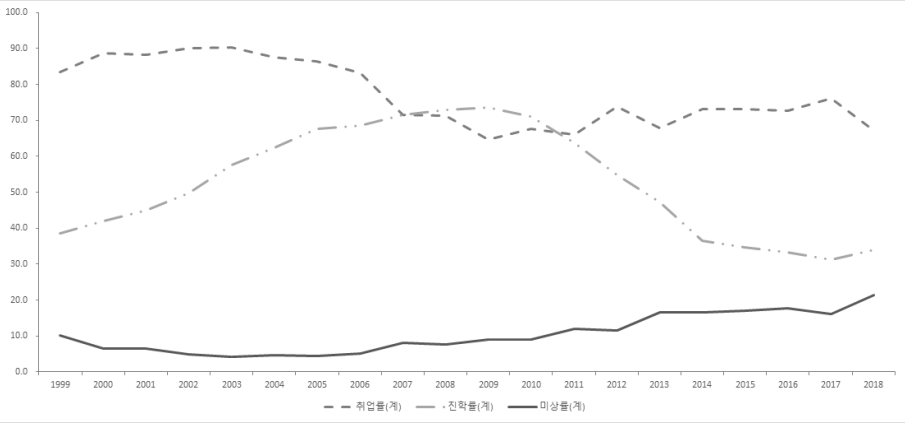


그림 Ⅳ-22.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전 지역

②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수도권

직업계 고등학교 수도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1.4%였다가 2009년 54.6%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1.9%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취업률이 2017년 71.9%에서 2018년 62.6%로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슈가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31.4%였다가 2009년 71.7%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31.2%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2.7%였다가 2018년에는 25.4%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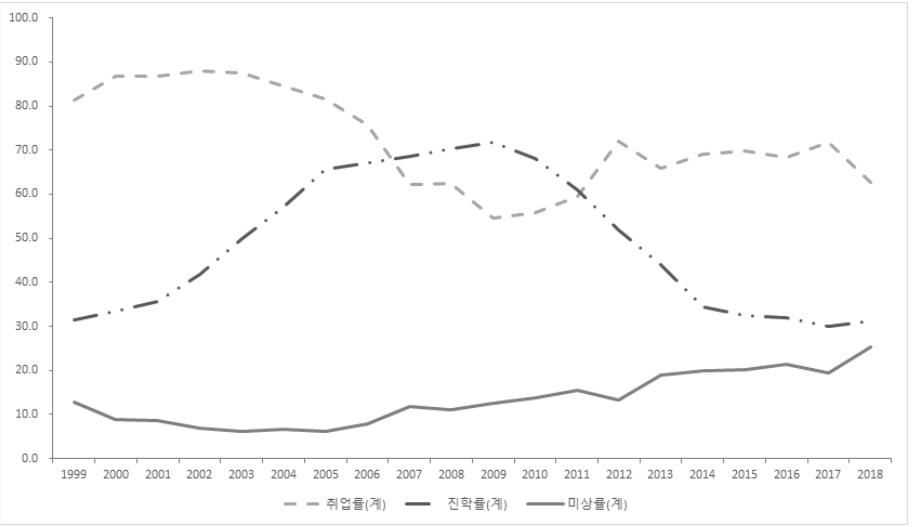


그림 Ⅳ-23.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수도권

③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서(충청)권

직업계 고등학교 호서(충청)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3.8%였다가 2009년 72.6%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77.8%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취업률이 2017년 77.8%에서 2018년 68.4%로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슈가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41.0%였다가 2009년 72.3%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36.0%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9.5%였다가 2018년에는 19.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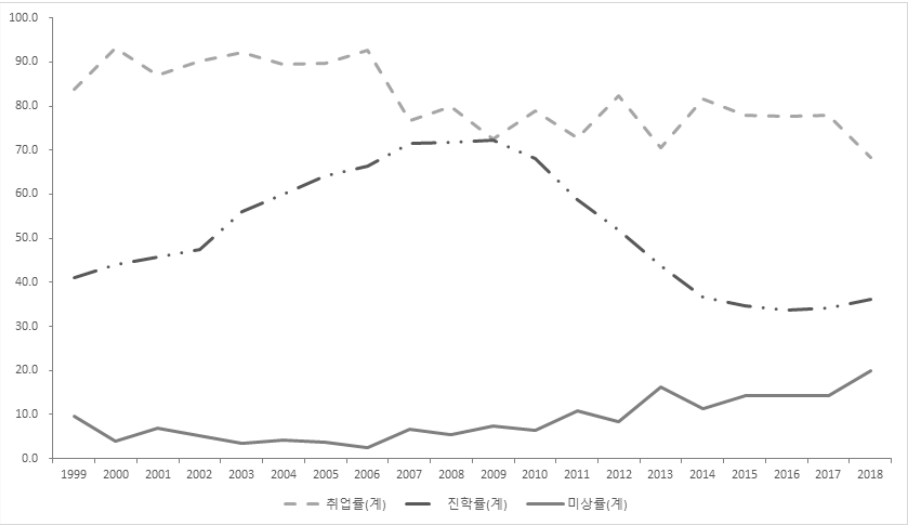


그림 Ⅳ-24.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서(충청)권

④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강원권

직업계 고등학교 강원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4.5%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2.1%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취업률이 2017년 72.1%에서 2018년 62.7%로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슈가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59.1%였다가 2009년 85.0%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31.4%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6.3%였다가 2018년에는 25.6%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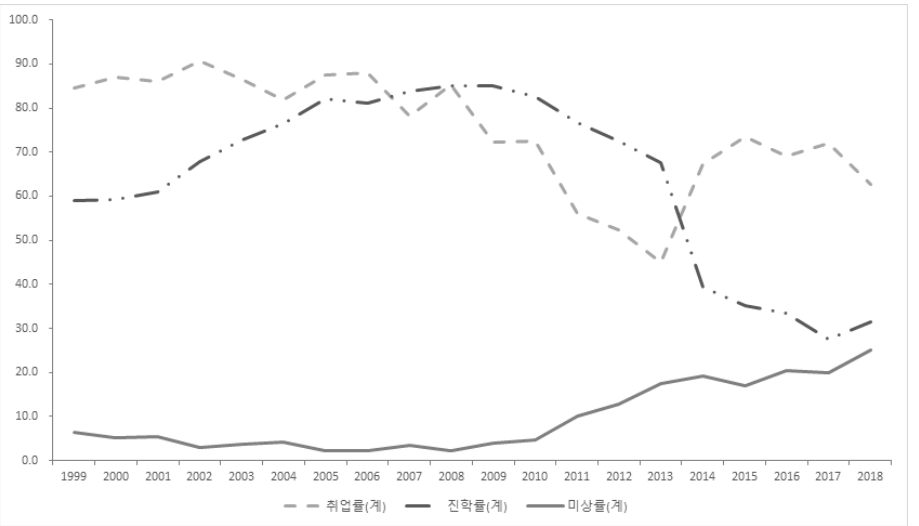


그림 Ⅳ-25.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강원권

⑤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남(제주)권

직업계 고등학교 호남(제주)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2.9%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7.7%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취업률이 2017년 77.7%에서 2018년 65.0%로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슈가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45.3%였다가 2009년 71.1%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37.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9.3%였다가 2018년에는 18.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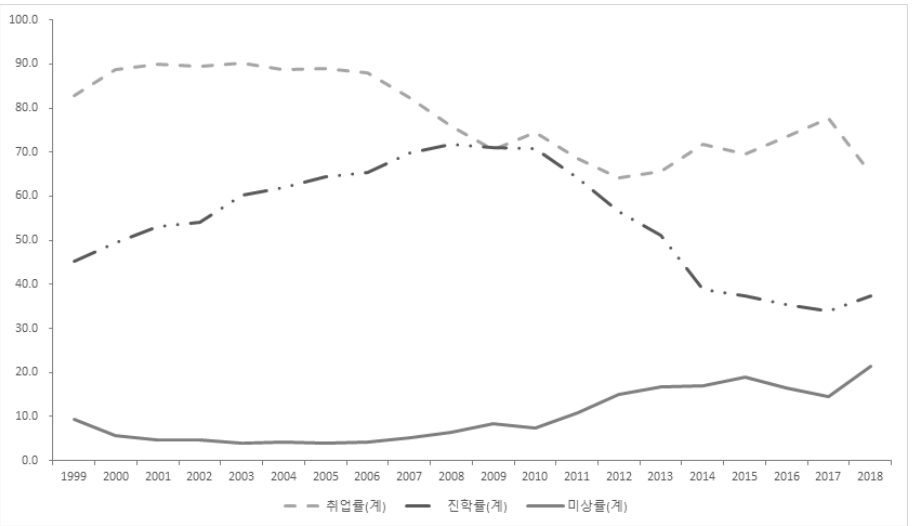


그림 Ⅳ-26.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서(제주)권

⑥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영남권

직업계 고등학교 영남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6.4%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1.4%를 기록하였다. 2007년 이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취업률이 2017년 81.4%에서 2018년 75.5%로 감소한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슈가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39.9%였다가 2009년 76.0%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36.1%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8.2%였다가 2018년에는 15.3%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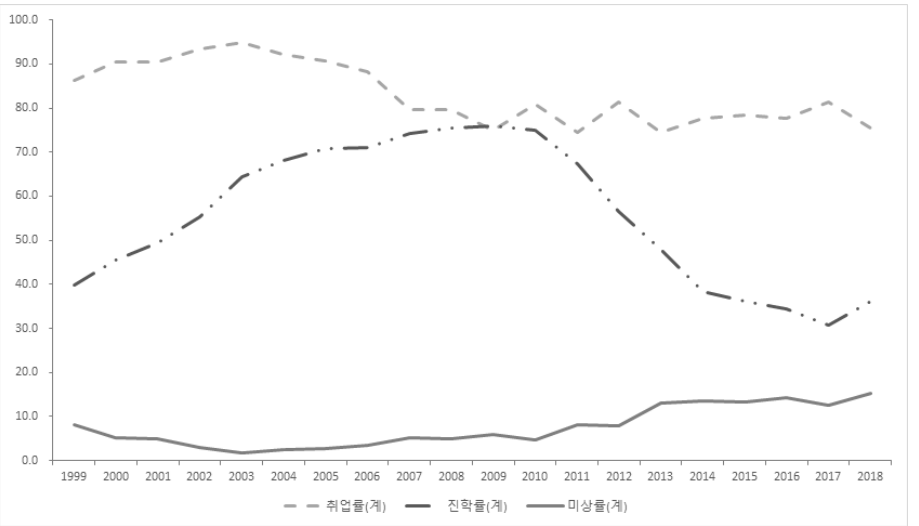


그림 Ⅳ-27.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8) - 영남권

(3) 전문대학

①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전문대학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8.1%였다가 2009년 86.5%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9.8%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을 변경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7.9%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8.2%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에는 27.2%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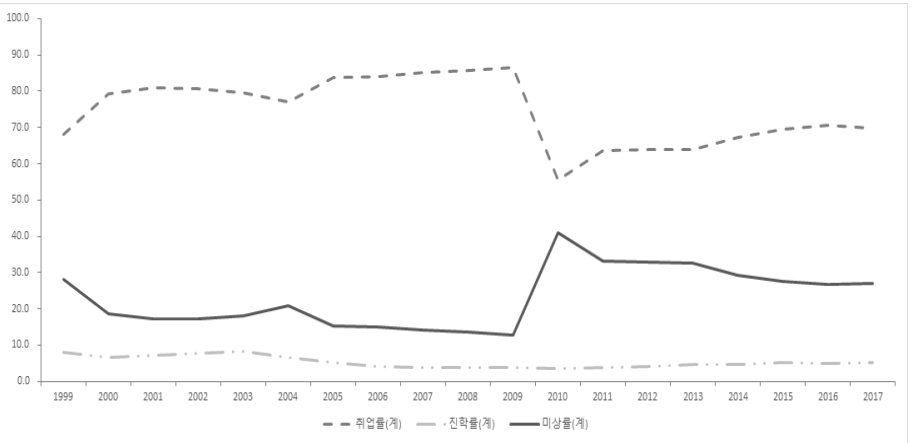


그림 Ⅳ-28.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②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전문대학 수도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2.8%였다가 2009년 83.2%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9.2%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6.5%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6%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33.7%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에는 28.1%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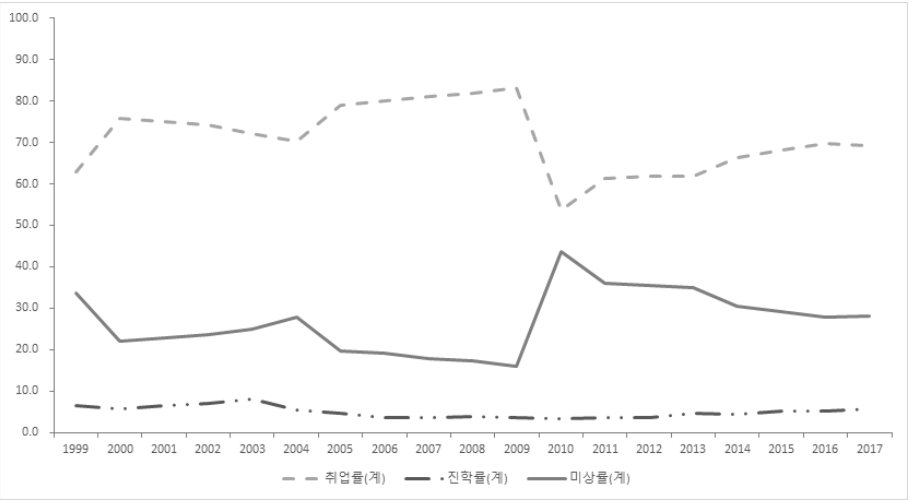


그림 Ⅳ-29.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③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충청)권

전문대학 호서(충청)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7.2%였다가 2009년 90.6%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0.2%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1.8%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9%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9.1%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에는 26.3%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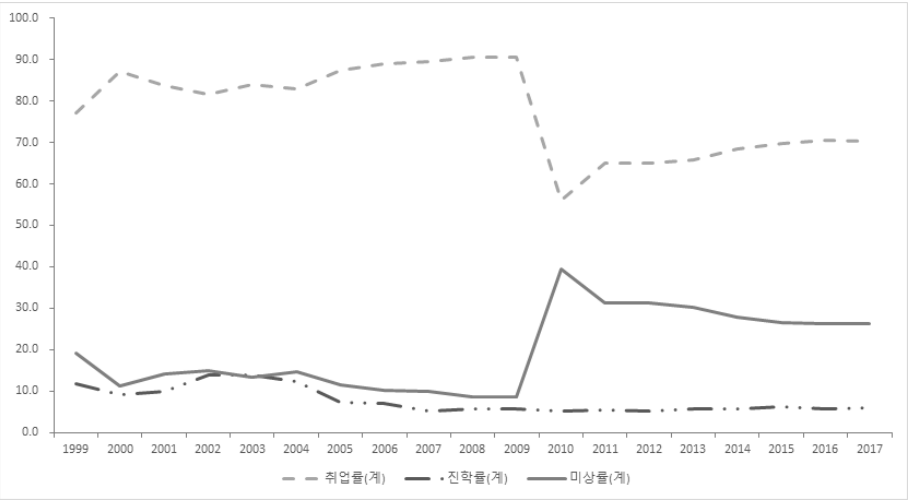


그림 Ⅳ-30.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충청)권

④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전문대학 강원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2.6%였다가 2009년 86.2%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8.9%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2.9%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9%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2.6%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에는 26.9%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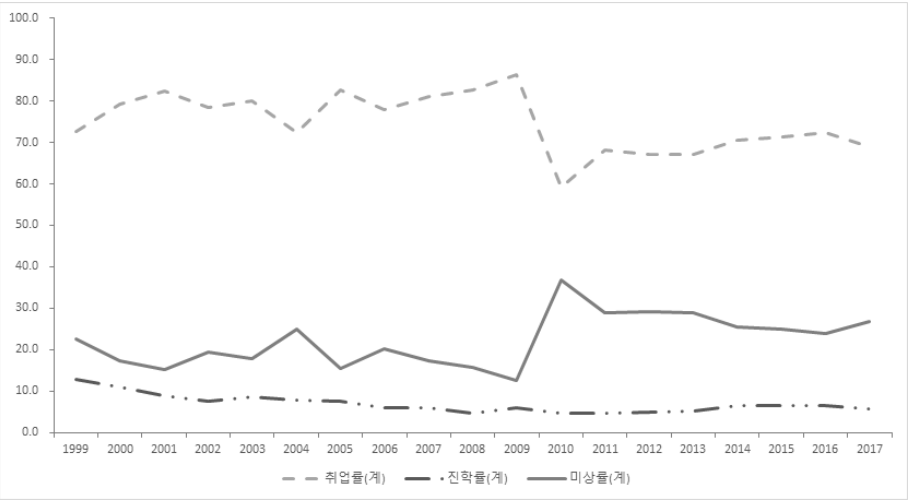


그림 Ⅳ-31.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⑤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전문대학 호남(제주)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8.0%였다가 2009년 91.0%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0.4%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0.3%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6%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8.8%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에는 26.1%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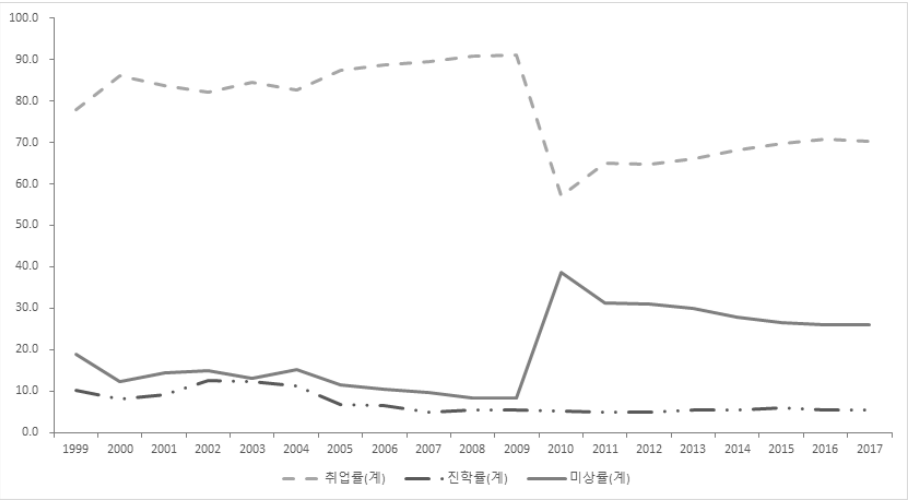


그림 Ⅳ-32.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⑥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전문대학 영남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0.2%였다가 2009년 90.9%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1.1%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7.7%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4.9%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6.7%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에는 26.1%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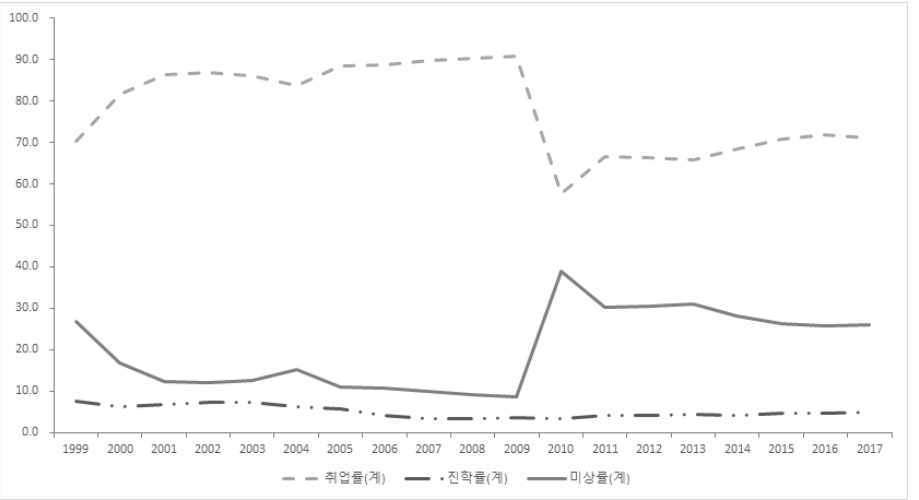


그림 Ⅳ-33.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4) 4년제 대학교

①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4년제 대학교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51.3%였다가 2009년 68.2%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2.6%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2.8%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8%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1.4%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33.4%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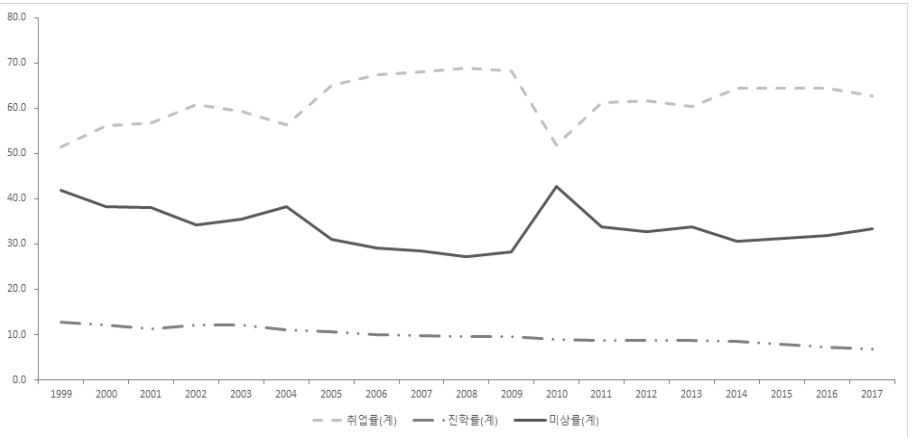


그림 Ⅳ-34.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②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4년제 대학교 수도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54.1%였다가 2009년 66.1%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4.8%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6.6%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9.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37.5%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30.4%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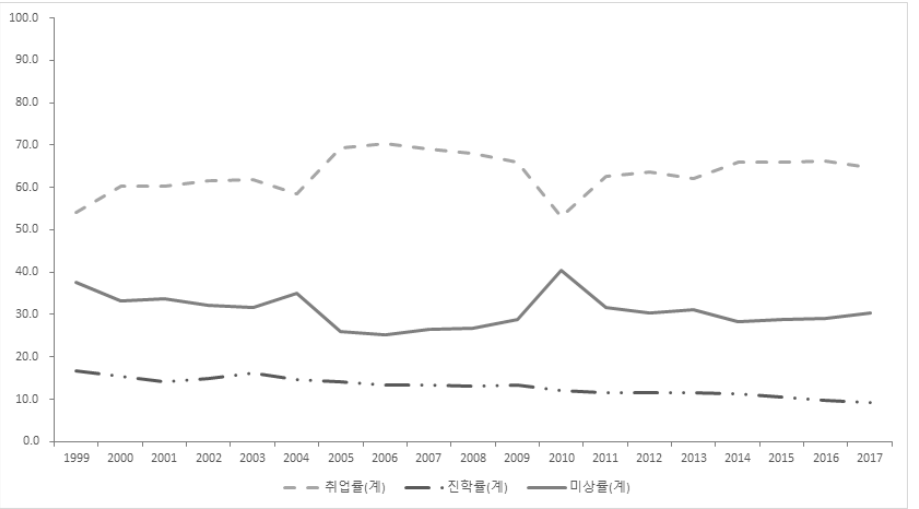


그림 Ⅳ-35.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③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충청)권

4년제 대학교 호서(충청)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52.3%였다가 2009년 70.7%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4.2%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0.7%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4%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2.2%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32.5%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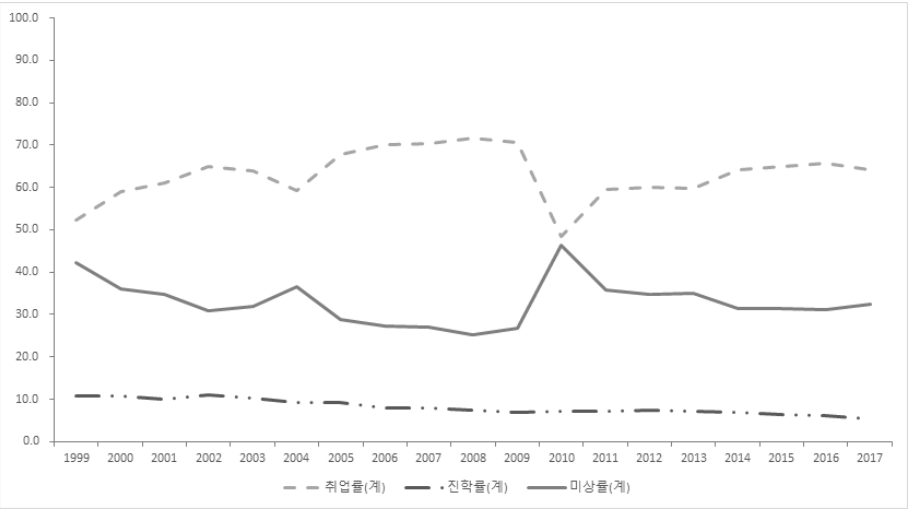


그림 Ⅳ-36.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충청)권

④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4년제 대학교 강원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45.7%였다가 2009년 70.8%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2.5%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2.4%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1%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6.6%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34.6%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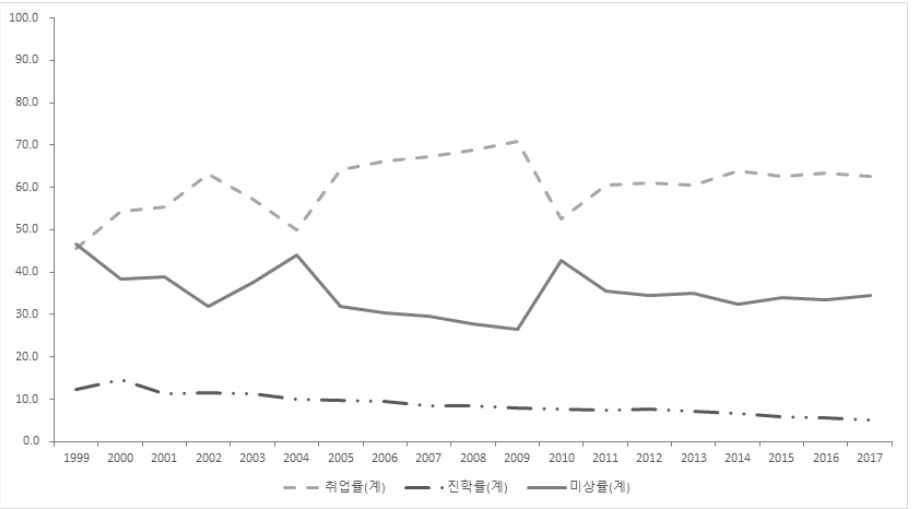


그림 Ⅳ-37.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⑤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4년제 대학교 호남(제주)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52.3%였다가 2009년 70.1%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4.1%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0.6%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2.2%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32.5%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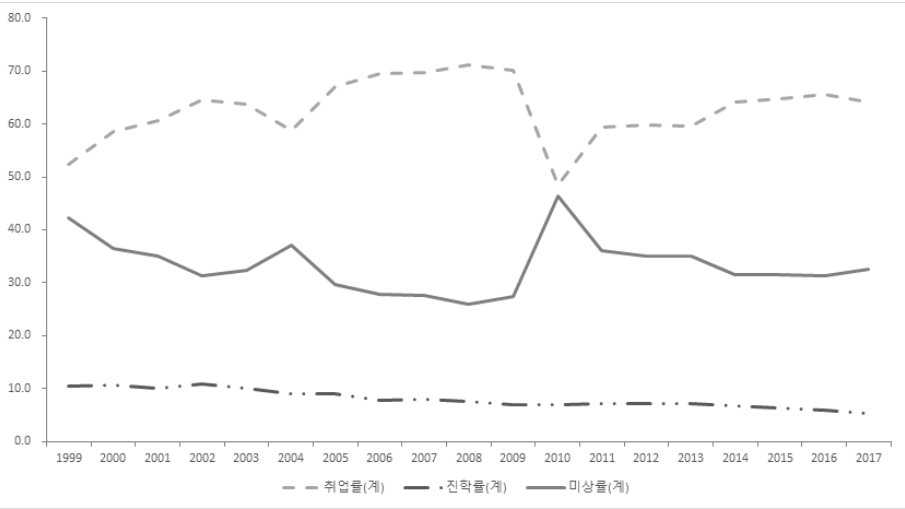


그림 Ⅳ-38.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⑥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4년제 대학교 영남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50.8%였다가 2009년 68.3%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9.3%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0.5%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4%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3.6%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37.3%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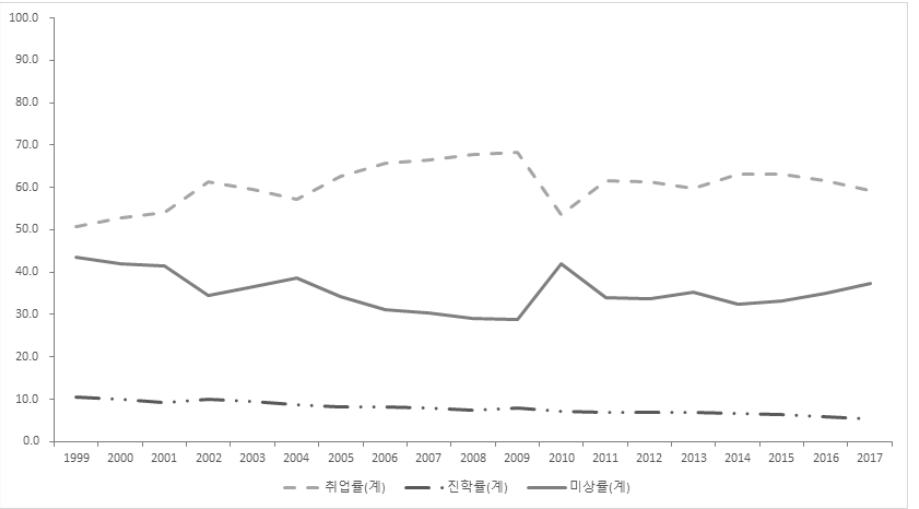


그림 Ⅳ-39. 4년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5) 일반대학원

①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일반대학원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4.5%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7.7%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5.8%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1.0%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7.7%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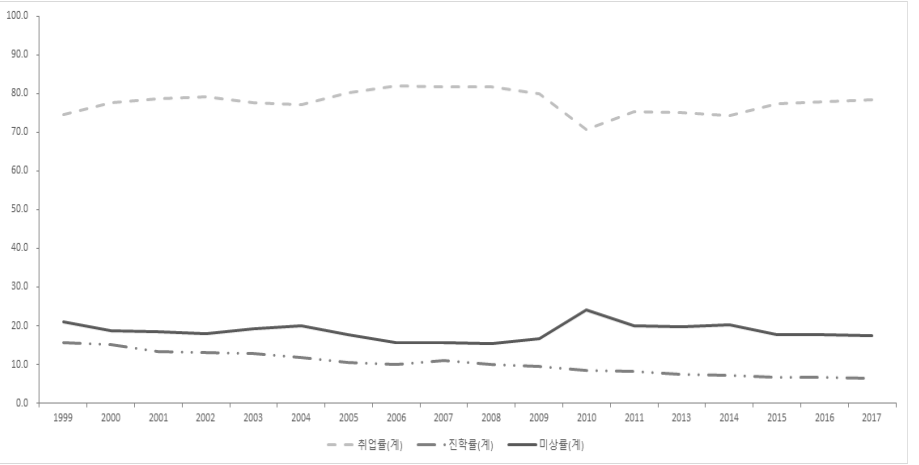


그림 Ⅳ-40.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②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일반대학원 수도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1.8%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5.7%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7.0%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2.8%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9.6%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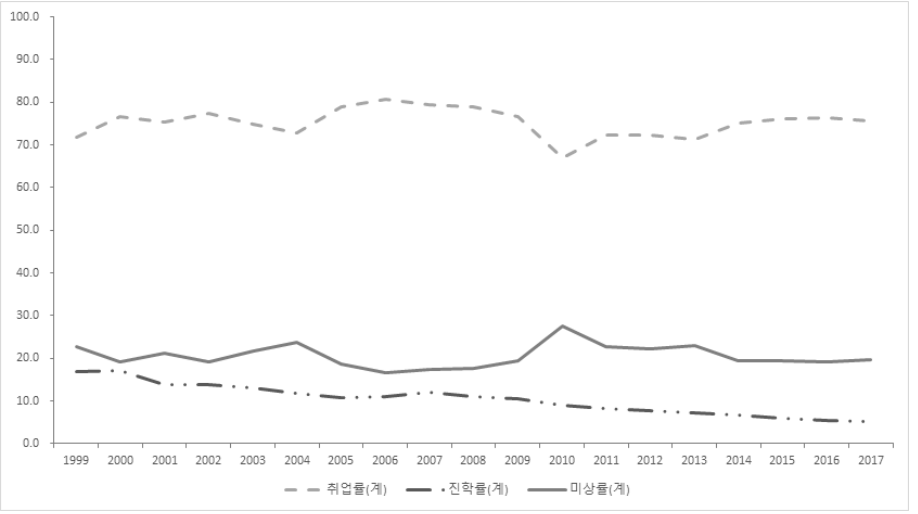


그림 Ⅳ-41.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③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충청)권

일반대학원 호서(충청)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8.1%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2.6%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소폭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2.5%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7%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0.3%였다가 이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3.8%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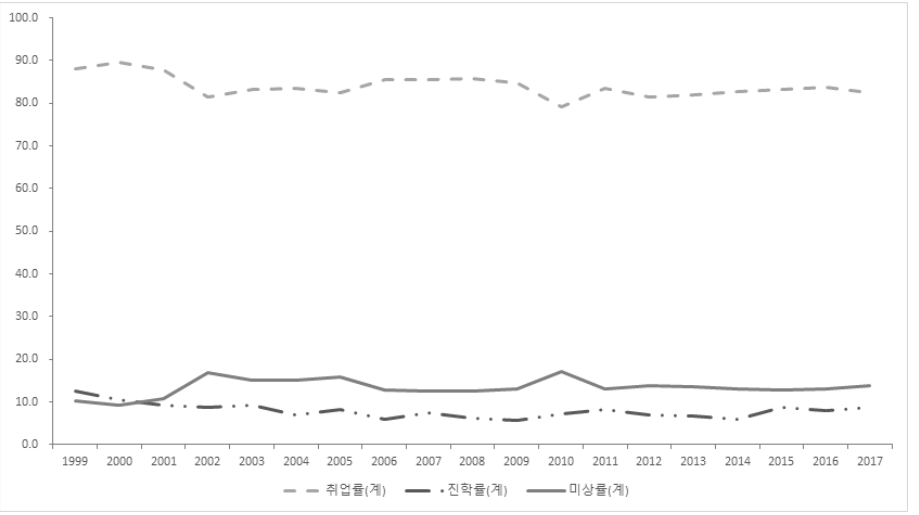


그림 Ⅳ-42.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충청)권

④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일반대학원 강원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0.9%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0.0%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7.6%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에는 6.0%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6.6%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5.3%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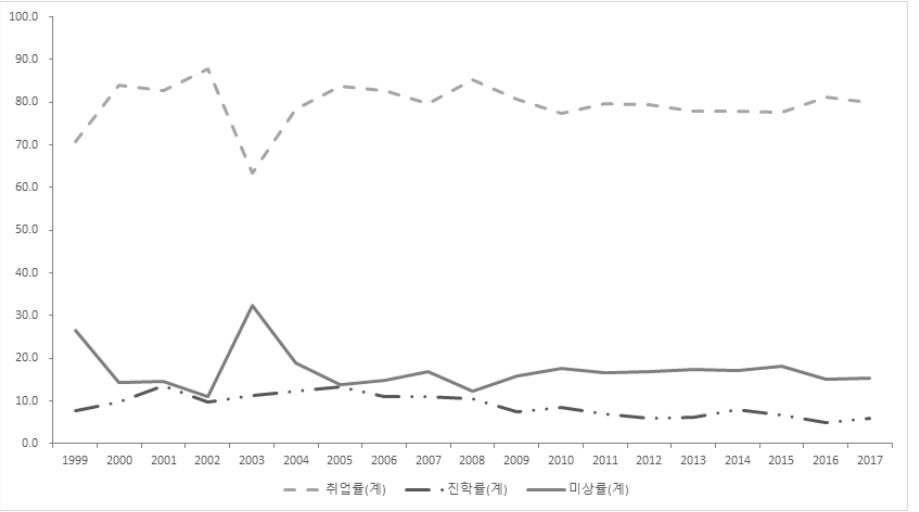


그림 Ⅳ-43.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⑤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일반대학원 호남(제주)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7.7%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2.6%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소폭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2.5%였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7%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0.6%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3.8%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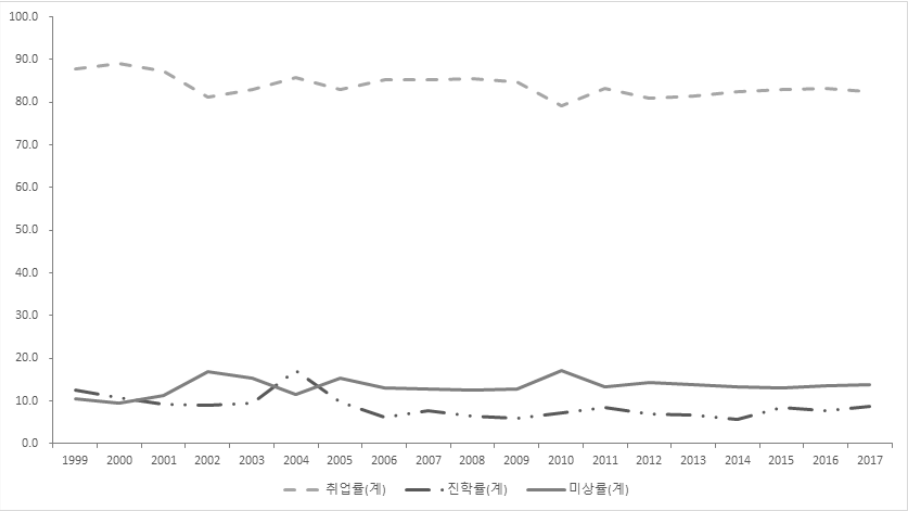


그림 Ⅳ-44.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⑥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일반대학원 영남권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3.2%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8.7%를 기록하였다. 2010년 취업률이 감소한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5.4%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7%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2.4%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6.7%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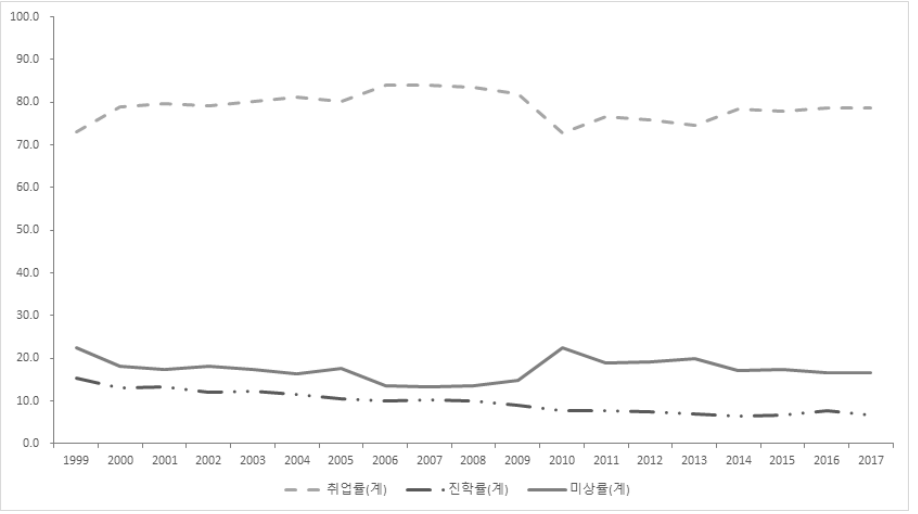


그림 Ⅳ-45.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3) 계열별 졸업 후 상황 분석(1999-2017)

(1)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 후 상황

① 인문계열 졸업 후 상황

전문대학 인문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8.6%였다가 2009년 84.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48.0%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7.7%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통계 방식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취업 여건이 취약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2.4%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0.1%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7.1%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13.3%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35.8%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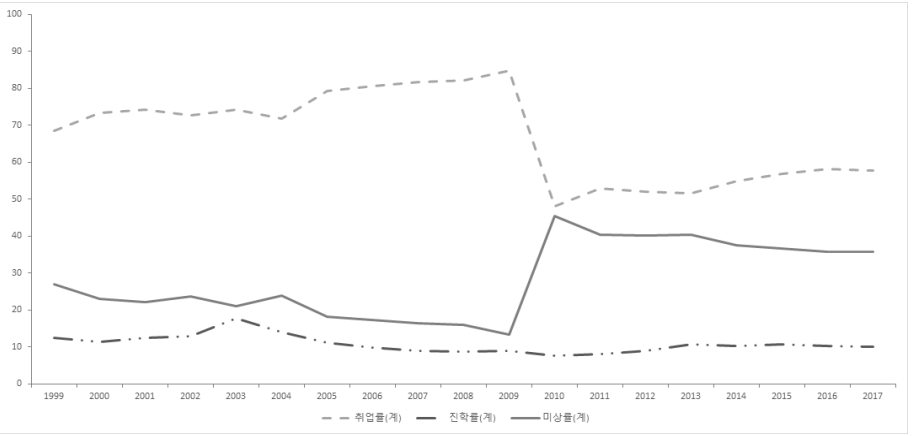


그림 Ⅳ-46.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졸업 후 상황

전문대학 사회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0.9%였다가 2009년 84.8%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57.0%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5.2%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7.6%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9%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6.3%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14.4%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30.9%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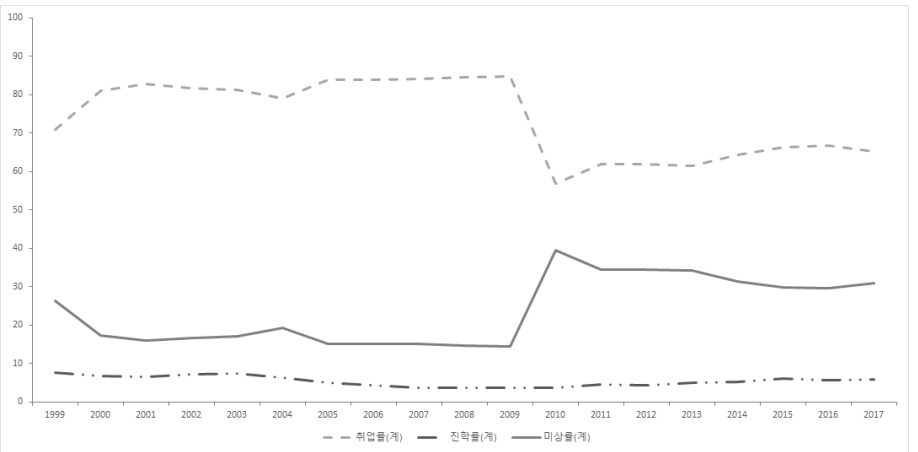


그림 Ⅳ-47.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사회계열

③ 교육계열 졸업 후 상황

전문대학 교육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2.7%였다가 2009년 91.4%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74.1%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3.5%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3.3%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4.4%를 기록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6.7%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8.1%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증가하여 2017년에는 15.6%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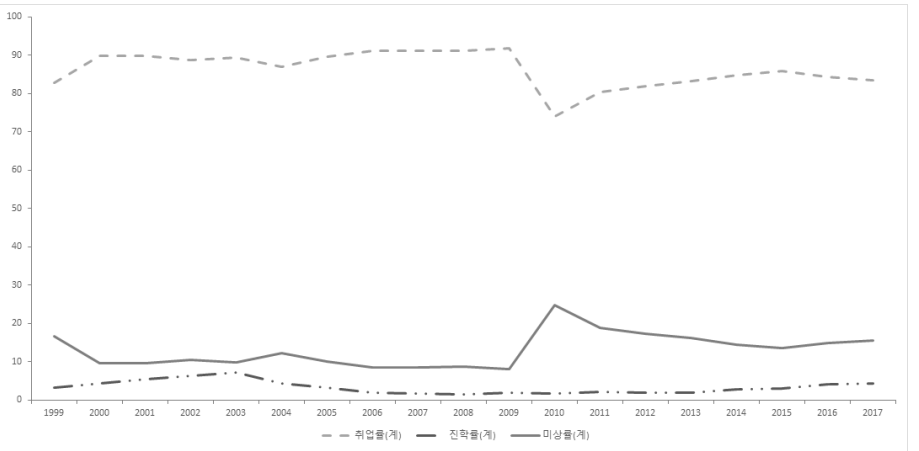


그림 Ⅳ-48.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교육계열

④ 공학계열 졸업 후 상황

전문대학 공학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8.8%였다가 2009년 85.7%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60.0%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9.2%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8.5%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4.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6.6%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13.1%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7.8%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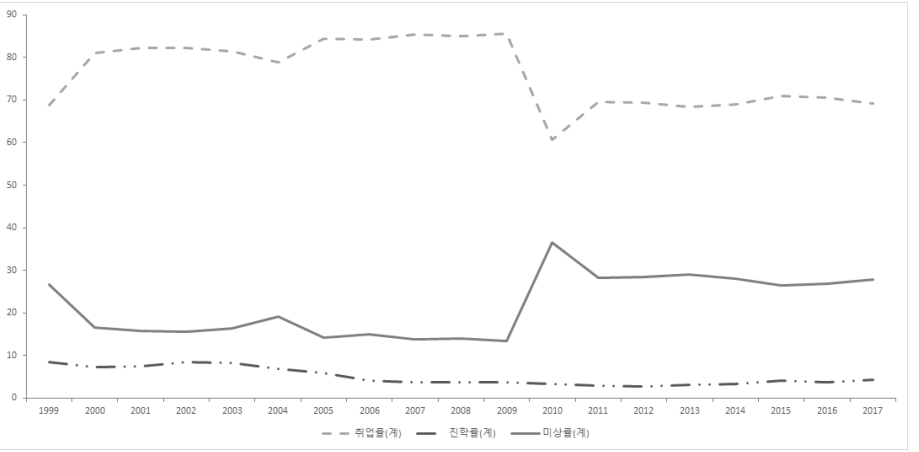


그림 Ⅳ-49.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졸업 후 상황

전문대학 자연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0.1%였다가 2009년 86.8%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2010년 48.6%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4.0%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통계 방식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인문계열과 같이 취업 여건이 취약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7.6%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0.1%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35.8%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12.6%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32.4%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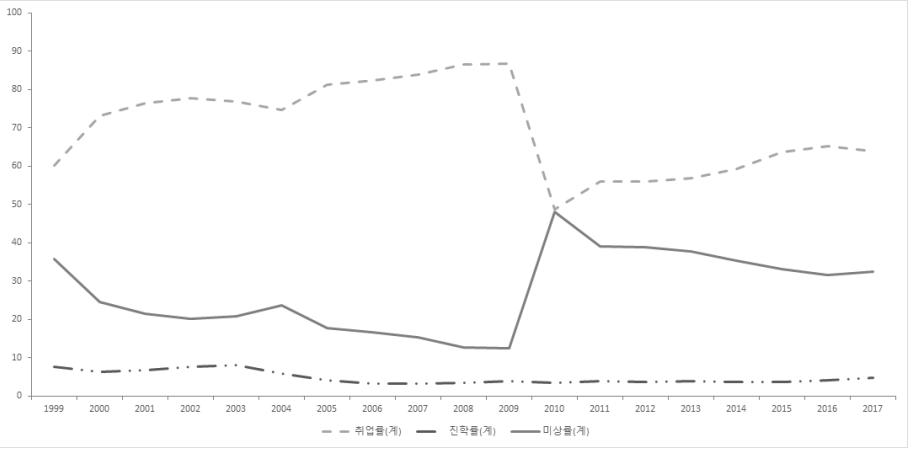


그림 Ⅳ-50.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자연계열

⑥ 의약계열 졸업 후 상황

전문대학 의약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4.2%였다가 2009년 90.0%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81.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 68.1%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1.2%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3.5%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3.1%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33.9%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9.7%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7.8%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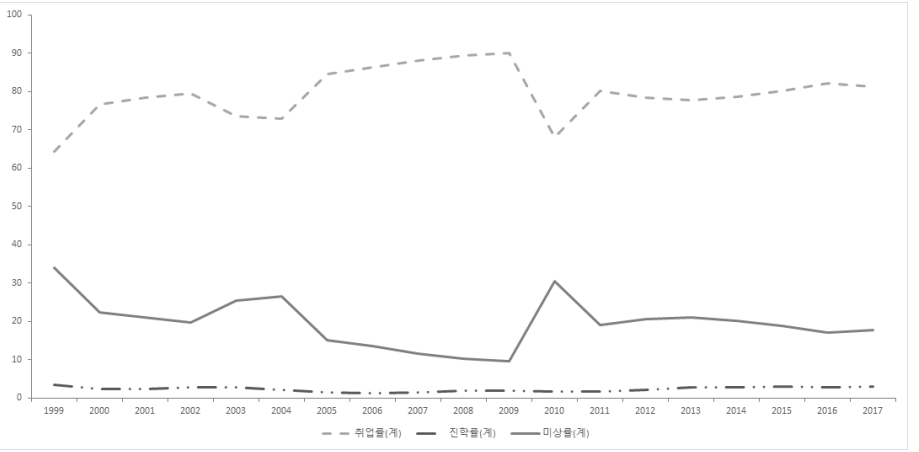


그림 Ⅳ-51.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의약계열

⑦ 예체능계열 졸업 후 상황

전문대학 예체능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3.4%였다가 2009년 87.1%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64.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 35.3%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4.9%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통계 방식 변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취업 여건이 가장 취약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9.7%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8%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32.4%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12.0%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30.1%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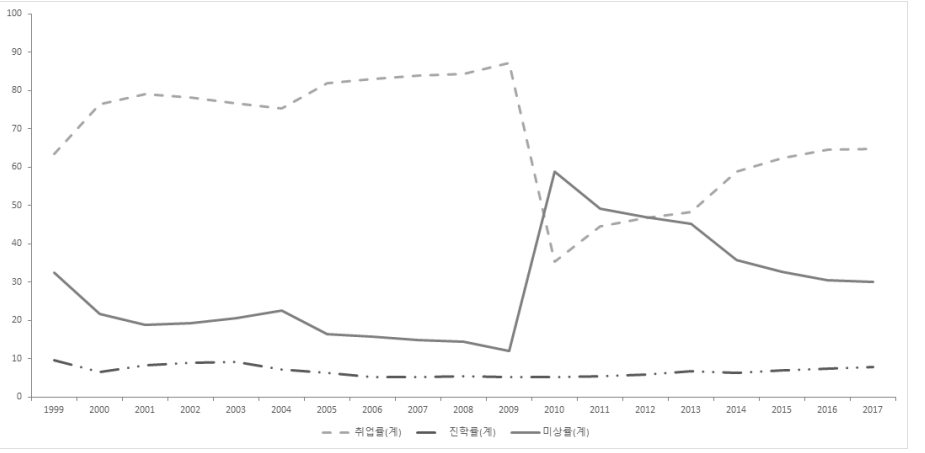


그림 Ⅳ-52. 전문대학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예체능계열

(2) 4년제 대학교 계열별 졸업 후 상황

① 인문계열 졸업 후 상황

4년제 대학교 인문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47.7%였다가 2009년 64.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43.6%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5.4%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통계 방식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취업 여건이 취약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1.8%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7%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5.6%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31.4%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7.8%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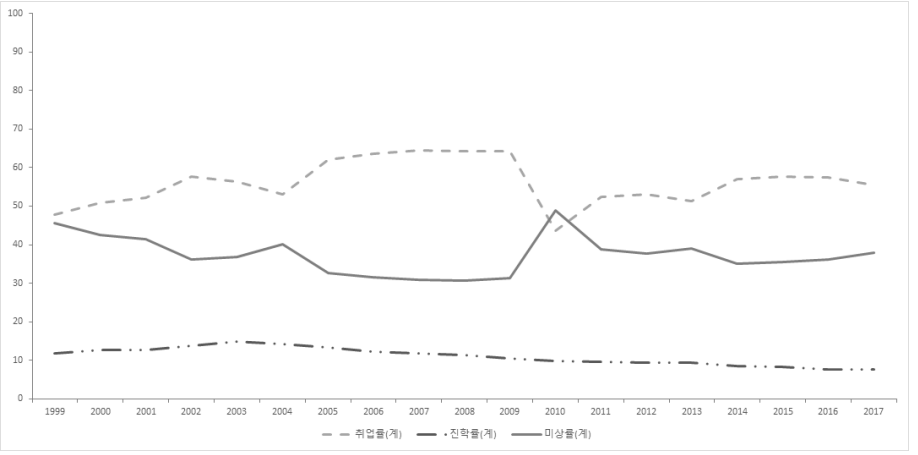


그림 Ⅳ-53.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졸업 후 상황

4년제 대학교 사회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49.5%였다가 2009년 64.9%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51.9%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0.6%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6.5%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2.5%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6.6%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32.8%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6.4%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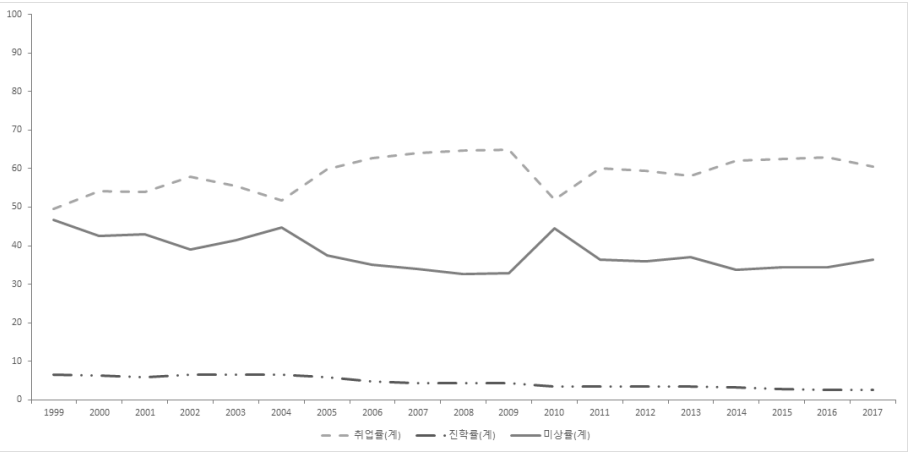


그림 Ⅳ-54.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사회계열

③ 교육계열 졸업 후 상황

4년제 대학교 교육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48.1%였다가 2009년 58.9%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39.1%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46.8%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7년에도 취업률이 낮은 데에는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졸업생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8.4%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3.8%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7.1%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38.9%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49.3%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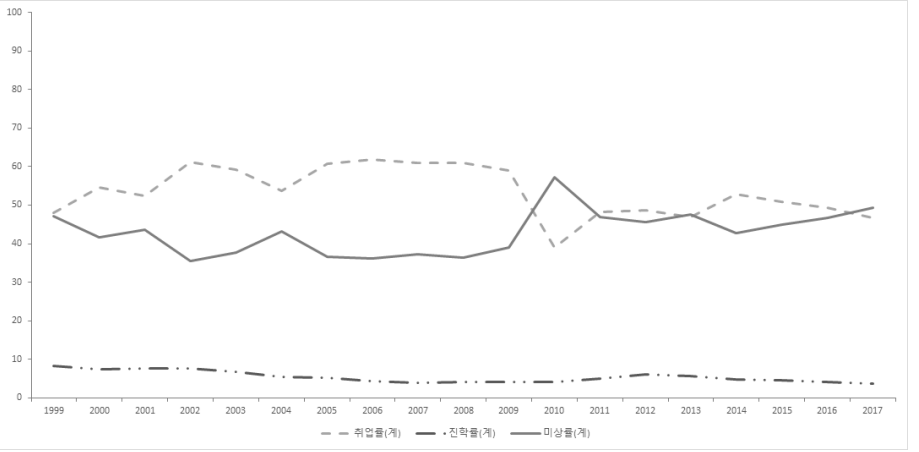


그림 Ⅳ-55.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교육계열

④ 공학계열 졸업 후 상황

4년제 대학교 공학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52.1%였다가 2009년 71.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63.8%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7.7%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학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쳐 공학계열의 취업 여건이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9.4%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9.5%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37.7%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28.6%까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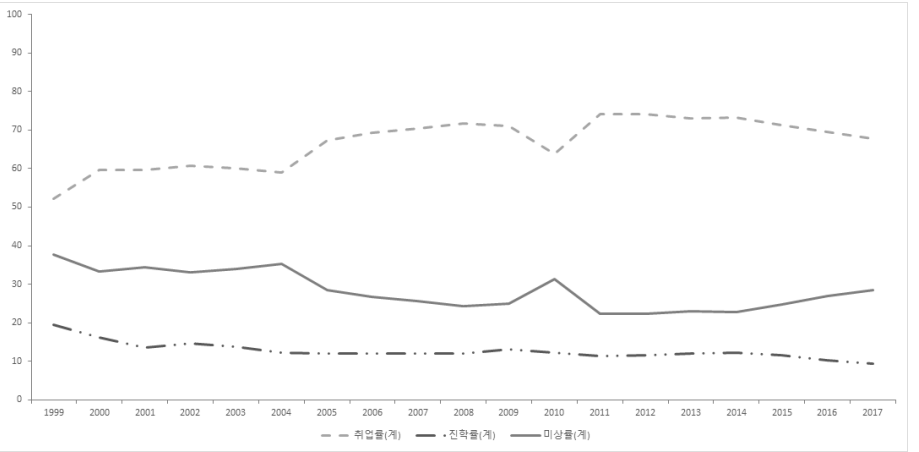


그림 Ⅳ-56.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졸업 후 상황

4년제 대학교 자연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49.1%였다가 2009년 67.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49.9%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9.1%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6.3%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15.7%를 기록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42.1%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26.4%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3.6%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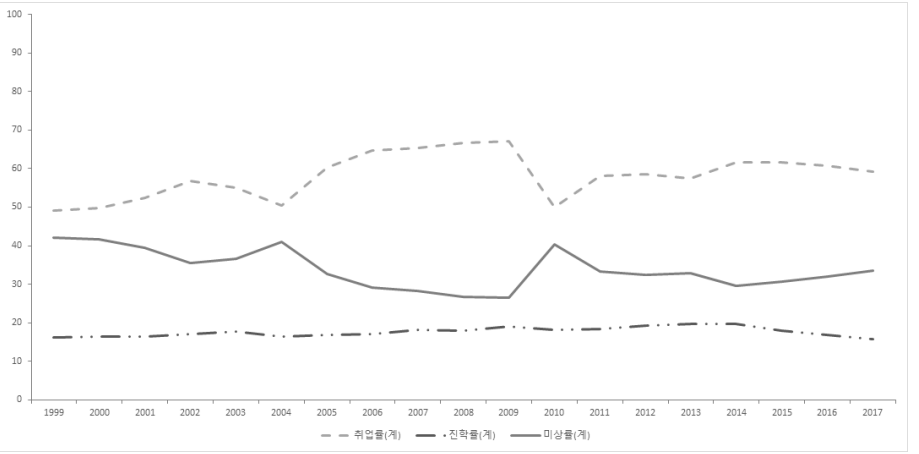


그림 Ⅳ-57.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자연계열

⑥ 의약계열 졸업 후 상황

4년제 대학교 의약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1.6%였다가 2009년 89.7%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73.9%로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3.6%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약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쳐 의약계열의 취업 여건이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8.1%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2.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6.5%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9.7%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5.7%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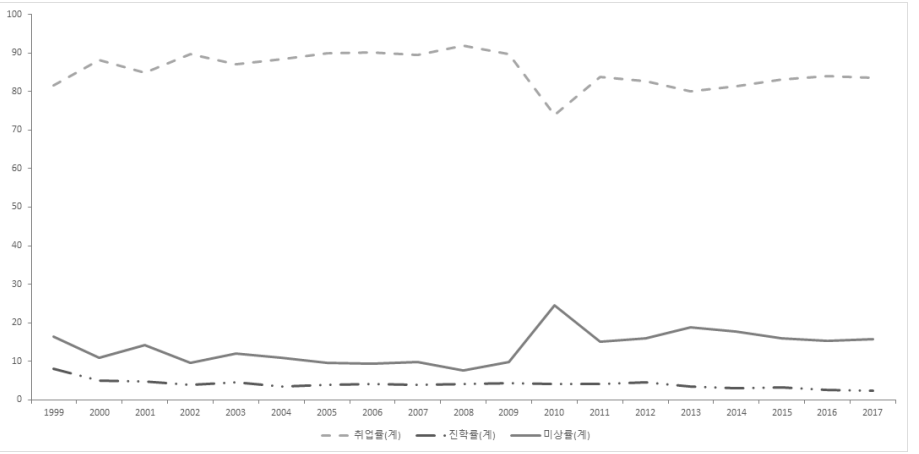


그림 Ⅳ-58.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의약계열

⑦ 예체능계열 졸업 후 상황

4년제 대학교 예체능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54.1%였다가 2009년 73.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36.3%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1.3%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통계 방식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인문계열과 함께 취업 여건이 취약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3.6%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4.5%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39.5%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23.7%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4.6%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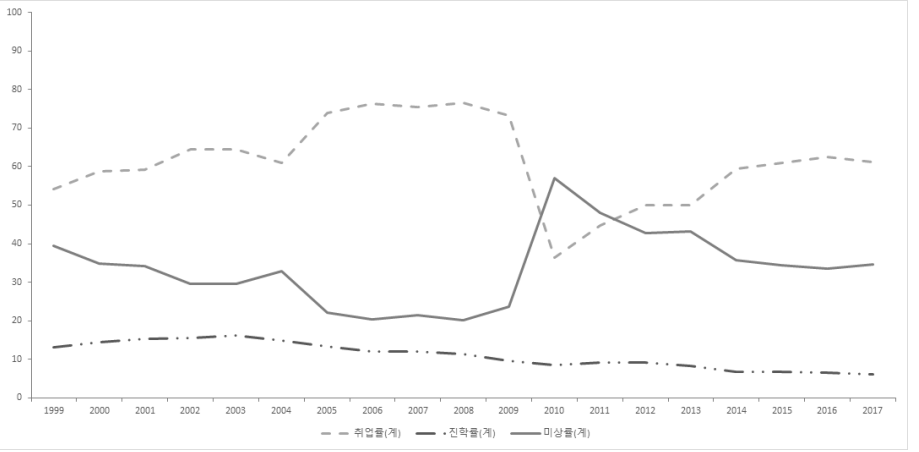


그림 Ⅳ-59.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예체능계열

(3) 일반대학원 계열별 졸업 후 상황

① 인문계열 졸업 후 상황

일반대학원 인문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59.5%였다가 2009년 74.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43.6%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0.0%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통계 방식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취업 여건이 취약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5.5%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9.2%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34.0%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19.9%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5.0%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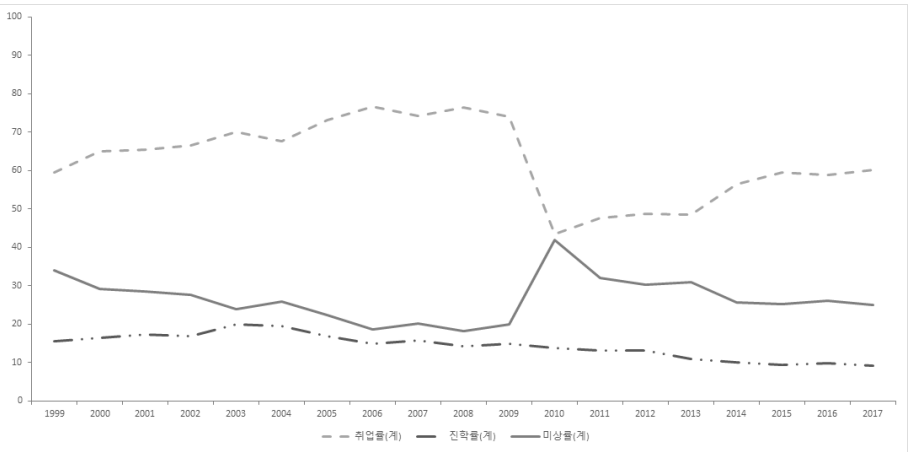


그림 Ⅳ-60.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졸업 후 상황

일반대학원 사회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6.9%였다가 2009년 78.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68.4%로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6.6%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 취업통계 방식 변경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취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4.4%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4.1%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8.0%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16.9%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16.3%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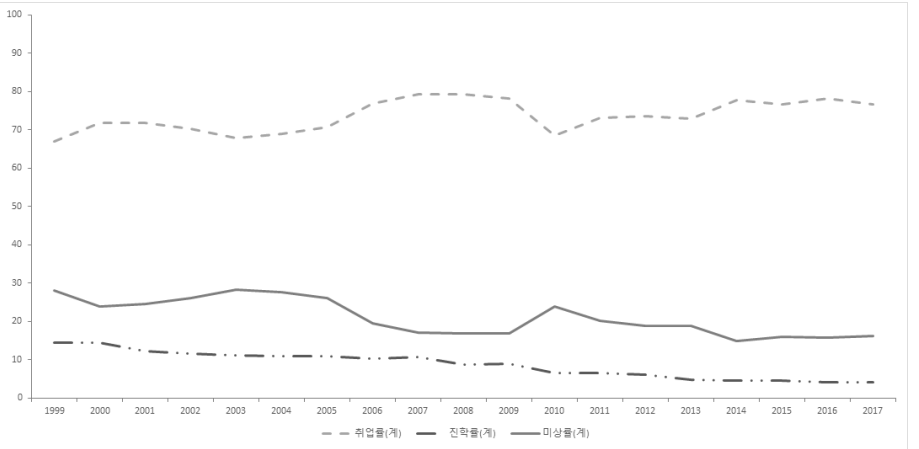


그림 Ⅳ-61.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사회계열

③ 교육계열 졸업 후 상황

일반대학원 교육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83.2%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09년 81.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 68.6%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6.5%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5.3%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15.9%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19.6%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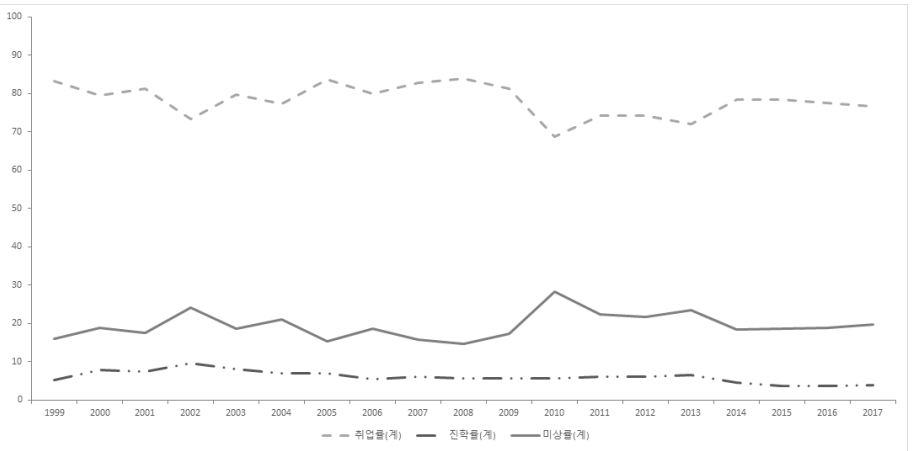


그림 Ⅳ-62.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교육계열

④ 공학계열 졸업 후 상황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73.8%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3.4%를 기록하였다. 다른 계열과 달리 공학계열은 2010년 취업통계조사 방식 변경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공학계열의 취업여건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9.7%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8%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0.4%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3.5%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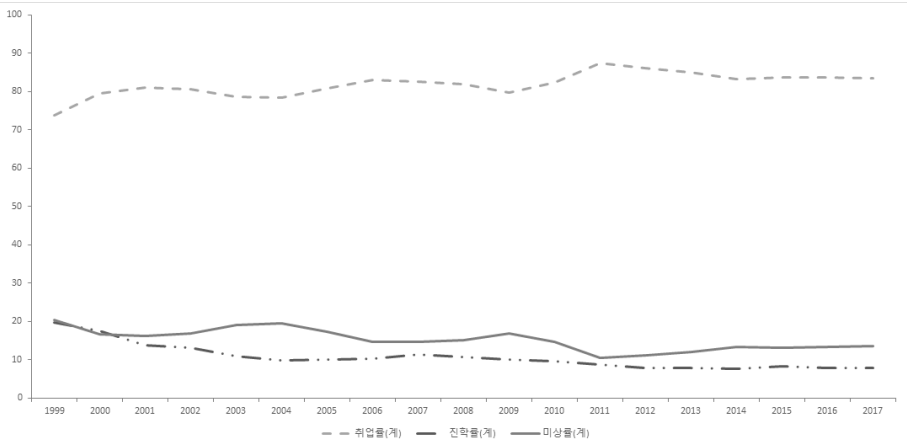


그림 Ⅳ-63.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졸업 후 상황

일반대학원 자연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9.4%였다가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09년 77.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 69.2%로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5.7%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9.8%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8.0%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4.0%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9.9%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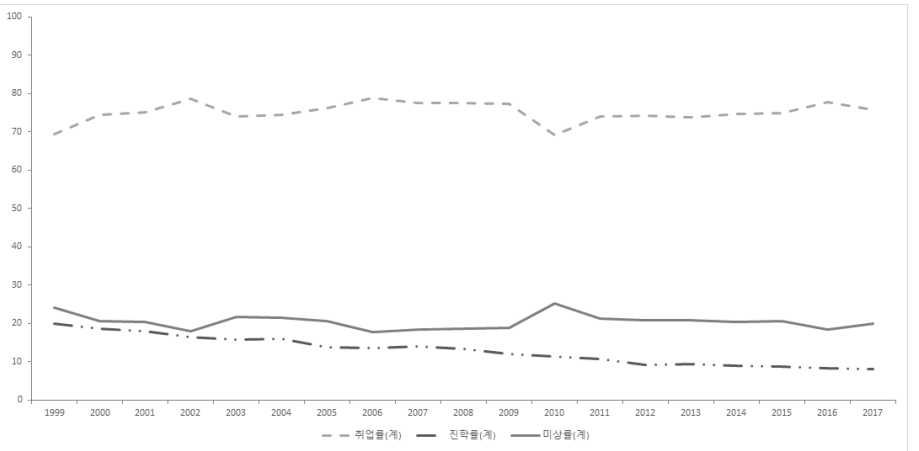


그림 Ⅳ-64.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자연계열

⑥ 의약계열 졸업 후 상황

일반대학원 의약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97.6%였다가 이후 소폭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88.2%를 기록하였다. 의약계열 역시 공학계열과 마찬가지로 2010년 취업통계조사 방식 변경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계열의 취업여건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10.8%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3.0%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2.1%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10.7%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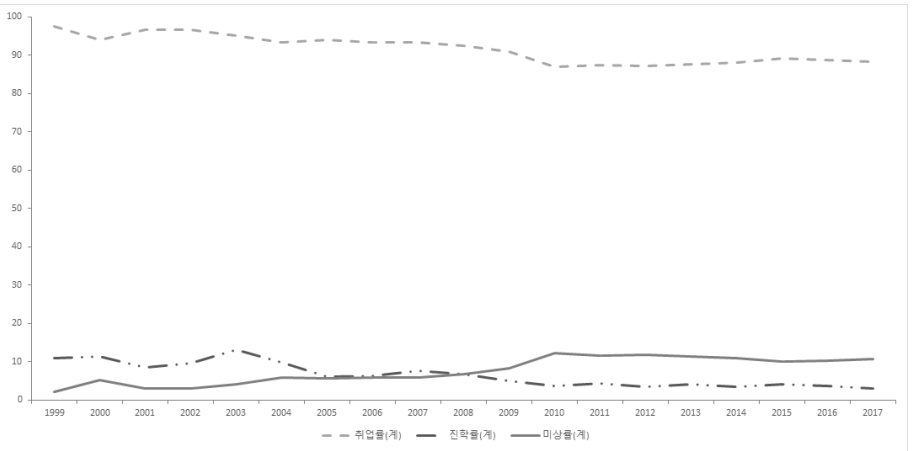


그림 Ⅳ-65.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의약계열

⑦ 예체능계열 졸업 후 상황

일반대학원 예체능계열 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취업률의 경우, 1999년 64.8%였다가 2009년 72.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35.5%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61.0%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취업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통계 방식 변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취업 여건이 취약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진학률의 경우, 1999년 5.1%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3.8%를 기록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99년 33.3%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24.5%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3.1%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률은 감소하고 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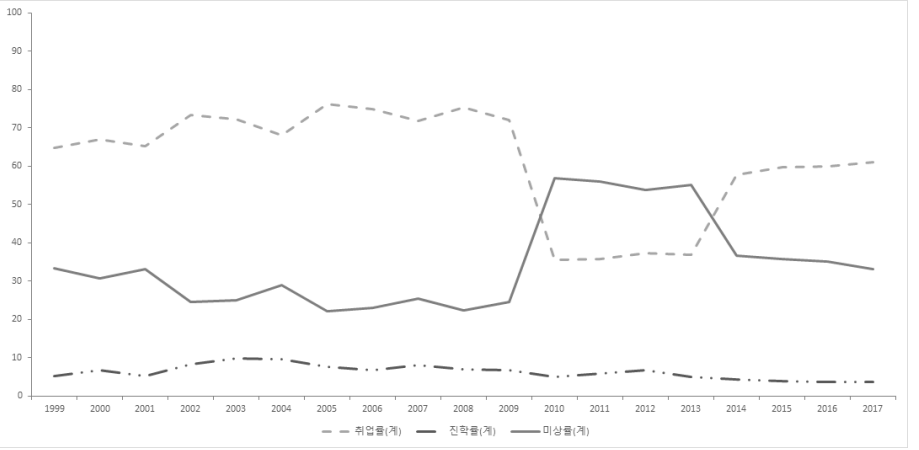


그림 Ⅳ-66. 일반대학원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예체능계열

4) 소결

본 절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의 다양한 졸업 후 상황을 분석하였다.

일반계고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1970년 17.3%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8.8%까지 감소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40.2%에서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77.2%를 기록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48.7%로 출발하여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20.6%를 유지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1970년 84.5% 수준이었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8년에는 67.1%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10.1%에서 시작하여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34.1%를 기록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12.3%로 출발하여 증감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21.3%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1970년 54.7% 수준이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에는 67.1%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23.5%에서 시작하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5.3%까지 감소하였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31.0%로 출발하여 증감을 보이다가 2017년에는 27.2%를 유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1970년 70.6% 수준이었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2017년에는 62.6%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4.6%에서 시작하여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6.8%로 나타났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24.3%로 출발하였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7년에는 33.4%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1970년 96.5% 수준이었다가,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감소하여 2017년에는 77.7%를 기록하였다. 진학률의 경우, 1970년 2.4%에서 시작하여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6.3%로 나타났다. 미상률의 경우, 1970년 3.4%로 출발하였고 완만한 추세로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17.7%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일반계고 취업률은 8.2%(2018년), 직업계고 취업률은 67.1%(2018년), 전문대학 취업률은 67.1%(2017년), 4년제 대학 취업률은 62.6%(2017년),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77.7%(2017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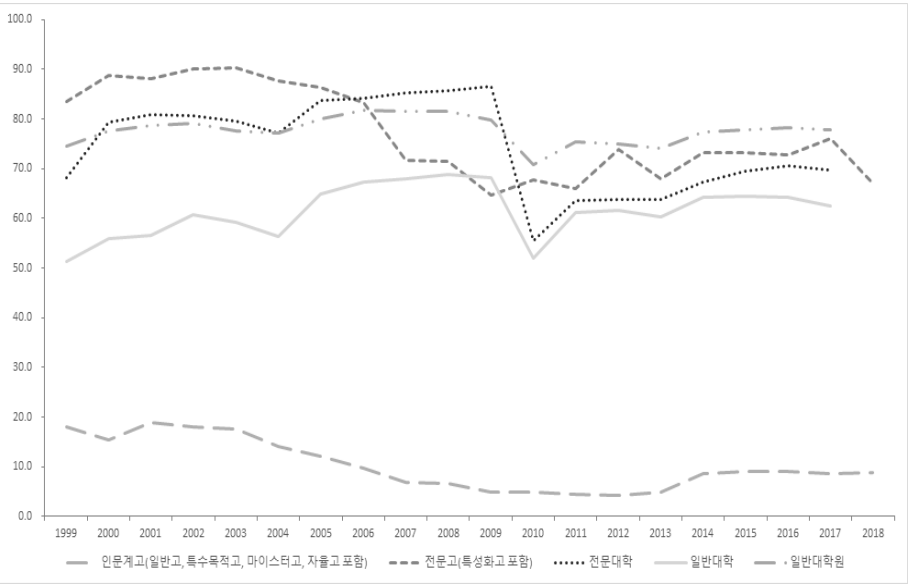


그림 Ⅳ-67. 졸업 후 취업률 상황(1999-2018)

둘째, 진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학교급에서 상급학교 진학률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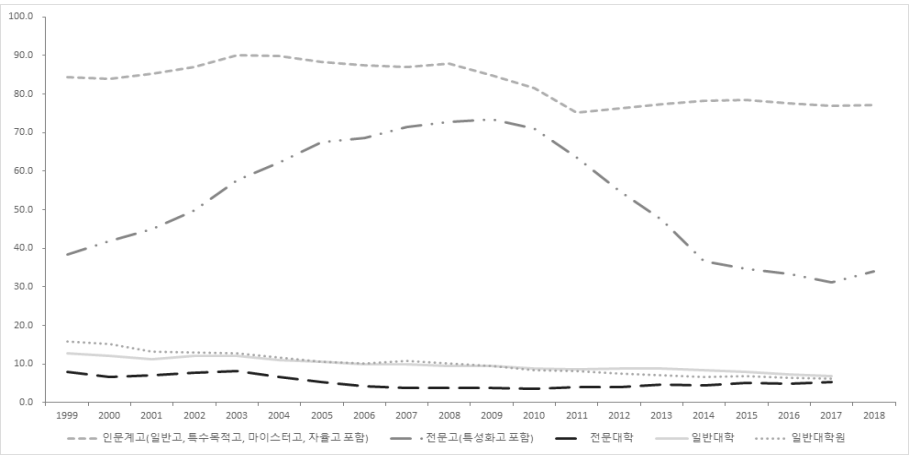


그림 Ⅳ-68. 졸업 후 진학률 상황(1999-2018)

셋째, 미상률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고 미상률은 20.6%(2018년), 직업계고 미상률은 21.3%(2018년), 전문대학 미상률은 27.2%(2017년), 4년제 대학 미상률은 33.4%(2017년), 일반대학원 미상률은 17.7%(2017년)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NEET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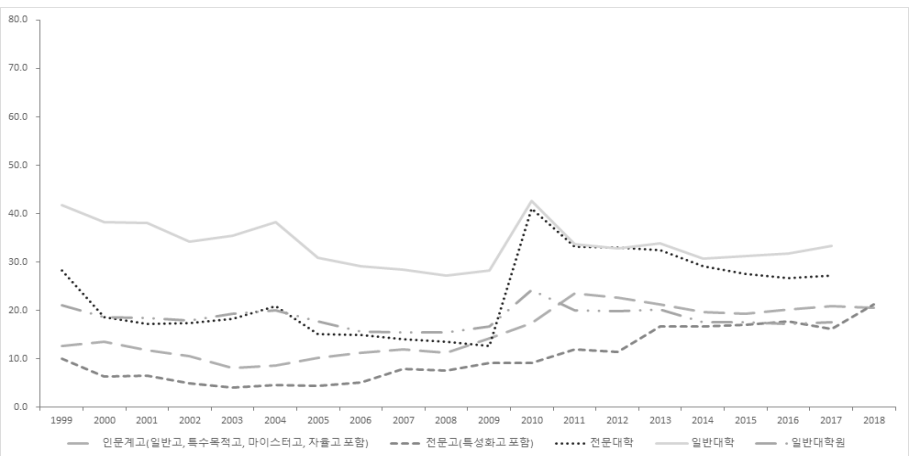


그림 Ⅳ-69. 졸업 후 미상률 상황(1999-2018)

2.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이행경로[13)]

이 절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이후의 다양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내용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일자리에서 학습으로'의 이행과 같은 주요 경로 이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로 등 다양한 이행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 핵심정책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다양한 이행경로의 배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분석에서 특정 경로를 선택한 대상들의 특성이 유형화될 수 있다면 대상별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계고 졸업자들의 주요한 대상들은 4년제 대학졸업 이후 취업을 하는 것이지만, 전문대를 졸업하는 경우와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청년들의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경로의 양상은 어떠한가?"와 "다양한 이행경로를 예측하는 개인의 특성은 무엇인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예방적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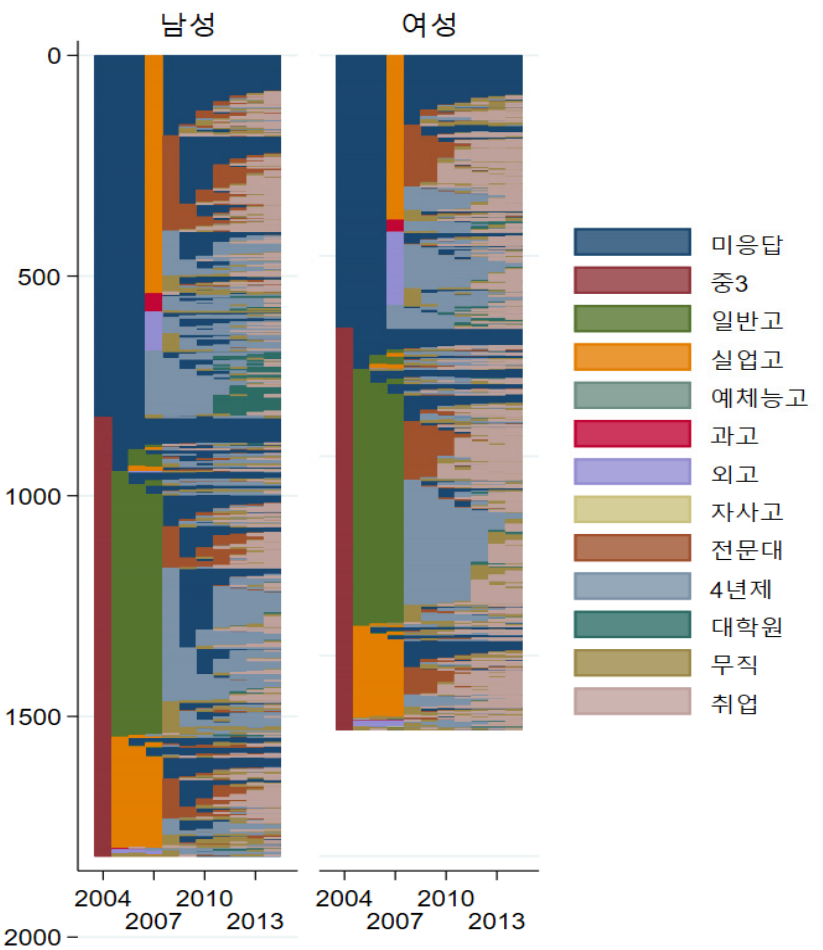
1)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

학교에서 일자리로 상태의 이행과정 분석은 1차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Ⅰ); 이하 KEEP)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14)] 이 때 보정패널은 제외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4-2014년으로써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이후 10년의 상태 간 이행과정을 살펴보았다.

---

13) 이 절은 정지운 부연구위원(직업능력개발원)이 작성하였음.

14) KEEP은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각 2000명씩 추출하여 조사한 종단면 자료이다. 이 때 중학교 3학년 표본의 경우 4차년도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예체능 고등학교 표본을 추가하였다.



* 출처: 교육고용패널(I)을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하였음.

그림 Ⅳ-70. 중학교 3학년 이후 10년의 이행

그림 Ⅳ-70은 중학교 3학년 이후 10년간의 이행을 도해한 결과이다.[15] [16]

15) 이하에서 학교급과 유형별로 졸업예정자의 10년간의 상태 변화와 경험, 그리고 특정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사건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을 차용하였다. 개략적으로 시점과 순서, 그리고 상태를 중심으로 배열시키고, 그 대상을 유형화함으로써 일련의 배열 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1-3차 표본이 미응답으로 나타난 추가표본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3학년 졸업생(추가표본 제외)은 약 70%(1,245명)가 일반고, 약 27%(477명)이 실업고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졸업생(녹색)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문대에 진학하고, 일부는 무직(재수) 상태로 있다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성별과 무관하게 유사하다.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으로 공백(미응답)이 발생하고, 여성에 비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불문하고 재학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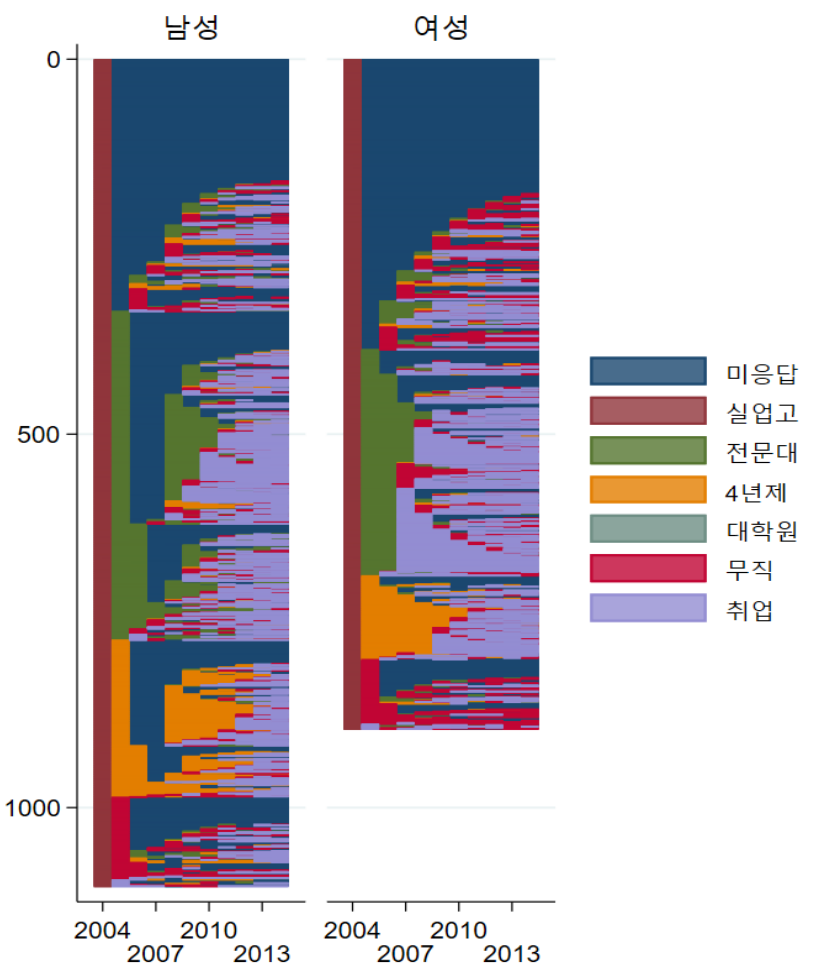
그림 Ⅳ-71은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이후 10년간의 이행을 도해한 결과이며,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남성의 경우 병역에 의한 공백(미응답) 기간에 기인하여 대학 재학 기간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직인 경우(하단, 남녀 공통) 이행의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7] 넷째, 전문대 졸업 이후 취업과 무직(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Ⅳ-72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이후 10년간의 이행을 도해한 것이다. 이 집단의 특징은 대체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남성의 경우 병역으로 인한 공백(미응답)이 존재하며 학업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 무직인 상태로 배열된 집단이 남성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의 일부에서도 확인된다. 일반고를 졸업한 직후 무직(재수 등)인 경우 각각의 성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재학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Brzinsky-Fay, Kohler and Luniak,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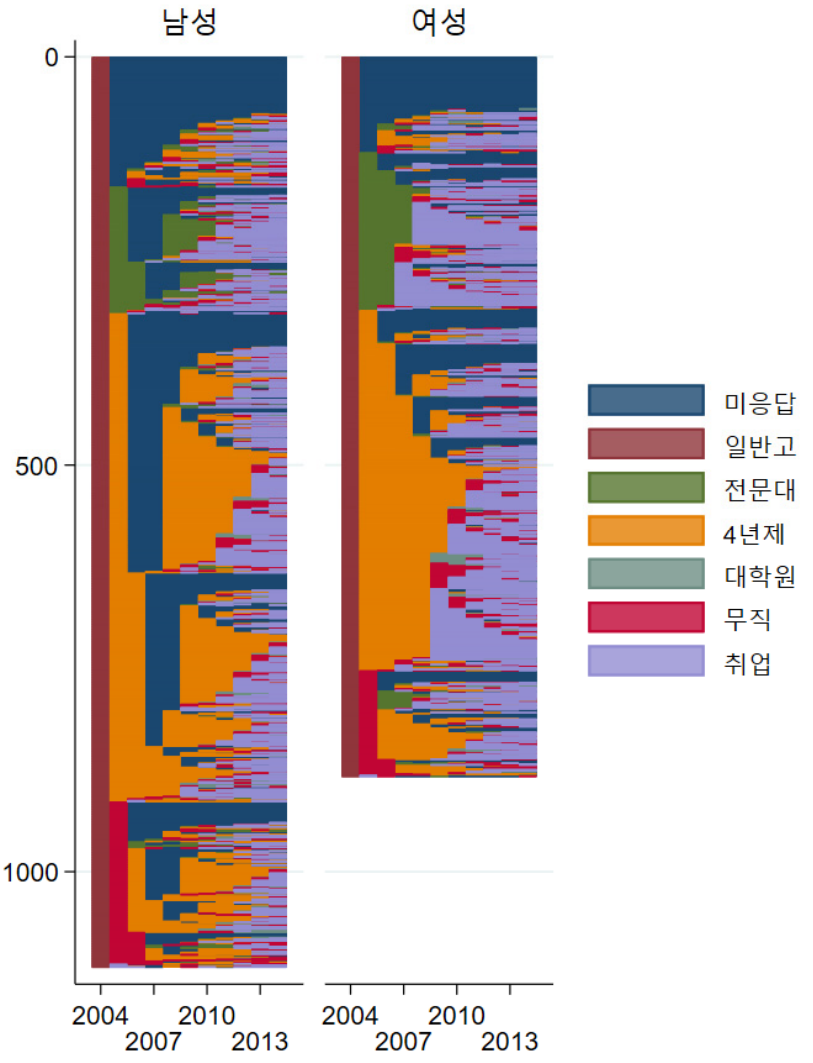
16) 빈도표(frequency tables of sequences), 사건배열의 집중도(concentration of sequences) 등과 같은 추가 정보는 연구의 목적에 비춰 생략하였다.

17) 그림 Ⅳ-71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무직을 경험한 이들(2차년 무직)의 구체적이 이행 패턴은 그림 Ⅳ-73을 참조하면 된다.



* 출처: 교육고용패널(I)을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하였음.

그림 Ⅳ-71. 실업고 3학년 이후 10년의 이행



* 출처: 교육고용패널(I)을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하였음.

그림 Ⅳ-72. 일반고 3학년 이후 10년의 이행

2)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의 군집화

여기서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유사한 배열들의 군집화를 수행하였으며, 이 때 STATA 13버전 이상에서 제공하는 cluster stop(클러스터 분석 중지) 프로시저를 활용하였다.[18)]

앞서 살펴본 사건배열분석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은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였고, 군집분석의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 군집별 학업 및 노동시장 성과

성별	군집	표본 수	전교 석차	수능 언어	수능 수리	수능 외국어	대학 평점	임금	입사 시기
남성	1	22	3.3	3.6	4.2	3.6	82.0	223.4	625.8
	2	18	4.1	5.7	6.0	5.1	82.8	159.3	614.3
	3	21	5.8	6.2	5.6	6.5	79.9	229.5	611.2
	미분류	2161	4.9	5.7	5.5	5.7	82.4	207.5	615.7
여성	1	117	3.8	4.9	5.3	4.9	87.6	201.6	622.8
	2	214	4.7	6.4	6.0	6.3	82.3	179.4	611.0
	3	181	4.1	5.1	5.2	5.2	85.0	176.7	619.1
	4	25	5.4	4.9	5.2	4.9	84.5	155.8	600.9
	미분류	1241	4.9	5.4	5.4	5.5	82.3	159.2	594.7

* 출처: 교육고용패널(I)을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하였음.

남성의 경우 1집단의 학업성정은 2집단과 3집단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성과 지표로써 임금은 여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구직기간(입사시기)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이행경로의 군집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집단은 여타 집단에 비해 학업과 노동시장

18) 클러스터 분석중지 프로시저는 Calinski-Harabasz pseudo-F(1974)와 Duda-Hart(2001)의 pseudo-T squared value를 활용하여 보다 뚜렷하고 적합한 군집화를 룰을 찾을 수 있다(STATA manual13에서 인용). 클로스터 분석 중지 방법에 따라 군집의 수는 남성은 3, 여성은 4로 결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 및 산식은 전술한 문헌을 참고하면 된다.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2집단은 1집단을 비롯하여 3집단과 4집단에 비해 학업과 노동시장 성과가 상대적으로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미 cluster stop 방식으로 군집 개수를 결정했으므로 별도의 검정은 생략한다.

사건배열분석과 그 군집화를 통한 유형 간 차이를 유발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Ⅳ-2 노동시장 이행 군집화에 미치는 영향

	남성		여성		
	집단 2 대비		집단 2 대비		
	집단 1	집단 3	집단 1	집단 3	집단 4
전교석차	6.081	-1.007***	-0.310***	-0.163**	-0.494***
	[9,954]	[0.261]	[0.0779]	[0.0791]	[0.0796]
수능언어	-7.725	-0.314	0.314***	0.642***	0.310***
	[8,770]	[0.422]	[0.108]	[0.111]	[0.111]
수능수리	-34.11	0.783**	-0.0941	-0.0419	0.0442
	[8,423]	[0.331]	[0.0828]	[0.0846]	[0.0845]
수능외국어	30.01	0.495	0.0529	0.239**	0.044
	[13,433]	[0.422]	[0.107]	[0.111]	[0.110]
대학평점	1.643	-0.152***	-0.121***	-0.119***	-0.0858***
	[862.7]	[0.0430]	[0.0187]	[0.0189]	[0.0189]
임금	-0.167	0.0212***	0.00834***	0.0158***	0.0129***
	[73.79]	[0.00527]	[0.00228]	[0.00234]	[0.00233]
입사시기	0.253	0.0117	0.0586***	0.0339***	0.0699***
	[253.9]	[0.0150]	[0.00581]	[0.00576]	[0.00611]
상수항	-252.2	1.488	-24.15***	-14.58***	-35.40***
	[259,020]	[9.605]	[3.913]	[3.902]	[4.104]
관측치	209	209	2,728	2,728	2,728

* 자료: [ ]는 표준오차이며, ***은 1%, **는 5%, *는 10%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앞선 논의를 기반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집단 2를 기반으로 상대적인 영향을 추정하였다. 남성의 경우 학업과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집단 2와 비교하여 집단 1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3의 경우 집단 2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 평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집단 2와 비교하여 고교시절 성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수능 언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평점은 집단 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사항은 학업 과정에서 집단 2와 비교하여 여타 집단의 성과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동시장에서 약 1~2%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건배열 분석의 군집이 학업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하에서는 집집화가 학업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OLS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사실 군집화는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관찰되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교석차 및 대학평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집(집단)간 학업과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는 졸업예정자들이 보내는 10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19]

표 Ⅳ-3 군집별 학업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성			여성		
		전교 석차	대학 평점	임금	전교석차	대학평점	임금
집단 1 대비	집단 2	-1.678**	3.775	-38.99	1.229***	0.292	-32.84
		[0.703]	[3.420]	[41.78]	[0.408]	[2.138]	[23.20]
	집단3	-1.601**	-0.82	12.06	0.683***	-2.841***	3.607
		[0.722]	[3.469]	[38.48]	[0.196]	[1.013]	[9.817]
	집단4	-	-	-	-0.257	2.564**	24.82**
		-	-	-	[0.240]	[1.146]	[11.76]
	상수항	5.778***	80.29***	220.8***	4.057***	85.02***	176.8***
		[0.584]	[2.832]	[30.13]	[0.147]	[0.719]	[7.206]
	관측치	46	57	44	427	503	512
		0.129	0.053	0.044	0.061	0.044	0.016

* 자료: [ ]는 표준오차이며, ***은 1%, **는 5%, *는 10%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9) 이 추정은 다양한 인구·사회·경제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이므로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

3) 소결

이 절에서는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 그리고 보완적으로 회귀추정을 통해 청년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양상(패턴)과 유형, 군집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군집화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배열분석의 결과 정태적(static)인 분석을 통해 청년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집단내 이질성(heterogeneity)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무직(입시 준비 등)을 하는 경우 청년기의 이행경로가 여타 집단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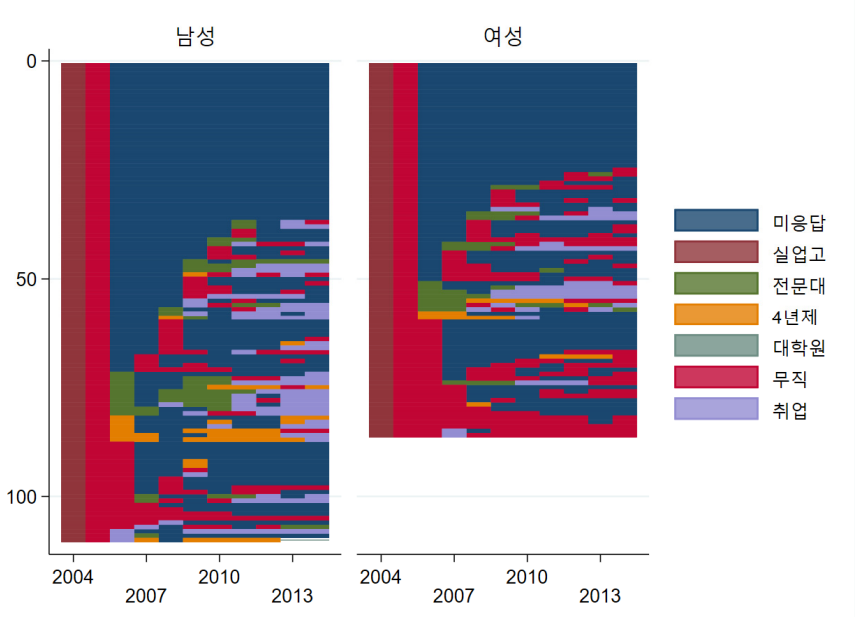


그림 Ⅳ-73. 실업고 3학년 이후 10년의 이행: 졸업 직후 무직 경험자

둘째,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학업 및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취업시장의 경직 등의 환경적 요인이 신속한 노동시장이행에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계도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의 군집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수능시험에 비해 고교시절의 석차와 대학의 평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 요약 및 시사점[20)]

이 장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졸업 후 상황과 이행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1970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행정데이터(administrative data) 분석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1차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를 활용한 분석으로, 2004-2014년까지의 개인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미시데이터(micro data)로 개인 특성과 성과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진로 종단변화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계고 졸업생의 취업은 감소하고 진학은 4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77.2%를 보였다. 직업계고 졸업생 역시 취업은 1970년 85.5%에서 2017년 67.1%로 감소하고, 진학률은 1970년 10.1%에서 2017년 34.1%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일반계고는 5명

20) 이 절은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중 4명, 직업계고는 3명 중 1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이와 함께 진학과 취업이 파악되지 않는 미상률은 1970년 12.3%로 출발하여 2017년 21.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과 진학 이외의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4년제 대학 대학생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1970년 54.7%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67.1%로 증가하였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1970년 70.6%였다가 2017년에는 62.7%로 감소하였다. 셋째,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미상률이 높아지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미상률은 1970년에는 24.3%였으나 2017년에는 33.4%로 증가하였다. 넷째, 대학 전공별 취업률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 공학계열, 의약계열에 비하여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취업 성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은 외부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분석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거에 비해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의 취업 성과는 과거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4년제 대학 안에서도 계열의 선택에 따라 취업 성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전공의 선택, 전공선택 이후의 역량의 개발, 취업지원 등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1차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를 활용한 분석으로, 2004-2014년까지의 개인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미시데이터(micro data)로 개인 특성과 성과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의미를 지닌다. 분석 결과의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은 무수히 많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석 결과 학교에서 일자리까지의 경로가 무수히 많은 배열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정책이 보편적인 접근의 필요성, 개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둘째, 남성의 경우 학교에서 일자리의 전환 과정에 병역시기가 있어, 이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병역 의무로 인한 경력 단절, 학업 단절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셋째,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전환에 학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다. 고교 시절의 석차와 대학의 평점에 따라 전환의 결과에 차이가 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좋은 성적, 좋은 전공계열, 좋은 학교의 경로를 밟은 대상들의 성과가 좋을 수 있다는 단순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거꾸로 놓고 보면 학교 졸업 이후 진학, 취업,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을 위험 집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예방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의 2차 자료 분석은 학교 졸업예정자의 졸업 후 상황과 이행 경로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였고, 종단적 변화의 사회적 흐름과 이 속에서 개인이 보인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 장에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제5장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

: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목소리

1. 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 개요
2. 학교 졸업예정자 심층면접의 주요 과정 및 방법
3.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5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 :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목소리[21)]

이 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들의 경험, 생각, 고민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진은 세 달여 간 30여명의 청년들을 직접 인터뷰하였고, 이를 각 주제에 맞게 정리·분석하였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졸업을 앞둔 청년들이 출발선 위에 서 있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여 본 장의 제목을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로 정하였다. 이 장은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들이 그동안 진로를 위하여 어떠한 과정 속에서 준비하였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예상은 어떠한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예정자로서 느꼈던 아쉬웠던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이에 대한 사회적 변화들을 개인, 가족, 학교, 사회, 문화, 제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1. 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 개요

1) 면접조사의 목적

심층면접은 청년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데 목적이

21) 이 장은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있다. 양적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사회정책이 청년 친화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졸업예정자들이 앞으로 니트 청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의 주요한 연구 질문은 “졸업예정자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고민을 하는가?”이다. 청년들의 과거의 경험과 인식이 현재의 진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가 어떨 것이라 인식하는지 대해 생각을 들어보았다.

2) 면접조사 참여자 및 면접방법

심층면접 참여자는 학교 졸업예정자이다. 면접조사는 초점집단면접(FGI)과 심층면접조사(일대일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초점집단면접은 사전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졸업예정자들의 주요한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적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예정자의 두 집단으로 구성되며 연구자의 진행 하에 각각 5명의 참여자가 90분~120분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심층면접조사는 학교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최소 다섯 개 집단을 설정하고, 집단 별로 각각 4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은 세부적으로 ①일반계고 졸업예정자, ②직업계고 졸업예정자, ③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④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⑤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예정자(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이다.

표 V-1 학교 졸업예정자 심층면접 개요

	면접방식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
섭외과정	전문 조사업체 섭외	전문 조사업체 섭외
참여자수	10 명	20 명
면담지역	수도권	수도권 및 충청권, 경상권
참여자 특성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일반계고·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면접방식	집단면접	1:1 면접
면접일시	2019년 5월	2019년 6월-7월
면접시간 및 횟수	90분-120 내외, 1회	90분 내외, 1회
면접자	연구진	연구진
비고	• 면접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음(NYPI IRB 승인번호: 201904-HR-고유-009-01) • IRB 규정에 따라 미성년 청소년 면담 시에는 부모 및 본인 동의 이후 면접을 시행하였고, 성인 면담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회득한 후 면접을 시행하였음.	

일대일 면접조사는 학교 졸업예정자를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4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섭외는 전문 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서 담당하였고,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담당하였다. 면접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IRB)에 심의를 거쳤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획득하였으며, 성년 참여자는 본인 동의 후 면담을 시작하였고, 미성년 청소년은 부모와 본인의 동의서를 작성한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전사를 위한 녹음 역시 참여자의 동의를 획득한 후 이루어졌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질적연구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NVivo는 질적연구자료에 대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질적자료에 대한 코딩 및 정리 기능을 제공하여 질적자료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2. 학교 졸업예정자 심층면접의 주요 과정 및 방법

1) 학교 졸업예정자 심층면접의 주요 프레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상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진로는 취업과 진학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먼저 교육제도상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직업계고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그리고 일반계고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이 아닌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직업반 졸업예정자들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이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예정자들을 차례로 만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과정, 경험, 인식, 감정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청년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림 Ⅴ-1. 심층면접 질문의 주요 흐름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에까지의 여러 교육과정에 있는 대상들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이들의 여러 경험을 생애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정책연구의 맥락에서는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대상자들의 생애과정, 경험, 인식, 감정 등에 대해 진로의 선택, 학교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취업준비과정, 노동시장 진입의 틀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하였다. 과거의 경험에서 사회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 현재의 경험에서 사회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 미래의 예측에서 사회적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V-2 심층면접 주요 질문

〈진로와 관련한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경험과 예측〉
1. 현재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가?
2. 진로 결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 교육, 사건이 있었는가?
3. 현재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4. 준비하면서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지? 진로준비에 필요한데 못하는 것이 있는가?
5. 나의 진로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은 적 있는지? 어떠한 느낌이었는가?
6. 준비하는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
1. 과거 자신의 경험에서 사회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가?
2. 현재 내가 진로를 준비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가?
3.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면서 미래에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가?

2) 주요 참여자

(1) 초점집단면접의 주요 참여자

초점집단면접은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가진 생각과 경험들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9년 5월 21일에 진행되었다. 초점집단면접은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5개 집단 중 2개 집단인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5명과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5명을 대상으로 각각 90~120분씩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Ⅴ-3 학교 졸업예정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구분	ID	성별	학교분류	전공	연령	취업희망분야	취업준비상황
고교 졸업 예정자	F.01	남자	직업계고 (공업고교)	친환경에너지 화학	19	IT분야 프로그래머	구직 활동 준비 중
	F.02	남자	직업계고 (공업고교)	모바일 소프트웨어	19	판매직, 서비스직	구직 활동 준비 중
	F.03	남자	직업계고 (상업고교)	글로벌경영학	19	사무직 회계관련	구직 활동 준비 중
	F.04	여자	직업계고 (상업고교)	비서사무학	19	사무회계분야	구직 활동 준비 중
	F.05	여자	직업계고 (공업고교)	산업디자인	19	컴퓨터일러스트	구직 활동 준비 중
대학 졸업 예정자	F.06	여자	수도권 소재 4년제대	정치외교학 (졸업 유예중)	27	예술,사기업	구직활동 및 준비 하고 있지 않음
	F.07	여자	수도권 소재 4년제대	경영학	24	마케팅분야	구직 활동 준비 중
	F.08	여자	수도권 소재 4년제대	정치외교학 (졸업 유예중)	27	대기업	구직 활동 준비 중
	F.09	남자	수도권 소재 4년제대	컴퓨터공학	25	데이터관리IT분야	구직 활동 준비 중
	F.10	남자	수도권 소재 4년제대	식품학	25	식품분야	구직 활동 준비 중

(2) 심층면접 주요 참여자

심층면접은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가진 생각과 경험들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초점집단면접은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5개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4명씩 면담하였다.[22] 심층면접 참여자와 초점

집단면접 참여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 참여자의 표기는 FGI(Focus group interview)의 F와 참여자 번호를, 심층면접 참여자의 표기는 IDI(In-depth interview)의 I와 참여자 번호를 표기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학교정보, 연령, 지역 등은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범주로만 표기되거나 일부 수정이 되었다.

표 Ⅴ-4 학교 졸업예정자 심층면접조사(IDI) 참여자

구분	ID	성별	학교분류	전공	연령	취업희망분야	취업준비상황
고교 졸업 예정자	I.01	여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웹프로그래밍	19	웹 관련 프론트, 서버 백앤드 분야	9-11월 입사 예정
	I.02	남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설계	19	생산직, 설계직	10월 입사 예정
	I.03	여	일반계고 (위탁교육중)	-	19	호텔조리 분야	구직 활동 준비중
	I.04	남	일반계고 (위탁교육중)	항공기술	19	항공운행, 정비	구직 활동 중
	I.05	여	직업계고 (상업고교)	비즈니스	19	사무 분야	구직 활동 준비중
	I.06	여	일반계고 (위탁교육중)	조리	19	호텔외식조리	구직 활동 준비중
	I.07	남	직업계고 (농업고교)	조리, 제빵	19	일식조리사	구직 활동 준비중
	I.08	남	일반계고 (위탁교육중)	컴퓨터전자	19	컴퓨터 전자회로	구직 활동 준비중
	I.09	여	수도권 소재 4년제대	사회과학	20	마케팅 분야	대학입학생 (회고조사)

22) 참여자 I.09는 현재 대학 재학 중이다. 이 참여자는 대학을 목적으로 하여 가족과 학교에서 많은 투자를 받는 상황을 파악하여, 다른 대상자들의 지원 현황과 비교를 목적으로 심층면접조사에 섭외되었다. 참여자 I.09에 대한 면접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시기에 대한 회고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분	ID	성별	학교분류	전공	연령	취업희망분야	취업준비상황
대학 졸업 예정자	I.10	여	수도권 소재 4년제대	관광학	26	식품업계	구직 활동 준비중
	I.11	여	수도권 소재 전문대	산업디자인	23	디자인전문 분야	구직 활동 준비중
	I.12	여	수도권 소재 4년제대	도시계획	24	금융업계	구직 활동 준비중
	I.13	여	지방 소재 4년제대	문헌정보학	23	도서관, 사서	구직 활동 준비중
	I.14	여	지방 소재 전문대	간호학	23	병원간호사	구직 활동 준비중
	I.15	남	지방 소재 전문대	해양기술	21	자동화기기관리	구직 활동 준비중
	I.16	남	수도권 소재 전문대	기계자동차	23	자동차정비, 부품생산	구직 활동 준비중
대학원 졸업 예정자	I.17	남	수도권 소재 4년제대	정보화 대학원	27	IT업계, 소프트웨어개발	구직 활동 준비중
	I.18	남	수도권 소재 4년제대	과학교육과	28	바이오의약 분야	구직 활동 준비중
	I.19	여	수도권 소재 4년제대	예술경영학	28	문화정책, 일반 마케팅 분야	구직 활동 준비중
	I.20	남	수도권 소재 4년제대	언론정보대학원	34	언론사, 일반기업 홍보팀	구직 활동 준비중

3.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

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진로를 선택한 이후 학교라고 하는 교육제도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직업훈련과 취업준비를 진행하게 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러 시도를 하며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

이 연구는 다양한 대상에게 여러 단계 동안의 경험, 인식, 느낌에 대해 묻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면담결과를 중심으로 각 대상(핵심정책대상)이 진로의 선택에서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의 단계에 대해 도식화한 것이다. 이는 30여명의 개별화된 경험을 구조화하여 이해하고, 핵심정책대상에 따라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Ⅴ-2. 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
: 진로결정에서부터 취업까지의 핵심정책대상별 경로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일반계고와 직업계고(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 중 마이스터고)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고, 학교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준비 등을 통해 취업시장에 나가게 되는 과정에 대해 면담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상들이며, 이들의 학교 교육, 직업훈련, 취업 준비 과정, 취업 예상과 기대에 대해 면담하였다. 이들에게는 스펙 쌓기와 입사시험준비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은 석사과정으로 국한하여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들로 한정지었다. 이들의 직업훈련과정과 취업준비 과정은 비교적 불명확하지만, 연구하며 일하고 취준(취업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단계에서의 경험, 인식, 느낌 등에 조사하였으며, 이들이 원하는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1) 출발선 위에 서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졸업예정자들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출발선 위에 서 있다. 우리는 노동시장으로 나가기 전의 고등학생들을 만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생들과 일반계고 직업반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다.

직업계고는 상업, 공업, 농업 등을 교육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을 지칭한다. 직업계고는 교육과정 동안 학생들이 특정한 직업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계고의 교육은 주로 대학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반계고의 직업반은 대학교육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위탁교육의 형태로 학생들을 외부기관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진로, 학교교육, 직업훈련, 취업준비,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에의 기대와 예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 주) Nvivo의 도식화 기능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단어들을 시각화하였음. 단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표기됨.

그림 Ⅴ-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주요 단어 도식(word cloud)

(1) 진로의 선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진로선택 계기

직업을 목표로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나, 공부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어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 진학을 결정했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 때 학업적으로 열심히 하거나 관심이 많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3때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근처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거냐 아니면 만약 자기가 어느 때부터 만들기를 좋아하거나 그런 게 관심이 많다고도 중학생 때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담임께서 혹시 인문계고에서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가는 것 보다 마이스터 고에 입학해서 바로 취업하거나 전문대로 갈거냐? 말씀하셔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조립하고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가게 됐어요. ***(I.02, 남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이게 중학교 2학년. 계속 중학교 때 처음에는 목표가 없다가 엄마한테 혼나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니까 제가 손으로 만들고 이런 것을 좋아해서 글로 쓰는 것보다 그런 걸 좋아해서 정말 흥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 프라모델 이나 건담 같은 거를 조립도 해보고, 레고 같은 것도 조립을 해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요리도 해보고 이랬는데 세 개 다 재밌는데 이제 꿈으로 가질 만한 게 요리여가지고 요리 관련된 고등학교를 찾아보다가 그 학교가 있어서 엄마도 이제 공부 싫어하는 것을 아시니까 거기 가려면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한다 해서 그때부터 공부도 조금 하고 거기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I.07,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직업계고 진학한 이유가 반드시 취업만은 아니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 직업계고에 온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바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선취업 후진학을 고려하고 있었다.

*저는 중학교 성적이 애매해서 인문계에 가기는 좀 그랬어요. 내신이 5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에 가려고. 거기에서 상위권으로 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생각하고 갔어요****(F.03.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저는 선생님들이 대학에 가려면 취업을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F.05,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일반계고에서 직업반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당시 직업계고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뒤늦게 일반계고에서 직업반을 선택한 경우였다.

그니까 공부를 어차피 안 했었고, 대학이 가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문계는 인문계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문계는 대학이 확실하지 않은 거 같아서. 그래서 여기를 썼는데 취업이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학교가 뭔가 나사 하나 빠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I.08, 남성, 일반계고 졸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진로 선택과 주변의 시선

직업계고의 진학을 선택하는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이다. 평판이 좋고 지원이 많은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부모님을 설득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에 대한 선택 역시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했지만 부모가 지지해주었다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저희 부모님이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 다 하게 해주시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간다는 게 보통 취업을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아빠랑 잠깐 세 시간 네 시간 정도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아요. 안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할 거냐 이제 자기 아빠는 다른 애들이 가는 것처럼 취업해서 요식 쪽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목표로 두고 꿈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해주신 것 같아요. ***(I.07, 여성, 직업계고 졸업반 졸업예정자, 19세)***

하지만 일반계고에 진학하였지만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터뷰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당시 부모가 특성화고 진학을 반대하여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중학교 때 망설이고 직업계고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망설임은 일반계고에서 직업반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인 2학년에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이때도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다시 후회하게 된다고 했다.

*위탁 교육하기 전에는 학교생활 지겹고 힘들어서 (특성화고를 가지 않은 것을)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I.06,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원래 그쪽(특성화고)도 가고 싶었는데... (중략). 특성화고는 애들이 약간 논다는 얘기가 많아서 엄마가 걱정해서... 그래도 일반계 고에서 공부하다가 아닌 학원에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특성화고도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이 반대를 하셔서... ***(I.03,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고교 졸업 이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편견과 차별과 맞서야 하는 일이다. 단순히 진로를 직업교육으로 선택한 이후, 학교에서 이러한 편견을 경험하기도 한다.

약간 직업 교육을 선택한 애들도 사실 자기들이 직업 교육을 통해서 저 직업으로 나가는 게 물론 사람들이 시선이 좀 그런 거죠. 시선이나 혜택이나 받는 거나... ***(I.09,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친구들은 약간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가서 뭘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무시당하는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할 때 가장 기분이 나빠요. ***(I.06,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특성화고나 직업반이 한 분야로 깊게 파고드는 전문직 특성상 경력만 잘 쌓고 그러면 대졸자에 비해 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직업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으로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가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I.04,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직접적으로 대학 진학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비교를 들으면 반발심이 든다고 했다.

*예. 저희는 디자인과라서 말을 많이 들었던 게, 너 같으면 같은 돈 주고 대학생을 뽑겠냐, 고등학생을 뽑겠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F.05,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저도 비슷한 사례인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잘하는 고등학생과 못하는 대학생이면 어떻게 선택할 건지 반발심이 들었어요**(F.04,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진로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중학교 시절, 진로를 남들보다 일찍 선택하였지만 진로 선택에 대한 정보는 많이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의 선택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불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전공과를 선택하여 학교에 지원하거나, 입학 후 한 달 만에 전공과를 선택하는 등 진로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자: 직업학교 소개할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았어요?) 안 적혀 있었죠. 적혀 있지도 않고 안내를 자세히 받지도 못하는 게, 여기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아는 게 아니니까 알려면 가봐야 하는 거죠**(I.09,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제가 입학할 때는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이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고 이런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걸 알고 갔는데 (입학할 때부터 과를 정해서 들어가면) 이 학교에서 어떤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바로 입학 지원서에 어느 과를 써서 내야 되니까 불안할 것 같아요**(I.02, 남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진로변경 시도와 좌절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나 전공을 선택하였거나, 혹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전공과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과가 허용이 되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공과를 바꾸려면 전학을 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23] 진로를 변경하지 못한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학업을 등한시하기도 한다.

> *(전과할 수) 없어요. 과를 바꾸고 싶은 학생이 있었는데 전과를 못해서 자퇴를 하고 디자인 관련된 특성화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학을 아예 못 해서 자퇴를 하고 다음 연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넣어서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입학을 한 거죠.* ***(I.01, 여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이 전문적이고 어려워요. 그리고 초반에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하는데 초반에 전공이 안 맞는다 싶으면 아예 수업을 안 들어서 뒤처지는 애들이 많아요.* ***(I.01, 여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 *저는 과랑 진로랑 안 맞아서 따로 혼자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바꾸기는 어려워서...* ***(F.03,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2) 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마이스터고의 집중된 학교분위기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묘사하는 학교분위기는 규칙이 엄격하고, 학교 폭력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위기였다. 특성화고 학생들도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일부의 초점을 잃은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

23) 여기에서의 전학은 특성화고에서 다른 특성화고로의 전학이 아닌, 특성화고에서 일반계로의 전학과 그 이후의 특성화고로 전학이라는 험난한 길을 의미한다.

1, 2학년 때는 학교 폭력 그런 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자유분방하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노는 애들이 많았는데 3학년이 되니까 취업이 압박이 되니까 놀던 애들도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조용해지지요. ***(I.02, 남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여기 와서 느낀 게 일단 교칙부터가 엄청 빡세요. 교복도 단정하게 입어야 하고, 화장도 절대 하면 안 되고 머리도 묶어야 하고. 애들도 서로 도와주고 끈끈함이 생겨서 중학교 때와 비교하면 수업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01, 여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이게 제가 막상 (특성화고에) 가보니까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는데. 중학교 때 있던 친구들보다 고등학교 때 만나면 조금 더 나이가 들었잖아요. 성숙해지고 하니까 같이 뭐 어디 1박 2일로 놀러 다닌다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담배를 피운다거나 그런 건 개개인이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질이 안 좋은 애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자체가... ***(I.06,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일반계고의 직업반 학생들은 특성화고에 비해 포기하고 관심 없는 학생들의 비율에 대해 조금 더 높게 이야기하였는데, 위탁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함께 위탁교육을 받는 아이들 중) 1/3 정도는 진짜로 생 양아치. 학교를 자기 멋대로 다니고 출석일수도 못 채우고 간당간당. 공부는 말 할 것도 없고 방황만하는 친구들이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학교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니까, 고졸은 받아야 하니까. 돈이 궁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빨리 정한 애들은 단지 공부만 포기하고 싶어서 약간 위안 삼아 그런 학교로 간 것도 있고. 대학에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다거나 그런 애들도 몇 명 있기는 있어요 ***(I.04,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저희가 학교에도 인원이 15명인데 10명 정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5명은 학교를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 맨날 지각하고 12시에 등교하고 학교 안 나오고. 그런 아이들이 조금 많고. 그 친구들은 잘 안 나오고 수업 시간에도 자고 솔직히 그래서 15명인데 저희가 한 명이 갔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위탁교육에 왔는데 자기가 희망해서 왔는데 의지를 느끼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일단 학교를 안 나와서 ***(I.06,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

직업계고 학생들 중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학생들도 마이스터고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 학교에 따라, 교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였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전공에 대한 역량, 진로에 대한 정보에 따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에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이다.

대부분 다 올드하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립이라 선생님들이 오래 계시잖아요. 실무에 다니신 지 되게 오래 되셨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매년 똑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몇 분은 최신 트렌드도 잘 아시고 전공 지식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I.01, 여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학교에서 이상한 과목이 있어요. 비서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걸 배우러 학교에 온 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걸 배우고 있으니까****(F.02,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저희 학교는 디자인과 자격증만 있으면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비전공자인데 이 자리가 나서 온 거라고. 1, 2학년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3학년에 공석이 나서 오신 거예요. 선생님의 영향이 80%는 있다고 생각해요****(F.05,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오히려 선생님이 저한테 묻는 경우도 있어요. 컴퓨터나 회계에 대해서****(F.02,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위탁교육에 대한 평가 역시 극과 극을 달렸다. 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나간 요리 전공 참여자은 매우 만족하고 있었던 반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위탁교육기관의 참여자는 후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학교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오는 학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이 학교 오고 나서 처음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었던 게 학교 시간표가 이제 대학 시간표, 약간 망한 대학 시간표처럼 이제 세 시간 네 시간이 묶여있어요. 점심시간 전 네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고 세 시간 묶여있어요. 통째로. 그러면 그 네 시간을 다 활용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은 뭘 하고 세 시간은 그냥 노는 시간인 거에요. 그냥 되게 시간 효율 면에서 되게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도 없고 되게 뭔가 조금 그런 거죠 ***(I.09,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교로 나오는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가르쳐주시니까 조금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들이 제자들이 많으니까 듣고 이런 게 좀 많고 같은 수업 대학생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

까 뭔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대학생들도 취업 나가니까 그런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일부러 선택했어요 ***(I.06,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시스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선배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큰 만족을 보였다. 학교의 적극적 노력이 직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희 학교에서 따로 까페나 블로그가 있어서 거기에서 1차 면접 2차 면접 본 친구들 바로바로 올리고 그러면 합격한 친구들도 올리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삼성에 간 언니가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언니가 면접을 봐 주기도 하고 시간 내서 학교에 와 주기도 해요. 그래서 설명회 때 불러서 오기도 하고 ***(I.05, 여성,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19세).***

(3) 직업훈련과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여기서의 직업훈련과정은 직접 그 직업을 체험해보고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을 의미한다. 직업계고에서는 대표적으로 현장실습이 있다. 우리가 접한 사례에서는 정부방침에 의해 현장실습은 나가지 못하지만 기술습득을 교육시장에 있는 학원을 통해 연마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장실습에 대한 생각

2017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로 직업계고의 학기 중 현장실습은 모두 12월 이후로 연기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기 중 현장실습을 나갈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양가감정(ambivalence)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우리사회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할 일이지만, 직업계고를 선택한 이유가 빠른 취업인 이상 현장실습을 나간 후 취업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놓치기는 아깝다는 것이다.

저희 학교 회사에서는 두 명씩 짝 지어서 나가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원래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혼자 저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말려 들어간 거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어디 무서워서 나가겠냐고 ***(F.05,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제주 사고 때문에) 늦춰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사학 재단이라 보니까 이런 공장에 나간 친구들이 없으니까. (중략) 현장실습을 나가면 좋은 기회이기는 한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I.05, 여성,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19세).***

우리가 직업계고 학생들을 인터뷰한 7월은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뷰한 학생들 중에서는 현장실습을 나간 경우는 없었다. 현장실습에 대해 이야기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실제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취업과 연계되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장실습이 취업연계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교육적 측면과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황진구, 유민상, 2017). 이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직업훈련 (민간학원을 통한 직업훈련)

학교에서 충분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부의 학생들은 민간학원을 통해 특정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종의 직업훈련 기능을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전공기술이지만, 학교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학교 밖에서 배우고 익히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서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굳이 학원에 갈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학교와 전공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일식은 제가 양식보다는 일식에 관심이 있어서 따로 **동에 있는 학원에서 일식을 배우고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붙은 상황입니다. 일식은 삼십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일주일에 두 개씩 그거를 배워요. 다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달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하고 80만 원 해서 학원에 다녔어요.* ***(I.07,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그런 친구들도 있는 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학교 방과 후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겹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고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은 요일에 다른 시간대에 겹친 시간대에는 따로 주말에 자격증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I.02, 남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 더 반복. 아무래도 학원을 가면 돈을 주고 그만큼의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수업을 또 들으니까. ***(I.06,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학교에 짜여진 커리큘럼이 없어서 학원에 다녀야 딸 수 있어요****(F.02,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일반계고 직업반을 선택한 학생 중 요리를 전공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위탁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학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진로를 선택하고 계속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 참여자가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믿는 대상은 학교 선생님이 아닌 학원 선생님이다. 학교에서 직업훈련과 진로상담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원에서의 상담이 유일한 도움이다. 이 참여자의 이야기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학원에 다니면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6개월 다니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고 재미있어서 이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취업을 결정하게 됐어요.

(학원이 없었다면) 진짜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적성을 일단 찾아야 하는 데...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하는 데... 그것도 학원이 많이 알려주니까.

(연구자: 진로와 관련해서 제일 믿는 사람은?)

학원 선생님 ***(I.03,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한국에서 학생이 민간학원에 다니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직업교육에서 학원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직업교육 역시 학교에서만의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민간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은 직업교육에서도 뒤쳐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인 한 참여자는 이와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 *학원 같은 거 다니려고 해도 조리 쪽은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깨지는 거니까. 실기시험도 보통 삼만 원 사만 원 정도 깨지고 그러면 못사는 애들은 아르바이트 이런 거로 한단 말이에요. 되게 애들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I.07,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4) 취업 준비과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스펙 쌓기

대부분의 직업계고 고등학생들의 졸업 후 목표는 취업이다.[24] 좋은 곳으로의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들도 내신, 자격증과 같은 스펙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25] 대개의 경우 학교로 취업의뢰가 들어오면 그 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학생들이 먼저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직업계고 학생들은 자격증을 적게는 4~5개, 많게는 10개 이상 취득하고 있었다.

> *연구자 본인은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몇 개 정도 있나요?*
>
> *참여자 8개인가 9개인가 있어요.*
>
> *연구자 많은 친구들은 몇 개 있나요?*
>
> *참여자 보통 16개 정도 있어요 **(I.05,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험에 떨어지는 것,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응시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

24)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제도적으로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통하여 먼저 회사에 입사한 후 3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취업과 대학교육을 병행하는 형태로 대학교육을 받게 된다.

25) 스펙은 영어 Specification을 줄여 부르는 말로 원래는 전자기기의 성능표기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진학과 취업 응시자들의 학력, 자격, 경력 등의 요건을 부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자격증 취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를 토로하였다.

> *이게 되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여요. 자격증을 딴다는 게 이게 세 달에 한 번 가서 시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시험을 이제 그러면 붙으면 스트레스 이런 게 안 쌓이는데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쌓여요. 되게 이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돈도 계속 삼만 원씩 나가고 돈도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I.07,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취업정보 모으기

고등학생이 혼자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모으기란 어려운 일이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의 입사지원 의뢰정보를 체계적으로 배분하기도 한다. 취업정보의 사각지대는 주로 일반계고 직업반 학생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일반계고 교사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고, 위탁교육 내에서도 딱히 진로를 상담하기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 *(연구자: 취업정보와 관련해서 누군가 대답해줄 사람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요?) 취업 전망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랑, 월급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가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제가 하고 싶은 걸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I.03,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 *진로 선생님은 수업도 같이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 분도 대학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취업이나 직업 반 애들을 위해서 그런 선생님이 계셔서 애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상담해 주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I.03,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 *위탁 교육에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취업을 했다가 취업한 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후회하는 건데... 조금 회사에 미리 들어가서 미리 해볼 수 있으면, 약간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으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I.08,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도 취업을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직업계고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학생들은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평범한 학생에게는 교사들의 관심이 적게 느껴지기도 한다.

자격증이나 방학에 방과 후를 통해 1, 2순위 애들을 정해서 담임이 연락하면 기업체가 들어오면 거기 대상에 맞는 친구들 학교에 불러서 지원서 쓰고 자소서 쓰고 그래요.

지금 담임이 자소서 잘 봐 주실 것 같았는데 아닌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 애들도 봐 주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는 취업에 대해 엄청 신경 써 주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함이 있어요 ***(I.05,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5) 노동시장 진입 기대 및 예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취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률 100%의 이면

우리가 만난 직업계고 학생들은 모두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이었고, 취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실제 우리가 만난 참여자 중에서는 3학년 여름방학에 취업이 결정되어 기대감에 부풀은 참여자도 있었다.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재학생들이 모두 취업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취업률 100%를 내세우는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참여자들도 실제 학생들이 취업하는 곳 중에는 조건이 좋지 못한 곳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취업의 양적인 측면은 뛰어나지만 취업의 질적인 측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면접참여자들이 일자리의 질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임금에 야근과 과중한 업무

야근과 과중한 업무는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회사에서 가장 어린 사람으로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저임금,

야근, 과중한 업무는 '닥치고 취업'할 수 없는 걸림돌 중 하나이다.

*(취업을 했다가) 나오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한 분은 자기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맡기는 일이 다 너무 쉬워서 자기가 더 이상 개발자로서 성장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이직하셨고 한 분은 야근이 너무 많아서... **(I.01, 여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삼성에 입사한 형은 최근에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중소기업 쪽으로 간 선배들은 많이 힘들다고. 자기와 안 맞는 것 같다고. 빨리 나와서 더 좋은 곳으로. 아무래도 학교에서 3학년 때 취업 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 빡세고, 보수도 높지 않고 **(I.02, 남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힘들고 배우는 게 없는 반복적인 일

반복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요식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참여자는 본인은 호텔을 희망하지만 고졸로서는 호텔에 입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직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걱정을 한다. 그것은 선배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며, 본인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호텔을 거의 못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취업처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 푸드에서 연계를 해주셨어요. **(I.07, 남,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제가 졸업생 형들한테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거나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힘들어서 다 나온대요. 그러면 다시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조금 더 배운 다음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그 일이나 이런 게 적성에 맞아서 계속하는 형도 있는데 처음에는 다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만 하거나 하고 싶은 요리만 하다가 거기서 이제 확실히 만약에 내가 파스타 부분을 맡으면 그것만 해야 하니까. 지루하고 배우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I.07, 남,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평생직장 보다는 징검다리 직장

우리가 만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은 본인들이 취업하는 곳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유는 첫 직장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가 아닐 것이란 예상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평생 다니는 직장보다는 징검다리로 거쳐 가는 직장일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일단 돈을 위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스펙을 쌓아서 그 스펙을 가지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지원하고 싶은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I.02, 남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저는 아직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하는데 엄청나게 걱정돼요. 3학년이 되면 애들이 취업을 벌써 나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때만 다시 오고 계속 취업을 하는데 벌써부터 애들이 취업을 나가고 저는 이제 아버지도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싶었어요. 끝까지 뭐 인생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싶었는데 막 레스토랑 같은데 동네 ***나 크다고 해도 레스토랑 같은데 거기서 끝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중략) 그런데 그냥 기본적인 데를 가버리면 이제 같은 일만 계속해야 하고 주방에서 만약에 메인셰프가 되었다고 해도 힘들게 해야 하기 때문에...* ***(I.07, 남,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괜찮은 가정 배경을 가진 한 참여자(I.08)는 당장 일자리를 가질 생각은 없어 보였고, 진학과 취업을 모두 하지 않는 니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어차피 지금 들어갈 일자리는 저숙련 일자리로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이다. 직업교육 이후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으면, 직업교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약간 생각을 하는데 위탁 교육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취업하는 곳이면 나중에 써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죠. 어차피 위탁 교육으로 먼저 지원서를 넣어도 결국은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거일 테니까. 굳이 들어갈 거면 나중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 ***(I.08,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2) 출발선 위에 서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



* 주) Nvivo의 도식화 기능을 활용하여 대학 졸업예정자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단어들을 시각화하였음. 단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표기됨.

그림 Ⅴ-4. 대학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주요 단어 도식(word cloud)

(1) 진로의 선택 (대학 졸업예정자)

진로를 바꾸어 대학으로 진로선택하기

앞서 우리가 살펴본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와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들은 진로에 대해 빠른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청소년기에 불과한 중학교 시기부터 직업과 전공에 대해 알아보기 역량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에 진학한 참여자들은 오직 대학 입시에만 열중했다고 말한다. 특히 4년제 대학 진학을 생각한 특별한 계기는 크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외적으로 전문대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참여자는 특성화고를 졸업하여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경험하고 느낀 일 때문에

중간에 진로를 변경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고졸자와 대졸자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일화이다.

*제가 고3 때 나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라는 곳에 ***라고 맨 처음 수입을 해오면 검사하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라인이라고 이제 자동차가 세차하고 들어오면 외관에 이제 벗겨짐이나 이런 거를 거기에 가기 전에 보는 마지막 코스였는데. 이런 데 막 보다가 팀장님이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팀장님이 저랑 같이 두 명이 저 포함해서 세 명이 이렇게 같이 왔거든요. 같이 왔는데 "**아 너 대학 갈 생각 없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팀장님" 이러니까 "너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던 것 같아?" 그러셔서 "그래도 팀장님이시니까 몇 년 좀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나는 여기에 3년밖에 안 있었어. 저기 라인 분들은 몇 년 계셨을 것 같아?" 라고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분들은 10년 이상씩 있었다고 그런데 저분들은 아직 라인에 있고 자기는 팀장의 자리에 있다고 "너 그거 차이점이 뭐 같아?" 이러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어. 나는 대학을 나왔고 저분들은 나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대학을 나오지 않고 여기서 취업하는 20살 되기 전 아이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단순 어쨌든 단순 노동이잖아요. 검사하고 차 빼주고 이 단순노동으로서는 나는 아무한테도 경쟁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을 것 같다 있던 기술마저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엄마랑 상담했죠. 이런 일이 있었고 엄마는 원래 대학을 가기를 원하긴 했었어요. 이런 팀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어때, 라고 하니까 엄마는 "너 처음에 대학 가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느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학을 가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죠 ***(I.16, 남성, 수도권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큰 고민 없이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기

대학 진학자들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점수에 맞추어서"이다.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를 정기적으로 나갔던 한 참여자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것이 유일한 예외사례였다. 다른 사례들은 간판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전공과를 희생한 사례이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인문 쪽 있잖아요. 언어 하는 곳 말고 나머지 경영이나 경제나 사회과학이나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그때는 철학과를 가더라도 서울대를 가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과 말고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가자****(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고등학교 때 솔직히 가고 싶은 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성적 맞는 과를 몇 개 보니까 문헌정보학과나 사회복지학과는 다른 학교에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사서, 도서관에서 사서를 봤으니까 왔는데 와서도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배운 게 그런 쪽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I.13, 여성,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3세).*

*문과는 간판만 본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과는 생각을 덜 하고 최대한 높은 학교를 가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입학한 전공은 관광이었거든요. 배치표 상에서 경영이 제일 높고 사회학과가 제일 낮았는데 그 사이에 관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을 넣었어요**(I.10,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한 참여자는 자신의 성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판이 좋은 학교를 선택하였지만,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다른 참여자는 형제가 있는 도시로 오기 위하여 부모가 선택해준 학과에 입학하였다.

*거의 0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저는 솔직히 경영, 경제 쪽으로 쓰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원서 쓸 때 그런 건 이제 조금 아래 대학에 안정권으로 쓰고 같은 라인이지만 **대의 이걸 한 번 써 보라고 해서 썼어요**(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과는 원래 부모님 생각할 때, 기술 쪽이 나중에 커서 일을 관두더라도 기술이나 이런 것은 경력이 쌓이니까 그럼 더 수월하지 않겠냐고 하시고 이제 **지역에서도 학교를 찾다 보니까. 군인 해가지고 거기서 경력 쌓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왔어요**(I.15, 남성, 지방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1세).*

이는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이 진로에 대해 크게 고민해보지 않고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와 관련이 깊다. 진로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없는 한국의 고학력의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앞두고 크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 학교 교육과정 (대학 졸업예정자)

교육의 전문성

이론수업을 위주로 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는 차이가 있어 대학에서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는 어려웠다. 전문대에 다니는

참여자만이 유일하게 대학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는데, 전문대의 직업교육 전문성에 편차가 있다는 걸 나타냈다. 이 참여자는 과거로 돌아가도 이 전공을 택하겠지만, 더 공부하여 좋은 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성화고 시절부터 익혀온 자동차 기술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좋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분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넓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1학기에 아니지 작년 2학기에 이제 제가 1학년 2학기에 실시 과목을 맡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대학으로 이제 오신 교수님이었어요. 진짜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약간 제가 그분의 지식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고 저는 그것을 배웠었는데 그거를 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르쳐 주시고 오로지 이거 하나만 해라 이거 하나만 하고 그 외의 것은 하지 마라. (중략) 그리고 나중에는 수업 자체를 그냥 너희 인터넷 보고 해와 이렇게 하셔서...* ***(I.16, 남성, 수도권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3) 직업훈련과정 (대학 졸업예정자)

대학교 현장실습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특정 전공에서만 이루어진다. 간호학과는 대학교 현장실습의 대표적인 전공이라 할 수 있다. 간호학 전공자인 참여자는 본인의 실습경험에 대해 들려주며 본인이 배운 기술보다는 경험한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이 참여자를 통하여 간호학과의 현장실습과 위계적 선후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위계적 선후배 관계는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과 관련이 있는데 현장실습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했다.[26]

26)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직장 내 괴롭힘을 나타내는 은어이다. 최근 간호사들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호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간호계의 태움 문화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원래 실습생이 가면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원래는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저희한테 분담해 주면 편한데, 신규가 저희한테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신규가 시킨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대학교 현장실습에 실망한 참여자(F.07)도 있었다. 경영과 행정 쪽의 업무를 익히고자 대학교 현장실습에 나갔으나 담당업무나 처우가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것이다. 이 참여자는 행정 관련 현장실습을 나갔으나 건강검진기관에서 노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함께 나간 친구는 채변봉투를 받는 일이었다고 한다.

*현장실습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굳이 저는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경영학과 행정 쪽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도 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 관련된 곳에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중략) 기업의 분위기를 익힐 수 있고 간단하게 뭔가 어떤 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배울 수 있겠다 해서 행정 업무라고 해서 갔는데 한 달 내내 일해도 보수가 학교에서 40만원 정부에서 40만원해서 80. 최저보다 반절밖에 안되고 일 자체도 제자리는 컴퓨터도 없었어요**(F.07,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 24세).***

*저희는 무조건 학교로 연락하라고. 회사랑은 절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학교랑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는 그렇게 회사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가 제 친구한테 학생이 그렇게 회사 얘기를 하면 F받을 수 있다고... **(F.07, 수도권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 24세).***

현장실습이 학교 수업과정이다보니 학점을 위해 돈을 내고 현장실습에 나가 허드렛일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학의 현장실습은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점으로 하니까 등록금을 내고 하거든요. 3학점당 25만 원가량 내고 하는데 솔직히 알앤디 개발 쪽에 가서는 설거지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당장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많이 배운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F.10,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5세).***

*학교가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식인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에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학교에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기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체험에서 빠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F08,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유예중, 27세).***

(4) 취업 준비과정 (대학 졸업예정자)

대학생의 취업준비 과정은 고등학생에 비해 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고, 입사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대학 졸업예정자들을 면담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차곡차곡 스펙 쌓기

대학생들은 입사를 위해서는 스펙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점, 어학점수, 자격증 등이 중요하다. 1학년부터 관리가 필요한 학점을 제외하고, 졸업예정자들은 나머지 스펙들을 채우기 바쁜 것처럼 보였다. 우선,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소위 10대 스펙이라고 부르는 사항들을 채워야 채용시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토익이나 토플영어 성적이나 컴퓨터 활용, 정보처리기사, 한국사 1급, 컴활이나 한국사가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기가 하려는 걸 따면 되는데 그 두 개는 기본인 것 같아요 ***(I.13, 여성,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3세).***

(10대 스펙이 있는 게) 없는 사람보다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토익이 810점이었다가 940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서류 합격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는 중요한 것 같은데 면접에 가서 그런 뜻깊은 경험을 잘 풀어내면 좋겠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얘는 여기에 갔다고 합격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I.10,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저도 알바 하면서 한다고 동아리와 해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회사에 다 동아리나 해외 경험 칸이 있는 거예요 ***(I.10,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글로벌 챌린저도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있고 그들은 해외에서 일도 했었어요.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무역 관련, 의류 관련해서 일도 하고 와서 정말 놀라서 나는 깜도 안 되는 구나****(F08,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유예중, 27세).***

*제가 스펙이 공모전 몇 개 밖에 없어서 뛰어난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 부담이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된다**(F.09,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5세).***

인턴

인턴은 중요한 스펙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력서에 적을 인턴경험을 만드는 것이 실제 업무를 배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인턴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인턴경험을 통해 사회생활을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졸업예정자들은 인턴경험을 통해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자소서에 적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은행에서) 고객 응대하고 실무적인 걸 많이 했어요. 통장 만들어 주고 그런 것 **(I.10,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실무적인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인턴 같은 것도 요즘은 꼭 한 번씩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보다는 토익이나 학점 같은 게 좀 줄어들고 진로와 관련된 경험. 그런 경험들이 자소서에 쓰기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성공했던 경험,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기만의 스토리 **(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자소서와 자소설, 그리고 컨설팅

참여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자소서라고 부른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취업정보를 얻는 사이트를 소개하며 자소서가 자소설로도 불린다고 이야기하였다. 취업시장에서 돋보이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과장은 필수라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비슷비슷하게 성장한 학생들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짜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솔직히 자기만의 스토리라고 해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턴 면접을 볼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하게 동아리 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다 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고 그런데 면접관이 어떻게 뽑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다 열심히 스펙을 쌓으려고 하니까 상향평준화 된 느낌이랄까 **(I.12, 여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자소서에 대한 부담은 자소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일부는 학교의 취업정보센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일부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봤거나 주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돈이 있으면 완전 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반 학기 준비하는데 200만원이래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퀄리티가 있어서 제가 아는 분은 바로 취업을 했어요**(F.08, 여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27세).***

*면접 질문은 여러 개 받았는데. 같이 하는 멘토 한테. 그분이 아예 면접 질문을 보내더라고요. 이것 외우고 가면 70%이상 나올 것이라고. 네이버 카카오에서 다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외우고 가라고 하더라고요**(F.09, 남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5세).***

이들은 현직자 선배들에게 자소서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소서 검토를 부탁할 수 있는 선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는 개인화되고 공동체 관계가 옅어진 대학 전공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졸업예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역시 빈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개된 취업정보, 현직자의 취업정보

일부 참여자들은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 정보라고 하였다. 취업에 관한 정보는 채용공고와 같은 단순한 소식도 있었지만, 내부자만 알 수 있는 현직자들의 정보도 있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들은 주요 포털의 대규모 취업준비카페에 가입을 하고 여기에서 주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완전 익명으로 그 사이트에서 제가 가고 싶은 회사 자소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 수다를 떨 수 있게 하는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결과를 기다릴 때도 전자는 애들이 많으니까 수다를 많이 떨거든요. 거기를 보면 어떤 강사는 별로더라, 이번에 어디가 TO가 많다더라 이렇게 카더라를 눈팅을 많이 했어요**(I.10,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온라인에서 얻는 취업정보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정보로 경쟁적인 구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는 희망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의 정보이다. 현직자들에 대한 정보는 주로 사적네트워크를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 운이 좋게 현직자들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다고 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막함을 호소했다.

> *학교 취업 센터에서 당시에 저희 취업센터 담당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 그분이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따로 정부 쪽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분이 학교 정보 위주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실제적으로 제가 정보를 얻은 건 선배들이에요**(F.08,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유예 중, 27세)***

반면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와 소모임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 내의 동아리나 모임 등이 약화된 만큼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함께 취업준비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꽤 효과적이라고 보는 게 꽤 오랜 시간 준비하신 분들이 거기에 스터디 장이라든지 실질적인 정보를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경험도 많고. 면접 떨어지면 1, 2차 정도는 갔었던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F.08,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유예 중, 27세).***

공무원시험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은 이미 큰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취업준비 옵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비용이 발생한다.

> *공무원 인강(인터넷 강의)도 200만원이 넘거든요. 붙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수업인데 그건 200만원이 넘고 6개월이나 12개월로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인적성검사 준비하기

많은 참여자들이 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인적성 검사)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인적성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풀거나,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대비를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인적성 검사의 내용이 어려워서 준비가 필요하거나, 아예 어려워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응답을 하였다. 공통된 것은 인적성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인적성 검사가 강조가 되면서 많은 졸업예정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삼성이 모든 대기업 인적성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방학 때부터 GSAT만 공부를 시작해요 ***(I.10,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정량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즘은 인적성 시험도 많이 보잖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은 자소서는 적합/부적합으로만 판단되는 게 아닐까. 인적성에서 더 많이 탈락하고 면접도 1차, 2차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자소서가 옛날보다는 비중이 줄어들은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학교에서 취업을 도와주는 분들도 자소서는 엥간히 쓰면 붙여 주니까 시험 준비를 더 열심히 하라고 ***(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잘 수긍은 안 되는데 이게 PT 면접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생활을 하면 데드라인은 짧은데 자료를 이만큼씩 주니까 필요한 것만 취합해서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료만 활용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이런 게 중요하대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커버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I.10,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솔직히 그 인적성이 간호사의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성검사는 솔직히 누가 거기다가 있는 사실대로 다 체크를 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쪽으로 체크를 할 텐데. 약물 개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작년에 GSAT 그냥 한 번 공부해 봤었는데 도형 굴러가고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할까. IQ 검사 같기도 하고. 경영, 경제 상식을 은행에서 시험 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인적성 검사로 어떻게 뽑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참여자가 이야기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인성과 적성검사의 점수는 문제집을 풀어볼수록 올라간다는 사실이었다. 이 참여자는 자신의 적성이 문제점 한 권 풀 때마다 개발되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친구랑 공부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정말 적성검사라면 공부한다고 적성 개발이 되느냐? 문제집 한 권을 풀 때 마다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적성이 개발되고 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졸업유예하기

참여자들은 대학 졸업을 위한 학점을 모두 채웠지만 졸업하지 않고 졸업을 연기하는 '졸업유예'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졸업을 유예하는 것에 대한 효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인턴 자격이 재학 중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졸업을 유예하는 것에 실익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졸업 유예는 사실상 대학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졸업을 한 것도 아닌 상태라는 것이다. 단지 취업 관련 응시자 자격이나 졸업 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었다. 현재 졸업유예는 비졸업생의 신분으로 각종 취업자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시즌을 유예했어요. 상하반기 그리고 이번 상반기까지 세 학기를 준비했어요 ***(I.10,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문과이고 어쩌다 보니 이 전공으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이번 학기로 끝났어요. 내년 2월에 졸업을 할 예정이에요 ***(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사실 이번에 저랑 같이 공채했던 친구는 갔는데 그 애는 취업이 계속 안 되어서, 이미 백수인데 수업 남겨놓고 계속 유예를 했어요 ***(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전문대에서도 비슷하게 전공심화를 통해 원래 다녀야 할 2년보다 더 오래 학교

를 다니는 경우가 있다. 전문학사 이후 학사학위를 지원하는 대상들로 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전공심화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졸업 유예와 같이 취업과 편입 등이 원활치 않아 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졸업유예생들에게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제 선배들이랑 가까이 지내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금 더 배워서 학사, 내가 이제 전문 학사를 따러 왔지만,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학사까지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내가 취업을 할 때 4년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성적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데로 정말로 약간 좀 졸업하기가 두려워서 취업을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돼서 학점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어서 조금 무서워서 이게 졸업 유예처럼 3학년 4학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편입을 준비했다가 안 돼서 3학년 4학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I.16, 남성, 수도권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5) 노동시장 진입 기대 및 예측 (대학 졸업예정자)

광탈의 충격을 이겨내고 계속 지원하기

대학졸업자를 위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서류를 100곳 이상 써봤다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27] 우리가 면담한 참여자 중에서도 130곳 이상 취업서류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이 면담자는 최근 취업이 확정이 되어 과거 서류가 계속 탈락하던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 *저는 첫 시즌이 너무 잘 풀렸어요. 최종까지 된 게 많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되겠지 했는데 그 다음이 안 되니까 마음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어요. (중략) 서류만 하면 세 시즌을 다 통틀어서 130번 정도 한 것 같아요**(I.10,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130번을 제출하는 동안 백번 넘게 서류와 최종면접의 탈락 소식을 들어야했던 참여자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다른 사례에서도 탈락 소식에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27) 광탈은 광속 탈락을 의미하는 은어로 취업시장에서 서류단계에서 바로 탈락하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아마도 이 상황은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 정신건강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탈락자를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였다. 이 상황을 이겨내면 다음이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노동시장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고향을 벗어나 대도시로 지원하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향후 직장을 얻고 싶은 지역을 물어보자 모두 서울 등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라고 이야기했다. 한 참여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그 전에는 서울에서 기술과 장사를 배운 후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대도시 선호뿐만 아니라 처우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에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보던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사람이 많으면 갈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살기가, 사람이 많으면 뭐를 하던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발전이 되거나. 사람이 없으면 만약 피시방 같은 것을 거기 지방 소도시에 제가 차린다고 하면은 사람이 없으면 저도 닫아야 하고 그렇잖아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I.15, 남성, 지방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1세)***

> *제일 큰 건 페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 지방보다는 서울권 병원이 시설도 더 좋고 갖추고 있는 시스템도 당연히 뛰어나니까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젊은 졸업예정자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대도시를 선호하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대도시로 몰려들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막다른 골목에서 취업 대안 찾기: 대학원 혹은 공무원

면접에 참여한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스펙을 쌓고자 하였다. 취업에 대한 불안

함으로 다양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제가 만약 이쪽을 가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쪽 가려는 자격증만 있으면 다른 데 옮기면 회사에서 막 수사 인명 구조 자격증 이런 걸 이렇게 크게 보지는 않잖아요. 이런 게 있었던. 여기가 싫고 이직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스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I.15, 남성, 지방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1세)***

원하는 기업들에 실패할 경우 공기업과 공무원 준비로 방향을 돌리는 상황에 대해 한 참여자는 이를 '도피처'라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 시즌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제일 많이 썼었는데 최종을 하나도 못 갔었어요. 이제 나는 대기업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뜻도 없지만 공기업은 좀 쉬워 보였나 봐요. 의미 없이 놀다가 한국사 시험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걸 1급까지 따 놓고 보니까 공기업은 계속 준비해 놨던 애들이 서류로 컷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가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대기업도 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될 자신도 없고 그냥 공무원 시험을 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약간 다들 이쯤에 몇 개를 넣어봤는데 서류가 다 떨어져 버리거나 잘 안되면 약간 도피처로 다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I.10,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공무원 준비는 비단 다른 곳에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다. 취업시장에서 적절한 나이가 지난 경우에도 갈 곳은 공기업과 공무원 시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사기업에서는 많은 나이를 꺼려하므로 연령에 제한이 없는 공공부문밖에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퇴로로서의 공무원 시험준비는 패자부활전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공무원 준비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지만, 막상 공무원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준비한다. 한 참여자는 공무원 시험에 붙지 못할 경우의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대안이 필요하다.

*졸업하면 시험이 6월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데 그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시험이 1년 후에 있으니까 떨어지면 도서관 사서 계약직에 들어갈 생각인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공무원만 보면 하기보다는 다른 스펙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I.13, 여성,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3세).***

대학원도 다른 대안 중 하나였다. 한 참여자는 여러 준비 끝에도 할 것이 없으면 대학원에 가라는 선배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참여자는 이에 대해 '도피석사'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말 다 쓸모가 없고 정말 할 게 없으면 대학원에 가라고**(I.10,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20세).***

하지만 연구자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을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 진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다음의 대학원 사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 *대학원에 파고들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후에 진로를 찾는 것도 그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추세는 선배들이 굳이 대학원에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5, 6년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수를 할 게 아니라면 굳이 대학원에 가는 게 메리트가 없고 차라리 **시험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험을 준비하든지 1, 2학년 때부터 그런 걸 준비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I.10,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20세).***

3) 출발선 위에 다시 서 있는 대학원 졸업예정자



* 주) Nvivo의 도식화 기능을 활용하여 대학원 졸업예정자들과의 면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1,000단어를 선정하여,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정리. 단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표기됨.

그림 Ⅴ-5. 대학원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주요 단어 도식(word cloud)

(1) 진로의 선택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들의 진학 동기는 다양했다. 우리가 만난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동기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연구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여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사례, 둘째는 희망하는 분야의 학력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 등이었다.[28]

28) 연구의 초점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의 학교 졸업예정자이므로 연구자가 되기 위하여 박사를 진학하려고 하는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다.

희망 전공분야에서의 연구역량의 강화

학부 졸업 후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두 참여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전공분야가 뚜렷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에 진학한 한 참여자(I.17)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당 분야 전공을 위해 수학, 영어학원이 아닌 컴퓨터 학원을 다녔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도권 소도시에 살던 본인의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웠다. 내신만 관리하고 수능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표현으로 "운이 좋게" 수시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고, 전공분야로 취업을 위해 석사에 진학했다. 그는 현재 전공분야와 대학원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데 공부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6학기 때부터 남은 세 학기 정도밖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복학을 했을 때 제 수업을 재미있게 하신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 분한테 지도 교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느냐 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그 밑에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게 됐어요**(I.17,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7세).*

고등학교 때부터 학업에 두각을 나타냈던 다른 참여자(I.18)는 과학분야를 전공하고 싶었으나, 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사범대에 진학하여 과학교육을 전공하였다. 그는 교직에 뜻이 없어 과학분야 연구에만 집중을 하였고, 여러 고민 끝에 같은 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 *고민이 좀 많았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까?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할까? 이걸 2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3학년 1학기로 복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교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과학 쪽으로 사기업이나 공기업 쪽에 취업을 할 것이냐 대학원을 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전역하고 **화학에서 TF 3개월에서 알바를 봅더라고요. 제가 ** 연구 단지에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학 공장이 내려와 있었는데 아는 분과 연이 닿아서 TF팀 연구 보조를 3개월 했었어요**(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대학원 진학 결정은 한 사기업 연구소의 경험이 결정적이었다. 연구소 현직자들

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여러 조언들을 받았고, 자신이 희망하던 분야로 진출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는 대학원 연구실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기는 하였지만 대학원 진학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편이었다.

*같이 회식도 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급한 게 없으면 대학원을 가서 연구소로 취업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R&D로 취업하고 싶은데 공기업 쪽은 R&D로 지원하려면 지금은 학사로 뽑는 데 제가 고민할 때만 해도 학사는 R&D를 잘 안 뽑았어요. R&D로 지원하려면 석사 학위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대학원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교수님과 관계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선배들도 몇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취업자격을 맞추기 위한 학위 취득

전공에 대한 관심보다는 취업의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반대학원에 진학한 한 참여자(I.19)는 큐레이터를 희망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지만 여전히 진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특수대학원에 진학한 다른 참여자(I.20)는 사회진출 이후 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 기회에 도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30대 이후에도 계약직으로만 지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대학원에 진학하였다.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가 대학원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가게 된 것도 큐레이터라는 분야가 작은 미술관은 잘 모르겠지만 큰 미술관은 거의 지원 자격이 거의 그래요 석사 이상. 관련 학과 석사 이상이어야 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면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I.19,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방송국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 그런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다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니는 상황이 반복이 됐었지요. 학부 때도 전공 자체가 신문 방송이라 학교가 저는 인서울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채라든지 입사 시험 볼 때 장벽이 있어서 대학원에 가서 좀더 쌓아보자 생각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I.20,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34세).***

(2) 학교 교육과정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희망하는 전공분야에 진학한 참여자들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아보였다. 지도교수와의 관계, 연구실 생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같은 학교 내에서도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다른 면담자들의 대학원 생활은 불만족스럽거나 큰 기대가 없어보였다. 두 참여자 모두 대학원 강의의 질이 학부수준과 다름없다고 평가했고, 전공분야 지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특수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는 대학원 진학의 목적이 애초에 전공에 대한 역량강화에 있다기보다는 학위취득과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수대학원이다 보니까 학문의 깊이는 확실히 크게 학부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도 있고 차장님도 있고 연예계에서 이사님도 오는데 인맥 쌓는 것 같아요. 대학원에 와서 진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저도 대학원에 간다는 게 기존 학부의 스펙을 학력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 최종학력으로 가자는 게 목표였는데 다른 분들도 자기 학위를 석사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지요**(I.20,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34세).***

*대학교 같아요. 그냥 일반 대학, 저희는 랩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수강신청해서 듣고 동기들이 있으면 같이 있고 그런 거예요**(I.19,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3) 직업훈련과정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대학원에서의 직업훈련과정은 지도교수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중 대학원 이후 전공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참여자(I.17, I.18)들은 자신들의 연구실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학생도 아닌, 노동자도 아닌

기초과학분야 연구실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참여자(I.17)는 연구실 생활의 고

충에 대해 이야기했다. 같은 학부와 대학원 생활을 모두 경험한 이 참여자는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변했다고 이야기했다. 학부 때의 친절한 지도교수가 대학원에 들어서자 바로 상관 같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실 생활의 기본적 규율이 있어 이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 *사실 다른 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원생이면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수업도 성실히 들어야 하는데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연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수업이 있으면 들을 수는 있는 데 수업 관련 과제를 하거나 공부는 못하게 하셨어요. 연구를 하게 하셨고 저희가 법적으로 노동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말 출근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교수님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바쁘다 하면 아침 7시에 출근을 요구하기도 하셨어요**(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조직 생활에서의 기본적 규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교수 아래에서 연구실 생활을 하며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 없이 대학원 생활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연구실 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 *저희는 다행히 분위기가 연구를 많이 하면 결국 다 내 성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하면서 같이 으샤으샤하는 분위기이기는 했는데, 의무는 있었지요. 교수님이 주말에 문자하고 새벽에 문자하고 그런 걸 어디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학부생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반면 정보통신분야 연구실의 유일한 연구원인 참여자(I.18)는 연구실 생활을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였다. 전공분야의 특성상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자유롭고 많은 혜택을 받으므로 연구실 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각광받는 분야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며 자신의 역량이 개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할 정도로 보조받는 자신이 혜택 받은 대학원생이라 하였다.

> *출퇴근 개념은 저도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있어야 돼요. 수업 듣는 시간 빼고. 그게 교수님이 강제하신 건 아니고 저 혼자이다 보니까 나태해 질까 봐 교수님과 서약을 했는데, 보통 랩 장이라고 해서 연구실 장이 있고 보통 박사나 전임 연구원분들이 하시고 아니면 석사 중에서 나이 많은 분이 하고 랩장들이 연구원들 관리를 해요. 출퇴근 관리부터 휴가도. 그런데 그건 랩마다 다 달라서 어떤 데는 아예 제가 원래 있던 지금 교수님 말고 이전 지도 교수님 랩에 있을 때는 재택 근무하는 애들도 있었어요**(I.17,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7세).***

(4) 취업 준비과정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면담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취업준비를 한 경우는 한 사례(I.18) 밖에 없었다. 박사진학이 아닌 민간기업 연구소 취업을 준비했던 그는 바쁜 연구실 생활에 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졸업 이후 다음 공채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때까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고민 중이었다.

> *사실은 제가 이번 학기가 막 학기였고, 그리고 취업 준비도 관련해서 병행해야 하는데 취준 하기는 어려웠어요. 디펜스 하기 전날까지도 저는 프로젝트 관련 실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면접을 상반기 취업하는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데 면접이 11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실험하고 갈 수 있나? 그럴 정도였으니까.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준을 같이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상반기 취준에 실패하고 보니까 그런 게 아쉬웠고...**(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5) 노동시장 진입 기대 및 예측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STEM 분야에서의 취업시장

STE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그리고 수학(mathematics) 분야를 의미하는 약어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높은 수요가 있는

중요한 전공분야를 의미한다. 우리가 만난 사례 중 전공분야에 맞게 진학한 참여자들(I.17, I.18)은 STEM 영역을 전공하고 있었다. 이 분야 대학원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전공으로 인해 큰 문제가 없어보였다. 하지만 이공계의 모든 분야의 취업시장이 맑은 것은 아니었다.

> *취업으로 치면 가장 티오가 많은 분야의 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주변에서 눈이 높거나 아예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취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전기 화학 쪽 사람들은 대체로 거기도 공학이지만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중공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제약 회사 식품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생명공학과 사람들은 취업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사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는 일을 못하고...**(I.17,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7세).***

취업역량이 아닌 학위의 효과

면접을 앞두고 취업을 한 특수대학원 졸업예정자인 참여자(I.20)는 대학원 석사 학위가 취업에 도움이 되고 수당이 발생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학문을 위한 진학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으며, 실제 대학원의 공부가 그의 경력개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에 취업한 곳은 이전에 취업했었던 방송국과 대학에서와 같은 계약직 일자리는 아니었지만, 정규직은 아닌 조금 더 안정된 형태의 계약직이었다.

> *지금 여기 일하는 곳도 석사 과정을 어느 정도 쳐주는 게 있어요. 석사 학위가 있으면 월급에서 추가적인 수당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 학문을 공부해 보고 이걸 가지고 뭘 해 보자는 의도로 대학원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I.20,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34세).***

취업을 생각하면 막막함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 이외에 특별한 훈련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희망 직종에 취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참여자(I.19)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남들이 다 아는 미술관에 취직할 수도 있는 데 약간 저는 큐레이터를 생각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제가 큐레이터를 안 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미술관의 큐레이터를 하기에는 너무 주는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은 학벌과 그런 걸 요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돈은 그렇게 안 주면서 원하는 건 많고 그래서 약간 안 가려고 하는 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문화 재단에 들어가고 싶은 데 그런 곳은 티오가 없어요. (중략) 모르겠어요. 어떻게 취직해야 될지 막막해요**(I.19,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학교에서 수업조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참여자는 특별한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답답한 생각에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점차 나이가 많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속상해했다. 자신이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함께 일했던 20대 후반 언니들을 보며 했었던 생각들을 다른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을 보며 할 거라 생각하니 이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해진다고 했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 챙겨주거든요. 안 챙겨주는 게 없어요. 제가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1년 1, 2개월 정도 일을 했고 3월까지 하고 그만 뒀거든요. 그런데 퇴직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연차 수당이 있었나 봐요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없으니까 수당으로 쌓여서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치원 선생님 하는 친구도 제가 ****에서 1년 안 되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그만두고 ****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걸 원치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를, 40세가 되어서 아르바이트는 할 수는 없잖아요**(I.19,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4) 출발선 위에 선 청년들의 경험에서의 공통적인 특징

지금까지 고등학생에서부터 대학원생까지의 진로선택, 학습, 훈련, 취업준비, 취업예상까지의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의 분석틀은 핵심정책대상과 경로를 중심으로 기술을 했으므로, 여기서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출발선의 불평등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의해 진로 선택과 준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체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스트레스의 차원을 넘어선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증 응시를 하지 못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사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와 연구가 늦어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사례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자격증 저희가 필기나 실기나 돈이 비싸서 일부러 안치는 친구도 몇 명 있어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만 팔천 원 정도인데 떨어지면 계속 줘야 해서 어떤 친구는 12번 가까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I.06,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아무래도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생활비가. 저는 아직도 부모님에게 받고 있거든요. 월세나 보증금이나 용돈. 알바를 안 하면 부모님께서 주시는데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면 교재도 한두 권이 아니고 기업별로 다 풀어봐야 하고 두껍고 비싸다 보니까. 토익이나 오픽, 토스 이런 걸 하려면 그것도 교재 값이랑 학원비가 많이 나가고 그런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학원은 모르겠는데 인강(인터넷 강의)이 있어요. 저도 한창 급했을 때, 이번 1학기 공채를 한 번 넣어봤었거든요. 서류 되고 처음으로 인적성을 해 봤는데 그냥 경험삼아 봤지만 한 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인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비쌌었어요****(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저희 후배 중 약대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 데 연구비를 30만 원 정도 받는대요. 약대는 등록금도 비싸고 30만원으로는 생활도 어려우니까 그 애들은 주말에는 무조건 약국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까지 들어본 친구는 없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꽤 많아요 ***(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저는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데 시험 비용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어서. 요즘에는 토익도 아니고 토스를 해야 지원을 해 주는데 토스가 8만원이에요. 토스 8만원 토익도 만만치 않고 오픽도 마찬가지이고 비용이 비싸니까 저는 그때 알바를 하면서 시험 비용을 마련하는 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크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돈을 또 써야 된다는 압박감, 토스는 학원에 다녀야하니까 학원비가 너무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외향적인 편이라서 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데 학원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하나 못하는 게 너무 서러

*운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속상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데 괜히 다 끊어버렸거든요**(F.08,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유예 중, 27세).***

반면 한편에서는 본인의 부족한 역량을 시장의 서비스를 통해 보충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위해 학원에 등록하여 자격증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서의 컨설팅(수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면접), 인·적성 검사 강의 등을 듣는 것이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에 의하여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출발선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구에서 출발선의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연구가 청년 NEET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열의가 있는 청년들이 좌절하고 단념하여 청년니트가 되지 않도록 진로준비를 위한 사회적 최저선(혹은 적정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평등으로 인한 격차에서 하위분위에 있는 청년들이 최저선(혹은 적정선) 만큼의 진로교육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인적 네트워크가 진로 선택과 준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네트워크, 신뢰, 상호혜성이 결합된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와 호혜적 관계를 통하여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 연구가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 개념이나 작동방식에 대해 탐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트워크가 주는 진로선택과 취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연구 초기에 인터넷이 주는 취업 정보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와 포털의 취업준비 카페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참여자들을 발견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의 중반으로 갈수록 단순 취업정보와 현직자나 선배 등으로부터 오는 정보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로부터의 진로상담은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영향에 관한 내용은 모든 범주의 연구참여자(고등학교 직업계·반계, 전문대·4년제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로부터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수도권의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 참여자(I.09)는 대학 진학 당시 선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매우 중요했다고 언급을 하였다. 비공식적인 정보와 상담은 대학진학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참여자는 부모가 소개해 주는 전공분야의 현직자와의 교류가 전공선택과 진로설계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지방의 전문대에 다니고 있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I.14)의 취업준비 관련 면담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대학 진학 당시) 저는 선배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실질적인 입시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기 보다는 그건 다 내신 경쟁하는 용으로 쓰는 거니까 굉장히 외우고 지우는 지식들이어서 학교 정규 수업은. 그게 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학교들도 선배들과 매칭해 주는 시스템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원하는 학교에 간 선배들이 많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꼽았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I.09, 여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재학생, 20세).***

> *오히려 듣는 정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인터넷만 보기에는 솔직히 과거의 급여가 어땠는지 작년에 어느 정도의 성적까지. 어느 정도의 스펙까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교수님들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몇 점대가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다. 이런 걸 알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나도 저기는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저기는 써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보가 아예 없으면 네임밸류만 보고 저기는 내 성적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이 뿐만 아니라 은행을 준비하고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I.12),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대 졸업예정자(I.16)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학교 선배, 조교, 교수 등 다양했다. 졸업예정자들은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가 가져다주는 정보와 조언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고, 개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준비를 더 일찍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자본이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야를 갖게 하는 것이다.

*면접이 완전 생소했거든요.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자소서를 쓸 때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선배님께서 면접 때 받았던 질문 목록이 은행 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보내주시고 예를 들어 **은행이라고 하면 그 은행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이 회사의 추구 방향, 비전 이런 걸 다 정리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학교 선배들,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활동을 크게 하는 게 아니어서 선배들이랑은 잘은 모르는데 복학했던 선배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들어갔을 때부터 1학년 때 스무 살 때부터 조교님들이랑 또 교수님들이랑 굉장히 잘 지냈어요. 교수님은 학교 선배님은 아니지만, 조교님은 학교 선배님이시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 학생과도 제가 굉장히 잘 지냈거든요. 친구처럼.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학교를 나와서 취업하는 것이 이러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별로고 여기는 좀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어떤 선배는 뭐 준비해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어떤 교수님이 괜찮다. 어떤 교수님 수업이 좋다 그런 도움은 받았죠**(I.16, 남성, 수도권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물론 사회적 자본의 형태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입시제도에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악용될 경우, 출발선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수시제도의 스펙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악용되는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저희 같이 공부하던 고등학교 친구 중 의대 교수인 아버지가 있어서 의대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대학의 의대를. 그 애는 정시도 괜찮았는데 수시로도 뽑으니까 저희는 이과가 수시 내신이 좋지 않았어요. 다 같이 망해서. 그 애가 방학 때 아버지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논문도 나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영향이) 엄청 크지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냥 아버지가 건축학과 교수인데 그 애는 건축학과를 희망했었던 건 아닌 데 고등학교 논문 쓰는 게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크게 두각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입상을 한 거예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아빠가 교수님인데 해 준 것 같다는 얘기는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데**(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여기서의 함의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은 진로선택, 전공학습, 직업훈련, 취업준비, 노동시장 진입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이 진로, 교육, 훈련 체계 안에서 열심히 인적자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상호 호혜성이 중요하다. 개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청년들은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공동체의 기능을 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악용될 경우 출발선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입시와 취업을 진행하고, 폐쇄된 네트워크 내에서의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좋은 관계를 통한 부정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사회적 지지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자본이 주로 정보제공과 진로상담의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진로선택, 전공학습, 직업훈련, 취업준비, 노동시장 진입 경험하는 방황과 좌절 등의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개인의 심리적 충격을 완충하는 작용을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험난한 취업과정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다시 힘을 내도록 가까운 사람들이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불안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의 지지가 학생들이 힘을 내서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반계고에 진학한 한 참여자(I.04)는 성적이 오르지 않자 위탁교육을 선택하였다. 일반계고에서 위탁교육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교사의 냉대나 무관심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 참여자는 교사로부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응원을 듣고 직업교육을 더 열심히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A라는 담임 선생님은 이걸 3학년 때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힘들 것 같다 이러면서 직업반을 추천하시고 B 선생님은 무조건 올리라고, 비전이 있으니 무조건 가라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B 쪽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른 거니까. 그래도 선생님께서 마지막에는 따로 진로에 대한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선택한 길에 있어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응원한다고 해주셨어요 ***(I.04,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연구참여자 중 가장 향후 진로에 대해 자신감에 차서 이야기한 대학원 졸업예정자(I.17)은 고등학교 때 수도권 소도시에서 서울로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컴퓨터 학원을 다니러 통학을 했다. 영어, 수학 학원이 아닌 컴퓨터 학원을 다녔던 참여자에게 학교 교사는 그리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맞벌이로 대기업 반도체 공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부모는 아들의 꿈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이 참여자는 이때의 선택 덕분에 본인이 전공을 살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없었다면 이 선택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저희 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해야 되나?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진 생각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해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서포트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I.17,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7세).***

부모가 진로나 진학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더라도 존재만으로 힘을 얻을 수도 있다. 특성화고 진학 후 바로 취업을 선택했으나 실습지의 직원의 조언으로 전문대에서 자동차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참여자(I.16)은 자신의 삶에서 부모와 형제간의 관계에서 무척 많은 힘을 얻는다고 했다. 그는 현재 취업준비에서 어머니가 주는 도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부모의) 정보 제공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군무원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거든요.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고 그러면은 조금 위로 많이 해주시고 그냥 진짜 딱 엄마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정신적 치료? ***(I.16, 남성, 수도권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반대로 사회적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버거워 보이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좋은 특성화고 진학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참여자(I.05)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자소서 쓸 때 맨 처음에 혼자 써 보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네이버를 찾아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도움을 엄청 받는 것 같고 지금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가족의 경우는 별로 지원이 없어요.**(I.05, 여성,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19).***

부모에게 진로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참여자에게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 참여자는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속상해했다. 이 참여자는 단지 부모님이 이야기 들어 주시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바랐다. 이 참여자는 유일하게 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사회적 변화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이야기했다.

(연구자: 부모님이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까요?)

*얘기 들어주시는 것 **(I.05, 여성,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19).***

부모의 지지와 관심은 비단 10대에게만 중요한 것 아니다. 진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참여자(I.19)는 부모가 그동안 진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모를 탓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혼란에 대해 보듬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일 것이다.

*엄마가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너 하고 싶은 것 해라. 반대는 안 했지만 지지도 안 해 줬어요. 방목 형이었던 것 같아요. 잘해도 칭찬도 잘 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략) 그 당시에는 공부를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하라고 했으면 차라리 대학원에 안 가고 취직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대학원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합격했다고 했는데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취직하기를 바랐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축하해! 이런 건 아니고 차라리 다니지 마! 그랬다면 제가 못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제가 취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미지근한 반응? 그런 게 약간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뭔가 딱딱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I.19,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사회적 지지의 함의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은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상태”인 진로문제에서 자신의 혼란스러움과 방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청년들이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4) 심리적·사회적 고립과 약해지는 사회적 결속

대학생활에서 취업준비 시기가 되면 관계가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의 실패 시기가 길어질 경우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취업시장에서 연이은 고배를 마셔본 경험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참여자(I.10)는 취업을 위해 130번 이상 원서를 써봤다고 했다. 그 참여자는 지속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 *저는 첫 시즌이 너무 잘 풀렸어요. 최종까지 된 게 많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되겠지 했는데 그 다음이 안 되니까 마음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어요**(I.10,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소위 “잠수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당사자도 괴롭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섣불리 상처가 될까 연락을 꺼려하게 된다고 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은 점차 자의반, 타의반 고립되는 것이다.

> *저희 이번에 아는 분이 병원이 처음 썼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잠수를 탔거든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연락을 해도 안 받고 핸드폰을 꺼 놓고 특강이 있는데 오지도 않고 솔직히 친구들은 정말 답답한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떨어진 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잖아요**(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대학원 졸업예정자 중 한명(I.19)은 이미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위축감을 느끼고

있고, 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격지심을 느껴 연락을 끊을 것 같다고 하였다. 취업준비 시기의 스트레스를 완충해줄 사회적 지지체계가 사라지고 심리적,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것이다.

*원래 저는 친구가 엄청 많고 그런 게 아니어서 만나는 친구들은 항상 만나기는 하지만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위축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더 저한테 채찍질을 하는, 빨리 취직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껴요 친구들을 보면서**(I.19,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20대와 30대에 지속적으로 계약직 일자리에 머물렀던 한 참여자(I.20)는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의지까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혼을 하지 않고자 하는 비혼주의를 가진 이 참여자는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이러한 생각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 고용의 상황 때문에 비혼주의가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데 그게 진짜 그런 것 같나요?) 그게 7, 80% 차지하지요. 친구들의 입장은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고 저 빼고는 다 연애할 거든요 친구들은 벌써 2, 3년 전부터 결혼한 친구들이 많고 앞으로 해야 하는데 결혼 시기를 정하는 거지요. 아직 갖춰놓지 않았으니까 갖춰놓고 하자는 게 남자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I.20, 수도권 소재 대학원 졸업예정자, 34세)***

청년 취업시장의 높은 벽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학교 졸업예정자들과 졸업자들의 심리·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결속의 약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청년들의 심리사회적 고립은 청년 니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완화는 심리상담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방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

(5) 나이라는 제약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면접 참여자들(I.19, I.20)은 나이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나이를 먹고” 취업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참여자들

에게 각각 나이에 대한 부담을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이에 대한) 부담이 있지요. 30세 되는 순간부터 부담이 생겼고. (중략) 저 개인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 신입으로 일할 수는 있는 데 사회에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은 만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지만 서류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확실히 27, 28세에 지원했을 때 서류 합격 통보율과 30세 넘어서 확실히 줄었어요 합격 통보가. 모든 웬만한 기업들은 젊은 나이를 선호하지요**(I.20, 수도권 소재 대학원 졸업예정자, 34세).***

*부담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저는 계약직으로 1년 하고 다른 계약직 1년 하면 30대잖아요. 그러면 정착을 해야 하는 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28세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데 내가 생각하는 28세와 면접관들이 보는 28세는 다르잖아요. 주변에 24, 25, 26세인데 다 비슷한 스펙이라면 나이 어린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이가 차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나이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이 엄청 심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27세 때는 아직 괜찮아! 그랬는데 7월이 되니까 조급함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I.19,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특정 분야에서는 나이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확고한 것으로 보였다. 20대 초반의 간호학 전공 참여자는 연령과 취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이 참여자는 간호사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령이 있으며, 이 연령을 벗어날수록 좋은 병원에 취업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여성들이 취업시장에서 경험하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차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졸업하고 나자마자 들어가거나 1년 정도 있다 24세에서 26세. 신규가 들어가는 게 제가 많게 본 건 29세에서 30세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위 연차가 불편해서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해 하고 병원 측에서 그런 나이대가 들어오면 솔직히 1, 2년 후에 결혼한다고 하고 나갈 수 있어서 안 좋아해요**(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참여자는 단순한 성차별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직장 내에서의 위계관계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령에서 오는 위계관계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물론 이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졸업예정자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가서 태워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솔직히 일만 잘하면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불편하니까**(I.14, 여성, 지방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연령차별이 시사하는 것은 교육, 훈련 이후 취업시장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취업의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애주기에서 여러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에서 벗어난 대상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역량은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청년 구직자들이 단념할 경우 니트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예방적 청년정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공공분야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연령차별을 금지하자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이 공공분야에 입사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예방적 청년정책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5)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바라는 사회적 변화 (청년들의 목소리)

우리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면접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재의 졸업예정자 청년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졸업예정자들은 요구는 다양했다. 우리는 이들의 요구를 개인차원, 가족차원, 교육차원(일반 교육제도 및 입시차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차원, 노동시장 및 채용절차 차원, 수당 및 복지서비스 차원, 사회문화 차원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바라는 사회적 변화의 주요 단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Ⅴ-6과 같다.



* 주) Nvivo의 도식화 기능을 활용하여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바라는 변과 관련 면담에서 나온 단어들을 시각화하였음. 단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표기됨.

그림 Ⅴ-6.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바라는 사회적 변화: 주요 단어(word cloud)

(1) 개인차원

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주어지는 취업준비 상황의 여러 스트레스는 개인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 우리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고립되는 개인을 위한 사회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개인이 먼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동기를 찾아주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뭔가 그 사람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면 솔직히 집에만 계속 있다고 하면 집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이걸 할 때

즐거워한다든가 그런 걸 먼저 찾아서 일단은 집 밖으로 꺼내면 그 다음부터는 바뀔 것 같아요 ***(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하고자 하는 건 일단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움직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 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지금 홍보팀인데 저희 쪽에서 학교에 가서 하는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달에도 몇 개 학교에 갔다 왔는데 고용 노동부에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줬는데 참석한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I.20,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34세).***

이러한 접근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와 심리사회 서비스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학년 되어서 처음으로 학교 상담소에 가 봤거든요. 부스 같이 생긴 건데 취업 준비에 부담이 오면서 엄청 우울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고 제 동기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좀 더, 그런데 이미지나 인식이... 학교에서도 구석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카톡 상담이라든지... ***(F.07,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물론 개인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자극을 막는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가족차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바라는 가족차원의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지지, 즉 정서적 지원과 관심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과 결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부모님의 지원. 경제적인 것 말고 정서적인 것. 관심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저를 신경 써 주시는 것 이런 것 ***(I.05, 여성,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19).***

(3) 교육제도 차원 (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 평가시스템)

일반 교육제도에서는 단지 대학을 위한 공부가 아닌 희망 전공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대학원에서 정보통신분야 전공을 하는 참여자(I.17)는 수시제도와 정시제도를 비교하면서 정시 제도는 공부에 대한 흥미 없이 수능공부만 해야하지만 수시제도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대학진학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제도라고 생각했다. 이 의견은 초점은 정시와 수시의 비교라기보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동안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정시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동기 부여가 아무래도 대학이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낙오생들이 생기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학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줄 세우기 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고 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니까. (중략)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게임이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충분히 자기가 생각을 하고 깊게 빠져들고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대학교에 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가 저는 그래도 수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시로는 그런 걸 못하잖아요**(I.17,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7세).***

(4) 학교 내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차원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은 이번 면접의 주요 주제였다. 참여자들은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냈다. 주요한 내용은 학교 내 직업훈련 기자재 지원, 취업 정보 지원, 진로상담, 진로변경 지원, 진로체험 지원, 직업교육의 다양화 등이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교 내 직업훈련 기자재 지원은 직업계고 내의 기자재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양질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필수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기자재 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가 1900년대에 다른 이름으로 됐다가 마이스터 고로 바뀌게 된 건데 몇 십 년이 지난 장비들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설 장비가 있으면 좋겠어요**(I.02, 남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두 번째는 진로 및 취업정보 조기 지원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취업정보 제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반계고 직업반 학생들은 진로의 선택 순간 정보의 부족을 절감하게 된다. 학교 내 혹은 학교 밖의 자원을 활용하여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어떤 걸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알게끔 해서 학교에 오게. 무조건 아무거나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와라 하는 것보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놔서 전학 가는 것도 그렇고 다니는 기간 동안에 불만을 덜 가질 수 있어요**(F.05,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애들을 위해서 (직업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향을 넓혀줬으면 좋겠어요**(I.03,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대학 졸업예정자들도 역시 취업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참여자들도 대학이 취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였지만, 대학 졸업 이전에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안내는 4학년 시기가 아닌 더 이른 시기부터 안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교육과정 이후의 진로(진학 혹은 취업)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취업은 정보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같은 역량이라고 해도 정보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합/불을 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인적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아 2학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취업 걱정을 덜 하지 않았을까 이거든요. 저학년 때부터 취업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제 주변에는 1, 2학년 때는

전혀 취업에 대해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3, 4학년이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학년 때부터 인적성이나 면접에 대한 정보나 무슨 지원이든… ***(I.12,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4세).***

*돈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연 같은 것. 면접이나 그런 쪽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3학년들 미리미리 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I.13, 여성,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3세).***

*사실 대학교에서 저는 너무 즐겁게 공부를 했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이걸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인적성을. 그런데 그런 걸 저학년 때 몰랐고 이걸 이제야 준비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할게 많은 거예요****(F.08,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7세).***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고안하고 있지만 심리적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너무 딱딱해서 해당 서비스의 홍보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용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청년센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그 특정 지역에 가서 그 센터에 가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골고루 퍼져 있고 부담이 덜되고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부담이 덜 되는데 정부가 하는 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F.06,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유예 중, 27세).***

*워크넷 이름을 변경하실 때 명칭도 바꾸지만 그것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로고도 다 바뀌잖아요. 바꾸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되도록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 이런 게 아니라 스크린에 취업 준비생들 여기 보세요. 해 놓고 밑에 뭘 도와드립니다. 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QR코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F.06,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유예 중, 27세).***

세 번째는 진로 상담으로, 진로에 대해 포기상태인 학생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역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들이 교육, 훈련, 취업 상태 중 하나에 속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쯤이 좋을 것 같아요.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고3 때도 의미 없는 1년을 보낼 바에는 여기로 와서 꿈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설득이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현혹되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으니까...(중략) 처음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로 상담 ***(I.04,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네 번째는 진로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진로변경의 사다리'라 칭할 수 있다. 이른 시기에 진로를 선택한 고등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진학을 목적으로 한 일반계고에서의 직업반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내에서의 전공과 변경 등도 해당이 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에서는 전공선택이 잘못되었지만 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무런 관심 없이 교육과정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 내에서의 진로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원해야 한다.

그런 것도 있고 1학년 때 포기했다가 2학년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못 따라가서 아예 포기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처음부터 배울 수 있으면 배울 거냐고 물었더니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I.01, 여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저희도 진학반이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이 안 맞는 친구들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막아 놓으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I.01, 여성,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9세)***

다른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주면 좋겠어요. 갔는데도 적성이 안 맞는 친구도 있거든요. 제 친구도 위탁에 있는 데 자기 적성과 안 맞는다고 다른 반에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서 다들 이래저래 힘들어 해요 ***(I.03,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

다섯 번째는 진로체험 기회 증진으로 일반계고에서 요리 전공으로 직업반을 선택한 참여자(I.06)가 고등학교 때 진로선택의 계기를 이야기해준 것이다. 이 참여자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 진로탐색을 위하여 팀을 꾸려서 현직자를 만나러 갔던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고 있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직접 학교에서 날짜만 정해주고 1박 2일 동안 숙소는 학교에서 다 같이하고 스스로 팀원끼리 교통수단과 직접 짜고 섭외를 직접 하고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고, 보고서를 써서 책으로 만들었었고. 갔다 와서 끝이 아니라 보고서 쓰고 발표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저는 제가 직접 섭외하는 과정도 좋았고 마지막에 보고서 써서 책으로 나가니까 기분 좋았고 저희가 간 것을 남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좋아서... **(I.06, 여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여섯 번째는 직업교육의 다양화다. 직업계고나 일반계고 직업반 학생들은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보통 인원수가 적어서 방과 후 과목을 들을 수 없거나 직업반의 전공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직업반을 선택하였지만 자신의 적성과 선호가 아닌 사회적 욕구에 따라 반이 개설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듣는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자체가 이공계열을 조금 더 우대하잖아요. 인원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이공계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경쟁률도 세고 사람도 많아서 비주류 학과들은 정말 인기가 없고 한 반도 안 나올 정도예요. 당연히 취업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인식 상 이공계로 관심이 몰리는 건 맞는데 정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주변 말만 듣고 와서 하면 남한테도 피해죠. 학급 분위기를 망치고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좀 더 상담을 많이 해 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I.04,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자동차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이 방과 후 학교가 열려야 하는데 방과후 학교가 몇 명 이상이 아니면 안 열리잖아요. 저는 자동차정비 기능사를 따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안 열려 주는 거예요. 너희 다섯 명이잖아. 열 명 안돼서 못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럽고 서운하고 나는 이걸 배우고 싶은데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교육제가 그렇다고 지금 다니는 학교를 두고 백만 원씩 들여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따러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약간 부모님한테 해달라는 것도 부담되고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런 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능사를 결국 학교에서 못 땄어요. 군대 가서 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이 있다면 제가 크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과후 학교 교육이 예산도 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애네가 적든 많든 열어주고 배울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학생 때 느꼈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I.16, 남성, 수도권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일곱 번째는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이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면담에서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발견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현장으로 내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목소리 중 상당수는 현장실습을 해야 취업과의 연계가 잘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장실습이 가져다주는 기능(취업연계)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제도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학생이 오면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만약 위반하면 정부에서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현장에는 나가게 하되 어쨌든 우리는 안전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니까**(F.02,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애들끼리 갈 수 있게. 최소한 2인 1조로**(F.05,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5) 노동시장 차원

노동시장 관련 요구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직장문화 개선(직장 내 괴롭힘), 고용형태(계약직), 일자리의 질,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장문화로서 직장 내 괴롭힘 문화 개선이다. 앞서 계속 언급되었던 간호사의 병원 내 괴롭힘 문제(태움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것이 사회문화가 아닌 노동시장 차원으로 분류된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명문화되었고, 국가와 기업은 이에 대하여 예방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태움) 때문에 이직이 많은 것 같아요 신규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버틸 수 있잖아요 일 못하는 걸 뭐라고 하면 혼나는 건 못해도 혼나는 건 맞는데 들어온 지 한 달 밖에 안됐다면 그 환경에 적응도 안 됐을 것이고 업무도 당연히 학생 때 하는 일과 완전히 다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데 다 터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알려줬는데 못 하냐 부터 시

*작해서 그러면 그것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이직도 하고...**(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두 번째로 계약직 고용형태의 개선이다. 졸업예정자들은 일단 계약직에서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계약직 근무는 취업의 적정연령을 지나게 해 취업의 문을 더 좁히게 한다. 이는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공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채용 사이트를 보면 정규직들 채용 공고도 많은 데 계약직 근무자들 채용 공고도 굉장히 많아요. 선택은 지원자가 하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계약직을 쓰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사기업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곳은 부장급들이나 능력 없는 데 연봉만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근무 평가하고 다 자르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계약직 사원으로 채워 넣는대요. 그러면 엄청난 인건비 절감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되는 데 그건 각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 줘도 규제 정책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I.20,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34세).

세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누구도 이루어내기 어려운 과제이다. 다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근시안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I.19)는 이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다.

참여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정부 입장에서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뭘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없어요. 어느 정도 해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원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해 준다고 우리가 취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자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참여자 일자리 창출,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I.19, 여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네 번째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직업계고나 전문대에서는 이른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장려하지만, 정작 갈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은 “아르바이트 하는 것만도 못한” 조건인 경우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럴 경우 노동시장 진입을 망설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제공된다면 직업교육을 열심히 받을 동기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졸업생 선배가 2시간 거리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셨는데 야근을 새벽 4시까지 했는데 야근 수당을 못 받았대요. 디자인직이다 보니까 야근 수당을 못 받아서.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느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집이 두 시간 걸리는데 9시까지 오라고 했대요. 집에 갔다가 바로 갔대요(F.05,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힘든 것도 있고 디자인 특성 상 거의 다 야근이 있고 월급도 적은 편이에요. 교수님들도 월급이 130에서 150 받으면 잘 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프로그램도 할 줄 알고 이런 기술도 할 줄 아는데 이건 무슨 알바 하는 것만도 못 버니까 이쪽으로 취업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I.11, 여성, 수도권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6) 수당 및 복지서비스 차원

수당 및 복지서비스 차원은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과 서비스 지원 등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금전지원, 지원 자격지원 완화(졸업유예생 지원), 교육과 취업 사이의 공백기를 지원하는 정책 등이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전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가장 바라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응시료 지원과 면접비 지원과 같이 소득이 발생하기 전의 여러 취업응시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 해 보면 금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결과들이 많아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설문지로, 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바라는 점을 적으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를 입력하다 보면 금전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략) 시험 응시료 같은 거나 아니면 설명회 같은 게 서울 쪽 위주로 열리니까 그런 곳에 갔다 오면 교통비를 주면 좋겠다 그런 게 적혀 있었어요. 기업 설명회나 박람회도 다 서울 위

*주라서 지방에 있으면 좀 힘들다고(**I.13, 여성,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3세**).*

*제가 면접을 가게 되면 아침에 배고프잖아요. 7시까지 수원, 6시까지 어디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그 전날 거기에 가서 하루 자거든요. 그런 숙박비를 줄 수 있다면. 그런데 오후 면접인 친구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가서 하려고 해요. 대중교통 타고 가면 양복 구겨지고 늦게 일어날까 걱정되니까 제 주변은 다 전날 가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양복 공기 같은 걸로 드라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 걸 하고 와이셔츠 천 원해서 넣어놓고 그런데 제가 간 곳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 건 영수증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I.18, 남성, 수도권 소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28세**).*

두 번째로 청년지원 정책의 자격기준 완화를 살펴보면, 취업준비 시기에 있는 졸업유예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가 청년 니트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정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 유예를 하는 사람들이 걸어놨다 뿐이지만 학교에 안 가고 준비하는 건 똑같거든요. 물론 졸업한 사람들이 훨씬 더 급하고 그것도 기간에 따라서 자르잖아요. 기신 분이 더 급한 건 알지만 유예 중인 학생들도 학생인 신분에서 토익 시험 준비라든지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I.10, 여성,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6세**).*

세 번째로 교육과 취업 사이의 공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 이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대상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사례의 청년보장과 같이 졸업 이후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 보다는 대개 쉬더라고요. 그 동안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취업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사회로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해야 하나?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다가오니까 부담이 되고 안 된다기보다는 제가 가기가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서 공백 기간 동안 뭔가를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제가 들었을 때 아는 언니는 졸업을 하고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별로 아는 사람이 없고 그것 자체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디자인 계열은 배울 것도 많은데 그런 쪽 지원을 확실하게 알려주거나 지원을 늘린다거나 그러면 공백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4학년

을 하는 이유도 제가 아직 사회에 나가기는 무섭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4학년이 되게 널널해요 ***(I.11, 여성, 수도권 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7) 사회문화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은 주로 사회적 차별 철폐 및 인식개선 등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력차별, 연령차별, 외모차별, 성차별, 직업차별 등에 대해 경험을 하거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차별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졸업예정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먼저 학력차별은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야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적을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졸로서 사회에 진출하여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차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계열과 상관없이 때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문계열이든 이공계열이든 취업 전선이 싹 열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좋은 대학의 좋은 학과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과 특성상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과나 적성에 맞춰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I.04, 남성,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 19세).***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면 대학 과정을 안 나왔고, 그러면 거기서 일단 수익이 떨어지고 뭔가 네가 이렇게 하면 직업이 제한되고 갈 수 있는 직업이 적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안 좋은 것이나 걸러져서 남으면 직업교육 하는 애들은 고졸로 직업교육 하는 애들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결국 남은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고르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대학교를 직업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고. 다른 데를 취업을 하고 나서 그 돈을 가져다가 야간 대학을 간다든지 뭐 하던지 그러려고 하는 거겠죠 ***(I.08, 남성, 일반계고 졸업반 졸업예정자, 19세).***

다음으로 연령차별과 외모차별이 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차별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가로 막고 특정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일부 직종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 *대부분 서류에서 붙을 때는 나이를 보고 학벌을 보고 면접에서는 외모를 보잖아요**(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외모에 대한 차별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차별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차별을 뛰어 넘기 위하여' 외모를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일부 학생들은 미리 성형을 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새벽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와 화장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 *제가 면접을 보면 간호사 면접도 스튜어디스 머리 하는 것처럼 가거든요 앞머리 다 없애고 그렇게 하면 머리를 까야 되잖아요. 이마가 안 예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마에 필러를 넣거나 보톡스를 맞는 아이들도 있고. 면접 보기 전에 예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 *면접 항목 외우기도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머리 하고 자기가 못 만질 것 같은 애들은 9시 반 면접일 때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샵 예약해서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요**(I.14, 여성, 지방소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23세)**.*

세 번째는 성차별의 개선이다. 한 참여자(I.07)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성별이 분리된 역할을 맡고 있는 점, 이것이 여성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이 참여자는 이로 인해 여성들이 취업시장에서 분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했다.

> *아직도 남자 여자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취업처를 가서도 여자는 힘든 거를 시키면 안 된다. 요리사 조금 힘들다. 저 아르바이트하는 데서도 그런 게 조금 있단 말이에요. 남자애들만 더 시키고 아르바이트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일이 적어서 취업하는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여자애들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데서 엎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편견도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I.07,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네 번째는 직업 차별의 개선이다. 이는 사회적 인식 차원의 문제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기에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에서 직업에 따른 사회적 대우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단지 사회적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특정 직업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아직 요리사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티브이에 많이 나오고 그건 힘든 직업이고 외국에서는 되게 대우를 잘해준대요. 요리사라고 하면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편견을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I.07, 남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9세).***.

4.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하나의 출발선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전의 상황에 있다고 보고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청년'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번 면접조사는 초점집단면접 10명과 개별심층면접 20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직업계, 일반계 직업반), 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림 V-7. 심층면접 질문의 주요 흐름

면담의 내용은 진로의 선택, 학교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취업준비과정,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와 예상, 그리고 졸업예정자들이 희망하는 사회적 변화 등이었다. 이 연구 과정을 통해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진로의 선택에서부터 노동시

장 진입까지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함께 정리하였다. 그 특징은 출발선의 불평등, 사회적 자본의 영향, 사회적 지지의 영향, 심리사회적 고립, 취업 적정연령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바라는 사회적 변화로는 개인차원, 가족차원, 교육제도 차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차원, 노동시장 차원, 수당 및 복지서비스 차원, 사회문화차원 등이 있었다.

학교 졸업예정자 면담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각 대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면담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와 일반계고 직업반 졸업예정자들은 진로 선택과정에서 충분한 진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은 학교 방침 상 전공과의 변경을 막아놓기도 하여 불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의 대가가 크고 오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업교육 과정은 학교별, 전공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비해 위탁교육기관 등의 교육의 질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훈련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은 학원과 같은 학교 밖 민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넷째, 현장실습의 연이은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지만,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 하고 있다. 다섯째, 직업계고 졸업 이후의 취업률은 높게 나타나지만,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을까봐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취업기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면담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선택과 전공과의 선택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불충분하며, 입시 결과에 따라 점수에 맞추어 대학에 오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진학과 취업에는 선배와 같은 현직자가 주는 정보가 가장 도움이 된다. 학교의 취업지원센터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늦게, 일부의 정보만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대학의 현장실습은

진로에 대해 파악하거나 경력을 개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스펙에 대한 지나친 경쟁으로 스펙을 쌓는 것에 대한 시간부담, 비용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적성 검사에 대한 대비 등으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다섯째, 졸업 이후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졸업유예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여섯째, 취업을 하기 전 원서를 계속 반복해서 접수해야 하며 반복해서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심리적,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계약직으로의 입직은 공백기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취업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의 면담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을 살려 전공선택을 하는 경우 대학원 과정 동안의 공부와 훈련이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만, 학위가 필요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연구실 생활은 졸업 이후의 취업준비를 하기 어렵게 막을 수 있으며, 졸업 이후의 공백기를 길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학비지원 없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아르바이트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넷째, 대학원 학위 취득 자체가 취업시장에서 유리하기도 하지만, 연령이 많아지는 건 불리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의 시사점을 통하여 이 보고서의 마지막 파트에서 정책제언을 도출할 것이다.

제6장 우리나라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정책 실태와 문제점

1.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2.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4. 요약 및 시사점

6 우리나라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정책 실태와 문제점[29)]

1.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진로교육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이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고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법률이며 고등교육법과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학 이상 졸업자들의 취업이나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법률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졸자 취업 지원방안이나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 등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중에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현장실습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 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중앙취업지원센터 근거 마련 및 실습생 지위 명확화,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와 진로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관계부처 합동, 2019a: 13-14).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그리고 2019년 8월에 새로 제정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 있다.

29) 이 장은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Ⅵ-1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관련 법률 현황

영역	명칭	관련조항	주관부처(과)
능력개발 /참여 및 활동	초·중등교육법	○ 제24조(수업 등) ○ 제17조(학생자치활동) ○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 제53조(고등기술학교)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능력개발 /참여 및 활동	고등교육법	○ 제1장 총칙의 제22조(수업 등) ○ 제2장 학생의 제12조(학생자치활동) ○ 제2장 산업대학의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 제4절 전문대학의 제47조(목적) ○ 제4절 전문대학의 제49조(전공심화과정) ○ 제6절 기술대학의 제55조(목적) ○ 제6절 기술대학의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능력개발	진로교육법	○ 제11조(진로상담) ○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능력개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 제8조의 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의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의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능력개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 제7조(현장실습) ○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능력개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26조~제28조 ○ 제4장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의무 제26조~제28조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능력개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12조(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고용노둥부 직업능력정책과
일자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일자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참여 및 활동	청소년기본법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참여 및 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차 검색일 2019년 2월 7일. 2차 검색일 2019년 10월 1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9년 8월 27일 제정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학교 졸업예정자 외에 청년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채용 절차법은 전체 연령을 포괄하고 있는데 전자는 직장체험이나 직업지도 지원을, 후자는 학교 졸업 후 취업 시 공정한 채용 제공에 관한 정책과제 추진 시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관련하여 제8조의 4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제공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취업애로계층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 시행령에서는 취업애로 청년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대상은 해당 법률 시행령 상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인데 상급학교 미진학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일학습병행제와 같이 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진학을 돕는 정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 상 학교에 진학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동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졸업자도 다양한 형태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표 Ⅵ-2 일본의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주요 사항	내용
관계자의 책임 명확화와 상호연계	정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노동조건 및 노동시간 명시, 모든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권고, 정보제공 요구 졸업예정자 불이익 금지, 기졸자 3년 간 응모 가능 권고)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사업자, 모집위탁자, 모집정보제공사업자, 기타 관계자의 책임과 연계, 협력을 규정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한 대책	① 신규 졸업자 모집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직장 정보제공 의무화(구직자 세부정보요청 시 모집(채용)·직업능력개발·고용관리 중 한 가지 이상 정보 제공 의무화), ②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사업주의 신규 졸업자 구인공고 접수 거부(6개월에서 1년), ③ 우수 중소기업 인정제도(youth yell) 실시(공공직업안정소 중점 홍보, 정부 및 지자체 취업박람회 참가 가능, 인정마크 사용, 정부 지원금 가산, 0.65%p 낮은 저금리 융자기업 등 인정기업 인센티브 제공)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자립 촉진	① 정부 및 지자체 직업훈련 촉진 및 잡 카드(job card) 보급 촉진, ② 니트 대상 자립지원 시설(서포트스테이션) 정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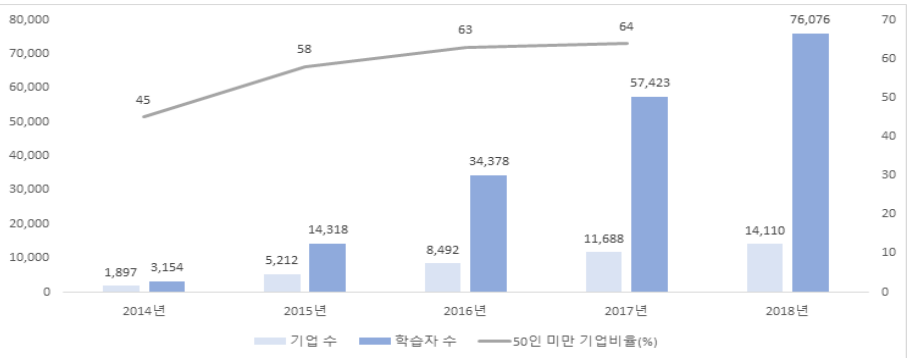
* 출처: 김명중(2016: 91-111). 일본의 청년고용 현황과 청년층 취업지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채용절차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 고용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급여 및 노동조건에 대한 명시 등 직장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김명중, 2016).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우수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데 일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증제도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의무 사항을 부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혜택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학습병행법은 2019년 8월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제도(dual system)를 한국형으로 보완한 것이다. 일학습병행은 학교에서 학습을 받고 기업에서 일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가 있다.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통합해 운영하는 유니테크(Uni-Tech)도 시행되었으나 중단되었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전문대 등에서 기술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로 바뀌었다.

일학습병행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897개 기업과 3,154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고 2018년 현재 참여기업은 14,110개로, 참여 학습자는 76,07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학습병행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50인 미만의 사업체의 참여 비중이 50%를 넘어서 기업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이 값싼 노동자로 전락하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출처: 고용노동부 (2017, 2018, 2019). 고용노동백서. 각 년도.

그림 Ⅵ-1.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자 수 추이(개, 명)

일학습병행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루어진 성과 평가에서 부실한 참여기업 확대, 훈련비용 과다 투입에도 높은 중도탈락률, 낮은 고용유지효과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강세욱, 2016). 게다가 2012년 이후 매년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와 더불어 학습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은실(2019)은 일학습병행법에 대해 주로 고등학생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산업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도제교육이라는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영세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 규모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은 점과 산업재해를 비롯한 위험 작업 노출에 대한 위험, 학습자에 대한 권리를 다루지 있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소관법률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다. 이 법률은 청소년 연령 규정을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어 20대 청년을 포괄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보장과 자치권의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세에서 24세가 정책 대상 연령에 포함됨으로 제5조의 2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정책수립 시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초반 청년 대부분이 학생이므로 학생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는 제12조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내용과 해당 내용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학생운영위와 대학평의회의 학생 참여 등 학생의 참여와 권리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처럼 법률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청년기본법안에서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 이념에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교졸업예정자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 법안이 학교졸업 예정자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조항은 제19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 부분이다. 이 조항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확충,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 도입,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교육·연구 환경 조성 및 우수 인재 발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아쉬운 부분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표 Ⅵ-3 청년기본법안 학교졸업예정자 관련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 마련
제19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 · 재능 ·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 · 재능 ·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9년 2월 7일. 국회 미래청년특별위원회 정당 간 공동 법안인 이명수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임.

2.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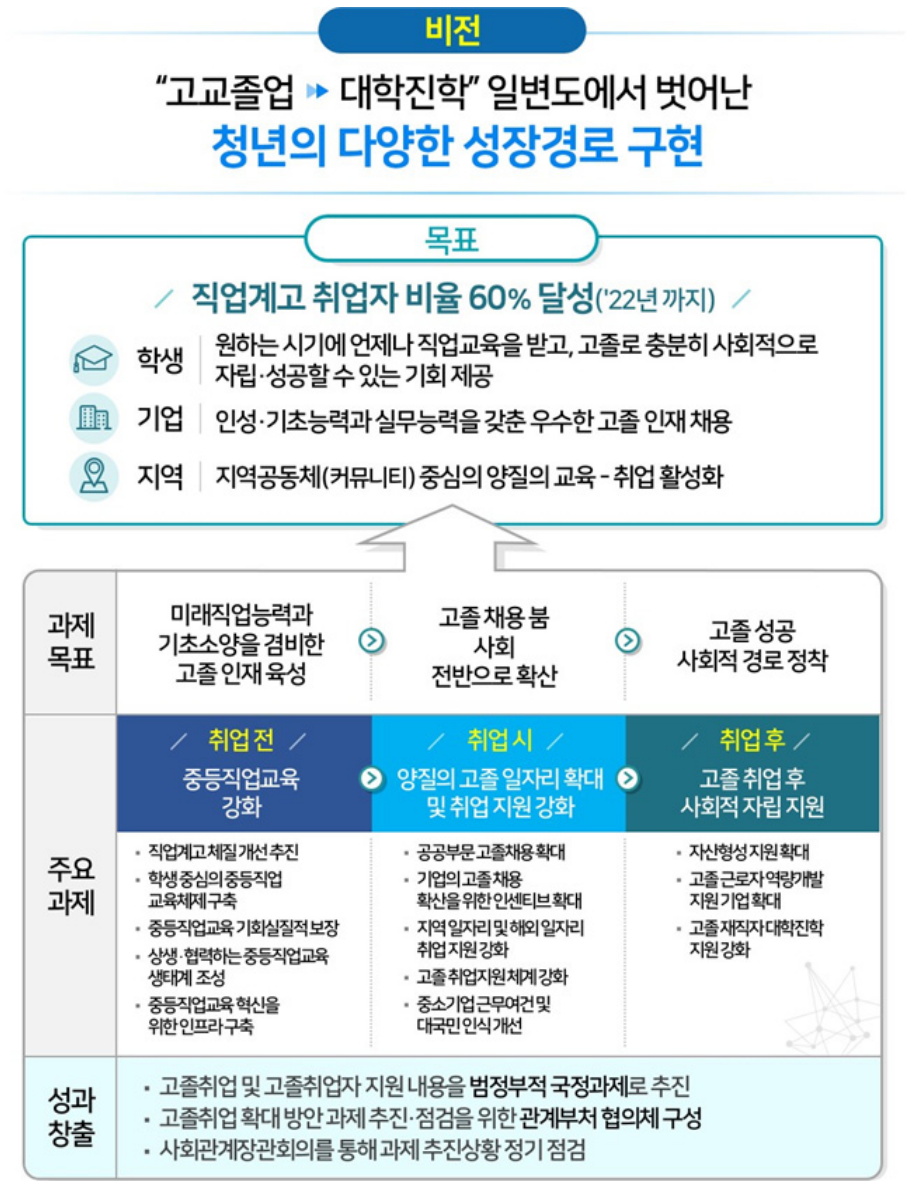
1) 국정과제 및 기본계획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괄적으로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정책들을 초중등교육 단계와 고등교육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등교육단계에서는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가 가장 직접적인 정책과제이며 공무원 채용 확대와 공공기간과 민간기업의 고졸 채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 국정과제는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9a. 그림 Ⅳ-2 참조).

이 방안은 기존에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방식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2022년까지 6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과제는 취업 전과 취업 시, 취업 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와 취업 시 고졸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취업지원 강화가 학교 졸업예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 전 주요 과제로는 직업계고 체질을 개선하고 중등직업교육체제를 학생 중심으로 구축하는 한편, 중등직업교육 생태계 조성 및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인 정책 사업들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현장실습 개선, 일반고 학생을 위한 특성화고 위탁과정 신설,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전입학 기회 제공 등이다.

취업 후의 주요 과제들은 공공부문 고졸 채용 확대로 지역인재 국가직 공무원 9급 고졸 채용 인원을 2018년 7.1%에서 2022년 20%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9a: 8).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 재인용.

그림 Ⅵ-2.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비전, 목표와 주요과제

표 Ⅵ-4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사업 현황

목표	전략	과제	주요내용	주관 부처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연구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미래 창조 과학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교육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18년 고교학점제 도입·확대, 국가교육회의('17년 설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의무화('21학년도), 선발비율 확대 대학 인센티브 마련 -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17년~) - 고졸기술인재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17년~) ○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 ○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교육부

표 Ⅵ-4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사업 현황(계속)

목표	전략	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확대	여성가족부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노동존중 사회 실현	○ (청년 일자리 기본권)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8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시행	고용노동부

*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무원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 인원도 2018년 20%에서 2022년 30%로 늘리는 내용과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확대도 포함되었다. 민간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방안은 주로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하고 일자리창출 촉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고졸 취업지원을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모든 직업계고에 학교 당 1인 이상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취업지원관은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정부에서는 2019년 400명에서 2022년 1,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중등교육단계의 정책과제들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회균형 선발과 학력 및 학벌주의 채용 관행 철폐(교육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고용노동부), 청소년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여성가족부) 등이 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국정과제로는 청년과학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생 기숙사 등을 통한 주거부담 경감, 산학협력 활성화 등이 있다.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을 마련해 청년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과학기술 일자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표 Ⅵ-4).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인 3.15대책에서는 즉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 분야에서 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취업 후학습, 일학습병행제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도인력 양성이 주된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고교 취업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과 연결되는 과제로 볼 수 있다.

표 Ⅵ-5 청년일자리대책(3.15대책)에서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사업 현황

분야	중점과제	주요내용
4.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선취업-후진학, 일학습병행제	□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 지원 □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에 훈련비, 군 보직 연계 등 지원
	미래 핵심인재 육성	□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창업 연계→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수료자는 협력사 우선 채용(1만명)

* 출처: 관계부처합동,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2018).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3.15대책에서 고용노동부가 추가적으로 발표한 청년고용촉진방안에서도 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표 Ⅵ-6).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신설이나 투명한 채용 확산, 취업역량 강화 지원,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이 그것인데 학교 졸업예정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청년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만 학교졸업예정자들과 연관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Ⅵ-6 청년고용촉진방안에서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사업 현황

분야	중점과제	주요내용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청년센터 신설	□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채팅 상담 제공 ○ 개인별 상황을 체크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오프라인 청년센터 설치 ○ 고용복지+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기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위주로 설치하고, 위치·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투명채용 확산	□ 평등한 기회 보장 및 공정한 채용기회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확산 □ 채용공고 시 선발기준 정보 공개 확산 ○ 공공부문 직무기술서 고도화 및 평가기준표 사전공개 확산('18.下) □ 선발결과를 응시자에게 피드백하는 문화 정착 ○ 공공부문 필기전형 점수 피드백 도입('18.下) → 서류 면접 확대 □ 공공부문 채용비리 엄단 및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채용절차법 개정)
취업역량 강화 지원	직업능력개발 확대	□ 청년 대상 훈련 확대 ○ 청년들의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를 위해 실업자 훈련 확대 운영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과정 확대 □ 청년들이 원하는 민간고급훈련에 참여 가능하도록 '훈련사다리' 신설
	진로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교육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진로지원 개선 TF' 운영 → 진로지원 개선방안 마련('18.上)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일자리 매칭 활성화	□ 워크넷을 개인맞춤 서비스('19년) → 머신러닝(AI)기반 자동 추천('20년) 방식으로 개선

* 출처: 관계부처합동,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2018).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보고안건2: 청년고용 촉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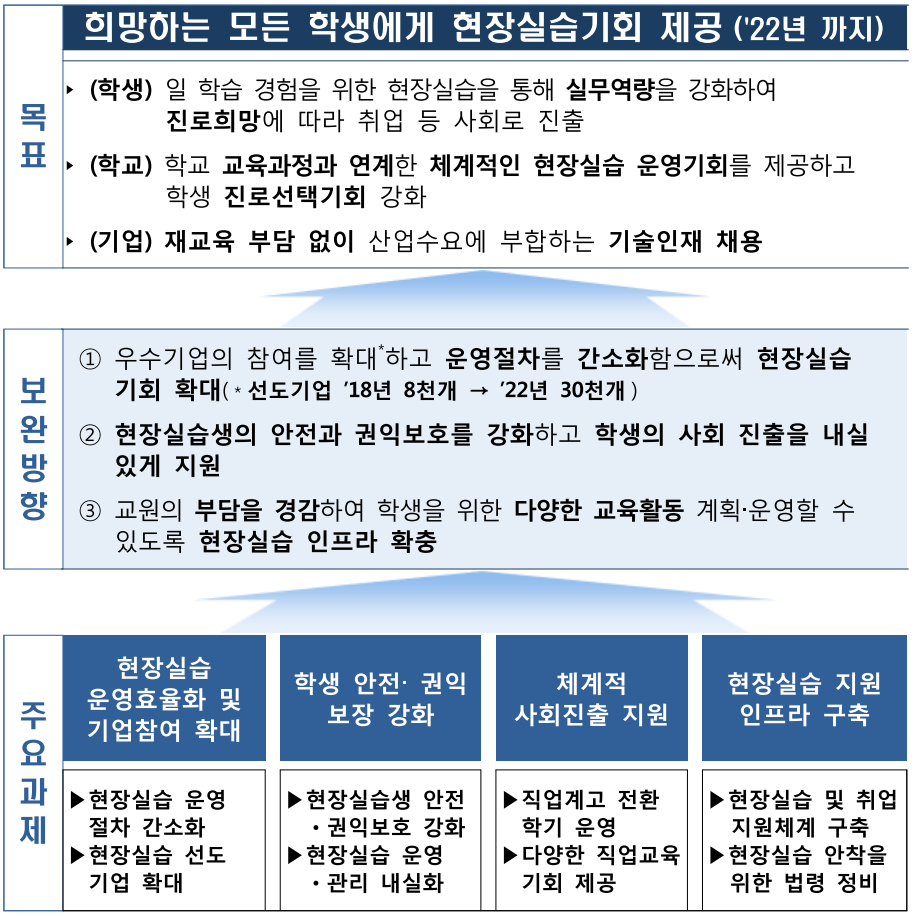
3.15대책에서 발표된 선취업 후학습 방안은 직접적으로 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관계부처합동,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2018). 주로 특성화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반계고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지원도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이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2019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졸 취업활성화방안의 주요 과제들과도 일치한다(표 Ⅵ-7).

표 Ⅵ-7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에서 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사업 현황

분야	중점과제	주요내용
선취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	○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인당 400만원, 저소득층 우선)
	현장실습 훈련 전담 인력 지원	○ 기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현장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 인력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 → 80만원)
	일반계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지원	○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18.7.) ○ 일반계고 특화 훈련과정(6개월) 인원 확대* 및 자격증 취득과정 우대('18.하반기)
	4차 산업혁명 선도 고졸인력 양성	○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지원
'선취업 지원'-'후학습 확대' 통합 모델 운영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 및 지원	○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2~3년 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제정('18.상반기)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 국비유학 확대	○ 기능·기술인재(직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국비유학·연수인원 대폭 확대('18, 10명 → '22, 100명) 추진 및 지원 자격요건 완화 ○ 국비유학 학위과정을 다양화하고, 모집 홍보 확대 및 유학·연수 준비 전 과정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중소기업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 신설	○ 중소기업 재직 청년(34세 미만) 대상으로 기술, 수출 마케팅 등 해외 직무연수(1년 이내) 프로그램 신설('19, 300명 → '22, 1,000명) ○ 대체인력 채용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연수기관 발굴 등 재직자 연수 준비 전 과정 컨설팅 지원

* 출처: 관계부처합동,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2018).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보고안건3: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3.15대책의 선취업·후학습 방안 중 교육부에서 추후 발표한 대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합동, 2019b)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기본계획이다(교육부, 2018)(그림 Ⅵ-3).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9b: 6).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안), 재인용.

그림 Ⅵ-3.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의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은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조기취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무성 강화로 인해 2016년 31,160개 기업에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12,266개 기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b: 1).

표 Ⅵ-8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사업 명칭	사업 개요	주요내용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목적	○ 고졸자의 진학 욕구 및 조기 취업과 기업의 기본소양 및 전공 기초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 조기 확보
	규모	○ 5개교 선정, 교당 16억원*, 총 80억원(추경 편성) * 1개교 기준 : 3~4개 내외 학과, 학생 100명 내외 ※ 1학년 필요경비 정부지원(학기당 최대 400만원 이내), 2~3학년 산업체 50% 이상 부담
	기간	○ 4+2년(준비기간 1년 포함)
	내용	○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실무능력 배양 고육 결합 추진

* 출처: 교육부 (2018: 5).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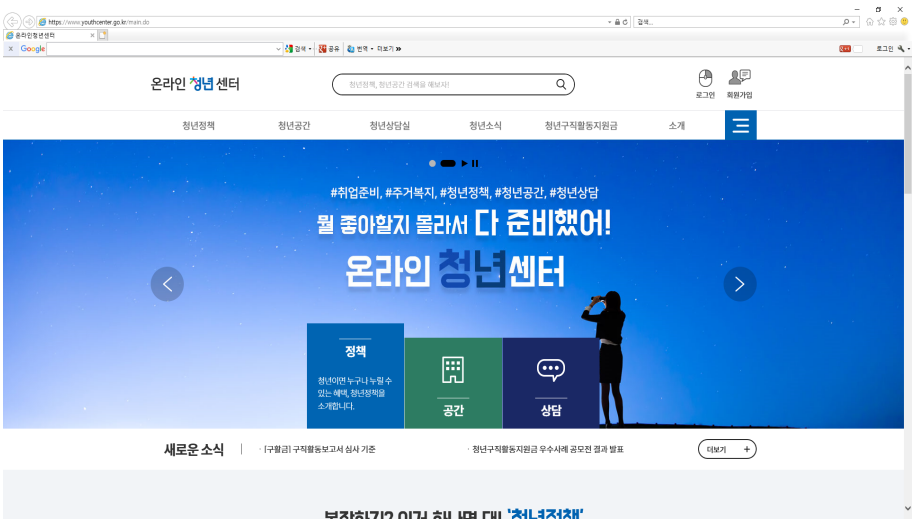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친 후 약정된 기업에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로 시범사업으로 5개교를 선정해 정부가 1학년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산업체에서 2-3학년 필요경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Ⅵ-8).

2) 중앙부처별 정책사업

이 절에서는 중앙부처별 정책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정책 영역에 관한 구분은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① 청년 일자리, ② 청년 능력개발, ③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④ 청년 참여 및 활동 등이다.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별 청년정책 사업을 수집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청소년정책과 같이 법률이 수립되어 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시행계획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면 해당 자료를 입수해 분석할 수 있다. 아쉽게도 청년정책은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세 가지 자료가 개별 정책사업 수준에서 수집이 가능해 중앙부별 정책사업과 지자체별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정책을 온라인상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한 것을 수집한 것이다. 예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청년사업을 정책대상부터 정책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정책사업 수준 분석은 주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수집한 정책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화면

그림 Ⅵ-4.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두 번째는 국회에서 2018년 구성한 청년 미래특별위원회에서 각 중앙부처에 청년 정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중앙부처별로 정확한 지침이 내려간 것이 아니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기획단이 구성되었고 청년정책기획단에서 국회 청년 미래특별위원회처럼 각 중앙부처에 청년정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 자료는 작성양식을 내려 보내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지만 각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청년정책사업을 제출해 누락되거나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도 포함된 문제점이 있다.

세 가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청년정책사업 중에서 학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려냈다. 중앙부처는 예산 규모까지 파악을 했으나 2018년 혹은 2019년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분석도 수행하였다.

먼저 현재 청년정책사업을 수행 중이고 학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있는 중앙부처는 모두 19개였다. 전체 정책사업 수는 53개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7조 3,356억 원이었다.

정책사업 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1개 였고 다음으로 교육부가 8개, 고용노동부가 5개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사업 수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나 수요자가 학생 및 졸업예정자라는 점에서 교육이나 과학 관련 부서의 사업 수가 많은 특징을 보여준다.

예산 규모를 보면, 교육부가 3조 7,479억 원으로 가장 컸고 청년 주거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가 정책 사업 수는 2건에 불과하나 예산 규모는 두 번째로 큰 2조 2,6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 단위 예산에서 억 단위 예산으로 낮아지는데 고용노동부가 5,100억 원 규모로 세 번째로 예산 규모가 컸다.

표 Ⅵ-9 중앙부처 청년정책 정책사업(재학생 및 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부처별 추진 현황

부처명	정책사업 수	정책사업 명	예산 (억원)
과학기술정통부	11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인력 양성,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등	1,578
교육부	8	대학창업펀드 조성,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확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등	37,479
고용노동부	5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일반고 고종청년 특화형 일자리 안전망, 해외취업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5,100
산업자원부	4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등	947
행정안전부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쉽 사업	2,109
병무청	3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병역 지원이행자 무료치료 지원	384
권익위	3	2030세대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민생각함, 청년정책 개선 프로젝트, 2030세대 관련 민원 분석	0
국방부	2	청년장병 진로· 취업지원 강화,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162
중소기업벤처부	2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1,089
국토부	2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대학생 기숙사 확충	22,692
농촌진흥청	2	글로벌농업인재 양성,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	81
외교부	1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867
보건복지부	1	청년희망키움통장	110
농림축산식품부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155
여성가족부	1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6
해양수산부	1	수산식품 수출 청년개척단	3
보훈처	1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지원 강화	587
특허청	1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	3
방위산업청	1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 분야 전문교육 제공	4
전체	53		73,356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2018) 및 국무조정실(2019) 부처별 수집 내부자료 참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 중 상당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재직자이거나 중소기업이나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어서 재학생이나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청년 정책 영역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 수가 20개로 가장 많았고 청년 능력개발이 17개, 주거 및 생활안정이 11개, 참여 및 활동이 5개 순이었다.

예산 규모별로는 주거 및 생활안정이 6조 52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 및 활동이 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참여 및 활동은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예산 규모가 적은 데 반해, 주거 및 생활안정은 청년들에게 대한 금전적인 직접지원과 사업당 비용이 큰 주거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예산 규모가 컸다.

표 Ⅵ-10 중앙부처 청년정책 정책사업(재학생 및 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정책영역별 추진 현황

정책영역	정책사업 수	정책사업 명	예산 (억원)
일자리	20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쉽 사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10,321
능력개발	17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공대 특성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인력 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등	2,497
주거 및 생활안정	11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청년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60,529
참여 및 활동	5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2030세대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민생각함, 청년정책 개선 프로젝트, 2030세대 관련 민원 분석	9
전체	53		73,356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2018) 및 국무조정실(2019) 부처별 수집 내부자료 참고.

청년 정책 대상별로 고교생이나 고교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된 정책사업은 25개였고 대학생이나 대학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사업은 45개였다. 대학원생이나 대학원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사업은 32개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로 볼 때 대학생(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7조 2,6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 및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2조 9,893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Ⅵ-11 중앙부처 청년정책 정책사업(재학생 및 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대상별 추진 현황

지원대상	정책사업 수	정책사업 명*	예산 (억원)
고교생 (졸업예정자 포함)	25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일반고 고졸청년 특화형 일자리 안전망	29,893
대학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포함)	45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지원 강화, 국민생각함, 청년정책 개선 프로젝트,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 문야 전문교육 제공, 글로벌농업인재 양성,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72,641
대학원생 (졸업예정자 포함)	32	공대 특성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 양성,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30,993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2018) 및 국무조정실(2019) 부처별 수집 내부자료 참고.
해당 대상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만 제시함.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재학생과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사업별로 재학생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살펴보았다. 청년 일자리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09년부터 시행된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비롯하여 2018년 발표된 3.15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와 전달체계 역할을 하는 대학일자리센터 등도 포함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학교 졸업예정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학교 졸업예정자가 포함된 사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대학일자리센터 등 세 가지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시행 당시 졸업유예자를 제의하였으나 최근 개정으로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Ⅵ-12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사업 재학생(예정, 유예자 포함) 지원대상 포함 여부

주요사업	지원대상 연령	소득제한	취업자 포함	미취업자 포함	고교생 포함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포함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18-34세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X	◎	◎	◎	◎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18-34세 이하	X (유형Ⅰ은 취약계층)	X	◎	◎	◎	◎
청년내일 채움공제	15-34세 이하	X	◎	X	X	X	X
창업성공 패키지	39세 이하	X	◎	X	X	X	X
대학일자리 센터	15-34세 이하	X	X	◎	◎	◎	◎
K-Move 스쿨	34세 이하	X	X	◎	◎	◎	◎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2018) 및 국무조정실(2019) 부처별 수집 내부자료 참고.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당초 재학생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2015년부터 졸업 학년의 재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이병희, 김혜원, 길현종, 오민홍, 2017). 현재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함께 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될 예정이다(일자리위원회, 2019).

2020년에 도입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구직활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Ⅰ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로 최대 60개월 동안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던 구직활동촉진수당이 64세 이하 저소득층에게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발형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일몰하는 대신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에서 기존의 중위소득 120%를 살리는 청년 특례를 적용하는 유형이다. 일몰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년 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중이다.

기존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변경될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고 I유형 중 선발형으로 전환된다. I유형의 선발형의 경우 소득이외에 재산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데 6억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전환된다.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64세로 확대되며 기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었던 상황에서 소득 기준을 정하는 것이 당장 무리가 따르므로 추후에 소득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VI-13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사업 개편 내용

기존 사업명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대상 연령	소득제한	재산제한	취업경험 제한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I유형 선발형	18-64세	청년 특례 50-120% 이하	6억 이내 (대통령령)	없음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II유형 청년	18-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범위 별도로 정함)	없음	없음

* 출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2019).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이어 청년 능력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능력개발 사업은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내일배움카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등이 있다.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와 일학습병행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연령을 고려해 15세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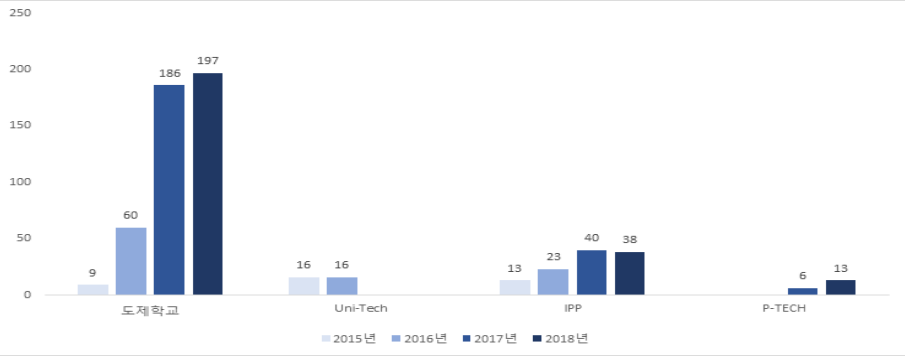
표 VI-14 중앙부처 청년 능력개발사업 재학생(예정, 유예자 포함) 지원대상 포함 여부

주요사업	지원대상 연령	소득제한	취업자 포함	미취업자 포함	고교생 포함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포함
직업계고 현장실습	X	X	X	X	◎	X	X
내일배움카드	15세 이상	X	◎	◎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X	X	X	◎	X	◎	X
청년취업아카데미	34세 이하	X	X	◎	X	◎	X
일학습병행제	15세 이상	X	X	◎	◎	◎	◎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2018) 및 국무조정실(2019) 부처별 수집 내부자료 참고.

일학습병행제는 중등교육 단계와 고등교육 단계로 나뉘고 중등과 고등교육을 연계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4년 9개교를 시작으로 2018년 186개교로 확대되었으며 12,983명의 학생들이 도제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 188).



* 출처: 고용노동부 (2017, 2018, 2019). 고용노동백서.

그림 Ⅵ-5.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교/기관 수 변화 추이

고등교육단계에서는 IPP형 일학습병행제로 4년제 대학교의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교육과정 형태로 4개월에서 10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받고 있다. 2015년 14개교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18년 현재 3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중등과 고등교육단계를 통합한 방식은 Uni-Tech에서 P-TECH로 바뀌었는데 P-TECH는 중등교육단계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전문대 등에서 심화 전문교육훈련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P-TECH 참여 대학은 2017년 6개교에서 2018년 13개로 늘어났다.

표 Ⅵ-15 중앙부처 주거 및 생활안정사업 재학생(예정, 유예자 포함) 지원대상 포함 여부

주요사업	지원대상 연령	소득제한	취업자 포함	미취업자 포함	고교생 포함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포함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19-39세 이하	X	◎	◎	X	◎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만35세 이하 미취업자 우대	X	◎	◎	X	◎	◎
청년 주거급여 지원	X	◎ (중위소득 23% 이하)	◎	◎	X	◎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19-25세 미만	◎ (연 5천만원 이하)	◎	◎	X	◎	◎
행복기숙사	19세 이상	X	X	X	X	◎	X
청년 사회적 주택	19-39세 이하	◎ (중위소득 70% 이하)	X	◎	X	◎	◎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2018) 및 국무조정실(2019) 부처별 수집 내부자료 참고.

마지막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15세에서 18세가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15세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고 빠른 사회 진출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15세부터 18세 연령층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협소해 재정적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교생이나 고교 졸업예정자 등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불가피하게 1인 가구로 혼자 살아야 하는 10대 후반에게 주거 문제를 졸업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3.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이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졸업예정자과 관련된 청년정책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청년정책 사업을 분석한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분석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너무 방대하여 광역 지자체에 한정하였다. 동시에 예산 정보는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공하지 않고 국회나 국무조정실에서 수집한 자료는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표 Ⅵ-16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사업(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시도별 추진 현황

시도명	정책사업 수	정책사업 명
서울시	16	청년활동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 뉴딜일자리 등
부산시	19	청년두드림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준비땅, 부산청년일자리 해커톤경진대회, 대학 학과별 맞춤형 훈련사업 등
대구시	27	대구청년 소셜리빙맵, 대구청년 NGO활동 확산 사업, 대학생 국내인턴 사업, 청년 내일(My job&Tomorrow)학교 등
인천시	17	인천 Young MICE리더 육성, 부업대학생 운영,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청션사회서비스사업단,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등
광주시	20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예비 청소년지도자 발굴 육성,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 등
대전시	20	대청넷 운영, 청년정책연구 공모사업, 2019 청기올려 사업, 대전드림 과학인재양성, 청년 일자리 매칭지원 내손을 잡아 등
울산시	10	지역기업-청년교류 활성화 사업, 청년 취업지원 캠프, 희망이음 프로젝트 울산서포터즈, 청년 CEO 육성사업 등
세종시	10	세종시 일자리창출 코디네이팅, 세종 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 세종형 쉐어하우스, 지역청년 인적자원 특화 취창업 지원 등
경기도	13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송파학사 운영, 따복기숙사 운영 등
강원도	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원도형 정년일자리 등
충북도	26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찾아가는 고교생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충남도	17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 희망이음 프로젝트 등
전북도	26	청년 내일도움터 운영, 공공기관-대학교 잡멘토링, 취업박람회 개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ICT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창업꿈나무 지원 등
전남도	16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사업,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카페,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 운영,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등
경북도	24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 취업지원센터,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청년기업일자리사업 등
경남도	15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대학생 단기 해외어학연수, 경남 지역인재육성사업,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제주도	34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제주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제주형 일학습병행 사업, 청년 리뉴얼 프로젝트,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등
전체	313	-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이후에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되고 청년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시행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하게 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사업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된 전체 청년 정책 사업은 3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수로는 제주도가 34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3개로 가장 적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재학생이나 학교 졸업예정자, 유예자 등을 포함해 이루어질 경우 관련 사업으로 다루었는데 모든 시도에서 가장 많은 사업 수를 보여주었다.

표 Ⅵ-17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사업(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정책영역별 추진 현황

정책영역	정책사업 수	정책사업 명
참여 및 활동	44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 공동체 지원, 청년위원회 등
일자리	135	청년 뉴딜일자리,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정장대여서비스, 청년 해외취업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청년두드림센터 등
능력개발	63	소셜리빙맵, 청년 취업지원 캠프,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사회경제적 청년활동가 육성, 청년 취업 직무역량강화 등
주거 및 생활안정	7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건강검진 지원, 청년주택 임대 사업, 지역학사 운영 등
전체	313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정책 영역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135개로 가장 많았고 청년 참여 및 활동 사업이 44개로 가장 적었다. 참여 및 활동 관련 사업은 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며 각 시도별로 청년 정책추진체계나 참여기구 등을 운영 중으로 재학생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능력개발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역량 강화나 캠프, 창업이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이다.

주거 및 생활 안정 관련 정책 사업들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주거 지원에 추가적으로 임대료 지원을 하거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년 부채 등과 관련한 학자금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Ⅵ-18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사업(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대상별 추진 현황

지원대상	정책사업 수	정책사업 명*
고교생 (졸업예정자 포함)	8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 등
대학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포함)	89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해외 복수학위제, 해외 인턴십, 대학생 직무인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 등
대학원생 (졸업예정자 포함)	1	대학생 재능나눔 지원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주) 해당 대상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만 제시함.

대상별로 보면, 지자체 단위에서 대학원생이나 대학원 졸업예정자, 유예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보기 어려웠으며 고교생의 경우도 정책 사업 수가 8개에 불과했다. 지자체 청년 정책사업은 주로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2019년에 처음 시작되었지만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총 11개 시·도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이다.

표 Ⅵ-19 광역지자체 청년 직접금전지원 관련 사업 재학생(예정, 유예 포함) 지원 대상 포함 여부

시도명	사업명	지원대상 연령	소득제한	취업자 포함	미취업자 포함	고교생 포함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포함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년수당)	19-34세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단기 취업자)	◎ (졸업 및 중퇴 2년 초과)	X	X	X
부산시	청년 디딤돌 카드	18-34세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X	◎ (졸업 및 중퇴 2년 초과)	X	X	X
대구시	청년사회 진입활동 지원금	19-34세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 월소득 90만원 미만)	◎	X	◎	X
인천시	드림체크 카드	19-39세	◎ (중위소득 150% 이하)	X	◎ (졸업 및 중퇴 2년 초과)	X	X	X
광주시	청년13 (일+삶) 통장드림	19-34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X	X	X	X
광주시	청년교통 수당드림	19-34세	◎ (중위소득 150% 이하)	X	X	◎	◎	◎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18-34세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단기 취업자)	◎	◎	◎	◎
울산시	울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8-39세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단기 취업자)	◎ (졸업 및 중퇴 2년 초과)	X	X	X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4세	X	◎	◎	◎	◎	◎
경남도	청년구직 활동지원	18-34세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X	◎	◎	◎	◎
제주도	청년 자기개발 지원금	19-34세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X	◎	X	X	X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졸업 유예자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지원대상 요건을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졸업 및 중퇴 후 2년을 초과한 청년들만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 재학생과 졸업 예정자, 졸업 유예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다만, 여전히 졸업을 앞둔 재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는 곳이 있다. 후발주자인 경상남도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초기 형태를 그대로 적용해 학교 졸업 예정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지 역시 동일하며 광주시의 경우 교통수당에 한해 학교 졸업 예정자가 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재학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15세부터 18세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구직활동이 절실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는 점에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능력개발 및 참여, 활동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재학생이나 졸업 예정자, 졸업 유예자를 포함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공간 사업인 무중력지대의 경우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개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의 활동 및 커뮤니티 사업도 유사하게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청년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 2015년부터 이루어졌다. 2015년 1월 무중력지대 G벨리가 개관하였으며 2019년 10월 영등포관 등 총 8개 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표 Ⅵ-20 광역지자체 대표적인 능력개발 및 청년 참여, 활동 사업 재학생(예정, 유예 포함) 지원 대상 포함 여부

시도명	사업명	지원대상 연령	취업자 포함	미취업자 포함	고교생 포함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포함
서울시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운영	-	◎	◎	◎	◎	◎
부산시	부산 청년 옹기종기사업	18-34세 이하	◎	◎	◎	◎	◎
대구시	대구청년 소셜리빙랩	19-39세 이하	◎	◎	◎	◎	◎
인천시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18-39세 이하	◎	◎	◎	◎	◎
광주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19-39세 이하	◎	◎	◎	◎	◎
대전시	청년필(FEEL)살기	-	◎	◎	◎	◎	◎
울산시	청년자치 커뮤니티 활성화	15-34세 이하	◎	◎	◎	◎	◎
세종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19-34세	X	◎	X	◎	X
경기도	생활기술교육 확산 프로그램	-	◎	◎	◎	◎	◎
충북도	청년(단체, 자조모임) 활동지원	15-39세 이하	◎	◎	◎	◎	◎
충남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18-34세 이하	◎	◎	◎	◎	◎
전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19-34세	◎	◎	◎	◎	◎
전남도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18-39세 이하	◎	◎	◎	◎	◎
경북도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	X	X	X	◎	X
경남도	청년 EG사업	18-34세 이하	X	◎	◎	◎	◎
제주도	제주청년 갭이어(gap year)	19-39세 이하	◎	◎	◎	◎	◎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자기탐구 프로그램인 갭 이어(Gap Year)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사업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으로 20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여행, 교육, 봉사 등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년 간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Ⅵ-21 광역지자체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재학생(예정, 유예 포함) 지원 대상 포함 여부

시도명	사업명	지원대상 연령	취업자 포함	미취업자 포함	고교생 포함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포함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18-39세 이하	X	◎	◎	◎	◎
부산시	취업준비땅	-	X	◎	X	◎	X
대구시	YES!매칭 사업	19-34세 이하	X	◎	X	◎	◎
인천시	1석5조 인천 청년사랑프로젝트	18-34세 이하	◎	X	X	X	X
광주시	청년JOB 희망팩토리사업	34세 이하	X	◎	◎	◎	◎
대전시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15-34세 이하	◎	X	X	X	X
울산시	2030 U-Dream	20-39세 이하	X	◎	X	◎	◎
세종시	창사진 프로젝트	18-39세 이하	X	◎	X	◎	◎
경기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8-34세 이하	◎	X	X	X	X
충북도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18-34세 이하	◎	X	X	X	X
충남도	열혈청년패키지	18-39세 이하	◎	X	X	X	X
전북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15-34세 이하	◎	X	X	X	X
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18-39세 이하	◎	X	X	X	X
경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15-39세 이하	◎	X	X	X	X
경남도	경남형 뉴딜일자리	18-39세 이하	X	◎	◎	◎	◎
제주도	제주 청년 뉴딜일자리	19-39세 이하	X	◎	◎	◎	◎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표 Ⅵ-22 광역지자체 청년 주거 관련 사업 재학생(예정, 유예 포함) 지원 대상 포함 여부

시도명	사업명	지원대상 연령	취업자 포함	미취업자 포함	고교생 포함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포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9-39세 이하	◎	◎	X	◎	X
부산시	머물자리론	19-34세 이하	◎ (단순 아르바이트)	◎	◎	◎	◎
대구시	청년 행복주택사업	19-39세 이하	◎ (취업 5년 이내)	◎	◎	◎	◎
인천시	청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9-39세 이하	◎	◎	◎	◎	◎
광주시	남도합숙 운영	-	X	X	X	◎	◎
대전시	청년기숙사 (청년하우스) 조성	-	◎	X	X	X	X
세종시	세종형 쉐어하우스	19-39세 이하	X	◎	X	◎	X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	-	X	X	X	◎	X
충북도	충북학사 운영	40세 이하	X	X	X	◎	X
충남도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18-34세 이하	◎	◎	◎	◎	◎
전북도	청년주택 임대지원	-	◎	◎	◎	◎	◎
전남도	남도학숙, 전남학숙 운영	-	X	X	X	◎	X
경남도	남명학사 운영	-	X	X	X	◎	X
제주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15-39세 이하	◎	X	X	X	X

* 출처: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주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 유예자들이 배제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청년들에게 250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통해 전문 영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뉴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은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며 최대 23개월 간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연간 200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취업교육과 자격증 응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 시민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수료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을 비롯한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가 추진한 뉴딜 일자리사업은 경상남도와 제주도 등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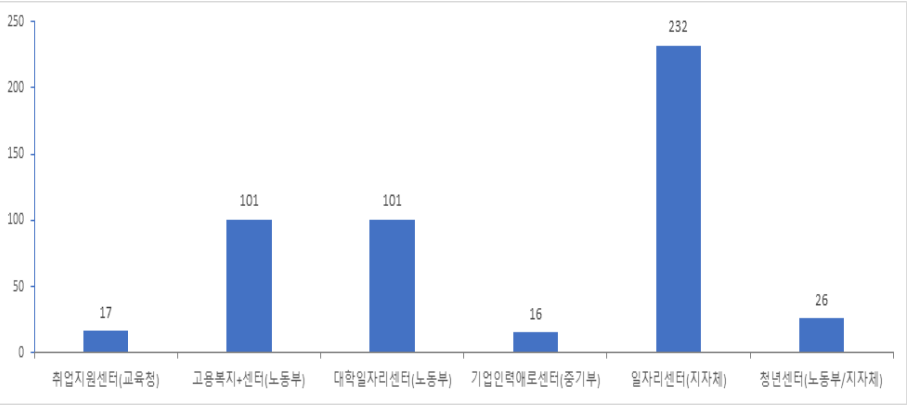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거 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청년 주택 공급과 임대비 지원이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정책들이 추진 중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청년 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학교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청년들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 고등학생 및 일반고 미진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센터가 시도교육청에 있고 2019년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을 통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에서 담당해 왔는데 복지 지원의 일부도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로 개편되었으며 명칭 변경을 하지 않은 고용센터 2곳을 포함해 2019년 현재 고용복지+센터는 101곳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센터를 대학에 두고 있으며 대학일자리센터 역시 101곳에 이르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명칭과는 달리 해당 대학의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 주변 청년들도 돕도록 하고 있다.

대학 내에 설치된 전달체계는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센터들이 존재한다(조세현, 정서화, 정미나, 김기헌, 2018). 2018년 기준으로 182개 대학에 설치된 교육부의 창업교육센터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가 199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단이 40곳, 기업가센터가 9곳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창

업교육센터가 5곳에 이른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6개의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여 구인구직정보 제공,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구직자 취업 지원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 출처: 유길상 외(2018).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제19차 청년TF 회의 자료(2019. 10.08, 서울 금천구 청춘빌딩, 내부자료)를 통해 지자체 청년센터를 추가하였음.

그림 Ⅵ-6. 학교졸업예정자 포함 청년지원 전달체계 현황(2018)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전달체계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일자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유길상 외(2018)에 따르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일자리센터는 232개소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센터가 설치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자체 청년센터는 16개소이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내 청년센터나 신규로 설치 중인 청년센터 2곳을 포함해 지역의 청년센터는 26개소에 이르고 있다. 부처 간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요약 및 시사점

먼저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현장실습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수업의 일종으로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취업지원센터나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인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외에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채용절차법의 경우 신규 졸업자에 한해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인증제도를 추진 중인 일본 사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서는 학습근로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반영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재학생의 경우 수업에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기본법안에서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사업에서는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이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주거 지원 예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참여 및 활동을 위한 정책 사업들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표적인 청년 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사업들은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 준비라는 측면에서 재학생은 제외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졸업예정자들과 졸업유예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졸업유예자가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용노동부, 2019). 다만, 졸업예정자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2020년부터 통합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졸업예정자와 유예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 능력개발 사업은 대부분 재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의 경우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유예자가 제외되고 있다. 물론 재학생의 경우 기숙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외로 볼 수 있으나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을 유예한 청년들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지자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정책사업이 최대 10배에 이를 정도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 영역별로는 주로 일자리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청년들의 활동이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족하였다.

2013년부터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일찍부터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에 졸업예정자와 유예자를 지원해 오던 지자체 청년 수당 관련 사업들이 중앙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졸업, 중퇴 후 2년 초과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원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15세부터 18세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졸업예정자와 유예자를 배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달체계는 일자리중심인데다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대상만 달리하거나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향후 이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제7장 정책제언

1.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과정
2.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방향
3.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과제
4.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과제 추진 로드맵(안)

7 정책제언[30]

1.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과정

청년 핵심정책 대상인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다. 먼저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부가조사 형태로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Ⅶ-1. 학교졸업예정자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과정

30) 이 장은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이어서 2차 분석으로 교육통계연보 DB를 활용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고등단계별로 졸업 후 상황에 관한 통계를 분석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학교 졸업 후 이행경로를 분석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와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해 청년들이 졸업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졸업 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정부정책이나 학교의 지원 실태와 이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하여 법률에 대한 검토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 역시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대상 국가들은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스웨덴, 그리고 일본 등 총 5개 국가였으며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구조가 다른 대표적인 국가들로 선별하였다.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2차 분석, 면접조사 등 조사 분석 결과와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 결과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조사 분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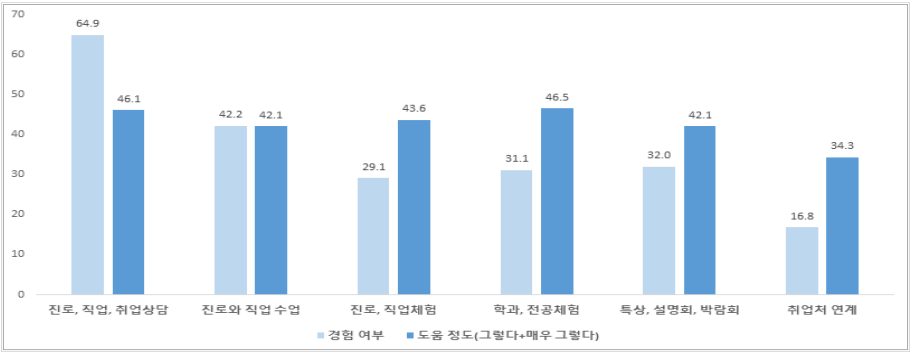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고등학교 재학 당시와 대학 재학 당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진 진로 및 취업 지원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로변경 여부, 복수전공 여부, 졸업 유예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준비 내용과 과정, 비용, 기간 등을 물어봤으며 정부 정책이나 학교 지원에 관한 의견도 물어보았다.

		주요내용	시사점
실태 조사	중등교육	학교 취업처 연계 부족	학교-기업 취업 연계 체계화
		진로 지원 질적 개선 필요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학생 진로변경 어려움	진로변경 지원체계 구축
	고등교육	졸업유예와 긴 취업준비 기간	취업 준비기간 단축 방안 마련
		큰 취업준비 비용 부담	재학생 지원 대상 확대
		주거, 생활비 부모 대부분 의존	졸업 후 경제적 자립 여건 조성
2차 분석	중등교육	취업도 진학도 아닌 졸업생 20%로 확대	학교-기업 취업 연계 체계화
		일반계고 취업률 8% 후반 유지	일반계고 직업과정 실효성 제고
		직업계고 취업률 10%p 하락	학교-기업 취업 연계 체계화
		졸업 후 재수 재학기간도 연장	이행기 지연 현상 예방 필요
	고등교육	전문대 졸업자 취업률 정체	학교-기업 취업 연계 체계화
		4년제 대학 졸업 후 미상률 35.7%	학교-기업 취업 연계 체계화
		전공계열별 큰 취업률 격차	인문 및 예체능계열 취업지원 강화
		졸업 후 공백 길수록 불리	이행기 지연 현상 예방 필요
		대학원 졸업자 진학률 절반 이상 감소	대학원 학생 중심 R&D 지원 확대
면접 조사	중등교육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학교 교육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잘못된 진로선택에 따른 어려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안전하지 못한 현장실습	직업계고 현장실습 재편
	고등교육	대학 서열에 맞춘 잘못된 선택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나이 들수록 배제되는 노동시장	채용 시 연령차별 제한 강화
		학교 밖에서 비용부담 앉고 스펙 쌓기	학생 소득 지원 대상 확대
		전공 관련 없는 학점용 현장실습	대학 현장실습 및 인턴십 내실화

그림 Ⅷ-2. 조사 분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등교육 단계에서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한 취업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교 재학 시에 학교에서 취업처를 연계해

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16.8%였고 학교에서 제공해준 취업처 연계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어떤 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년들은 첫 번째 방안으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중 직업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학교-기업 취업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Ⅷ-3. 고교 재학 시 진로 및 취업지원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중등교육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진로 지원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이번 실태조사에서 고교시기에 진로, 직업, 취업 상담 및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및 직업 체험, 전공 체험, 특강 및 설명회, 박람회 등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모든 영역에서 해당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진로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청년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두 번째로 중요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교 재학 시기에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사례는 3.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교 대학 시 진로변경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지만 변경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진로 변경 학생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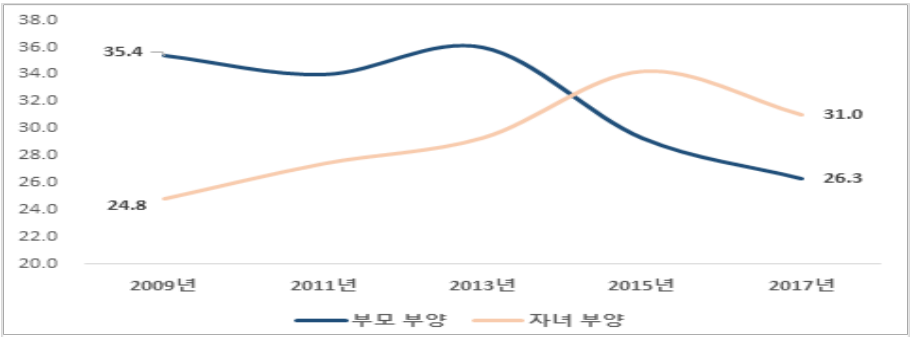
일반계고의 경우 진로변경과 관련 전통적인 쟁점은 문과와 이과 선택 이후 변경에 관한 문제도 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문·이과 통합, 융합교육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문과 영역에서 이공계 전공이, 이과 영역에서 인문계 영역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문·이과 통합교육이 이루어져 진로 변경에 관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고등교육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대학 재학 시에 취업의 어려움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기간도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별로 보면, 특히 인문계열 출신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17개월로 매우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유예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졸업 전이나 졸업 후 짧은 기간 동안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매월 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별다른 소득 없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학생신분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준비는 졸업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소득 지원 정책 대상으로 재학생이나 최소한 졸업예정자나 졸업유예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조사에서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조차도 90% 이상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경우에도 독립해서 생활하기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자립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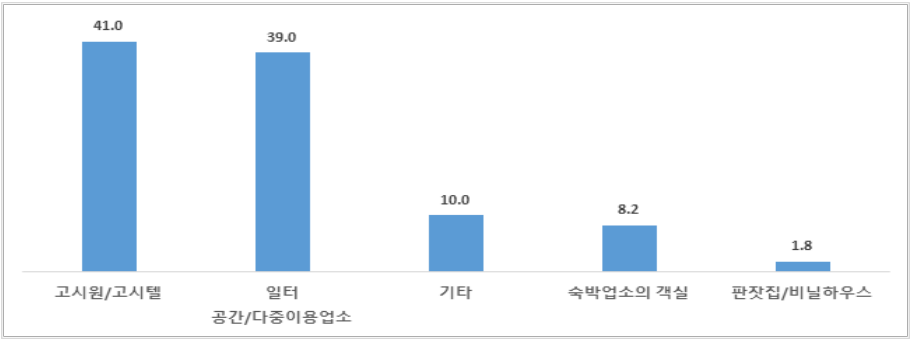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에게 자녀와 동거할 이유가 자녀가 독립생활이 어려워 돌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반면, 본인이 독립생활이 어려워 부양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009년 35.4%에서 2017년 26.3%에 크게 감소하였다.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통계청 사회조사 검색결과

그림 Ⅶ-4. 60세 이상 자녀 동거 이유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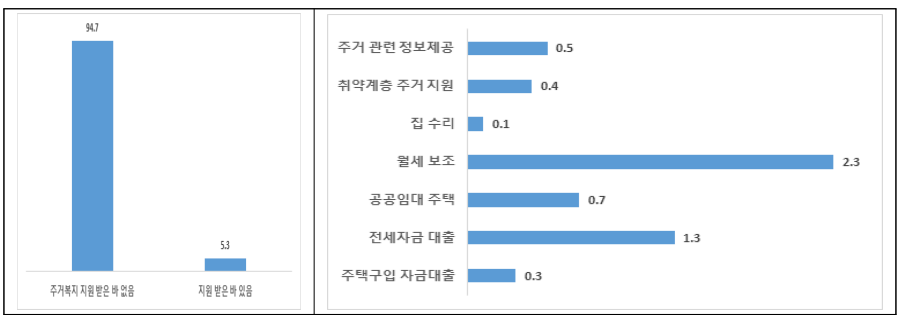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주로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2018)가 최근에 발표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조사 결과,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3.9%로 37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에서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약 15만 가구로 전체 중 4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출처: 국토교통부(2018).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10월 25일 보도자료).
** 자료: 통계청(2016).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그림 Ⅶ-5. 거처유형별 가구수 구성비(%)

국토교통부(2018)에서는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도 발표하였다. 평균 가구원수는 1.0명으로 1인 가구임을 알 수 있고 평균 연령은 34.6세로 청년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으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1.8년으로 짧고 수도권에 80.2%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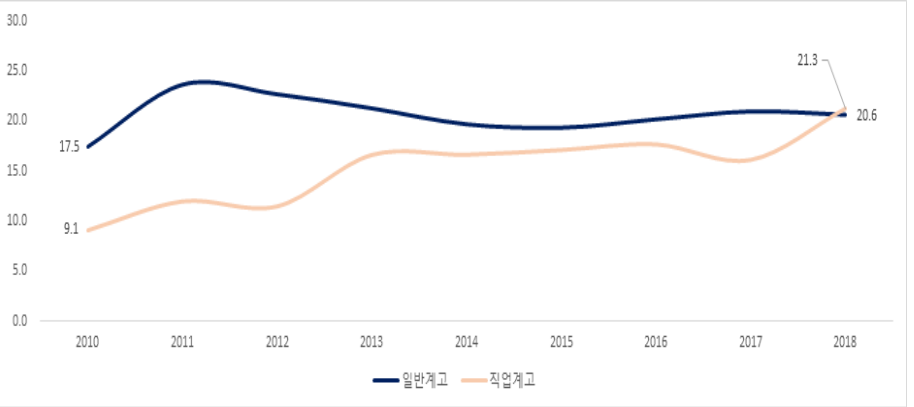
* 출처: 국토교통부(2018).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10월 25일 보도자료).
** 자료: 통계청(2016).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그림 Ⅷ-6. 고시원/고시텔 거주자의 주거 복지 수혜 여부와 분야(%)

미혼 1인가구로 대학생들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이들 중에 많은 경우가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2018) 발표에 따르면, 고시원과 고시텔 거주하는 가구원 중 주거복지프로그램 수혜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고시원, 고시텔 거주자는 5.3%에 그쳤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월세보조로 2.3%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자금 대출이 1.3%였다. 이 조사에서 어떤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는데 고시원 및 고시텔 거주자의 22.0%가 공공임대 주택 지원을 희망하였고 이어서 월세보조가 14.5%, 전세자금 대출이 13.3%,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7.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 부담 및 주거 여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부모로부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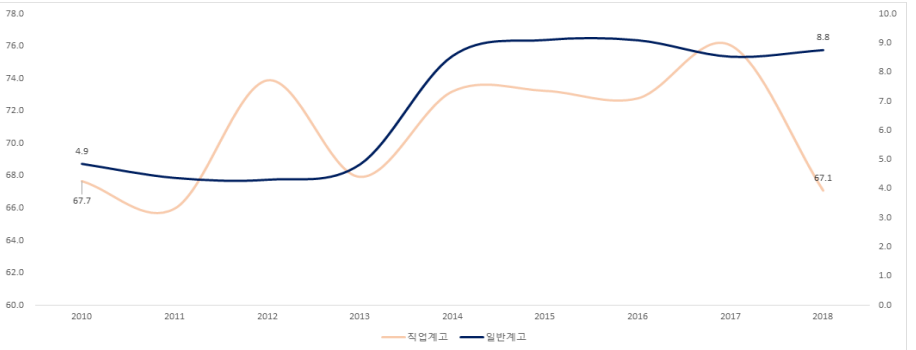
그림 Ⅶ-7.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졸업 후 미상률 추이(%)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교육단계별로 진학률, 취업률, 미상률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중등교육단계에서 우선 진학과 취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미상자의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미상률이 2010년 9.1%에서 2018년 21.3%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일반계고를 추월했다. 직업계고 미상률 증가는 현장실습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교육단계에서 학교와 기업의 취업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중등교육단계 취업률 추이를 보면, 일반계고 졸업생들 중 취업을 한 비율이 2010년 4.9%에서 2018년 8.8%로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학률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계고는 계속교육기관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

는 곳이지만 일반계고 진학 이후 바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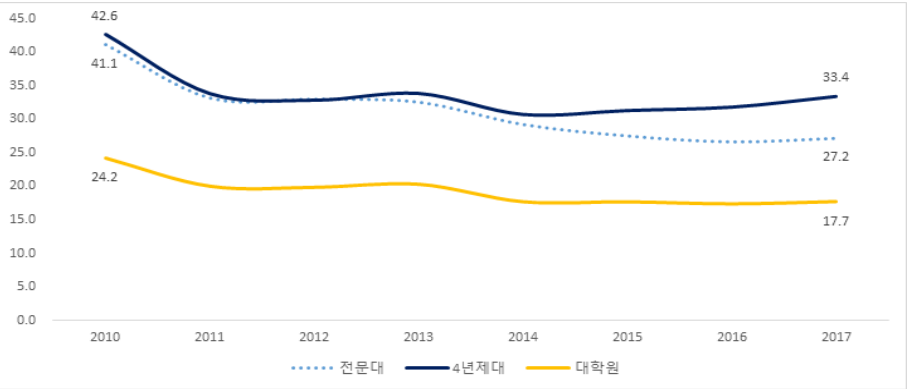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2017년까지 취업률이 증가했으나 2018년 67.1%로 전년대비 10%p 가까이 하락했다. 직업계고 취업률 감소는 현장실습 제도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 직업계고의 전공분야가 몰려 있는 제조업 경기가 악화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Ⅶ-8.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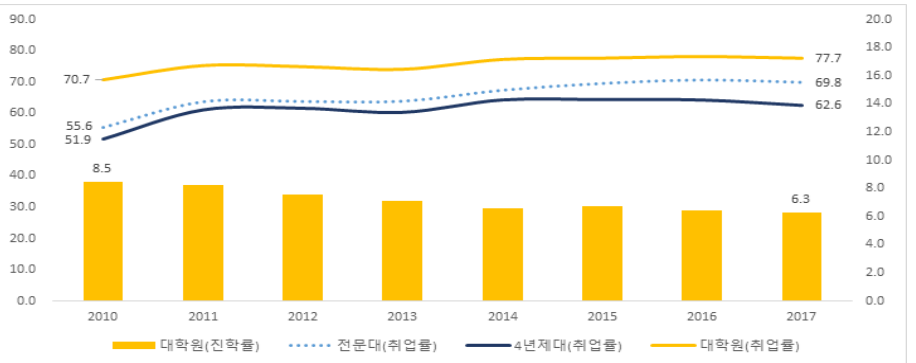
고등교육단계에서 미상률 추이를 보면, 대학원 석사 졸업생들의 미상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감소 추세에서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서 33.4%에 이르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10명 중 3명이 졸업도, 취업도 아닌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상률보다는 낮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을 확인할 수 없는 미상자가 많다는 점에서 중등교육단계 못지 않게 학교와 기업의 취업 연계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Ⅶ-9. 전문대, 4년제대, 대학원 졸업 후 미상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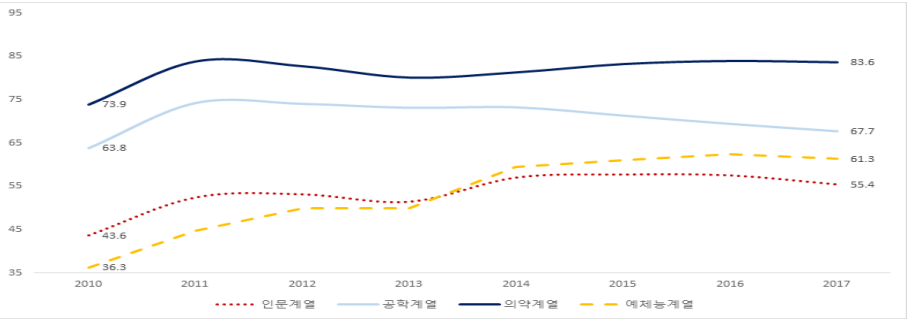
이어서 고등교육단계에서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현재 대학원 석사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77.7%가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2.6%로 가장 낮았다.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10년도와 비교해 10%p 상승했으나 2014년 이후 60%대 후반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Ⅶ-10. 전문대, 4년제대, 대학원 졸업(진학률 포함) 후 취업률 추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전공계열별로 취업률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의약계열은 80%가 넘는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문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은 6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인문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계열별 취업률 격차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전공계열별로 취업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문 및 예체능계열의 취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Ⅷ-11. 4년제대 전공별 졸업 후 취업률 추이(%)

면접조사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중등교육 관련 3가지, 고등교육 관련 3가지 등 총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중등교육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학교 교육, 잘못된 진로선택에 따른 어려움, 안전하지 못한 고교 현장실습 등이며, 고등교육의 주요 내용은 대학 서열에 맞춘 잘못된 선택, 학교 밖에서 비용 부담 앉고 스펙 쌓기, 전공 관련 없는 학점용 현장실습 등이다.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에 걸맞은 진로교육 및 상담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진로교육 및

상담은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에 편향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학진학이 아닌 다른 길에 대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했다. 진로교육 및 상담의 부재는 향후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직업교육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전공분야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된 실습 기자재가 있거나, 그것마저 없는 경우 제대로 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다면 학생들은 학교 밖의 민간학원 등에 비싼 돈을 내고 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학교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잘못된 진로선택에 대한 어려움은 제대로 된 전공,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다.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결정에는 자신이 앞으로 전공해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전공과에 대한 선택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면접조사에서 만난 직업계 고교 졸업예정자들은 이 당시에 아무 것도 아는 것 없이 전공과를 선택하였고, 학교 방침에 따라 전공과를 변경할 수 없어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한 참여자는 전공과의 내용이 재미있어서 선택을 했지만, 이 전공과의 기술을 배워서 나가야 하는 노동시장의 처우와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매우 나빠서 다른 분야를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결정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내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제약은 지나치게 크다. 제한된 합리성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결정이 잘못된 진로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일반계고에서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는 부모의 반대에 의해 직업계고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뒤늦게 후회를 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들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과

성인들의 판단과 선입견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는 학생들이 다시 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책 내에 "진로 변경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안전하지 못한 현장실습은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과 같이 안전하지 못한 현장실습 환경에 대한 우려이다. 면접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재개를 원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이 현장실습을 통해 위험에 노출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단지 현장실습을 열심히 하면 그곳에서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나가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장실습을 통해 청년들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안전과 노동인권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 역량개발, 취업기회이다. 이를 반드시 현재의 현장실습체계의 중단이냐 재개냐의 틀 속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네 번째, 대학 서열에 맞춘 잘못된 전공 선택이다. 면접조사에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와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성적에 맞추어서'라고 이야기했다. 학교의 선택은 자신의 점수에서 최고의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의 선택을 위해 전공과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 혹은 '피상적으로만 아는 상태'로 입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소위 간판만 바라고 대학에 온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점과 스펙관리로 성실하게 지내왔더라도 직업선택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방황이 길어지는 것은 사회진출 시기를 늦추어 향후 취업의 기회가 더 제한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나이 들수록 배제되는 노동시장으로 연령차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면접에서 참여자들은 나이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었다. '나이 들어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체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를 극복하는 수단은 대학원을 진학하여 정당한

사유를 만들거나, 나이제한이 없는 공공부문(공기업,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대학 졸업예정자 중에서도 간호학을 전공하는 참여자는 해당 전공의 문화나 분위기로 인해 선호되는 연령이 조금 더 분명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위계적인 조직문화,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여성의 혼인과 출산을 꺼려하는 분위기와 관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차별은 다른 종류의 차별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다.

여섯 번째, 학교 밖에서 비용부담 앉고 스펙 쌓기는 높은 취업경쟁으로 인하여 돋보이는 스펙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성적, 어학성적, 자격증, 공모전, 해외봉사, 인턴 등 대학생들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펙의 종류는 너무 광범위했다. 일부는 스펙만 보고 채용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취업경쟁의 기본선인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스펙은 곧 시간과 비용부담이라는 것이다. 비용을 댈 수 없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남들이 공부하고 스펙 쌓을 때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시간부족에도 시달린다. 스펙을 쌓느라 졸업이 늦어지거나 졸업과 취업 사이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소모적 경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다음의 그림은 졸업예정자들이 스펙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마디(node)들을 시각화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스펙에 대해 언급하면서 함께 언급한 단어들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그림은 스펙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맥락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스펙을 쌓아서, 지원하고,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하는 등의 맥락에서 스펙에 대해 언급된 것을 이 도식을 통해 알 수 있다.



a. 스펙과 관련하여 언급된 단어 도식(word cloud)

b. 스펙과 관련하여 언급된 맥락 도식(word tree)

*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주: Nvivo의 Word Cloud 기능을 활용하여 주요어를 도식화하였으며, Word tree 기능을 활용하여 스펙과 관련한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 맥락을 도식화하였음.

그림 Ⅶ-12. 대학 졸업예정자 면접조사의 “스펙” 관련 주요 단어

마지막으로, 전공 관련 없는 학점용 현장실습은 대학에서의 현장실습이 학점 채우기나 스펙 쌓기 정도의 의미만 가질 뿐, 실제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소모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기관과의 관계를 위해 제대로 된 관리나 학생보호를 하지 않고, 현장실습 기관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형태로 실습시킨다. 일부 참여자들은 대학의 현장실습은

대학 학점과 관련이 있어 오히려 돈을 내고 일을 하러 갔다고 이야기했다.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및 훈련의 의미를 갖는 현장실습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 정책 분석 주요 내용 및 개선점(시사점)

이 절에서는 정책 분석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점과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 중등교육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실습의 경우 수업의 한 형태이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에 대한 정의에서 이를 다루고 있지 않다. 현재 법률에는 야간, 계절, 시간제, 방송, 통신 수업까지 포함되어 있어 현장실습수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 수업에 대한 정의에는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운영이 반영되어 있다.

최근 새롭게 제정된 일학습병행법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의무와 평가(제26조, 제30조)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학습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부실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동시에 학습기업의 준수사항(제25조)은 있으나 학습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영세사업체가 학습이나 직업훈련보다는 단순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채용절차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시행중인 신규졸업자 대상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사업을 추진 중인데 주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도 법에 근거해 인증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규졸업자 대상 채용 정보 공개 의무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기본법안의 경우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개선점(시사점)
법률	현장실습 중등 수업 유형 미포함	초중등교육법 수업 조항 개정
	학습자 권리 부재, 부실한 교육훈련	일학습병행법 조항 개정
	신졸자 채용 정보 공개 의무화 필요	채용절차법 근거 마련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포함 필요	청년기본법안 조항 추가
중앙정부	재학생 정책사업 지원대상 배제	재학생 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및 주거 위주 예산 편성	청년 능력개발 및 참여예산 확대
	간접지원 위주 정책사업 추진	재학생 직접지원 사업 확대
지자체	정책사업 지자체별 큰 편차 존재	정부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청년 직접 지원 사업 재학생 배제	지자체 사업 재학생 지원 확대
	지자체와 교육청 연계 부족	지자체-교육청 사업연계 강화
해외사례	사전 개입을 통한 예방적 접근 추진	졸업 전 예방적 접근 추진
	학교-기업-정부 간 원활한 연계협력	학교-기업-정부 간 연계협력 강화
	범부처 포괄 기능 통합적 접근 추진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그림 Ⅶ-13. 정책 분석 주요 내용 및 개선점

이어서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등을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사업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2019)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에 졸업유예자를 포함하는 지침 개정을 실시한 바 있다. 취업준비에 있어서 졸업 이전과 이후 간의 차이가 없는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외에 다른 정책 사업들의 경우에도 재학생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학교 졸업예정자가 포함된 청년 정책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정책 영역 중에서 일자리와 주거가 사업 수나 예산 규모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분에 비해 일자리가 중요하며 주거 정책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과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년 정책들은 당사자인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보다 기업, 대학, 청년 관련 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중 직접 지원 사업은 전체 153개 사업 중 18개로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관의원실 보도자료, 2019). 간접 지원 방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직접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학교졸업예정자 역시 직접 지원을 받는 정책 사업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교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 정책 사업들이 지자제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수에 있어서 강원도는 3개에 불과했으며 가장 많은 제주도는 34개에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시도별 청년담당부서의 경우에도 지역 규모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행정부서로 청년청을 신설해 운영 중으로 7개팀 총 43명이 근무 중이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부서명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과에 담당자 1명이며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 담당자 2명이 분산 배치되어 운영 중이다. 지자체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청년정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자체 사업 중에서도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유사한 욕구를 가졌으나 형식적인 재학 여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재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졸업예정자들은 재학생신분이므로 교육정책의 대상이지만 곧 졸업을 앞둔 경우로 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도별로 보면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나누어져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교졸업예정자들의 원활한 졸업 후 이행을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고용을 비롯하여 여러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은 학생이 졸업한 이후 실업자나 니트가 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재학생 단계에서 일자리 이행 등을 돕는 사전적, 예방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학교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청년 대상 정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학교와 기업, 정부 간의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통합적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해 학교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활용하였다.

2.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방향

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정책 방향은 조사 분석 및 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① 대상 중심 접근, ② 예방적 접근, ③ 통합적 접근, ④ 연계 협력 접근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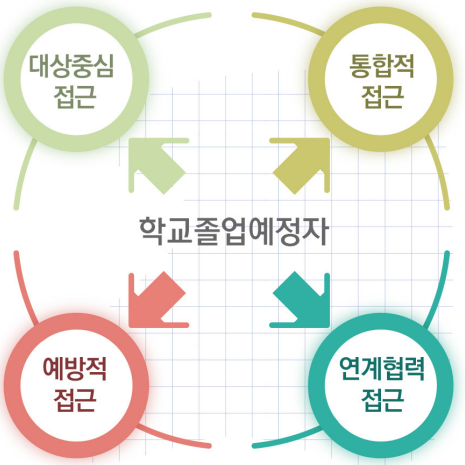


그림 Ⅷ-14.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정책 방향

먼저 첫 번째 정책방향은 대상 중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들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다 기업, 대학, 센터와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지원형태로 정책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정작 혜택을 보아야할 청년들보다는 청년들을 돕는 중간지원조직만 혜택을 보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동시에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욕구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청년들의 참여 없이 정책이 기획되고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경우도 발생하였다. 향후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정책의 방향은 당사자들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예방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주로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 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후적 접근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원인을 해소하는 사전적 혹은 예방적 접근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해외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최소한

학교 졸업 후 짧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책 개입을 통해 원활한 이행을 돕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청년들을 지원해 사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적 접근은 정부정책이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처 간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 중심 접근과도 연결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들은 교육만이 아니라 훈련, 취업, 창업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고 주거문제나 법률 상담, 문화 향유, 복지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지원 정책 추진은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당사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번거로운 방문과 절차를 별도로 찾아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으로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연계·협력 접근이다.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능통합과 함께 이미 구축되거나 설치된 조직, 기관이나 시설들이 함께 협력해 학교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청년들을 돕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광역,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과제

이 연구에서는 조사 및 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14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과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단계를 구분하였는데 교육단계를 구분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모든 단계에 걸쳐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들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별로 제시한 우선순위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제시한 정책 우선순위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학교-기업 취업 연계 체계화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순위로 제안된 과제이기도 하다. 2순위로 제시한 과제는 졸업 후 경제적 자립 여건 조성으로 취업 이외에 주거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순위는 채용과정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채용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취업준비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4순위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2순위로 제시한 정책과제로 예방적인 접근에 가장 걸 맞는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5순위와 6순위는 중등단계와 고등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혹은 인턴십과 같은 현장연계 학습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순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재학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과제이다. 8순위는 일반계고 학생들 중에서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9순위는 대학생들의 학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10순위는 진로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순위와 12순위는 새롭게 제안하는 과제로 한국형 갭 이어와 에라스무스+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13순위는 재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마지막 14순위는 대학원 학생들 중심으로 R&D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과제별로 제시하는 내용은 우선 제안된 정책과제의 세부내용을 소개하였다. 세부내용을 소개할 때에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부처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어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률 제·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은 비예산 과제나 예산규모를 제시하기 어려운 과제를 제외하고 대략적인 수준에서 현행 예산과 추가 예산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핵심 정책대상	과제명	영역	우선순위	담당부처
전체 학교졸업 예정자	학교-기업 취업 연계 체계화	일자리	1	교육부 고용노동부
	공정 채용 및 채용정보 공개 활성화	일자리	3	고용노동부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지원대상 확대	전 영역	6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졸업 후 경제적 자립 여건 조성	주거 및 생활안정	2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재학생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참여 및 활동	9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중등 교육 학교졸업 예정자	진로교육 및 진로변경 지원 체계화	능력개발	8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편	능력개발	4	교육부
	일반계고 직업과정 실효성 제고	능력개발	7	교육부
고등 교육 학교졸업 예정자	대학 현장실습 및 인턴십 내실화	능력개발	5	교육부
	대학원 학생 중심 R&D 지원 확대	능력개발	10	교육부

그림 Ⅶ-15. 핵심정책 대상별 정책제언(안)

(1) 학교-기업 취업연계 체계화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학교-기업의 취업 연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는 학교 자체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역사회의 기업 연계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 자체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단계별로 제시하면, 중등교육 단계에서 취업지원관을 늘려 학교나 취업지원센터에 배치해 직업계고는 물론 일반계고 미진학자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취업지원관을 특성화고에 파견하는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일반계고

경우에도 취업지원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도 취업지원센터에도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일반계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재 직업계고 중 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더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므로 마이스터고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이스터고는 2011년 20개교로 출발해 2013년 34개교로 크게 늘어났으나 이후 매년 2~3곳이 추가 선정되는데 그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9).

고등교육단계에서 현재 대학일자리센터가 105개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대학 안에 위치해 있지만 지역사회의 청년 취업을 돕는 기능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어 지원 대상의 혼란이 존재한다. 독일에서는 대학의 경력개발센터 내에 취업지원팀을 정부가 노동사회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센터를 대학에 보조금 지원 형태로 설치하는 방식 대신 대학 내에 이미 존재하는 취업지원기관에 취업지원관을 2명 이상 파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취업 연계 강화는 우선 전체적인 총괄조정 역할이 필요하고 이어서 다양한 취업연계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현재 '2019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시도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기존 전달체계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포괄해 지원하고 재학생만이 아니라 졸업생도 취업지원이 필요하므로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신설된다면 학교-기업 연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다루는 점검반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 중인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정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국이 설치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현행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에서 설치해 운영 중인 취업지원기관들을 통합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장기 과제로 보이며 우선 각 취업지원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1-1 취업지원관 및 마이스터고 확대로 중등교육 취업기능 강화
1-2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내 센터 취업지원팀 전환
1-3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 학교-기업 연계 점검반 운영
1-4. 취업연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학교-기업 취업 연계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 중인 청년기본법안에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총괄조정기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Ⅶ-1 청년기본법안 제19조 수정(안)

현행	수정(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 · 재능 ·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 · 재능 ·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19년 3월 2일 인출.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서 고졸취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9년 780억 원에서 2020년 1,35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예산을 통해 취업지원관을 선발하고 운영 중이며 교육부에서는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에 2019년 400명을 2022년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취업지원관은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발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에 대한 취업상담과 함께 일자리로 연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b).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립고등학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사립고등학교는 50세 이상 고령자 취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지원관을 특성화고 외에 일반계고 미진학자를 지원하도록 취업지원센터 배치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일자리센터는 2019년 105개 대학에 설치 중이며 전체 예산은 210억 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고 예정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을 중등교육처럼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중등교육단계보다 학교 당 배치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센터 설치에 따른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독일과 같이 공무원 파견 형태를 취한다면 예산 절감과 함께 취업지원팀 설치 대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지원규모를 보면 마이스터고는 연평균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연계에 따른 추가지원도 이루어진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약 4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일반 특성화고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 한해 연 평균 2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어 단계적인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마이스터고는 2~3곳 신설에 그치고 있어 신설 마이스터고가 당분간 5~6곳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공정 채용 및 채용정보 공개 활성화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공정 채용 및 채용정보 공개 활성화는 우수 기업에 대한 인증과 이에 따른 채용정보 공개 의무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우수 기업 인증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를 운영 중인데 기업에 대한 혜택은 많지만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가 없어 실제로 청년 친화적인 우수 기업인지를 선정 단계에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우수 기업 관련 선정 사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외에 노사문화우수기업,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정부포상 사회적 기업, 녹색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 다양하며(관계부처합동, 2019b) 최근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현장실습의 경우 선도기업을 선정해 이 기업에 한해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일학습병행과 관련하여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b). 다만, 새로운 인증제도가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무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동시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서도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이 제안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인증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수준에서 제안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c).

일본에서 신설되어 추진 중인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도(youth yell)를 우리나라 역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の雇用促進等に関する法律)에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한해 적절한 직업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채용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김명중, 2016). 우리나라 역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인증제도를 실시해 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상세하게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청년 정책 사업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 중 우수 기업 인증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 우수 기업 인증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2년 SBB(Samenwerk img Beroepsonderwijs Bedrijfsleven)를 설립하였다(SBB, 2019). SBB는 학교와 기업을 연계하기 위한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 국립기관으로 500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다. 이곳은 훈련 기업 인증 업무와 더불어 노동시장 분석,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사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훈련이나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우수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어서 공정채용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경우 20대라는 특정 시기를 경과하면 취업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성별, 혼인,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채용 시에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00년 이후 '차별금지에 관한 권고안(Richtlinie)'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제시하였고 회원국들은 독일의 '일반동등대우법(2006년)', 영국의 '평등법(2010년)' 등 차별금지법 형태로 통합적인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박귀천, 장명선, 이소라, 이수연, 강을영, 2015).

장기적으로 학교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성소수자를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장기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2-1 학교졸업예정자 등 청년 대상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2-2 우수 인증기업 채용정보 공개 의무 법제화
2-3 우수 중소기업 종합 관리기관 설치 고려
2-4 채용 과정 연령차별 제한 등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법률을 재정한다면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공정채용법에서 다룰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한시법이므로 공정채용법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일본처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된다면 이 법률에서 학교 졸업예정자 채용 기업 인증 및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표 Ⅶ-2 공정채용법 개정 사항(안)

현행	개정(안)
-	신설조항 1(학교졸업예정자 채용 우수 사업체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 신청에 근거해 해당 사업체가 학교졸업예정자의 모집과 채용, 직업능력개발, 사내 복지 정도가 우수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② 인증 사업체의 구인자는 학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 사업체의 구인자는 학교 졸업예정자 등이 채용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증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사업체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추진 사업 참여에 대한 혜택과 학교졸업예정자의 모집과 채용, 직업능력개발, 사내 복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인증 사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하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이 과제는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므로 비예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SBB와 같은 우수 기업 인증과 학교-기업 연계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 각종 센터들이 부처별,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관의 설립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지원 대상 확대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청년정책 사업들 중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유예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져 졸업예정자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청년정책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직업계고나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데 졸업 후 6개월 간 의무근무가 지난 후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청년 공적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있어서 고교생이나 졸업예정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고교생이 빠지는 문제는 지원 대상 연령을 18세나 19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15세에서 18세 미만이 지원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직접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각종 수당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어 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들은 대부분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북과 경북을 제외하고 15세에서 18세 혹은 19세 미만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으로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나 유예자와 거의 동일하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 졸업 전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3-1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지원대상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포함 추진
3-2 청년 내일채움공제 15세에서 18세 미만 지원 대상 확대
3-3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사업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포함 검토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법적으로 청년 취업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취업이 어려운 대상 중 하나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상에 정의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의 시행규칙에서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되어 있다. 이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명확히 제시하고 동시에 대상을 중등단계에서 고등단계를 포괄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예정자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Ⅶ-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애로 청년) 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제7조(취업애로 청년) 3.「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마지막 학년 혹은 학기에 재학 중인 자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이 정책과제는 관련 제도 운영 시에 적용되는 지침을 개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예산 정책과제로 별도로 예산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4) 졸업 후 경제적 자립 여건 개선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학교졸업예정자들이 졸업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것과 주거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한 해 2년 혹은 3년에 걸쳐 개인과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납입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최근 직업계고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직업계고 출신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6개월경과 후 300만원을 지급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도 있다. 가장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사업은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일환인 시설보호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디딤씨앗통장사업으로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을 정부와 후원단체, 보호자나 후견인이 납입한 후 자립 시점인 19세에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돕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들로 서울시의 청년 희망통장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기본소득 등 등장 이후 전 시도에 걸쳐 다양한 이름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서도 신설될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이 방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청년 중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적립금이 10만원이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3년 간 적립되면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들이 이처럼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아동발달계좌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2년이나 3년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목돈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에 걸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정책대상인 학교 졸업예정자와 관련하여 졸업 후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졸업 이전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을 정부지원 여부나 민간 기부 포함 등 차등을 두어 취약계층 외에 일반계층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자사형성 사업을 큰 틀에서 정리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 자립과 관련하여 높은 부모 의존도를 보여주는 이유 주된 이유는 수도권의 경우 주거비 마련 문제이며 지역과 무관하게 대학 이상을 진학할 경우 학자금 부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거비 문제와 관련 신혼부부나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인 가구로 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고시원, 고시텔이나 지하단칸방, 옥탑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향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학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어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 상환을 해야 하는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어려움이 있으므

로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는 물론 원금 상환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4-1 어린 시기부터 5년 이상 장기형 자산형성 지원제도 마련 4-2 재학생 포함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확대 4-3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및 저신용 대학생 생활자금 대출 확대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이 부분에 포함된 과제들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다만 장기형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처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이 정책과제는 관련 제도 운영 시에 적용되는 지침을 개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예산 정책과제로 별도로 예산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5) 재학생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재학생들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학생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청년정책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당사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

추진부서의 관련 위원회에 위촉위원 중 청년위원을 1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2017년 현재 14개 부서 법정위원회 38개 중 전체 위촉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은 12.6%로 나타나고 있다. 재학생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내에 구성되어 있는 대학평의회에 학생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여영국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대학평의원 수를 현행 11명에서 25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생위원 수를 전체 중 4분의 1 이상 두도록 하는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 참여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청년의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참여기구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참여기구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

5-1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관련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5-2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참여기구 구성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중인 청년기본법안은 청년 참여 활성화에 관한 선언적인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년 참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유사한 연령집단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청소년정책 추진 시 청소년의 의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의무화(제5조의 2 제 4항)하고 있다. 동시에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점검하는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제12조)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Ⅶ-4 청년기본법안 제15조 수정(안)

현행	수정(안)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해 청년 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결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⑥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참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19년 3월 2일 인출.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이 정책과제는 역시 법률 개정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참여기구가 구성될 경우 참여기구 운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진로교육 및 진로변경 지원 체계화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중등교육 단계에서 졸업 후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변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로교육이 진로교육법 제정과 진로상담교사의 전면 배치, 학생들의 진로교육 참여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질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목표 설정이나 준비에 있어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고등학교 1학년 진로교육 집

중학기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교육은 수업부담을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시수를 그대로 둔 채 진로교육을 포함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확대할 경우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되어 실제 진로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진로목표 설정이나 체계적인 진로준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수업시수 감축과 함께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 영, 수 등 기초교과군 50% 초과 금지 규정을 보다 강화해 선택과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선택과목의 기본 단위 수를 국, 영, 수와 동일하게 증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생 맞춤형으로 진로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활동이 주로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활동이 미흡한 상황이다. 진로교육은 특성상 집단교육 방식보다는 개별교육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진로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진로변경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경우 진학이후 전공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공급자 중심에서 학교의 기존 틀을 바꾸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진로 변경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진로목표를 변경하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9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특성화고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신설해 일반고 학생들 중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학년 2학기 위탁과정 수료자에게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이나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직업계고의 경우 전학을 오거나 전공을 변경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전문교과 필수 이수 요건이 86단위로 물리적으로 2학년 2학기부터 전문교과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교과 필수 이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마이스터

고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6-1 수업시수 감축 전제로 고1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활성화 6-2 중등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활동 활성화 6-3 진로변경 기회와 정보제공 강화 등 지원시스템 강화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여기에 포함된 세부정책과제들은 특별히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시수 감축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확정해야 할 사항으로 법률 문제는 아니나 공청회 등 다양한 학교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이 과제의 세부정책과제들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진로 교육 추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편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학생보호 중심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취업률 성과주의 개편과 함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인권보호와 선택권 보장,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선도기업을 선발해 현장실습 추진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졌으나 현장실습 자체가

위축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직업계고 취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는 매우 오래된 과제로 수업과 취업 간의 줄다리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 때도 유사한 쟁점이 발생해 교육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으나 취업률 제고 및 조기 취업 활성화라는 이유로 학기 중에 현장실습이 이루어졌다.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실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참여 기업 및 학생들의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볼 때 고교 현장실습은 수업이다. 우선 고등교육법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에 현장실습은 수업이 아닌데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수업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차례에 걸쳐 독일과 스위스식의 도제교육을 도입하려고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도제교육 방식은 매우 강력한 산학협력 환경을 갖춘 곳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와 기업 간에 협력이 매우 느슨하고 기업의 경우 교육적 목적에 따른 사회적 기부라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지 않다. 이를 바꾸기에는 장기적으로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한 후 학교 수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고교 단계에서 수업시간에 일종에 취업을 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이나 도제학교 운영은 고교 의무교육이 도입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고교 현장실습은 현상 유지하되 학교와 기업 간의 취업연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직업계고 수업에 기업이 참여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협약학과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상적인 수업이 교실이든 산업현장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고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취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가 2018년 현재 287개교인데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를 '2019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347개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 취업률 급감을 막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 제고와 양적 확대에 치중해온 도제학교를 학교와 기업 간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수업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학과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도제학교는 조기취업보다는 양질의 교육훈련이 제공되는 수업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1 초중등교육법 수업 정의에서 현장실습 수업 포함 추진
7-2 고교 현장실습을 협약학과 형태로 단계적 전환 추진
7-3 도제학교 양질의 교육훈련을 통한 수업 형태로 추진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현장실습을 수업의 종류로 다루지 않고 있다. '2019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법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정의에 대한 조항에 현장실습 수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Ⅶ-5 초중등교육법 제24조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업 등)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수업 등)②---------- ---------- ---------- ----------, 방송·통신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등을 할 수 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이 과제에 포함된 세부정책과제 추진에 따른 예산은 2020년 1,351억 원으로 책정된 고졸취업활성화 지원 사업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 일반계고 직업과정 실효성 제고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현재 일반계고 학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고 3학년생 중 직업위탁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2013년에 8,879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4,51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7년 기준으로 일반고 졸업자 중 비진학자가 95,227명에 이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c). 재수생으로 빠지는 경로를 생각하더라도 일반고졸 비진학자들이 1만 명에 이르고 있어 원활한 일자리 이행을 돕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계고 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업과정에 참여한 일반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마이스터고나 일반 특성화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계고 직업과정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계고 직업과정은 민간학원 등 직업훈련시설에서 이루어져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나 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현재 일반고 직업과정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받고 있는 경우가 전체 14,514명 중 7,925명으로 54.6%를 차지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c).

일반고 3학년생 중 미진학자 지원은 해당 학교에서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 미진학자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다양해 이를 뒷받침해주고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모니터링이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지원관을 개별 일반고에 파견하기에는 어려움으로 취업지원센터에 일반고 미진학자를 전담해 관리하는 취업지원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전문교육에서 융·복합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 계열별로 학교를 나누고 학교 간 이동을 어렵게 하는 현행 고교체계를 학교 안에서 계열을 나누고 어느 정도 전공계열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이나 북유럽 식의 종합학교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8-1 취업지원센터 일반고 미진학자 전담 취업지원관 배치
8-2 융·복합교육 중심의 종합고등학교 체계 구축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이 과제에 포함된 세부정책과제 중 취업지원센터 일반고 미진학자 전담 취업지원과 배치 과제는 특별히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고교체계를 종합고등학교로 개편하는 문제는 법 개정은 물론 공청회 등 교육 주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볼 수 있다.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취업지원센터 일반고 미진학자 전담 취업지원과 배치 과제는 고졸취업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고등학교 체계 구축은 장기과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지는 세밀한 예산 추정이 필요해 보인다.

(9) 대학 현장실습 및 인턴십 내실화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대학 현장실습 및 인턴십은 중등교육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과는 달리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대학 계약학과는 학생들에 대한 채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채용조건형과 직장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재교육형으로 나누어진다. 문제는 재교육형이 전체 계약학과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교육부, 2018).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계약학과는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계약학과 외에 중소벤처기업무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계약학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가 있다. 교육부의 계약학과 외에 두 부처에서 추진하는 계약학과들은 주로 재직자 재교육형이며 중소기업계약학과는 재학생 중 석사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학 계약학과 운영을 재교육형보다는 채용조건형으로 재편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새롭게 추진된 정책은 해외취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 정책사업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확대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해외에 취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경력을 개발하는 형태의 일 경험 중심으로 해외취업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에서는 에라스무스+(Erasmus+)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 연수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해외 연수 및 교육훈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취업사업과 함께 재학생들의 해외 연수 및 교육훈련, 인턴십 등을 확대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9-1 대학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재편 및 확대
9-2 한국형 에라스무스+(Erasmus+) 추진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이 과제에 포함된 2가지 세부과제 추진에 있어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대학 계약학과를 채용조건형 중심으로 재편하고 확대하는 부분은 기존 재교육형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줄여 확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예산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에라스무스+는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연수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역시 추가 예산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 대학원 학생 중심 R&D 지원 확대

① 정책과제 세부 내용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부분 정책사업들이 대학원에게 직접적으로 R&D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자체에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해 교수들을 지원하고 대학원생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BK21사업의 경우 석사, 박사 과정에서 연구비가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에게 연구비가 지원되고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한다. 반면, 일본에서 이루어진 유사 사업인 COE사업은 박사과정생은 물론 석사과정생에게도 직접 연구비가 지원되고 독자적인 연구 수행은 물론 결과 발표

를 하도록 해 실질적인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석사 및 박사 과정생에게 연구비가 별도로 지원되어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원 학생 중심 R&D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의 경우 연구교사나 박사 후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석사과정생도 자기주도석인 연구수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기반 학습(PBL) 과제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CT분야에 한해 석박사 인재 핵심 기술 관련 R&D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인데 분야를 ICT분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주로 생계형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형 창업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혁신형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0-1 대학원생 연구비 직접 지원 사업 확대 10-2 대학원생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

② 법적 근거 및 법률 제·개정

이 과제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은 특별히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③ 정책과제 추진 예산

이 과제의 세부 정책사업들의 추진 예산은 이미 대학에 지원이 되고 있는 R&D 예산에 대한 집행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4.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 과제 추진 로드맵(안)

이 연구에서는 학교 졸업예정자 정책과제로 10가지를 제안하였다. 10대 정책과제는 다시 28개의 세부정책과제로 나누어진다. 각 세부정책과제별로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개 세부정책과제들은 2020년까지 대부분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21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로 이루어질 사업들은 취업지원관 및 마이스터고 확대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팀 전환을 비롯하여 우수 인증기업 채용공개 의무화와 관리기관 설치, 장기형 자산형성 지원제도 마련, 고교 현장실습 협약학과 전환, 도제학교 수업 형태로 전환, 한국형 에라스무스+사업 추진 등이다.

장기과제인 3단계 세부정책사업들은 우선 취업지원관 및 마이스터고 확대와 취업연계기관 통합 추진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 종합고등학교 체계 구축 등이다.

세부 정책과제들은 대부분 기존 과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신규 과제들은 대학내 취업지원팀, 총괄조정기구 학교-기업 연계 점검반 운영,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공정 채용 및 채용정보 공개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들이 포함된다.

장기형 자산형성 지원제도 마련과 재학생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관련된 과제들, 그리고 진로변경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종합고등학교 체계 구축, 한국형 에라스무스 + 사업 추진 등이 신규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정책과제 로드맵은 다음의 표 Ⅶ-6에 제시하였다.

표 Ⅶ-6 학교졸업예정자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안)

정책과제	1단계 (∞20)	2단계 (21∞23)	3단계 (24∞)	신규/ 기존	법률 제·개정
1. 학교-기업 취업 연계체계화					
1-1 취업지원관 및 마이스터고 확대로 중등교육 취업기능 강화	◎	◎	◎	기존	
1-2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내 센터 취업지원팀 전환		◎		신규	
1-3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 학교-기업 연계 점검반 운영	◎			신규	◎
1-4. 취업연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통합추진체계 추진	◎		◎	신규	◎
2. 공정 채용 및 채용정보 공개 활성화					
2-1 학교졸업예정자 등 청년 대상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신규	◎
2-2 우수 인증기업 채용정보 공개 의무 법제화		◎		신규	◎
2-3 우수 중소기업 종합 관리기관 설치 고려		◎		신규	
2-4 채용 과정 연령차별 제한 등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	신규	◎
3.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지원대상 확대					
3-1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지원대상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포함 추진	◎			기존	
3-2 청년 내일채움공제 15세에서 18세 미만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3-3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사업 재학생, 졸업예정(유예)자 포함 검토	◎			기존	
4. 졸업 후 경제적 자립여건 조성					
4-1 어린 시기부터 5년 이상 장기형 자산형성 지원제도 마련		◎		신규	
4-2 재학생 포함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확대	◎			기존	
4-3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및 저신용 대학생 생활자금 대출 확대	◎			기존	
5. 재학생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5-1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관련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			신규	◎
5-2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참여기구 구성	◎			신규	◎
6. 진로교육 및 진로변경 지원 체계화					
6-1 수업시수 감축과 고1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활성화	◎			기존	
6-2 중등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활동 활성화	◎			기존	
6-3 진로변경 기회와 정보제공 강화 등 지원시스템 강화	◎			신규	
7.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편					
7-1 초중등교육법 수업 정의 현장실습 수업 포함 추진	◎			기존	◎
7-2 고교 현장실습을 협약학과 형태로 단계적 전환 추진		◎		기존	
7-3 도제학교 양질의 교육훈련을 통한 수업 형태로 추진		◎		기존	
8. 일반계고 직업과정 실효성 제고					
8-1 취업지원센터 일반고 미진학자 전담 취업지원관 배치	◎			기존	
8-2 융·복합교육 중심의 종합고등학교 체계 구축			◎	신규	◎
9. 대학 현장실습 및 인턴십 내실화					
9-1 대학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재편 및 확대	◎			기존	
9-2 한국형 에라스무스+(Erasmus+) 추진		◎		신규	◎
10. 대학원 학생 중심 R&D 지원 확대					
10-1 대학원생 연구비 직접 지원 사업 확대	◎			기존	
10-2 대학원생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	◎			기존	

* 출처: 자체 작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세욱 (2016).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서울: 국회 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2017). **2017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8). **2018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9). **2019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관계부처합동 (2014).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서울: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 (201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9a).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 사회관계장관회의 2019-1.

관계부처합동 (2019b).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안)**. 세종: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2019c).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세종: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018). **청년 일자리대책**.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교육부 (2018).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국토교통부 (2018. 10. 25).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기헌 (2004). 최근 일본 청년 노동시장 진단: 프리터(freeter)를 둘러싼 쟁점들. **국제노동브리프**, 2(2), 3-9.

김기헌 (2015).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보고 15-R4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2018a).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발전포럼(2018년 9월 11일, 서울 메트로빌딩 10층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3호실) 발표자료(내부자료).

김기헌 (2018b). 청년기본법(안) 검토 및 제정방향. **청년기본법 미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40-147.

김기헌 (2019). 「청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청년 관련 법안」 및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3-14.

김기헌,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연구보고 18-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이윤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연구보고 17-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도형, 박승규 (2017) **울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수요 분석** (2017년 울산광역시 정책이슈 리포트).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명중 (2016). 일본의 청년고용 현황과 청년층 취업지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16**(7), 91-111.

김문희 (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 사례 연구. **the HRD review**, **18**(1), 98-114.

김병관 의원실 (2019. 08. 27.). 2019년도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분석 자료 발표. 보도자료.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I** (연구보고 18-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019).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서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박귀천, 장명선, 이소라, 이수연, 강을영 (2015).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2013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3-R45).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법제처 (2019a).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관련 법률 검색**. http://www.law.go.kr에서 2019년 2월 7일 인출.

법제처 (2019b).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 http://www.law.go.kr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법제처 (2019c).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년기본법 검색**. http://www.law.go.kr에서 2019년 3월 2일 인출.

법제처 (2019d).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정채용법 검색**. http://www.law.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법제처 (2019e).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검색**. http://www.law.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법제처 (2019f).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초중등교육법 검색**. http://www.law.go.kr에서 2019년 9월 5일 인출.

양정승, 김유미 (2014). 마이스터고 정책의 초기 노동시장 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37**(3), 75-99.

온라인청년센터 (2019). **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9월 5일 인출.

이병희, 김혜원, 길현종, 오민홍 (2017).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조세현, 정서화, 정미나, 김기헌 (2019). 시민 참여형 정책협업을 위한 열린정책실험(Open Policy Lab): 스타트업 정책을 중심으로. **2019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혜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해외사례 조사** (연구보고 18-R17-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은실 (2019). **방치된 도제교육, 기간 연장된 또 다른 이름의 현장학습**. 오마이뉴스 칼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556136에서 2019년 7월 29일 인출.
통계청 (2019). **사회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에서 2019년 2월 13일 인출.
통계청 (2019). **취학률 및 진학률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에서 2019년 2월 13일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19). 청년패널 2007 1-10차 조사 통합설문지. https://survey.keis.or.kr/yp/ypque/List.jsp에서 2019년 4월 5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년 교육통계연보**.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8a). **간추린 교육통계**.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8b).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8c). **2018년 교육통계연보**.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자료 홈페이지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1-9차 조사 설문지. https://www.kedi.re.kr/khome/에서 2019년 4월 5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017-3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널연구 홈페이지 (2017). 12차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 설문지. https://www.krivet.re.kr/ku/ha/kuCACLs.jsp에서 2019년 4월 5일 인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제1-7차 조사표. https://www.nypi.re.kr/archive/에서 2019년 4월 5일 인출.
황진구, 유민상 (2017).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연구보고 17-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Brzinsky-Fay, C., Kohler, U., & Luniak, M., 2006, Sequence analysis with Stata. *Stata Journal*, *6*(4), 435.

Eurofound (2012). *NEETs-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Eurofound (2016). *Exploring the Diversity of NEETs*. Accessed on 23 June 2019. https://www.eurofound.europa.eu/sites/default/files/ef_publication/fi eld_ef_document/ef1602en.pdf.

OECD (2014). *Youth neither in employment, education nor training. (NEETs)*. Accessed on 16 January 2019. http://www.isw-linz.at/themen/dbdocs/OECD_Bericht_NEET.pdf.

Rees, G., Williamson, H., & Istance, D. (1996). 'Status Zero': a study of jobless school leavers in South Wales.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11*(2), 219-235.

Social Exclusion Unit (1999). *Bridging the Gap -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Accessed on 7 February 2019. http://dera.ioe.ac.uk/15119/2/bridging-the-gap.pdf.

SSB (2019). Samenwerk img Beroepsonderwijs Bedrijfsleven Homepage.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s-bb.nl.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OCTAE(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Accessed on 10 October 2019 from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vae/index.html.

内閣府 (2018). 平成30年版 子ども・若者白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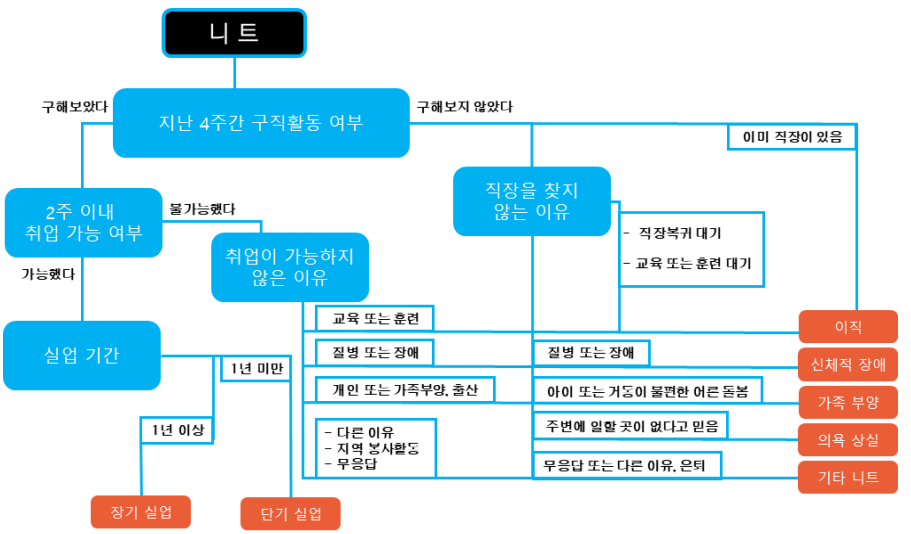
厚生勞動省(2004). *平成16年版 労働經濟白書*.

부 록

1. 2018년 청년 니트 관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설문 내용 수정 사항
2. 졸업 후 상황 분석 결과
3.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중·고등학생용)
4.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청년용)

부 록

1. 2018년 청년 니트 관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설문 내용 수정 사항



* 출처: Eurofound(2016). Exploring the Diversity of NEET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부록그림 1-1. 유럽연합(EU)의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에서 청년 니트 식별 과정

2018년 조사에서 다루었던 청년 니트(NEET) 관련 문항은 2018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출발점으로 구해본 사람 중에 취업가능 여부를 묻고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 청년 니트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노동력

조사에서 니트를 추정하는 첫 번째 방식이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질문 형식이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지난 주 주된 활동으로 달리한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심신장애로 묻고 있는 것을 질병 또는 장애로, 교육 및 훈련 대기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니트가 된 집단과 관련 문화예술, 오락 등 기타로 묻고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부록표 1-1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청년 니트 식별 및 유형 문항

구분	문항
청년 니트 식별 (2018)	문37)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해 보았습니까?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문38) 귀하는 지난 주에 정규교육기관(학교)을 다니셨습니까? ☞ 방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이므로 '① 예' 로 응답,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휴학이나 중퇴인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주거영역 문55로 이동 ② 아니오 문39) 귀하는 지난 주에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을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를 했지만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41로 이동 ② 아니오 문40) 귀하는 지난 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①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했다 ②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③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④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 ⑥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조사표에서 발췌.

다음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 청년 니트를 식별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노동력조사에서는 이러한 방식

으로 추가적인 니트 여부를 식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주 주된 활동을 묻고 있어 차이가 있다.

부록표 1-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청년 니트 식별 및 유형 문항 수정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 rowspan="3">청년
니트
식별
(2019)</td><td>문43)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47로 이동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44로 이동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45로 이동</td></tr>
<tr><td>문44) 귀하는 지난 주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문52로 이동
④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⑤ 진학 준비 중이서
⑥ 취업 준비 중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7로 이동</td></tr>
<tr><td>문45) 다음의 항목에서 지난 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table>
<tr><th>구 분</th><th>예</th><th>아니오</th></tr>
<tr><td>(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td><td>①</td><td>②</td></tr>
<tr><td>(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td><td>①</td><td>②</td></tr>
<tr><td>(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td><td>①</td><td>②</td></tr>
<tr><td>(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td><td>①</td><td>②</td></tr>
<tr><td>(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td><td>①</td><td>②</td></tr>
<tr><td>(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td><td>①</td><td>②</td></tr>
<tr><td>(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td><td>①</td><td>②</td></tr>
<tr><td>(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td><td>①</td><td>②</td></tr>
<tr><td>(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td><td>①</td><td>②</td></tr>
<tr><td>(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td><td>①</td><td>②</td></tr>
<tr><td>(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td><td>①</td><td>②</td></tr>
<tr><td>(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td><td>①</td><td>②</td></tr>
<tr><td>(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td><td>①</td><td>②</td></tr>
<tr><td>(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td><td>①</td><td>②</td></tr>
<tr><td>(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td><td>①</td><td>②</td></tr>
<tr><td>(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td><td>①</td><td>②</td></tr>
<tr><td>(17) 기타(적을 것 : _____)</td><td>①</td><td>②</td></tr>
</table>
</td></tr>
</table>

청년 니트 기간을 묻는 문항은 2018년 조사에서 1년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해 1년 이상 2년 미만과 2년 이상을 나누고자 한다. 동시에 장기 실업 여부를 묻는 문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자 한다. 동시에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을 기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제외하고자 한다.

부록표 1-3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청년 니트 기간 문항 수정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청년
니트
기간
(2018)</td><td>문41)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table>
<tr><th>선택(V)</th><th>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th></tr>
<tr><td>1) 1개월 미만(　　)</td><td>(　　)일 동안 지속 되었다.(예 : 15일)</td></tr>
<tr><td>2) 1개월 이상(　　)</td><td>(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예 : 3개월)</td></tr>
<tr><td>3) 1년 이상 (　　)</td><td>(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 1년 6개월)</td></tr>
</table></td></tr>
<tr><td>수정
문항
(2019)</td><td>문46)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table>
<tr><th>선택(V)</th><th>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th></tr>
<tr><td>1) 1개월 미만(　　)</td><td></td></tr>
<tr><td>2)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td><td>(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예 : 3개월)</td></tr>
<tr><td>3) 1년 이상 ~
2년 미만 (　　)</td><td>(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 1년 6개월)</td></tr>
<tr><td>4) 2년 이상 (　　)</td><td>(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 2년 6개월)</td></tr>
</table>
➡ 문52로 이동</td></tr>
</table>

* 출처 :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조사표에서 발췌.

청년들의 장기 실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현재 실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항도 신설하였다.

부록표 1-4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실업 기간 추가 문항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실업기간
추가
문항
(2019)</td><td>문47)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table>
<tr><th>선택(V)</th><th>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th></tr>
<tr><td>1) 1개월 미만(　　)</td><td></td></tr>
<tr><td>2)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td><td>(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예 : 3개월)</td></tr>
<tr><td>3) 1년 이상 ~ 2년 미만 (　　)</td><td>(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 1년 6개월)</td></tr>
<tr><td>4) 2년 이상 (　　)</td><td>(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 2년 6개월)</td></tr>
</table>
➡ 문52로 이동</td></tr>
</table>

2018년 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소득 규모에 대해 세후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으로 끝났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월 평균 소득도 함께 물어보고자 한다. 해당 문항에 추가로 실제 노동 시간과 희망하는 노동시간에 대한 문항을 물어 소득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도 얻고자 한다. 노동시간의 문항에는 부가 문항으로 주 35시간 이하의 응답자에게 근무시간 추가 가능 여부와 추가 근무를 위한 이직 고려 여부를 물음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한다. 동시에 확장실업률 혹은 실질실업률 추정과 관련하여 시간제 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를 식별하는 문항도 추가로 신설하였다.

부록표 1-5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월 평균 소득 문항 수정 및 추가

구분	문항
월평균 소득 (2018)	문42)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 만원
수정 문항 (2019)	문49)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추가 문항 (2019)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 시간 ➡ 주당 35시간 미만일 경우 문 49-3-1로 이동, 35시간 이상일 경우 '(4)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으로 이동 문49-3-1) 귀하는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문49-3-2)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 시간

* 출처 :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조사표에서 발췌.

2018년에 신설한 문항 중에 퇴사 및 해고 관련 문항과 실업급여 인지여부, 실업급여 수혜 경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묻는 문항은 그 필요성에 의해 2019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록표 1-6 전체 응답자 2018년 신설문항 유지

구분	문항
신설문항 유지 (2019년)	문54)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주거」영역(문57)으로 이동
	문55)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주거」영역(문57)으로 이동
	문56)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주거」영역(문57)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56-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④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조사표에서 발췌.

전체를 대상으로 물어본 문항들 중에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경험 문항을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상태를 세부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대체하고 기존의 문항은 삭제하였다. 신규로 추가된 문항은 우울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문항의 축약 버전으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의 복지패널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번역 버전이다.

부록표 1-7 전체 응답자 2018년 신설문항 삭제 및 대체문항 추가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신설
문항
삭제
(2018년)</td><td>문68)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table>
<tr><th>구분</th><th>응답</th></tr>
<tr><td>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able></td></tr>
<tr><td>정신건강
상태 파악
대체 문항
(2019)</td><td>문69)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table>
<tr><th>문 항</th><th>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th><th>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th><th>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th><th>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th></tr>
<tr><td>(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2) 비교적 잘 지냈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3) 상당히 우울했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9) 마음이 슬펐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td><td>⓪</td><td>①</td><td>②</td><td>③</td></tr>
</table></td></tr>
</table>

* 출처 :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조사표에서 발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조사표에서 발췌

청년 니트 식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했던 문항들은 2019년 조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부록표 1-8 청년 니트 대상 2018년 신설문항 삭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신설문항
삭제
(2018)</td><td>
문42) 다음 항목들 중에서 귀하가 교육이나 취업, 직업훈련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는 것과 같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
<table>
<tr><th>구 분</th><th>응 답</th></tr>
<tr><td>1) 업무 경험의 부족</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3) 자신감의 결여</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4) 금전적인 이유(학원비, 생활비 부족 등)</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5)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름</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6)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음</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7)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8)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9)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음</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10)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은 직장이 없음</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11)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음</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12)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줄 수 없음</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r><td>13) 나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됨</td><td>① 예 ② 아니오</td></tr>
</table>
문43)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① 심리, 정신 건강 문제 ② 신체 건강 문제
③ 가족 관계 ④ 친구나 연인 관계
⑤ 타인과의 관계 ⑥ 학업이나 진학문제
⑦ 취업 문제 ⑧ 경제적인 어려움
⑨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55) 귀하는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주거영역 문55로 이동
</td></tr>
</table>

* 출처 :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조사표에서 발췌.

2. 졸업 후 상황 분석 결과

1) 지역별 졸업 후 상황 분석(1999-2018)

(1) 일반계 고등학교

부록표 2-1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전 지역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18.1	17.4	18.9	84.5	84.0	85.0	12.6	13.0	12.1
2000	15.5	14.4	16.8	83.9	83.4	84.6	13.5	14.1	12.8
2001	18.9	18.5	19.4	85.3	85.5	85.0	11.9	11.7	12.1
2002	18.1	17.7	18.5	87.0	86.5	87.5	10.6	11.0	10.2
2003	17.6	16.3	19.1	90.2	89.8	90.5	8.1	8.5	7.7
2004	14.0	13.8	14.3	89.8	89.8	89.8	8.7	8.6	8.7
2005	12.1	11.8	12.5	88.3	87.8	88.8	10.2	10.6	9.8
2006	9.8	8.9	11.0	87.5	86.8	88.1	11.2	11.9	10.6
2007	6.8	6.6	7.1	87.1	86.3	88.0	11.9	12.7	11.1
2008	6.7	6.8	6.6	87.9	87.2	88.6	11.3	11.8	10.7
2009	4.8	4.6	5.0	84.9	83.7	86.3	14.2	15.4	13.0
2010	4.9	4.6	5.2	81.5	79.5	83.6	17.5	19.3	15.5
2011	4.4	4.0	4.9	75.2	72.0	78.6	23.6	26.6	20.3
2012	4.3	3.9	4.9	76.2	73.2	79.5	22.7	25.5	19.5
2013	4.8	4.6	5.1	77.5	74.3	81.0	21.3	24.2	18.0
2014	8.6	7.7	9.8	78.3	75.5	81.3	19.7	22.4	16.8
2015	9.1	8.7	9.7	78.5	75.7	81.5	19.4	21.9	16.6
2016	9.1	8.9	9.4	77.6	74.8	80.6	20.2	22.7	17.6
2017	8.5	8.5	8.5	76.9	74.1	79.8	21.0	23.4	18.4
2018	8.8	8.9	8.6	77.2	74.1	80.4	20.6	23.3	17.9

부록표 2-2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수도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14.0	13.7	14.2	76.5	76.1	76.9	20.1	20.4	19.8
2000	11.9	11.0	12.9	75.1	74.9	75.4	21.8	22.1	21.5
2001	15.2	16.0	14.4	76.6	77.2	75.9	19.8	19.0	20.6
2002	13.1	14.2	11.9	79.4	78.8	80.1	17.8	18.0	17.5
2003	14.3	13.4	15.2	84.5	84.1	84.9	13.3	13.7	12.8
2004	11.7	12.1	11.3	84.3	84.3	84.3	13.7	13.6	13.9
2005	10.3	9.8	10.9	82.8	82.3	83.4	15.3	15.7	14.8
2006	8.0	7.2	8.8	80.8	79.9	81.6	17.6	18.4	16.8
2007	5.3	5.4	5.2	79.9	78.6	81.2	19.0	20.1	17.8
2008	5.2	5.5	4.8	81.0	79.9	82.1	18.0	18.9	17.0
2009	3.7	3.9	3.5	76.5	74.6	78.5	22.5	24.1	20.7
2010	4.5	4.3	4.7	72.7	69.9	75.7	25.9	28.4	23.1
2011	3.9	3.6	4.4	65.7	61.9	69.8	32.8	36.4	28.9
2012	4.0	3.7	4.4	66.9	63.2	71.1	31.6	35.2	27.6
2013	4.5	4.2	4.9	68.6	64.8	72.8	29.8	33.4	25.8
2014	7.4	7.0	7.9	70.1	66.5	74.1	27.5	30.8	23.8
2015	8.5	8.2	8.9	70.7	67.0	74.5	26.6	29.9	23.1
2016	8.4	8.1	8.9	69.6	66.3	73.0	27.7	30.6	24.5
2017	7.9	8.0	7.8	68.8	65.5	72.4	28.5	31.4	25.4
2018	8.5	8.6	8.4	69.0	65.3	72.9	28.1	31.3	24.7

부록표 2-3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서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33.5	32.8	34.2	90.3	91.3	89.3	6.4	5.8	7.1
2000	32.6	30.8	34.4	90.0	90.5	89.4	6.8	6.6	7.0
2001	30.8	30.3	31.3	90.9	91.6	90.1	6.3	5.8	6.8
2002	47.8	42.0	52.7	92.3	93.0	91.6	4.0	4.0	4.0
2003	41.8	42.0	41.5	94.9	95.0	94.8	3.0	2.9	3.1
2004	38.0	36.5	39.4	95.0	95.2	94.8	3.1	3.0	3.1
2005	27.0	25.1	29.1	93.5	93.4	93.6	4.8	4.9	4.6
2006	24.6	20.8	28.9	93.1	92.9	93.3	5.2	5.6	4.8
2007	19.5	18.4	20.5	93.6	93.6	93.6	5.1	5.1	5.1
2008	18.0	15.7	20.6	94.3	94.2	94.4	4.6	4.7	4.4
2009	12.8	10.2	16.2	91.2	90.4	92.1	7.6	8.5	6.6
2010	10.0	8.4	12.1	88.8	87.6	90.1	10.0	11.2	8.7
2011	8.8	7.6	10.6	82.2	79.7	84.8	16.1	18.5	13.5
2012	9.1	7.8	11.1	83.3	81.3	85.5	15.0	17.0	12.8
2013	8.5	8.2	8.9	84.5	82.0	87.4	14.0	16.3	11.4
2014	15.0	12.0	19.6	83.7	80.7	87.0	13.7	16.8	10.5
2015	16.4	14.2	19.5	84.3	81.8	86.9	13.0	15.4	10.5
2016	17.8	16.9	19.2	83.6	81.3	86.0	13.3	15.3	11.2
2017	15.3	14.3	16.5	82.7	80.8	84.6	14.5	16.2	12.8
2018	14.0	14.0	14.0	83.6	80.8	86.5	13.9	16.2	11.6

부록표 2-4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강원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51.5	49.9	52.7	90.3	92.0	88.3	4.6	3.9	5.5
2000	47.1	48.3	46.1	91.7	93.0	90.2	4.3	3.6	5.3
2001	57.7	49.1	64.2	93.7	95.1	92.0	2.7	2.5	2.9
2002	48.3	41.0	57.4	94.2	94.2	94.3	2.9	3.3	2.4
2003	37.9	34.8	42.5	95.5	95.3	95.8	2.8	3.1	2.4
2004	42.8	44.2	40.9	95.7	95.5	96.1	2.4	2.5	2.3
2005	40.9	43.4	37.8	95.2	95.2	95.2	2.9	2.7	3.0
2006	37.9	31.3	47.4	95.5	95.2	95.8	2.8	3.3	2.2
2007	24.0	21.7	26.9	95.8	95.8	95.7	3.2	3.3	3.1
2008	20.2	15.4	27.4	94.6	94.1	95.3	4.3	4.9	3.4
2009	12.0	7.7	17.4	93.9	93.9	93.9	5.3	5.5	5.0
2010	8.7	7.1	11.2	90.6	90.0	91.3	8.5	9.1	7.7
2011	7.3	6.4	8.9	86.3	84.8	88.3	12.6	14.1	10.7
2012	8.8	8.9	8.6	86.5	85.2	88.3	12.2	13.4	10.7
2013	6.3	5.8	7.2	87.4	85.1	90.6	11.6	13.8	8.7
2014	18.6	12.2	27.1	87.3	85.3	89.2	10.2	12.6	7.8
2015	12.7	11.2	14.5	87.0	85.3	88.8	10.9	12.4	9.5
2016	13.5	15.7	10.9	86.8	85.4	88.1	11.3	12.0	10.6
2017	19.1	19.9	18.2	84.8	83.3	86.3	12.1	13.1	11.1
2018	18.7	18.8	18.5	85.4	84.3	86.6	11.7	12.6	10.9

부록표 2-5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남(제주)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21.5	18.6	24.8	92.9	92.9	92.8	5.6	5.7	5.4
2000	26.3	24.6	28.9	93.2	92.3	94.3	4.9	5.7	4.1
2001	29.6	28.3	31.5	93.9	93.4	94.4	4.3	4.7	3.8
2002	23.8	19.8	29.7	94.9	94.1	95.8	3.8	4.6	2.9
2003	22.3	16.6	29.0	95.5	95.4	95.7	3.5	3.8	3.1
2004	16.9	14.2	20.4	95.4	94.8	96.0	3.8	4.4	3.2
2005	13.0	14.4	11.5	93.2	93.1	93.3	5.9	5.8	6.0
2006	15.7	16.1	15.2	95.2	94.4	95.9	4.0	4.6	3.5
2007	9.8	11.2	8.4	94.6	94.5	94.7	4.8	4.8	4.9
2008	11.0	10.8	11.1	95.4	95.3	95.6	4.0	4.2	3.9
2009	7.5	5.7	10.0	95.2	94.4	96.0	4.4	5.1	3.6
2010	6.2	6.1	6.2	91.8	90.3	93.3	7.6	8.9	6.2
2011	6.1	7.0	4.7	85.8	83.2	88.5	13.2	15.3	11.0
2012	5.2	5.0	5.5	86.6	84.2	89.0	12.5	14.7	10.4
2013	7.4	8.6	5.5	88.2	85.7	90.9	10.7	12.7	8.6
2014	12.0	11.4	12.7	86.8	85.0	88.7	11.5	13.1	9.8
2015	11.5	12.3	10.4	86.6	84.6	88.7	11.6	13.2	10.0
2016	12.5	13.9	10.3	85.9	83.3	88.6	12.2	14.1	10.2
2017	11.3	11.4	11.0	84.5	82.0	87.0	13.6	15.7	11.5
2018	9.8	10.4	9.1	84.2	81.6	86.8	14.1	16.2	11.9

부록표 2-6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영남권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24.5	23.6	25.9	90.6	89.1	92.2	7.0	8.1	5.8
2000	18.0	16.3	20.5	90.7	89.4	92.1	7.6	8.9	6.2
2001	25.3	19.7	31.8	92.5	92.1	93.0	5.5	6.3	4.8
2002	26.9	24.4	30.0	93.4	93.0	93.9	4.8	5.2	4.3
2003	22.6	20.4	25.9	95.2	94.6	95.9	3.7	4.3	3.0
2004	14.8	12.6	17.3	94.6	94.6	94.6	4.6	4.7	4.5
2005	12.6	12.6	12.7	93.1	92.2	94.2	5.9	6.7	5.1
2006	10.2	8.9	11.9	93.2	92.6	94.0	6.1	6.7	5.3
2007	8.7	6.8	11.7	93.9	92.9	95.0	5.6	6.6	4.4
2008	8.9	9.0	8.9	94.0	93.4	94.6	5.5	6.0	4.9
2009	6.4	5.8	7.2	92.7	91.8	93.8	6.7	7.6	5.7
2010	4.0	3.8	4.2	89.9	88.6	91.4	9.6	10.8	8.2
2011	3.5	2.9	4.5	84.6	81.9	87.8	14.8	17.5	11.7
2012	3.0	2.6	3.6	85.4	83.0	88.0	14.1	16.4	11.5
2013	3.4	3.3	3.6	86.2	83.6	89.0	13.3	15.7	10.6
2014	7.4	5.9	9.3	86.5	85.1	88.0	12.4	13.8	10.9
2015	6.5	6.2	7.0	86.3	84.6	88.1	12.7	14.3	11.0
2016	5.8	5.5	6.2	85.6	83.4	87.9	13.4	15.5	11.4
2017	5.2	5.3	5.1	85.4	83.4	87.5	13.7	15.6	11.8
2018	5.4	5.6	5.1	85.9	83.8	88.0	13.2	15.0	11.3

(2) 직업계 고등학교

부록표 2-7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전 지역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83.4	82.9	83.9	38.5	43.9	33.4	10.1	9.5	10.7
2000	88.8	88.2	89.3	42.0	48.2	35.7	6.5	6.1	6.9
2001	88.2	86.5	89.6	44.9	50.8	38.9	6.5	6.6	6.4
2002	90.0	88.7	91.1	49.8	54.9	44.6	5.0	5.0	4.9
2003	90.2	88.0	92.0	57.6	63.5	51.5	4.1	4.4	3.9
2004	87.6	86.4	88.6	62.3	67.0	57.3	4.6	4.4	4.8
2005	86.3	84.5	87.7	67.6	72.7	62.0	4.4	4.2	4.7
2006	83.3	78.3	87.3	68.6	73.4	63.3	5.2	5.7	4.7
2007	71.6	63.1	78.7	71.5	75.7	66.6	8.0	8.8	7.1
2008	71.4	64.5	77.5	72.9	75.7	69.5	7.6	8.2	6.8
2009	64.7	59.1	69.8	73.5	75.8	70.8	9.1	9.4	8.8
2010	67.7	62.9	72.8	71.1	71.6	70.6	9.1	10.1	8.0
2011	66.0	61.2	71.3	63.7	64.4	62.9	12.0	13.2	10.7
2012	73.9	70.6	78.0	54.9	53.9	56.1	11.5	13.1	9.6
2013	67.9	65.3	71.5	47.4	44.4	51.0	16.7	18.9	14.0
2014	73.2	71.5	75.7	36.6	34.3	39.6	16.7	18.2	14.6
2015	73.3	71.7	75.6	34.6	31.7	38.4	17.2	18.8	14.9
2016	72.8	71.3	74.9	33.4	30.8	36.8	17.7	19.2	15.8
2017	76.1	75.7	76.6	31.2	29.0	34.3	16.2	16.9	15.2
2018	67.1	66.5	68.0	34.1	32.1	36.9	21.3	22.1	20.1

부록표 2-8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수도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1.4	81.3	81.4	31.4	37.2	26.0	12.7	11.6	13.8
2000	86.8	86.6	87.0	33.5	40.6	26.7	8.7	7.9	9.6
2001	86.7	84.2	88.7	35.7	42.3	29.2	8.5	9.1	8.0
2002	87.9	87.8	88.0	41.8	48.2	35.5	7.0	6.3	7.7
2003	87.5	85.0	89.3	49.9	58.0	41.7	6.2	6.2	6.2
2004	84.6	83.5	85.4	57.0	63.4	50.4	6.6	5.9	7.2
2005	81.6	80.0	82.8	65.7	72.2	58.9	6.2	5.4	7.1
2006	75.7	68.3	81.4	67.1	72.7	61.0	7.9	8.5	7.3
2007	62.1	52.4	69.9	68.7	73.0	64.0	11.8	12.6	10.8
2008	62.5	52.8	70.6	70.3	73.6	66.6	11.0	12.1	9.8
2009	54.6	47.8	60.6	71.7	74.1	69.0	12.5	12.9	12.2
2010	55.9	49.7	62.1	68.1	68.3	68.0	13.7	15.3	12.1
2011	59.6	55.2	64.1	60.9	60.9	61.0	15.5	16.9	14.0
2012	72.0	68.8	75.6	51.8	51.0	52.7	13.4	15.0	11.5
2013	65.9	62.5	69.7	44.1	42.0	46.3	19.0	21.5	16.3
2014	69.1	66.5	72.0	34.3	32.4	36.4	20.0	22.2	17.8
2015	69.8	67.6	72.3	32.4	29.8	35.2	20.0	22.1	17.8
2016	68.3	66.1	70.7	32.0	29.7	34.4	21.3	23.3	19.2
2017	71.9	70.8	73.1	30.1	28.1	32.3	19.4	20.6	18.1
2018	62.6	60.2	65.4	31.2	29.3	33.4	25.4	27.5	23.0

부록표 2-9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서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3.8	82.3	85.2	41.0	44.0	38.1	9.5	9.8	9.2
2000	93.1	92.5	93.6	44.0	50.0	37.6	3.8	3.7	4.0
2001	87.0	84.7	88.8	45.7	54.4	36.9	7.0	6.9	7.1
2002	90.3	86.2	93.6	47.3	55.0	38.9	5.1	6.2	3.9
2003	92.2	87.7	95.8	56.1	63.4	47.9	3.4	4.5	2.2
2004	89.5	82.9	95.1	59.9	64.9	54.3	4.2	5.9	2.3
2005	89.7	83.4	94.6	64.2	70.9	56.4	3.7	4.8	2.4
2006	92.7	87.2	96.3	66.5	75.2	55.8	2.5	3.2	1.6
2007	76.6	62.2	85.9	71.6	79.1	62.5	6.5	7.6	5.3
2008	79.8	71.7	85.2	71.7	78.0	63.9	5.5	5.6	5.3
2009	72.6	65.0	78.4	72.3	77.2	66.2	7.3	7.4	7.3
2010	79.0	72.1	85.4	68.1	71.2	64.1	6.5	7.5	5.2
2011	72.7	66.2	79.6	58.7	60.4	56.5	10.8	12.3	8.9
2012	82.4	78.4	87.2	51.9	53.1	50.3	8.3	9.8	6.3
2013	70.6	65.2	77.3	43.7	42.5	45.1	16.3	19.4	12.4
2014	81.7	79.0	85.6	36.7	35.5	38.3	11.3	13.2	8.8
2015	77.9	75.9	80.7	34.6	33.9	35.5	14.2	15.5	12.3
2016	77.8	76.5	79.5	33.7	31.8	36.3	14.2	15.3	12.7
2017	77.8	77.3	78.6	34.3	32.4	37.0	14.3	15.0	13.3
2018	68.4	69.0	67.5	36.0	34.5	38.2	19.9	19.8	19.9

부록표 2-10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강원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4.5	84.7	84.2	59.1	60.2	58.1	6.3	6.0	6.6
2000	87.1	88.8	85.8	59.2	62.0	56.7	5.2	4.2	6.1
2001	86.1	85.4	86.7	61.0	61.2	60.8	5.4	5.6	5.2
2002	90.7	91.7	89.9	67.9	69.1	66.7	3.0	2.6	3.4
2003	86.6	85.2	87.8	72.8	72.7	73.0	3.6	4.0	3.3
2004	81.8	79.6	83.7	76.4	76.5	76.2	4.3	4.7	3.9
2005	87.5	86.5	88.3	82.1	82.9	81.3	2.2	2.3	2.2
2006	88.0	85.2	90.3	81.1	81.6	80.7	2.2	2.6	1.9
2007	78.3	72.1	84.2	83.8	83.0	84.4	3.5	4.7	2.5
2008	85.3	82.4	88.2	85.2	84.7	85.6	2.2	2.7	1.7
2009	72.3	67.2	77.1	85.1	85.0	85.2	4.0	4.5	3.4
2010	72.4	67.9	76.4	82.6	82.1	82.9	4.7	5.4	4.0
2011	56.1	55.1	57.2	76.6	74.0	78.9	10.2	11.4	9.1
2012	52.4	46.3	60.0	72.6	67.9	77.0	12.8	16.6	9.2
2013	45.1	44.2	46.2	67.7	61.4	73.6	17.6	21.2	14.2
2014	67.4	65.8	70.6	39.4	39.6	38.9	19.3	19.9	17.9
2015	73.6	70.3	80.4	35.2	33.6	38.3	17.0	19.5	12.1
2016	69.2	66.4	75.0	33.4	31.0	38.0	20.4	23.1	15.4
2017	72.1	71.3	73.8	27.6	25.6	31.7	19.8	20.9	17.7
2018	62.7	62.0	64.0	31.4	31.0	32.3	25.1	25.6	24.1

부록표 2-11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호남(제주)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2.9	76.5	87.5	45.3	52.7	38.1	9.3	11.0	7.7
2000	88.6	85.2	91.2	49.3	56.1	42.6	5.7	6.4	5.1
2001	90.0	87.4	91.8	53.1	60.9	45.3	4.7	4.8	4.5
2002	89.5	85.7	92.6	54.1	59.1	49.0	4.8	5.8	3.8
2003	90.2	86.4	93.0	60.2	65.6	54.8	3.9	4.6	3.2
2004	88.8	88.1	89.5	62.0	66.2	57.3	4.2	4.0	4.5
2005	89.1	86.2	91.5	64.5	68.7	59.8	3.9	4.3	3.4
2006	87.9	83.9	91.6	65.5	68.8	61.7	4.1	4.9	3.2
2007	82.4	74.9	88.8	69.9	73.6	65.7	5.3	6.5	3.8
2008	76.0	70.5	81.1	71.8	73.9	69.5	6.5	7.2	5.8
2009	70.5	63.4	77.3	71.1	73.3	68.6	8.3	9.3	7.1
2010	74.6	69.1	80.9	70.7	70.1	71.4	7.3	9.0	5.5
2011	68.6	60.6	77.0	64.0	65.6	62.1	10.9	12.6	8.7
2012	64.2	54.4	76.6	56.7	56.1	57.4	15.1	19.1	10.0
2013	65.5	60.0	73.5	51.1	47.5	55.6	16.6	20.6	11.8
2014	71.8	68.9	76.2	38.9	35.3	43.7	16.9	19.6	13.3
2015	69.5	65.2	76.4	37.3	32.3	43.9	18.9	23.1	13.1
2016	73.5	70.5	78.0	35.3	32.2	39.5	16.6	19.1	13.1
2017	77.7	75.8	80.6	33.9	31.6	37.2	14.4	16.1	12.0
2018	65.0	62.6	68.9	37.4	34.4	41.6	21.4	23.8	17.8

부록표 2-12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8) - 영남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6.4	87.7	85.2	39.9	45.0	34.7	8.2	6.7	9.7
2000	90.6	90.1	91.0	45.6	50.7	40.0	5.1	4.9	5.4
2001	90.4	90.1	90.7	49.3	53.1	45.1	4.9	4.6	5.1
2002	93.5	92.3	94.6	55.3	58.5	51.9	2.9	3.2	2.6
2003	94.9	94.2	95.5	64.3	67.8	60.5	1.8	1.9	1.8
2004	92.2	92.4	92.1	68.0	71.0	64.6	2.5	2.2	2.8
2005	90.7	90.2	91.1	70.7	74.6	66.1	2.7	2.5	3.0
2006	88.3	85.7	90.5	71.0	74.7	66.5	3.4	3.6	3.2
2007	79.5	73.5	85.1	74.2	78.1	69.1	5.2	5.7	4.6
2008	79.6	75.3	84.3	75.5	77.2	73.2	4.9	5.4	4.2
2009	74.9	71.6	78.6	76.0	77.5	74.0	5.9	6.1	5.5
2010	80.9	78.5	83.8	75.0	75.4	74.5	4.7	5.1	4.1
2011	74.4	70.1	79.9	67.4	68.7	65.6	8.1	9.0	6.9
2012	81.5	81.3	81.7	56.6	54.9	59.0	7.8	8.0	7.5
2013	74.5	74.6	74.3	48.0	43.9	54.0	13.0	13.8	11.8
2014	77.6	77.1	78.6	38.5	35.2	44.2	13.5	14.4	11.9
2015	78.5	78.4	78.7	36.2	32.4	42.5	13.4	14.1	12.2
2016	77.7	76.7	79.4	34.4	31.0	40.0	14.2	15.3	12.3
2017	81.4	81.6	80.9	30.6	28.0	35.3	12.7	12.9	12.2
2018	75.5	76.2	74.2	36.1	33.7	40.8	15.3	15.4	15.2

(3) 전문대학

부록표 2-13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68.1	69.1	67.4	7.9	11.2	5.2	28.2	25.1	30.9
2000	79.4	81.0	78.2	6.6	8.7	5.0	18.6	16.0	20.7
2001	81.0	82.7	79.8	7.1	8.8	5.7	17.2	14.9	19.1
2002	80.7	82.9	79.2	7.8	9.3	6.8	17.4	14.6	19.4
2003	79.7	82.4	77.7	8.2	9.1	7.5	18.2	15.1	20.7
2004	77.2	79.1	75.6	6.6	7.8	5.6	21.0	18.6	23.0
2005	83.7	84.8	82.7	5.4	6.9	4.0	15.2	13.6	16.6
2006	84.2	84.3	84.0	4.2	5.5	3.0	15.0	14.5	15.5
2007	85.2	85.5	84.9	3.8	4.8	3.0	14.1	13.4	14.6
2008	85.6	85.9	85.4	3.9	4.6	3.3	13.5	12.9	14.1
2009	86.5	86.9	86.3	3.9	4.5	3.4	12.7	12.1	13.1
2010	55.6	56.0	55.2	3.6	4.1	3.3	41.1	40.1	41.9
2011	63.7	64.3	63.2	4.0	4.0	3.9	33.2	31.8	34.2
2012	63.8	64.2	63.5	4.0	3.9	4.0	33.0	31.8	33.8
2013	63.9	64.2	63.7	4.6	4.1	4.9	32.5	31.3	33.4
2014	67.4	66.9	67.7	4.5	4.1	4.9	29.2	28.5	29.7
2015	69.5	68.8	70.0	5.1	4.7	5.4	27.5	27.2	27.7
2016	70.6	69.5	71.4	5.0	4.5	5.4	26.6	26.7	26.5
2017	69.8	68.5	70.8	5.3	4.8	5.7	27.2	27.3	27.0

부록표 2-14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62.8	64.6	61.5	6.5	8.0	5.4	33.7	30.2	36.4
2000	75.9	78.9	73.9	5.8	6.8	5.0	22.1	18.5	24.8
2001	74.9	78.1	72.9	6.6	7.0	6.3	23.0	19.4	25.4
2002	74.1	77.0	72.3	7.1	7.0	7.2	23.6	20.4	25.7
2003	72.1	76.4	69.3	8.0	7.6	8.3	25.1	20.7	28.2
2004	70.2	73.1	68.0	5.5	6.1	4.9	27.7	24.3	30.4
2005	78.9	81.6	77.1	4.6	5.4	4.0	19.8	16.8	22.0
2006	79.9	80.7	79.3	3.5	4.2	3.0	19.1	18.0	20.0
2007	81.2	81.4	81.0	3.7	4.5	3.2	17.9	17.4	18.4
2008	81.8	81.6	82.0	4.0	4.3	3.7	17.2	17.1	17.3
2009	83.2	83.2	83.2	3.7	3.9	3.6	16.0	15.7	16.2
2010	53.7	55.4	52.5	3.5	3.8	3.2	43.7	41.7	45.1
2011	61.3	62.8	60.3	3.5	3.4	3.6	36.0	33.9	37.5
2012	61.7	62.3	61.4	3.6	3.3	3.8	35.5	34.4	36.3
2013	61.9	62.5	61.5	4.6	4.1	4.9	34.9	33.7	35.7
2014	66.4	66.7	66.1	4.5	3.7	5.1	30.6	29.3	31.4
2015	68.0	67.9	68.1	5.2	4.3	5.8	29.3	28.8	29.6
2016	69.6	69.7	69.6	5.2	4.2	5.9	27.9	27.4	28.3
2017	69.2	69.6	68.9	5.6	4.5	6.4	28.1	27.2	28.8

부록표 2-15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77.2	78.0	76.7	11.8	18.3	6.9	19.1	15.6	21.7
2000	87.1	88.7	86.1	9.1	11.2	7.5	11.2	8.9	12.9
2001	83.7	84.6	83.1	10.0	13.3	7.5	14.1	12.1	15.6
2002	81.7	83.5	80.5	13.9	15.9	12.5	15.0	12.4	17.0
2003	83.9	85.7	82.6	13.8	14.7	13.1	13.3	11.2	15.1
2004	82.8	83.3	82.4	12.4	14.7	10.4	14.7	13.5	15.8
2005	87.3	87.0	87.6	7.3	10.0	4.8	11.5	11.1	11.8
2006	88.9	87.6	90.2	7.2	9.3	4.9	10.1	10.9	9.3
2007	89.5	89.3	89.6	5.2	6.7	3.8	9.8	9.7	10.0
2008	90.6	90.1	91.0	5.7	7.3	4.1	8.6	8.6	8.6
2009	90.6	89.9	91.1	5.7	7.2	4.5	8.7	8.9	8.5
2010	56.2	54.5	57.4	5.3	6.1	4.6	39.6	39.9	39.3
2011	65.0	64.1	65.8	5.5	5.8	5.2	31.3	30.8	31.6
2012	64.9	63.8	65.7	5.3	5.7	4.9	31.2	30.8	31.6
2013	65.8	65.0	66.4	5.6	5.5	5.7	30.2	29.4	30.9
2014	68.3	66.0	70.1	5.6	5.4	5.8	27.8	28.3	27.5
2015	69.8	68.7	70.6	6.3	6.4	6.3	26.6	26.1	27.0
2016	70.5	69.1	71.7	5.8	5.6	6.0	26.2	26.1	26.3
2017	70.2	68.5	71.6	5.9	5.7	6.1	26.3	26.3	26.3

부록표 2-16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72.6	76.7	69.9	12.9	19.1	7.5	22.6	16.6	27.9
2000	79.2	79.5	79.0	11.1	15.9	6.5	17.3	14.9	19.7
2001	82.5	83.6	81.6	8.9	12.0	5.8	15.3	13.2	17.4
2002	78.4	79.5	77.5	7.6	10.3	5.3	19.3	17.0	21.3
2003	80.0	82.4	78.3	8.5	10.8	6.8	17.8	14.7	20.3
2004	72.4	73.4	71.5	7.9	9.3	6.6	24.8	22.9	26.6
2005	82.6	81.8	83.2	7.7	10.6	5.1	15.6	15.2	15.9
2006	78.0	78.0	78.0	6.0	8.1	3.7	20.3	19.5	21.2
2007	81.2	80.4	81.9	6.0	8.0	3.7	17.3	17.3	17.3
2008	82.7	83.3	82.1	4.7	6.0	3.4	15.8	14.5	17.1
2009	86.2	89.0	84.0	5.9	7.6	4.5	12.5	9.6	15.1
2010	59.1	59.0	59.2	4.6	5.1	4.2	36.7	35.6	37.6
2011	68.1	69.3	67.2	4.7	5.0	4.4	28.8	26.7	30.6
2012	67.2	68.0	66.5	4.9	5.4	4.5	29.2	27.0	31.2
2013	67.1	68.2	66.2	5.1	5.0	5.1	28.9	26.1	31.2
2014	70.4	70.0	70.7	6.5	6.3	6.6	25.4	24.0	26.4
2015	71.4	71.1	71.6	6.6	7.3	5.9	25.0	23.2	26.3
2016	72.5	71.6	73.3	6.5	6.7	6.3	23.8	23.1	24.6
2017	68.9	68.0	69.7	5.9	6.0	5.7	26.9	25.8	27.9

부록표 2-17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78.0	78.8	77.6	10.3	15.1	6.4	18.8	16.1	21.0
2000	86.1	86.8	85.6	8.0	9.5	6.8	12.3	10.8	13.4
2001	83.7	84.3	83.2	9.1	11.8	7.0	14.3	12.7	15.6
2002	82.1	83.9	81.0	12.5	14.1	11.3	15.0	12.4	16.9
2003	84.4	86.0	83.2	12.4	13.3	11.8	13.2	11.2	14.8
2004	82.6	82.9	82.3	11.3	13.4	9.5	15.1	14.0	16.0
2005	87.5	86.9	88.0	6.9	9.4	4.5	11.4	11.3	11.5
2006	88.6	87.0	90.2	6.6	8.7	4.6	10.4	11.5	9.3
2007	89.5	88.9	90.1	5.0	6.2	3.7	9.8	10.1	9.5
2008	90.9	90.5	91.2	5.5	6.9	4.1	8.4	8.4	8.4
2009	91.0	90.3	91.5	5.6	7.0	4.4	8.3	8.6	8.0
2010	57.1	55.1	58.5	5.1	5.9	4.5	38.7	39.4	38.2
2011	64.9	63.5	66.0	5.0	5.4	4.7	31.4	31.4	31.4
2012	64.8	63.4	65.8	5.0	5.5	4.7	31.1	31.0	31.2
2013	66.0	64.9	66.9	5.4	5.2	5.5	30.0	29.5	30.3
2014	68.3	65.8	70.1	5.4	5.3	5.5	27.9	28.5	27.4
2015	69.8	68.3	70.9	6.1	6.1	6.0	26.6	26.5	26.6
2016	70.8	69.2	72.0	5.6	5.4	5.7	25.9	25.9	25.9
2017	70.4	68.2	72.1	5.6	5.5	5.6	26.1	26.5	25.7

부록표 2-18 전문대학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70.2	70.6	69.9	7.7	11.8	4.2	26.7	24.2	28.8
2000	81.6	82.9	80.7	6.3	8.6	4.3	16.7	14.7	18.4
2001	86.4	86.8	86.1	6.7	9.0	4.8	12.4	11.4	13.3
2002	86.9	88.3	85.8	7.2	9.5	5.3	12.0	10.2	13.4
2003	86.1	87.3	85.2	7.4	9.2	5.9	12.7	11.1	14.0
2004	83.6	84.9	82.5	6.4	7.8	5.1	15.2	13.6	16.6
2005	88.3	88.4	88.2	5.7	7.6	3.9	10.9	10.5	11.3
2006	88.7	88.3	89.2	4.1	5.6	2.6	10.7	10.9	10.5
2007	89.7	89.8	89.6	3.4	4.4	2.4	9.8	9.6	10.1
2008	90.2	90.5	90.0	3.4	4.2	2.6	9.3	8.8	9.6
2009	90.9	91.0	90.7	3.6	4.0	3.2	8.6	8.3	8.8
2010	57.5	58.3	56.9	3.4	3.8	3.0	39.0	37.8	39.9
2011	66.5	67.0	66.1	4.2	4.1	4.2	30.3	29.3	31.2
2012	66.4	67.4	65.7	4.1	3.8	4.3	30.4	29.1	31.5
2013	65.8	66.2	65.4	4.5	3.8	5.0	30.9	29.7	31.8
2014	68.4	68.0	68.8	4.3	3.9	4.5	28.2	27.7	28.7
2015	70.9	69.8	71.8	4.7	4.5	4.9	26.2	26.4	26.1
2016	71.7	69.5	73.6	4.7	4.5	4.9	25.6	26.9	24.6
2017	71.1	68.1	73.4	4.9	5.0	4.9	26.1	27.7	24.7

(4) 4년제 대학교

부록표 2-19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51.3	52.6	50.0	12.8	15.5	9.6	41.8	38.9	45.2
2000	56.0	58.6	53.4	12.1	14.3	9.7	38.2	34.7	42.1
2001	56.7	59.0	54.1	11.3	12.6	9.9	38.0	35.1	41.3
2002	60.7	62.3	59.1	12.1	13.4	10.6	34.2	32.0	36.6
2003	59.2	61.6	56.7	12.1	13.0	11.1	35.5	32.7	38.5
2004	56.4	59.3	53.5	11.1	11.8	10.4	38.3	35.0	41.7
2005	65.0	67.7	62.3	10.7	11.3	10.0	30.9	28.1	33.9
2006	67.3	70.0	64.7	10.0	10.6	9.3	29.1	26.4	31.9
2007	68.0	70.5	65.3	9.9	10.6	9.1	28.5	25.9	31.3
2008	68.9	71.2	66.5	9.6	10.3	8.7	27.3	24.6	30.3
2009	68.2	70.2	66.1	9.6	10.5	8.7	28.2	26.2	30.5
2010	51.9	55.7	47.9	8.9	9.7	7.9	42.6	39.0	46.6
2011	61.2	65.7	56.4	8.7	9.3	8.0	33.8	29.7	38.3
2012	61.7	65.5	57.7	8.8	9.6	8.0	32.8	29.3	36.6
2013	60.4	64.1	56.6	8.8	9.9	7.6	33.8	30.3	37.5
2014	64.3	66.9	61.7	8.5	9.6	7.3	30.7	28.0	33.4
2015	64.4	66.4	62.4	7.9	8.9	6.9	31.3	29.1	33.5
2016	64.3	66.3	62.3	7.3	8.3	6.3	31.8	29.6	34.0
2017	62.6	64.9	60.4	6.8	7.7	6.0	33.4	31.0	35.7

부록표 2-20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54.1	55.7	52.4	16.6	19.8	12.8	37.5	34.2	41.5
2000	60.3	63.3	57.1	15.3	17.6	12.7	33.1	29.3	37.4
2001	60.4	63.6	56.9	14.1	15.2	12.8	33.7	30.3	37.6
2002	61.7	64.7	58.6	14.9	16.3	13.4	32.3	29.0	35.8
2003	61.9	65.1	58.6	16.2	17.0	15.2	31.5	28.3	35.1
2004	58.6	63.8	53.6	14.6	15.4	13.7	34.9	29.8	40.1
2005	69.4	72.5	66.5	14.1	14.6	13.5	25.9	22.9	29.0
2006	70.3	74.0	66.8	13.3	14.0	12.5	25.3	21.8	28.9
2007	69.1	72.9	65.3	13.2	14.2	12.3	26.4	22.8	30.2
2008	68.2	71.6	64.9	13.2	14.1	12.2	26.7	23.0	30.6
2009	66.1	69.2	63.0	13.4	14.5	12.3	28.9	25.7	32.1
2010	53.0	58.9	47.4	11.9	13.2	10.7	40.6	35.0	46.1
2011	62.6	69.1	56.1	11.6	12.4	10.8	31.7	25.9	37.7
2012	63.7	69.2	58.4	11.6	12.7	10.5	30.4	25.4	35.3
2013	62.2	67.5	57.3	11.6	13.2	10.0	31.3	26.4	36.0
2014	66.0	69.9	62.5	11.2	12.9	9.5	28.3	24.4	31.9
2015	65.9	69.0	63.1	10.6	12.2	9.1	28.9	25.7	31.9
2016	66.2	69.5	63.4	9.7	11.3	8.3	29.0	25.6	32.1
2017	64.8	68.3	61.7	9.3	10.7	8.0	30.4	26.9	33.7

부록표 2-21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52.3	54.0	50.4	10.7	13.2	7.6	42.2	39.1	45.8
2000	59.0	61.4	56.5	10.8	12.7	8.6	36.1	32.9	39.8
2001	61.0	62.8	58.9	10.0	11.4	8.3	34.7	32.2	37.6
2002	65.0	65.3	64.6	11.1	12.6	9.3	30.8	29.6	32.1
2003	64.0	65.5	62.3	10.1	11.3	8.8	32.0	30.0	34.3
2004	59.3	59.8	58.8	9.1	10.2	8.0	36.6	35.3	37.9
2005	67.9	69.5	66.2	9.1	10.1	8.1	28.9	26.8	31.0
2006	70.2	72.4	68.1	7.9	8.6	7.2	27.2	24.9	29.5
2007	70.3	71.7	68.8	8.0	8.9	7.1	27.0	25.4	28.7
2008	71.8	73.0	70.5	7.5	8.7	6.2	25.3	23.6	27.4
2009	70.7	71.4	69.9	7.0	8.0	5.8	26.8	25.8	27.9
2010	48.5	50.5	46.2	7.0	8.2	5.7	46.5	44.2	49.0
2011	59.5	62.5	56.4	7.2	8.4	5.9	35.9	32.8	39.1
2012	60.1	62.2	57.8	7.4	8.6	6.0	34.7	32.4	37.2
2013	59.8	61.8	57.7	7.2	8.6	5.8	35.0	32.6	37.4
2014	64.3	65.4	63.2	6.9	8.3	5.3	31.4	29.8	33.0
2015	64.9	66.4	63.5	6.4	7.5	5.4	31.4	29.6	33.2
2016	65.7	67.0	64.5	6.0	7.2	4.8	31.1	29.5	32.7
2017	64.2	65.9	62.4	5.4	6.4	4.3	32.5	30.5	34.5

부록표 2-22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45.7	46.6	44.4	12.4	13.4	10.9	46.6	44.7	49.5
2000	54.5	55.4	53.4	14.6	18.5	9.0	38.4	35.6	42.4
2001	55.4	56.4	54.2	11.2	13.3	8.5	38.9	36.6	41.9
2002	63.1	62.7	63.5	11.7	12.6	10.5	32.0	31.5	32.7
2003	57.1	57.4	56.8	11.4	12.1	10.6	37.5	36.7	38.6
2004	50.1	50.2	49.9	10.1	10.4	9.7	43.9	42.8	45.2
2005	64.2	66.5	61.6	9.8	11.0	8.4	31.9	29.2	35.2
2006	66.2	67.2	65.1	9.4	10.4	8.2	30.3	28.9	31.9
2007	67.4	68.0	66.5	8.4	9.1	7.4	29.6	28.6	30.9
2008	68.8	68.8	68.8	8.4	9.0	7.6	27.8	27.3	28.7
2009	70.8	70.5	71.2	7.9	8.7	6.8	26.5	26.5	26.5
2010	52.7	53.8	51.0	7.6	7.7	7.3	42.7	41.7	44.0
2011	60.5	61.1	59.7	7.3	7.9	6.5	35.5	34.7	36.5
2012	61.1	62.2	59.7	7.6	8.2	6.9	34.4	33.2	35.9
2013	60.6	61.6	59.2	7.2	7.8	6.4	35.1	34.0	36.7
2014	63.8	64.5	63.0	6.6	7.0	6.0	32.6	31.7	33.6
2015	62.6	63.2	61.9	5.9	6.3	5.4	34.1	33.4	35.0
2016	63.4	63.7	63.0	5.7	6.1	5.2	33.6	33.1	34.2
2017	62.5	63.2	61.7	5.1	5.6	4.5	34.6	33.7	35.7

부록표 2-23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52.3	53.7	50.7	10.6	13.1	7.6	42.2	39.4	45.5
2000	58.7	60.7	56.5	10.6	12.5	8.5	36.5	33.5	39.8
2001	60.6	62.3	58.7	10.0	11.5	8.3	35.1	32.7	37.9
2002	64.5	64.6	64.3	10.9	12.4	9.2	31.3	30.3	32.4
2003	63.7	65.1	62.1	10.0	11.2	8.7	32.4	30.4	34.6
2004	58.8	59.3	58.3	9.0	10.0	7.9	37.1	35.8	38.4
2005	67.0	68.6	65.4	9.1	10.0	8.1	29.7	27.7	31.8
2006	69.6	71.7	67.5	7.8	8.5	7.1	27.8	25.5	30.1
2007	69.7	71.0	68.2	8.0	8.8	7.1	27.6	26.1	29.3
2008	71.2	72.4	70.0	7.5	8.6	6.3	25.9	24.1	27.8
2009	70.1	70.8	69.3	6.9	7.9	5.8	27.4	26.4	28.5
2010	48.5	50.5	46.3	7.0	8.1	5.6	46.5	44.2	49.0
2011	59.4	62.4	56.3	7.2	8.3	5.9	36.0	33.0	39.2
2012	59.8	61.9	57.6	7.2	8.4	6.0	35.0	32.7	37.4
2013	59.6	61.6	57.6	7.1	8.4	5.7	35.1	32.8	37.5
2014	64.2	65.2	63.2	6.8	8.2	5.3	31.5	30.0	33.0
2015	64.8	66.2	63.3	6.4	7.4	5.3	31.5	29.7	33.3
2016	65.5	66.7	64.3	5.9	7.1	4.7	31.3	29.7	32.9
2017	64.1	65.9	62.3	5.3	6.4	4.3	32.5	30.5	34.6

부록표 2-24 4년제 대학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50.8	52.1	49.5	10.5	13.3	7.5	43.6	40.7	46.7
2000	52.9	55.8	50.1	10.0	12.4	7.5	42.1	38.1	46.1
2001	54.0	56.4	51.5	9.3	10.8	7.8	41.4	38.3	44.7
2002	61.2	63.1	59.5	10.1	11.8	8.5	34.6	32.0	37.1
2003	59.4	62.3	56.6	9.5	10.7	8.2	36.5	33.2	39.8
2004	57.2	60.3	54.3	8.6	9.5	7.8	38.8	35.3	42.1
2005	62.5	66.1	59.0	8.2	8.9	7.5	34.2	30.4	37.9
2006	65.7	68.1	63.3	8.3	8.9	7.6	31.2	28.7	33.8
2007	66.6	69.0	64.1	8.0	8.7	7.1	30.4	27.9	33.2
2008	67.8	70.1	65.5	7.5	8.2	6.7	29.0	26.4	31.8
2009	68.3	69.9	66.6	7.9	8.8	6.8	28.8	27.0	30.7
2010	53.6	57.2	49.4	7.1	7.8	6.2	42.0	38.5	46.0
2011	61.6	66.1	56.5	6.9	7.2	6.5	34.1	30.0	38.8
2012	61.3	65.4	56.7	7.0	7.5	6.4	33.7	30.1	37.8
2013	59.8	63.9	55.3	7.0	7.9	6.0	35.2	31.4	39.5
2014	63.0	65.8	60.1	6.7	7.5	5.9	32.5	29.8	35.5
2015	63.2	65.0	61.3	6.3	6.9	5.6	33.2	31.3	35.3
2016	61.6	63.4	59.8	6.0	6.5	5.3	35.0	33.0	37.0
2017	59.3	60.9	57.5	5.4	5.9	4.9	37.3	35.5	39.2

(5) 일반대학원

부록표 2-25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전 지역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74.5	78.6	65.3	15.8	17.4	11.6	21.0	17.2	30.7
2000	77.7	81.6	68.6	15.2	16.5	12.0	18.7	15.1	27.7
2001	78.6	82.7	69.5	13.2	14.0	11.4	18.4	14.7	27.1
2002	79.2	82.5	72.4	13.0	13.5	11.8	18.0	14.9	24.3
2003	77.6	80.5	72.1	12.9	13.0	12.7	19.3	16.7	24.4
2004	77.1	81.0	69.8	11.8	11.4	12.8	20.0	16.7	26.3
2005	80.0	83.1	74.5	10.5	10.3	10.9	17.8	15.0	22.7
2006	81.9	85.2	76.1	10.1	9.9	10.5	15.7	12.8	20.6
2007	81.7	85.3	75.8	10.9	11.0	10.8	15.5	12.4	20.4
2008	81.6	85.1	76.2	10.1	10.1	10.0	15.5	12.6	20.0
2009	79.9	83.6	74.3	9.4	9.5	9.3	16.8	13.8	21.3
2010	70.7	78.9	58.3	8.5	8.9	7.8	24.2	17.6	33.8
2011	75.4	83.9	62.6	8.2	8.3	8.1	20.0	13.2	29.8
2012	75.0	82.1	64.8	7.5	7.3	7.9	19.8	14.3	27.4
2013	74.2	82.1	63.6	7.1	7.1	7.1	20.3	14.2	28.0
2014	77.4	83.1	69.9	6.6	6.8	6.4	17.6	13.3	23.2
2015	77.8	83.1	70.9	6.8	7.3	6.0	17.6	13.5	22.7
2016	78.3	83.0	72.4	6.4	6.8	5.9	17.3	13.7	21.8
2017	77.7	82.9	71.3	6.3	6.7	5.7	17.7	13.8	22.3

부록표 2-26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수도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71.8	76.2	62.6	17.0	18.8	12.6	22.8	18.6	32.7
2000	76.6	81.4	66.0	17.0	18.8	12.8	19.1	14.7	29.7
2001	75.3	80.3	64.9	13.9	15.0	11.4	21.1	16.6	31.1
2002	77.5	81.4	70.3	13.8	14.8	11.9	19.2	15.6	26.2
2003	74.9	77.9	69.6	13.0	13.6	12.1	21.7	18.9	26.7
2004	72.9	77.6	64.9	11.9	11.5	12.6	23.7	19.6	30.7
2005	78.9	82.0	73.9	10.9	10.7	11.2	18.6	15.9	23.1
2006	80.7	84.4	74.8	11.0	10.9	11.3	16.6	13.4	21.6
2007	79.4	83.2	74.0	12.2	12.6	11.5	17.4	14.1	22.1
2008	79.0	82.9	73.4	11.0	11.4	10.5	17.7	14.4	22.5
2009	76.7	80.9	71.0	10.6	11.0	10.1	19.5	16.0	24.3
2010	67.0	76.2	54.6	9.0	9.7	8.1	27.6	20.1	37.5
2011	72.3	81.9	59.5	8.2	8.4	8.0	22.7	15.0	32.7
2012	72.3	80.5	61.7	7.7	7.6	7.8	22.3	16.0	30.2
2013	71.2	79.8	61.4	7.2	7.6	6.9	23.0	16.3	30.3
2014	75.2	81.3	68.3	6.8	7.1	6.4	19.6	14.8	24.8
2015	76.0	82.0	69.5	6.1	6.4	5.7	19.4	14.8	24.3
2016	76.5	82.0	70.5	5.5	5.6	5.4	19.1	14.8	23.6
2017	75.7	81.4	69.4	5.3	5.2	5.3	19.6	15.5	23.9

부록표 2-27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서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8.1	90.4	82.6	12.5	14.4	7.6	10.3	8.2	16.1
2000	89.5	91.8	83.4	10.6	11.2	8.7	9.3	7.2	15.1
2001	88.0	88.6	86.3	9.3	10.0	7.4	10.9	10.2	12.7
2002	81.4	85.3	73.1	8.9	9.2	8.2	16.9	13.3	24.7
2003	83.3	85.9	77.9	9.3	9.0	10.0	15.1	12.8	19.9
2004	83.6	85.6	79.6	7.0	6.7	7.6	15.2	13.4	18.9
2005	82.6	85.1	77.4	8.4	8.3	8.5	15.9	13.6	20.7
2006	85.6	89.5	78.9	6.0	6.1	5.9	12.9	9.4	19.1
2007	85.5	89.5	79.0	7.5	7.4	7.6	12.6	9.2	18.1
2008	85.7	88.3	81.4	6.2	6.4	5.9	12.5	10.2	16.2
2009	84.7	88.2	78.8	5.7	6.1	5.0	13.0	10.0	17.7
2010	79.1	84.6	68.2	7.2	8.4	4.9	17.1	12.8	25.5
2011	83.6	88.8	73.4	8.2	9.5	5.5	12.9	8.9	20.9
2012	81.5	85.8	73.2	7.0	6.7	7.4	13.9	10.7	19.8
2013	82.0	87.4	72.1	6.7	6.7	6.7	13.6	9.6	20.6
2014	82.8	86.8	75.5	5.8	6.1	5.5	13.2	10.2	18.6
2015	83.3	86.8	76.8	8.6	10.4	5.4	12.9	10.2	17.9
2016	83.7	86.7	78.3	7.9	9.2	5.6	13.1	10.7	17.4
2017	82.6	85.9	76.8	8.7	10.3	5.8	13.8	11.2	18.3

부록표 2-28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강원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70.9	73.0	62.3	7.6	7.3	8.8	26.6	24.6	34.4
2000	84.0	84.2	83.3	9.7	9.6	10.0	14.3	14.1	15.0
2001	82.8	84.4	77.5	13.5	12.7	16.2	14.7	13.5	18.8
2002	87.8	88.7	84.8	9.7	10.4	7.1	10.9	10.1	14.1
2003	63.5	65.7	57.6	11.4	10.7	13.2	32.3	30.7	36.8
2004	78.4	79.0	77.0	12.3	12.0	13.2	18.8	18.3	20.0
2005	83.8	84.0	83.3	13.3	13.0	14.0	13.8	13.6	14.3
2006	82.7	84.0	79.5	11.1	10.4	12.7	14.8	13.8	16.9
2007	79.7	79.6	79.9	11.1	10.2	13.4	16.8	17.3	15.6
2008	85.2	87.5	79.6	10.6	9.9	12.3	12.2	10.5	16.0
2009	80.7	82.0	78.2	7.4	8.2	5.7	15.9	14.8	18.2
2010	77.5	81.9	68.4	8.5	8.2	9.0	17.7	14.7	23.3
2011	79.6	85.8	66.3	7.0	7.3	6.3	16.7	12.1	25.5
2012	79.4	82.4	74.1	6.0	4.9	7.8	16.9	15.2	19.5
2013	78.0	80.8	72.4	6.3	6.7	5.6	17.4	15.7	20.5
2014	77.8	79.7	74.6	7.9	8.9	6.2	17.2	16.5	18.4
2015	77.6	80.7	72.2	6.7	6.4	7.3	18.1	16.3	20.8
2016	81.3	86.0	73.6	4.9	5.3	4.2	15.0	11.6	20.0
2017	80.0	83.8	74.0	6.0	5.8	6.4	15.3	12.9	18.9

부록표 2-29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호남(제주)권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7.8	90.0	82.5	12.5	14.4	7.5	10.6	8.5	16.2
2000	89.2	91.4	83.4	10.7	11.3	8.9	9.5	7.5	15.1
2001	87.4	88.1	85.8	9.3	10.0	7.5	11.4	10.7	13.2
2002	81.3	85.0	73.3	9.0	9.4	8.1	16.9	13.5	24.5
2003	83.1	85.7	77.4	9.6	9.1	10.5	15.3	12.9	20.2
2004	85.8	87.9	81.0	17.1	16.7	18.0	11.5	9.8	15.6
2005	83.0	85.9	76.6	9.7	8.9	11.5	15.2	12.7	20.8
2006	85.4	89.1	78.8	6.3	6.4	6.0	13.1	9.7	19.2
2007	85.2	89.1	78.7	7.8	7.7	7.9	12.9	9.5	18.4
2008	85.5	88.0	81.3	6.4	6.7	6.0	12.6	10.4	16.2
2009	84.8	88.3	79.0	5.9	6.4	5.0	12.8	9.9	17.5
2010	79.1	84.6	68.1	7.3	8.5	5.0	17.1	12.7	25.5
2011	83.2	88.5	72.9	8.4	9.8	5.7	13.2	9.1	21.2
2012	81.1	85.3	72.8	7.0	6.8	7.5	14.2	11.1	20.1
2013	81.6	86.9	71.7	6.8	6.8	6.8	13.9	9.9	20.9
2014	82.6	86.5	75.3	5.8	6.0	5.5	13.3	10.4	18.6
2015	83.1	86.7	76.4	8.6	10.2	5.5	13.1	10.3	18.3
2016	83.2	86.3	77.7	7.8	9.0	5.5	13.5	11.0	17.9
2017	82.6	85.9	76.8	8.7	10.3	5.8	13.8	11.2	18.3

부록표 2-30 일반대학원 지역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영남권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73.2	78.0	61.6	15.4	17.3	10.4	22.4	17.9	34.4
2000	79.1	82.2	71.2	13.0	14.0	10.2	18.1	15.2	25.9
2001	79.8	83.6	70.2	13.2	13.9	11.4	17.4	14.0	26.4
2002	79.1	81.7	73.1	12.0	11.9	12.2	18.3	16.0	23.6
2003	80.2	83.1	73.7	12.3	11.7	13.7	17.3	14.8	22.7
2004	81.3	84.4	74.9	11.4	10.4	13.4	16.5	13.9	21.7
2005	80.1	83.6	73.3	10.5	10.7	10.2	17.7	14.6	24.0
2006	84.1	87.1	78.4	10.1	9.9	10.4	13.7	11.2	18.5
2007	84.0	87.4	77.8	10.4	10.2	10.7	13.4	10.6	18.6
2008	83.6	86.6	78.6	9.9	9.3	11.0	13.7	11.3	17.7
2009	82.1	85.3	76.5	8.9	8.6	9.6	14.8	12.2	19.2
2010	72.9	80.4	60.7	7.7	7.2	8.3	22.4	16.5	31.5
2011	76.8	85.3	63.1	7.8	7.3	8.6	18.9	12.1	29.5
2012	76.0	83.0	65.7	7.5	7.3	7.8	19.3	13.6	27.4
2013	74.7	83.1	62.6	6.9	6.4	7.6	20.0	13.4	29.1
2014	78.5	84.3	70.1	6.6	6.3	6.9	17.1	12.5	23.4
2015	77.9	82.9	70.7	6.8	6.7	6.8	17.3	13.6	22.6
2016	78.7	82.8	73.0	7.7	7.9	7.4	16.6	13.5	20.8
2017	78.7	83.7	72.0	6.7	6.8	6.7	16.7	12.9	21.7

2) 계열별 졸업 후 상황 분석(1999-2017)

(1)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 후 상황

부록표 2-31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인문계열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68.6	71.0	67.9	12.4	20.6	9.5	27.1	21.6	29.0
2000	73.4	77.7	72.2	11.4	15.0	10.3	23.0	17.2	24.9
2001	74.3	77.5	73.5	12.4	16.6	11.1	22.2	17.6	23.6
2002	72.6	77.8	71.3	12.9	14.5	12.4	23.6	18.1	25.2
2003	74.2	77.4	73.4	17.7	19.2	17.2	21.0	17.3	22.0
2004	71.9	73.5	71.5	14.0	16.4	13.3	24.0	21.2	24.7
2005	79.3	81.2	78.8	11.2	15.3	9.9	18.1	15.1	19.1
2006	80.5	83.0	79.8	9.8	13.1	8.6	17.3	14.1	18.4
2007	81.8	83.2	81.3	9.0	11.3	8.1	16.3	14.4	17.1
2008	82.1	85.1	81.0	8.7	10.3	8.1	16.0	12.6	17.3
2009	84.8	87.9	83.8	9.0	10.4	8.4	13.3	10.0	14.5
2010	48.0	51.1	47.0	7.5	8.3	7.2	45.5	41.0	47.1
2011	53.0	53.1	52.9	8.0	9.1	7.7	40.3	37.0	41.5
2012	52.1	52.2	52.0	8.9	8.5	9.0	40.1	37.7	40.9
2013	51.5	53.5	50.9	10.7	10.0	11.0	40.5	35.4	42.1
2014	55.0	55.0	55.0	10.3	10.1	10.4	37.6	34.4	38.8
2015	56.8	54.1	57.7	10.7	11.4	10.4	36.7	35.9	36.9
2016	58.1	59.5	57.7	10.3	9.7	10.5	35.9	32.5	37.1
2017	57.7	59.2	57.1	10.1	9.1	10.6	35.8	31.8	37.4

부록표 2-32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사회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70.9	71.2	70.7	7.6	11.6	4.9	26.3	23.9	27.8
2000	81.0	81.6	80.6	6.7	9.1	5.4	17.3	15.6	18.3
2001	82.7	83.6	82.3	6.5	9.1	5.2	15.9	14.2	16.8
2002	81.7	83.7	80.7	7.2	9.4	6.0	16.7	14.1	18.1
2003	81.4	83.1	80.6	7.3	9.4	6.3	17.0	14.6	18.2
2004	79.2	80.9	78.3	6.4	8.4	5.3	19.3	16.9	20.5
2005	83.9	84.7	83.4	5.0	6.9	3.9	15.1	13.8	15.9
2006	84.0	83.8	84.1	4.4	6.3	3.2	15.1	14.8	15.3
2007	84.2	85.3	83.5	3.7	4.8	2.9	15.0	13.7	15.9
2008	84.6	86.3	83.6	3.8	4.7	3.2	14.6	12.6	15.8
2009	84.8	86.8	83.7	3.8	4.5	3.3	14.4	12.2	15.5
2010	57.0	55.5	57.7	3.7	4.4	3.4	39.5	40.0	39.3
2011	61.9	60.2	62.8	4.6	5.1	4.3	34.4	34.9	34.1
2012	61.9	60.8	62.4	4.4	4.8	4.2	34.5	34.6	34.5
2013	61.5	60.2	62.1	5.1	4.9	5.2	34.2	34.1	34.3
2014	64.4	64.7	64.2	5.2	4.9	5.4	31.3	29.6	32.2
2015	66.3	66.1	66.3	6.1	5.9	6.1	29.9	28.6	30.6
2016	66.7	66.4	66.9	5.7	5.2	6.0	29.6	28.5	30.3
2017	65.2	65.3	65.1	5.9	5.4	6.1	30.9	29.3	31.8

부록표 2-33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교육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2.7	79.7	82.7	3.3	5.6	3.3	16.7	16.7	16.7
2000	89.8	76.8	89.9	4.4	8.8	4.4	9.7	19.1	9.6
2001	89.9	77.7	90.0	5.5	12.2	5.5	9.6	18.3	9.5
2002	88.8	95.7	88.7	6.3	3.9	6.3	10.5	3.9	10.6
2003	89.4	85.2	89.5	7.3	12.2	7.2	9.8	12.2	9.8
2004	87.1	90.1	87.0	4.3	6.1	4.2	12.4	9.1	12.5
2005	89.6	91.5	89.6	3.3	8.5	3.2	10.0	7.6	10.1
2006	91.3	92.2	91.2	1.8	6.2	1.7	8.6	7.1	8.6
2007	91.2	92.3	91.2	1.7	3.2	1.7	8.6	7.3	8.6
2008	91.1	89.3	91.1	1.6	2.1	1.6	8.8	10.3	8.7
2009	91.8	93.6	91.7	1.9	1.9	1.9	8.1	6.2	8.1
2010	74.1	62.6	74.5	1.7	1.5	1.7	24.9	34.9	24.5
2011	80.5	68.4	80.9	2.2	7.3	2.0	18.9	28.3	18.5
2012	81.9	70.5	82.3	2.0	3.7	2.0	17.3	26.5	16.9
2013	83.2	73.9	83.5	1.9	3.3	1.8	16.2	23.3	16.0
2014	84.8	74.0	85.1	2.9	3.6	2.9	14.5	22.5	14.2
2015	85.8	80.0	86.0	3.0	3.3	3.0	13.5	15.9	13.4
2016	84.3	78.0	84.4	4.2	4.3	4.2	14.9	18.7	14.8
2017	83.5	76.7	83.6	4.4	4.7	4.4	15.6	19.3	15.5

부록표 2-34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공학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68.8	68.9	68.6	8.5	10.3	4.5	26.6	25.2	30.0
2000	81.1	81.8	79.8	7.2	8.3	4.7	16.5	15.3	19.2
2001	82.2	83.3	79.9	7.4	8.3	5.3	15.8	14.4	19.1
2002	82.2	83.4	79.7	8.4	9.0	6.9	15.7	14.3	18.9
2003	81.5	83.4	77.2	8.3	8.7	7.5	16.3	14.3	21.1
2004	78.9	79.7	76.3	6.8	7.3	5.0	19.2	18.2	22.6
2005	84.5	85.4	82.0	5.8	6.6	3.4	14.3	13.3	17.4
2006	84.2	84.5	82.9	4.1	4.7	2.0	14.9	14.5	16.7
2007	85.4	85.6	84.4	3.7	4.0	2.1	13.8	13.5	15.1
2008	85.0	85.2	83.8	3.7	3.9	2.5	14.0	13.7	15.7
2009	85.7	86.0	84.0	3.7	3.7	3.5	13.4	13.1	15.1
2010	60.6	61.7	54.9	3.3	3.2	3.5	36.5	35.5	41.9
2011	69.6	70.8	62.9	2.9	2.8	3.5	28.2	27.0	34.5
2012	69.3	70.6	62.5	2.8	2.7	3.0	28.4	27.2	35.0
2013	68.3	69.6	61.6	3.1	2.8	4.8	29.0	27.8	35.5
2014	69.1	69.9	64.4	3.3	2.9	5.5	28.1	27.3	32.6
2015	70.9	71.4	68.1	4.1	3.7	6.5	26.5	26.0	29.3
2016	70.6	71.0	68.4	3.7	3.4	5.7	26.9	26.5	29.0
2017	69.2	69.6	67.0	4.3	3.8	7.2	27.8	27.4	29.8

부록표 2-35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자연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60.1	68.4	56.0	7.6	11.2	5.6	35.8	25.8	41.5
2000	73.1	81.7	68.8	6.3	8.1	5.4	24.6	15.7	29.5
2001	76.4	85.1	72.1	6.7	8.7	5.7	21.5	12.8	26.3
2002	77.8	85.6	73.9	7.7	8.4	7.3	20.1	12.3	24.2
2003	76.8	84.3	72.6	8.1	7.5	8.5	20.9	13.8	25.1
2004	74.6	79.7	71.1	5.9	5.7	6.0	23.6	18.6	27.2
2005	81.4	86.9	77.3	4.1	4.7	3.6	17.7	12.1	21.9
2006	82.5	85.7	79.9	3.3	4.0	2.8	16.8	13.4	19.6
2007	83.9	87.5	81.0	3.2	3.4	3.1	15.4	11.8	18.4
2008	86.7	88.7	85.1	3.4	3.3	3.4	12.7	10.6	14.4
2009	86.8	88.9	85.2	3.9	3.6	4.1	12.6	10.5	14.2
2010	48.6	51.5	46.4	3.4	2.7	3.9	48.0	45.2	50.2
2011	56.1	57.4	55.1	3.9	2.8	4.7	39.2	36.6	41.3
2012	56.0	57.1	55.1	3.7	2.4	4.7	38.8	36.2	40.8
2013	56.9	58.8	55.5	3.9	2.3	5.1	37.8	34.4	40.3
2014	59.4	61.6	57.7	3.6	2.1	4.9	35.2	30.9	38.8
2015	63.6	66.1	61.7	3.7	2.4	5.0	33.2	30.1	35.9
2016	65.3	68.3	62.9	4.2	2.3	5.7	31.7	28.4	34.3
2017	64.0	67.4	61.5	4.8	2.6	6.5	32.4	28.4	35.4

부록표 2-36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의약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64.2	67.7	63.3	3.5	8.0	2.1	33.9	27.5	35.9
2000	76.8	74.6	77.4	2.3	5.2	1.4	22.4	22.7	22.3
2001	78.3	73.9	79.5	2.4	4.7	1.8	21.0	23.8	20.1
2002	79.5	78.9	79.7	2.8	6.5	1.7	19.7	18.7	20.0
2003	73.5	74.4	73.3	2.9	5.3	2.2	25.4	22.9	26.1
2004	72.8	72.1	73.0	2.1	4.7	1.4	26.5	26.0	26.6
2005	84.5	80.4	85.5	1.6	3.0	1.2	15.1	18.1	14.4
2006	86.2	83.9	86.8	1.2	2.8	0.8	13.5	15.0	13.1
2007	88.2	85.7	89.0	1.4	2.8	0.9	11.6	13.5	10.9
2008	89.5	86.9	90.4	1.9	3.2	1.4	10.2	12.2	9.5
2009	90.0	87.1	91.0	1.8	3.1	1.4	9.7	12.0	8.9
2010	68.1	58.8	71.2	1.7	2.5	1.5	30.6	38.7	27.8
2011	80.2	72.2	82.9	1.8	2.3	1.6	19.0	26.0	16.7
2012	78.5	70.3	81.2	2.1	3.1	1.8	20.6	27.6	18.1
2013	77.8	71.6	79.8	2.7	3.6	2.5	21.0	25.6	19.5
2014	78.7	70.6	81.1	2.8	3.4	2.6	20.1	26.4	18.1
2015	80.2	74.2	82.0	3.1	3.8	2.8	18.7	23.1	17.3
2016	82.1	76.6	83.8	2.8	3.5	2.6	17.1	21.2	15.7
2017	81.2	76.3	82.7	3.1	3.9	2.8	17.8	21.3	16.6

부록표 2-37 전문대학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예체능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63.4	65.7	62.6	9.7	14.7	7.6	32.4	27.2	34.6
2000	76.4	78.8	75.5	6.6	10.0	5.2	21.6	17.7	23.3
2001	79.1	81.4	78.3	8.2	10.6	7.2	18.8	15.5	20.2
2002	78.1	79.4	77.7	9.0	10.8	8.3	19.4	16.8	20.5
2003	76.6	79.0	75.6	9.2	11.1	8.2	20.7	17.2	22.4
2004	75.2	76.2	74.8	7.1	9.0	6.1	22.6	20.6	23.7
2005	82.0	83.6	81.1	6.3	8.5	5.1	16.5	14.1	17.9
2006	83.0	83.9	82.5	5.2	7.5	3.8	15.8	14.2	16.8
2007	84.0	84.8	83.5	5.3	7.9	3.7	14.9	13.5	15.8
2008	84.4	85.7	83.8	5.3	7.3	4.2	14.4	12.6	15.5
2009	87.1	88.5	86.5	5.2	7.0	4.2	12.0	10.2	12.9
2010	35.3	39.0	33.5	5.2	7.2	4.2	58.9	53.4	61.7
2011	44.6	48.5	42.9	5.5	6.6	5.0	49.1	42.3	52.4
2012	46.7	48.6	45.9	5.9	6.9	5.4	46.9	41.5	49.6
2013	48.3	49.9	47.6	6.8	7.7	6.3	45.1	39.6	47.7
2014	58.9	61.2	58.0	6.3	7.3	5.9	35.8	30.0	38.5
2015	62.3	63.2	61.9	6.9	7.4	6.7	32.7	28.6	34.8
2016	64.5	65.3	64.2	7.5	8.3	7.1	30.6	26.7	32.6
2017	64.9	64.5	65.0	7.8	8.5	7.4	30.1	27.3	31.7

(2) 4년제 대학교 계열별 졸업 후 상황

부록표 2-38 4년제 대학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인문계열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47.7	50.3	46.5	11.8	16.6	9.3	45.6	40.1	48.5
2000	50.9	55.2	49.0	12.8	18.2	10.1	42.5	35.6	45.8
2001	52.2	56.0	50.6	12.8	18.0	10.2	41.4	35.1	44.4
2002	57.6	60.3	56.5	13.9	18.8	11.6	36.3	31.5	38.5
2003	56.4	60.9	54.5	14.8	19.0	12.9	36.9	30.9	39.6
2004	53.0	58.2	51.0	14.2	18.2	12.6	40.1	33.4	42.9
2005	62.0	67.0	59.9	13.3	15.3	12.4	32.7	27.3	35.1
2006	63.6	68.9	61.3	12.2	14.2	11.3	31.6	25.9	34.1
2007	64.4	69.8	62.1	11.8	13.6	11.0	30.9	25.5	33.4
2008	64.4	68.4	62.6	11.3	13.1	10.5	30.8	25.8	33.1
2009	64.2	67.9	62.4	10.5	12.0	9.7	31.4	27.4	33.4
2010	43.6	44.6	43.1	9.9	12.8	8.4	48.9	46.3	50.3
2011	52.4	57.4	50.1	9.6	12.0	8.4	38.8	32.0	42.3
2012	53.1	56.4	51.6	9.3	11.8	8.0	37.8	32.4	40.5
2013	51.4	56.2	49.3	9.3	12.0	7.9	39.1	32.5	42.3
2014	57.0	58.6	56.3	8.5	11.0	7.3	35.1	31.2	37.0
2015	57.7	59.4	57.0	8.2	10.5	7.1	35.5	31.8	37.3
2016	57.5	59.0	56.8	7.7	9.7	6.6	36.2	33.0	37.8
2017	55.4	58.6	53.8	7.7	9.8	6.6	37.8	33.3	40.3

부록표 2-39 4년제 대학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사회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49.5	48.7	50.6	6.5	7.1	5.6	46.6	46.6	46.6
2000	54.3	55.4	52.7	6.3	7.1	5.2	42.4	40.7	44.8
2001	53.9	55.5	51.9	5.9	6.1	5.6	43.0	41.2	45.4
2002	58.0	59.5	56.2	6.5	7.0	5.8	38.9	37.0	41.2
2003	55.4	58.0	52.5	6.5	6.6	6.3	41.3	38.5	44.5
2004	51.7	54.7	48.8	6.4	6.3	6.5	44.7	41.6	47.8
2005	59.8	62.2	57.5	5.9	5.7	6.0	37.5	35.0	40.0
2006	62.7	65.6	59.7	4.8	4.6	5.0	35.1	32.3	38.0
2007	63.9	66.6	61.1	4.4	4.3	4.6	34.0	31.5	36.6
2008	64.6	67.1	62.0	4.3	4.2	4.4	32.6	29.7	35.7
2009	64.9	66.3	63.3	4.3	4.2	4.4	32.8	31.5	34.2
2010	51.9	52.0	51.9	3.5	3.3	3.7	44.6	44.8	44.3
2011	60.1	61.4	58.6	3.5	3.3	3.7	36.3	35.4	37.2
2012	59.5	60.5	58.5	3.5	3.3	3.7	36.0	35.4	36.6
2013	58.1	59.2	57.0	3.4	3.3	3.5	37.1	36.5	37.7
2014	62.0	62.6	61.4	3.2	3.1	3.4	33.8	33.5	34.1
2015	62.4	62.9	61.9	2.8	2.6	3.1	34.4	34.2	34.6
2016	62.9	64.2	61.7	2.7	2.5	2.9	34.3	33.3	35.3
2017	60.6	62.4	58.9	2.5	2.4	2.6	36.4	35.0	37.8

부록표 2-40 4년제 대학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교육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48.1	53.1	46.6	8.4	11.3	7.4	47.1	40.1	49.5
2000	54.5	58.9	53.2	7.4	10.0	6.5	41.7	35.4	43.8
2001	52.4	54.2	51.8	7.6	10.5	6.6	43.7	39.8	45.0
2002	61.1	63.4	60.4	7.6	8.9	7.1	35.5	31.9	36.8
2003	59.1	61.6	58.3	6.8	8.4	6.2	37.7	33.7	39.1
2004	53.7	54.6	53.4	5.5	7.0	4.9	43.1	39.9	44.3
2005	60.8	62.6	60.1	5.2	6.7	4.6	36.7	33.2	38.1
2006	61.9	65.7	60.5	4.3	5.2	3.9	36.1	31.5	37.9
2007	60.9	64.0	59.7	3.8	4.9	3.4	37.2	33.1	38.8
2008	60.9	61.5	60.7	4.1	5.2	3.6	36.5	33.4	37.8
2009	58.9	62.1	57.5	4.1	4.7	3.8	38.9	35.3	40.7
2010	39.1	38.1	39.5	4.1	4.8	3.8	57.3	57.6	57.1
2011	48.3	46.0	49.4	5.0	5.6	4.7	47.0	48.1	46.5
2012	48.7	46.2	49.9	6.1	7.9	5.1	45.7	46.2	45.4
2013	46.9	43.6	48.6	5.6	7.0	4.9	47.5	49.0	46.8
2014	52.8	51.3	53.5	4.8	5.7	4.4	42.8	43.2	42.6
2015	50.8	48.9	51.7	4.6	4.9	4.4	44.9	45.7	44.5
2016	49.3	48.1	49.8	4.0	4.8	3.6	46.7	46.7	46.7
2017	46.8	44.8	47.7	3.8	4.1	3.6	49.3	50.2	48.8

부록표 2-41 4년제 대학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공학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52.1	52.0	52.3	19.4	20.9	11.8	37.7	36.8	42.1
2000	59.5	60.4	56.2	16.3	17.4	11.3	33.4	32.1	38.8
2001	59.7	60.3	57.3	13.5	14.1	10.7	34.5	33.6	38.1
2002	60.8	61.7	57.4	14.7	15.5	11.7	33.1	31.9	37.7
2003	60.1	61.5	54.2	13.8	14.3	11.6	34.1	32.5	40.5
2004	59.1	60.7	52.7	12.3	13.0	9.6	35.4	33.6	42.7
2005	67.2	69.1	60.0	12.0	12.6	9.4	28.5	26.6	36.2
2006	69.3	70.7	63.3	12.0	12.5	9.9	26.8	25.3	33.0
2007	70.5	71.3	66.6	12.1	12.6	9.8	25.7	24.8	30.0
2008	71.6	72.3	68.6	11.9	12.2	10.4	24.3	23.6	28.0
2009	71.1	71.5	69.5	13.0	13.4	11.5	24.9	24.5	26.8
2010	63.8	64.5	60.9	12.3	12.4	12.0	31.3	30.7	33.8
2011	74.2	75.2	69.9	11.3	11.3	11.4	22.4	21.5	26.2
2012	74.0	75.3	68.9	11.7	11.8	11.2	22.2	21.1	26.8
2013	73.1	74.2	68.2	12.1	12.2	11.5	22.9	21.9	27.2
2014	73.2	74.2	69.1	12.3	12.3	12.0	22.8	22.0	26.4
2015	71.3	71.9	68.9	11.5	11.6	11.2	24.8	24.2	27.2
2016	69.4	70.4	66.0	10.3	10.5	9.7	26.9	25.9	30.2
2017	67.7	68.7	64.5	9.5	9.6	9.2	28.6	27.7	31.7

부록표 2-42 4년제 대학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자연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49.1	51.4	47.4	16.3	20.6	12.6	42.1	37.5	46.0
2000	49.7	51.0	48.7	16.4	20.6	13.0	41.7	38.1	44.6
2001	52.4	55.2	50.2	16.5	19.2	14.3	39.4	35.5	42.7
2002	56.9	58.6	55.5	17.1	19.4	15.2	35.5	32.8	37.7
2003	55.1	57.8	53.1	17.8	19.7	16.1	36.6	33.2	39.4
2004	50.4	53.1	48.4	16.4	17.8	15.3	41.1	37.7	43.7
2005	60.4	63.3	58.3	16.9	18.7	15.6	32.6	29.3	35.2
2006	64.6	66.7	63.0	17.0	18.2	16.1	29.1	26.8	31.0
2007	65.3	68.3	62.9	18.1	19.5	16.9	28.2	25.1	30.7
2008	66.7	69.6	64.4	18.0	20.0	16.4	26.8	23.3	29.7
2009	67.1	69.9	64.9	18.9	20.8	17.4	26.4	23.4	28.9
2010	49.9	52.6	47.8	18.2	20.2	16.5	40.4	37.3	42.9
2011	58.2	61.7	55.5	18.4	21.1	16.2	33.4	29.4	36.6
2012	58.5	60.9	56.7	19.2	21.7	17.2	32.4	29.5	34.9
2013	57.4	59.1	56.1	19.7	23.2	16.8	32.9	30.1	35.3
2014	61.6	62.8	60.7	19.8	22.7	17.3	29.6	27.4	31.4
2015	61.6	63.2	60.5	17.9	20.9	15.6	30.7	28.3	32.6
2016	60.7	62.8	59.0	16.8	19.7	14.5	32.0	29.1	34.3
2017	59.1	61.4	57.3	15.7	17.8	13.9	33.6	30.8	35.9

부록표 2-43 4년제 대학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의약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1.6	86.6	77.0	8.1	7.2	8.9	16.5	11.7	20.9
2000	88.1	89.7	86.7	5.1	5.2	4.9	11.0	9.2	12.7
2001	84.8	86.1	83.9	4.7	5.2	4.3	14.3	12.8	15.4
2002	89.8	90.4	89.4	4.0	4.2	3.8	9.6	8.7	10.2
2003	87.2	87.2	87.2	4.5	5.8	3.6	12.0	11.6	12.4
2004	88.4	90.6	86.9	3.5	4.1	3.2	10.9	8.4	12.7
2005	89.9	89.8	90.0	3.9	4.8	3.3	9.6	9.4	9.6
2006	90.2	89.4	90.7	4.2	5.7	3.3	9.3	9.7	9.0
2007	89.6	88.1	90.6	3.9	5.3	3.0	9.8	10.9	9.1
2008	92.0	91.9	92.1	4.1	5.7	3.0	7.5	7.3	7.7
2009	89.7	88.4	90.5	4.2	6.0	3.0	9.7	10.6	9.1
2010	73.9	80.8	69.9	4.1	5.8	3.1	24.6	17.7	28.8
2011	83.8	84.0	83.8	4.2	5.2	3.6	15.1	14.5	15.5
2012	82.7	83.6	82.3	4.6	6.3	3.7	16.0	14.4	16.8
2013	80.1	80.6	79.9	3.4	5.5	2.5	18.8	17.8	19.3
2014	81.3	82.3	81.0	2.9	5.4	2.0	17.8	16.1	18.4
2015	83.2	82.9	83.2	3.1	5.4	2.3	16.1	15.5	16.3
2016	83.9	84.1	83.9	2.7	4.5	2.0	15.4	14.5	15.7
2017	83.6	83.9	83.5	2.3	4.1	1.6	15.7	14.8	16.1

부록표 2-44 4년제 대학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예체능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54.1	61.5	50.5	13.1	13.6	12.9	39.5	32.2	43.1
2000	58.9	66.9	55.4	14.3	14.3	14.4	34.8	27.2	38.2
2001	59.3	67.4	55.7	15.2	15.2	15.2	34.1	26.6	37.6
2002	64.5	72.5	61.0	15.6	15.0	15.9	29.6	22.5	32.8
2003	64.4	72.3	61.2	16.1	15.7	16.3	29.5	22.5	32.5
2004	60.9	66.8	58.4	14.8	13.5	15.5	32.8	27.6	35.2
2005	74.0	79.3	71.5	13.4	11.9	14.1	22.1	17.3	24.5
2006	76.4	82.8	73.4	12.1	10.5	12.9	20.4	14.8	23.1
2007	75.4	81.3	72.3	12.1	11.5	12.3	21.4	16.0	24.2
2008	76.5	80.8	74.2	11.3	10.9	11.6	20.2	15.9	22.7
2009	73.3	77.5	70.8	9.7	8.7	10.3	23.7	19.8	26.1
2010	36.3	42.0	33.0	8.5	7.3	9.2	56.9	51.9	59.8
2011	44.7	50.3	41.6	9.2	7.4	10.2	47.9	42.9	50.9
2012	50.0	53.7	48.0	9.1	7.5	10.1	42.8	39.5	44.7
2013	50.0	51.7	49.1	8.3	6.9	9.0	43.1	40.9	44.4
2014	59.5	63.5	57.3	6.8	5.1	7.7	35.6	31.4	37.9
2015	61.0	65.8	58.5	6.8	5.1	7.8	34.5	29.6	37.1
2016	62.5	66.8	60.3	6.6	4.8	7.5	33.5	29.2	35.8
2017	61.3	65.4	59.2	6.0	4.5	6.8	34.6	30.3	36.7

(3) 일반대학원 계열별 졸업 후 상황

부록표 2-45 일반대학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인문계열

(단위: %)

	취업률 (계)	취업률 (남)	취업률 (여)	진학률 (계)	진학률 (남)	진학률 (여)	미상률 (계)	미상률 (남)	미상률 (여)
1999	59.5	71.6	49.6	15.5	16.8	14.4	34.0	23.3	43.1
2000	65.0	75.0	56.1	16.3	15.8	16.7	29.1	20.7	36.6
2001	65.4	75.1	57.5	17.3	17.8	16.8	28.6	20.3	35.4
2002	66.5	76.6	58.5	16.9	17.5	16.4	27.7	19.1	34.7
2003	70.1	80.0	61.6	19.9	19.3	20.5	23.9	16.1	30.5
2004	67.6	79.5	59.4	19.5	19.0	19.8	26.0	16.4	32.6
2005	73.0	82.1	66.8	16.9	16.2	17.4	22.4	15.0	27.5
2006	76.7	86.4	69.6	15.0	13.3	16.1	18.7	11.3	23.9
2007	74.2	84.3	67.2	15.8	15.1	16.4	20.2	12.5	25.3
2008	76.5	83.3	72.0	14.3	12.3	15.5	18.2	13.3	21.3
2009	74.1	83.7	67.8	14.9	13.9	15.5	19.9	13.0	24.0
2010	43.3	48.6	39.8	13.8	13.1	14.2	41.8	40.5	42.7
2011	47.7	61.1	42.0	13.1	12.8	13.3	32.1	20.2	38.6
2012	48.8	57.0	44.8	13.2	13.1	13.2	30.2	22.7	34.6
2013	48.5	56.2	45.4	10.9	11.4	10.7	30.9	22.9	34.8
2014	56.5	63.4	53.5	10.1	10.4	9.9	25.7	19.0	29.2
2015	59.5	64.4	57.5	9.4	10.4	9.0	25.1	18.8	28.3
2016	58.7	62.4	57.1	9.8	11.4	8.9	26.0	21.3	28.4
2017	60.0	65.2	57.9	9.2	9.3	9.1	25.0	20.0	27.5

부록표 2-46 일반대학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사회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66.9	72.0	54.4	14.4	15.3	12.0	28.0	23.3	40.1
2000	71.8	75.9	61.8	14.4	15.8	10.7	23.9	19.9	34.1
2001	71.9	76.5	60.9	12.2	12.1	12.3	24.5	20.4	34.3
2002	70.2	74.4	61.9	11.7	11.7	11.5	26.1	22.3	33.8
2003	67.8	71.5	60.9	11.2	10.9	12.0	28.4	25.2	34.4
2004	68.8	74.5	58.6	10.9	9.3	13.6	27.6	22.9	35.8
2005	70.7	75.1	63.1	10.9	9.7	12.9	26.0	22.2	32.1
2006	76.9	81.3	69.7	10.3	8.9	12.5	19.4	16.1	24.3
2007	79.2	84.8	71.2	10.7	9.5	12.2	17.0	12.8	22.6
2008	79.3	84.6	71.7	8.6	7.9	9.6	16.9	13.0	22.0
2009	78.1	84.3	69.2	9.0	8.1	10.2	16.9	12.7	22.3
2010	68.4	75.3	58.7	6.4	6.0	7.0	23.8	20.0	28.4
2011	73.2	80.2	62.8	6.4	5.7	7.4	20.2	16.2	24.8
2012	73.5	78.8	66.1	6.0	5.3	6.9	18.8	16.5	21.5
2013	72.8	79.1	64.0	4.8	4.1	5.5	18.8	15.9	21.9
2014	77.6	83.5	70.3	4.5	3.6	5.4	14.9	12.0	17.9
2015	76.7	82.5	69.4	4.6	4.2	5.0	16.0	13.4	18.5
2016	78.1	82.4	72.9	4.1	3.1	5.1	15.7	13.9	17.3
2017	76.6	81.6	70.4	4.1	3.4	4.9	16.3	14.5	17.9

부록표 2-47 일반대학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교육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83.2	90.4	75.9	5.3	5.5	5.1	15.9	9.0	22.9
2000	79.5	87.2	73.7	7.9	8.5	7.5	18.8	11.6	24.4
2001	81.1	88.8	76.7	7.5	9.1	6.5	17.5	10.2	21.8
2002	73.3	79.7	70.3	9.5	12.1	8.3	24.1	17.8	27.3
2003	79.6	85.3	77.2	8.1	7.3	8.4	18.7	13.5	20.9
2004	77.3	87.2	72.8	6.9	5.8	7.4	21.1	12.0	25.1
2005	83.6	90.2	80.7	7.0	6.3	7.3	15.2	9.2	17.9
2006	79.8	83.6	78.3	5.5	7.5	4.7	18.7	14.8	20.3
2007	82.9	86.4	81.7	6.2	6.7	6.0	15.8	12.5	17.0
2008	83.9	86.0	83.2	5.7	5.5	5.8	14.7	13.0	15.4
2009	81.3	87.6	78.7	5.6	5.9	5.4	17.2	11.4	19.6
2010	68.6	75.7	66.1	5.7	5.3	5.9	28.3	22.2	30.5
2011	74.2	82.7	71.2	6.1	6.1	6.1	22.4	14.8	25.0
2012	74.2	80.5	71.9	6.0	5.5	6.2	21.8	17.0	23.4
2013	72.1	82.5	69.0	6.5	6.0	6.7	23.4	14.6	26.0
2014	78.4	85.9	76.0	4.7	4.3	4.8	18.4	12.2	20.4
2015	78.4	82.1	77.2	3.6	3.6	3.7	18.6	16.0	19.4
2016	77.6	84.5	75.5	3.8	3.5	3.9	18.9	13.3	20.6
2017	76.5	82.1	74.8	3.9	4.4	3.7	19.6	15.1	21.1

부록표 2-48 일반대학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공학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73.8	74.4	64.8	19.7	20.1	15.2	20.4	19.8	29.9
2000	79.5	80.1	72.9	17.4	17.8	13.1	16.6	16.1	23.6
2001	81.0	81.9	71.0	13.9	14.2	10.0	16.3	15.4	26.1
2002	80.6	80.9	78.0	13.1	13.2	12.9	16.8	16.5	19.1
2003	78.5	78.9	75.0	11.0	10.9	11.9	19.0	18.7	22.0
2004	78.3	79.0	72.9	9.9	9.9	9.8	19.5	18.8	24.4
2005	80.7	81.6	74.1	10.1	10.3	8.8	17.3	16.4	23.6
2006	83.1	83.9	76.0	10.2	10.0	11.6	14.7	14.1	19.9
2007	82.6	83.3	77.9	11.3	11.4	11.0	14.7	14.2	18.3
2008	81.9	83.3	73.5	10.7	11.1	8.5	15.2	14.1	21.9
2009	79.7	80.5	74.8	10.1	10.2	9.0	16.9	16.4	20.3
2010	82.3	83.8	73.2	9.5	9.9	6.9	14.6	13.5	21.3
2011	87.3	88.8	78.9	8.7	8.9	7.7	10.5	9.3	17.1
2012	86.1	87.2	80.1	7.8	7.7	8.1	11.2	10.3	16.0
2013	85.0	86.5	77.6	7.9	7.9	8.0	12.0	10.8	17.5
2014	83.1	84.7	75.8	7.7	7.8	7.4	13.4	12.2	19.3
2015	83.7	85.1	77.0	8.3	8.6	6.7	13.2	12.0	18.5
2016	83.7	84.8	78.4	7.9	8.1	6.8	13.3	12.3	17.5
2017	83.4	84.9	76.9	7.8	8.0	6.8	13.5	12.3	18.6

부록표 2-49 일반대학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자연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69.4	73.3	63.5	19.8	22.6	15.1	24.0	19.9	31.0
2000	74.3	79.1	67.3	18.7	21.1	14.7	20.6	16.2	27.9
2001	75.0	78.8	69.8	17.9	20.5	14.1	20.4	16.7	25.9
2002	78.5	81.6	74.4	16.4	18.2	13.8	17.9	14.9	22.1
2003	74.1	77.0	70.3	15.8	17.0	14.2	21.7	19.0	25.5
2004	74.3	77.7	69.9	15.9	16.4	15.3	21.5	18.5	25.5
2005	76.2	78.6	73.1	13.8	14.8	12.6	20.5	18.2	23.5
2006	78.8	81.7	75.2	13.5	14.4	12.3	17.7	15.0	21.2
2007	77.5	79.9	74.8	13.9	14.7	13.0	18.4	16.2	21.1
2008	77.4	80.2	74.0	13.4	13.7	13.0	18.5	16.1	21.6
2009	77.2	80.0	74.0	12.1	13.3	10.7	18.7	16.0	21.9
2010	69.2	75.1	62.6	11.4	12.6	10.1	25.2	20.0	31.2
2011	73.9	79.0	68.4	10.7	11.8	9.4	21.2	16.5	26.5
2012	74.1	77.2	70.7	9.3	9.6	8.8	20.9	18.0	24.2
2013	73.8	78.8	68.6	9.3	10.3	8.3	20.8	16.3	25.9
2014	74.6	78.2	70.9	8.9	9.7	8.0	20.4	17.0	24.2
2015	74.9	78.2	71.4	8.8	9.6	7.9	20.5	17.6	23.8
2016	77.6	79.7	75.3	8.3	9.1	7.3	18.3	16.2	20.7
2017	75.7	79.1	72.3	8.0	9.2	6.7	19.9	16.7	23.2

부록표 2-50 일반대학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의약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97.6	98.9	94.3	10.8	11.2	10.0	2.1	0.9	5.1
2000	94.0	94.9	91.6	11.4	11.8	10.5	5.2	4.4	7.5
2001	96.6	97.7	94.2	8.5	8.3	9.0	3.0	2.0	5.2
2002	96.5	97.7	94.1	9.7	9.9	9.4	3.0	2.0	5.3
2003	95.0	96.7	91.9	13.2	14.3	11.0	4.2	2.7	7.3
2004	93.3	95.1	89.8	9.8	9.5	10.4	5.9	4.3	9.1
2005	93.9	95.7	90.6	6.1	6.1	6.1	5.6	3.9	8.8
2006	93.4	95.5	89.8	6.4	5.8	7.4	5.9	4.0	9.2
2007	93.2	95.3	90.0	7.6	7.3	7.9	6.0	4.1	8.9
2008	92.4	95.2	88.2	6.7	6.2	7.6	6.7	4.3	10.6
2009	90.8	93.4	87.0	4.9	4.6	5.3	8.3	5.9	11.8
2010	86.9	93.3	78.3	3.7	3.6	3.7	12.2	6.3	20.0
2011	87.4	92.9	80.3	4.4	3.8	5.1	11.6	6.6	17.8
2012	87.1	92.7	80.8	3.5	2.4	4.8	11.8	6.8	17.4
2013	87.5	92.3	82.5	4.0	3.0	5.1	11.3	7.0	15.9
2014	88.0	92.8	83.0	3.4	2.7	4.2	11.0	6.6	15.5
2015	89.1	92.8	85.6	4.1	3.0	5.0	9.9	6.6	13.1
2016	88.7	92.6	85.1	3.7	2.7	4.7	10.4	6.8	13.6
2017	88.2	92.5	84.4	3.0	2.2	3.8	10.7	6.7	14.2

부록표 2-51 일반대학원 계열별 졸업 후 상황(1999-2017) - 예체능계열

(단위: %)

	취업률(계)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계)	진학률(남)	진학률(여)	미상률(계)	미상률(남)	미상률(여)
1999	64.8	77.1	57.8	5.1	6.1	4.5	33.3	21.3	40.3
2000	67.0	78.0	60.9	6.8	8.9	5.5	30.6	19.7	37.0
2001	65.1	79.9	57.2	5.2	6.0	4.8	33.0	18.8	40.7
2002	73.3	82.6	68.4	8.3	10.8	6.9	24.5	15.5	29.4
2003	72.1	79.1	68.7	9.8	13.8	7.7	25.0	17.8	28.9
2004	68.0	77.8	63.3	9.7	12.4	8.3	28.9	19.4	33.6
2005	76.1	83.3	72.1	7.6	6.8	8.1	22.0	15.5	25.6
2006	74.9	82.0	71.2	6.7	6.7	6.7	23.1	16.4	26.5
2007	71.8	83.2	66.0	8.1	10.1	7.0	25.4	14.5	31.2
2008	75.2	84.4	70.4	7.0	7.1	6.9	22.4	13.9	26.9
2009	72.1	82.6	66.9	6.6	7.2	6.3	24.5	14.7	29.6
2010	35.5	51.3	27.4	5.1	6.2	4.5	56.8	41.3	65.3
2011	35.7	51.8	27.5	6.0	6.3	5.8	55.9	40.3	64.3
2012	37.4	52.4	29.3	6.9	7.9	6.3	53.8	39.6	61.9
2013	36.9	53.0	28.9	5.0	4.9	5.0	55.0	39.9	62.9
2014	57.7	67.3	53.3	4.3	5.1	4.0	36.7	27.1	41.3
2015	59.8	73.0	53.6	4.0	5.4	3.3	35.8	23.3	41.8
2016	59.8	70.1	55.1	3.6	3.8	3.5	35.1	25.1	39.8
2017	61.0	70.4	57.0	3.8	4.1	3.6	33.1	24.4	37.0

3.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중·고등학생용)

승인번호
제 402004 호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15세~만18세(2000년 6월 2일~2004년 6월 1일 출생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 · 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청년층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S.V 검증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응답자 연락처	( ) –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_____)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해당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문의처	조사 수행기관 ((주) 한국리서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휘: 02-3014-0995 박수미: 02-3014-0115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를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본인에게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식별정보가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유형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연구대상자 성명 _____ (서명)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1 0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 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Ⅰ.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 ][ ] 세 ~ 만 [ ][ ] 세
- 청소년 : 만 [ ][ ] 세 ~ 만 [ ][ ] 세
- 청 년 : 만 [ ][ ] 세 ~ 만 [ ][ ]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영역(문6)으로 이동**

문5-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7)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8)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9)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① 그렇다 ➡ **문10-1로 이동** ② 아니다 ➡ **문11로 이동**

문10-1)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
③ 특성화고(특목고)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2) 현재 몇 학년이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문10-3)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없다
② 문과(이과)에서 이과(문과)로 변경하였다
③ 일반계(직업계)에서 직업계(일반계)로 변경하였다(일반고 직업과정, 특성화고 대입반 포함)
④ 예체능계(일반·직업계)에서 일반·직업계(예·체능계)로 옮겨갔다
⑤ 전문교과나 전문분야를 변경하였다(예: 공업→상업, 미술→음악 등)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4)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10-4-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0-4)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10-4-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문11)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4로 이동**

문12)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13)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13-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3) 도움 받은 경험	문1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문13)-1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13-5로 이동**

문13-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13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13-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13-4로 이동**

문13-3) (문13-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까?

약 [ ][ ][ ][ ][ ] 만원

문13-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까?

약 [ ][ ][ ][ ][ ] 만원

문13-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 ][ ] 시간

문14)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분위기 좋은 회사
② 급여가 높은 회사
③ 유명한 회사
④ 안정적인 회사
⑤ 퇴근이 빠른 회사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16)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35원입니다.

시간급 □□□□□ 원

문17)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9)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 만원

문19-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

문20)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 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21)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추가」영역(문23)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22-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Ⅳ.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3)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24)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5)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문26)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7)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28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②, ③ 응답자는 「건강」 항목(문29)으로 이동**

문28) (문27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부모님과 언제까지 함께 살 생각입니까?

① 대학교 진학 전(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동거
② 취업 전까지 동거
③ 결혼 전까지 동거
④ 결혼 후에도 동거
⑤ 출산 후에도 동거
⑥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거
⑦ 기타(적을 것 : _____)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9)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30)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문31)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32)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34로 이동**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33으로 이동**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33으로 이동**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33으로 이동**

문33) (문32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4)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문35)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⓪	①	②	③
(2) 비교적 잘 지냈다	⓪	①	②	③
(3) 상당히 우울했다	⓪	①	②	③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⓪	①	②	③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⓪	①	②	③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⓪	①	②	③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⓪	①	②	③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9) 마음이 슬펐다	⓪	①	②	③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⓪	①	②	③

문36)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37로 이동**

문36-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문37)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38)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기치관」 영역(문39)으로 이동**

문38-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기치관」 영역(문39)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38-2로 이동**

문38-2) (문38-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Ⅵ.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9)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40)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 · 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 · 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 · 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 · 대인관계
⑩ 꿈 · 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41)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2)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명)

문43)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44로 이동**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43-1로 이동**

문43-1) (문43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43-2) (문43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

문44)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45)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4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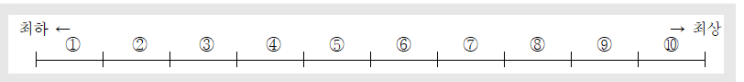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Ⅷ.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1) 본인	①	②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잘 모르겠음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청년 사회·결제 실태조사 조사표(청년용)

승인번호
제 402004 호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청년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19세~만39세(1979년 6월 2일~2000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15~18세인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S.V 검증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응답자 연락처	( ) –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_____)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해당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문의처	조사 수행기관 ((주) 한국리서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하: 02-3014-0995 박수미: 02-3014-0115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를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본인에게 없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식별정보가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유형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연구대상자 성명 _____ (서명)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1 0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 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Ⅰ.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 ][ ] 세 ~ 만 [ ][ ] 세
■ 청소년 : 만 [ ][ ] 세 ~ 만 [ ][ ] 세
■ 청 년 : 만 [ ][ ] 세 ~ 만 [ ][ ]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출산장려금 확대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⑤ 가구의 소득 증대
⑥ 가구의 주기 부담 완화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2019년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예정)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④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⑥ 가구의 소득 증대
⑦ 가구의 주기 부담 완화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7)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문8)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9로 이동**

문8-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9로 이동**

문8-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기타( )

문9)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10)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 ][ ]명) ② 아니오.

문11)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문12)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3)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영역(문14)으로 이동**

문13-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4)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5)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습니까?(대학교 졸업, 중퇴, 재학, 휴학이신 경우 모두 '① 있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문23으로 이동**

문16-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① 전문대 (2-3년제) ② 대학교 (4-6년제)			년 월	① 졸업 ➡ 졸업년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문17**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년 월

*** 보기1(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보기2(전공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 다음(문17~문22)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8)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17과 문 18 모두 '②아니오' 인 응답자는 문20으로 이동**

문19) (문17에 ① 또는 문18에 ① 응답자만)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②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③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⑤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⑥ 기타(적을 것: _____)

문20) 귀하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을 하고 있거나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21로 이동**

문20-1)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21)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수료)한 경우는 '③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예 ➡ **문2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5로 이동**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문22-1)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2-2)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십니까?

① 재학 ② 휴학 ③ 수료 ④ 졸업

➡ **응답 후 문25로 이동**

※ 다음(문23~문24)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3)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4)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5)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26로 이동**

문25-1) 다니셨던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
③ 특성화고(특목고)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25-2)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없다
② 문과(이과)에서 이과(문과)로 변경하였다
③ 일반계(직업계)에서 직업계(일반계)로 변경하였다(일반고 직업과정, 특성화고 대입반 포함)
④ 예·체능계(일반·직업계)에서 일반·직업계(예·체능계)로 옮겨갔다
⑤ 전문교과나 전문분야를 변경하였다(예: 공업→상업, 미술→음악 등)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5-3)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25-3-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5-3)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25-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다음(문26~문30)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6)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29로 이동

문26-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까?

( ) 년 (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문27)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28)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8-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8) 도움 받은 경험	문28-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문28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8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28-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3) (문28-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 ][ ][ ][ ][ ] 만원

문28-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 ][ ][ ][ ][ ] 만원

문28-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 ][ ] 시간

문29)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30)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훈련과 인턴 근무 등도 포함합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수강과 정규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원수강 및 실습(교생실습, 사회복지사 실습, 병원실습 등)은 제외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미 받고 있다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분위기 좋은 회사
② 급여가 높은 회사
③ 유명한 회사
④ 안정적인 회사
⑤ 퇴근이 빠른 회사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32)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35원입니다.

시간급 [ ][ ][ ][ ][ ] 원

문33)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3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35)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 ][ ][ ][ ][ ] 만원

문35-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 ][ ] %

문36)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37로 이동**

문36-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6-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37)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38)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9)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문40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39-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40)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41)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동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 문41의 응답 결과와 상관없이 문41-1과 문41-2를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1-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41-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42)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① 일을 하였음 ➡ **문48로 이동**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48로 이동**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43) 귀하는 지난4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47로 이동**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44로 이동**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45로 이동**

문44) 귀하는 지난주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문52로 이동**
④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⑤ 진학 준비 중이어서
⑥ 취업 준비 중이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7로 이동**

문45)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①	②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7)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문45-1)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 번 ➡ **문45-(7)에 '①예'를 선택한 경우 문52로 이동, 그 외 번호는 문46으로 이동**

문46)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2로 이동**

문47)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구직활동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2로 이동**

※ 다음(문48~문51-1)은 **취업자 및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휴가, 일시 휴직 상태인 경우(문42 '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사업체 운영, 프리랜서 등) 모두 응답대상에 포함됩니다.

문48)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합니까?

☞ 세부 직업에 대한 분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자세히 적을 것 : _____)

문49)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 시간

➡ **주당 35시간 미만일 경우 문 49-3-1로 이동, 35시간 이상일 경우 '(4)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으로 이동**

문49-3-1) 귀하는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문49-3-2)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 시간

문50) 직장(일자리)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받고 있는 편이다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51)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업 준비, 업종 변경 등도 이직 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51-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개인발전/승진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다음의 문항들은 전체 대상자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52)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4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시작)년도: 년) ➡ **문54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3)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문54)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추가] 영역(문57)으로 이동**

문55)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추가」 영역(문57)으로 이동

문56)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추가」 영역(문57)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56-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④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Ⅳ.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7)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58)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59)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문60)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61)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건강」 영역(문63)으로 이동**
② [비동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62) (문61에서 ②,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건강」 영역(문63)으로 이동**

문62-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② 원룸(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④ 하숙
⑤ 기숙사
⑥ 고시원
⑦ 아파트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학사 등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3)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64)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문65)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66)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68로 이동**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67로 이동**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67로 이동**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7로 이동**

문67) (문66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⑤ 기타(적을 것 :)

문68)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문69)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⓪	①	②	③
(2) 비교적 잘 지냈다	⓪	①	②	③
(3) 상당히 우울했다	⓪	①	②	③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⓪	①	②	③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⓪	①	②	③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⓪	①	②	③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⓪	①	②	③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9) 마음이 슬펐다	⓪	①	②	③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⓪	①	②	③

문70)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71로 이동**

문70-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문71)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72)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73)으로 이동**

문72-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73)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72-2로 이동**

문72-2) (문72-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Ⅵ.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3)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74)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 · 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 · 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 · 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 · 대인관계
⑩ 꿈 · 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75)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 및 정치 · 사회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6)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7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78로 이동**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77-1로 이동**

문77-1) (문7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77-2) (문7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

문78) 귀하는 지난주에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79) 귀하는 지난주에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80)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81)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사회 ·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7)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①	②	③	④	⑤
(9) 사회 · 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81의 11개 항목에 대해 모두 '① 없음'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문83으로** 가십시오.

문82) 귀하가 사회 및 정치 참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정치 ·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②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③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④ 참여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좋아서
⑤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⑦ 기타(적을 것: _____)

문83)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사회 ·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7)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①	②	③	④	⑤
(9) 사회 · 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12) 투표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84)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85)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문86) 귀하는 지난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

문87) 귀하는 지난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

문88) 귀하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③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④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⑤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⑥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
⑦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⑧ 기타(적을 것: _____)

문89)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모임)에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①	②	③	④	⑤
(4)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술단체	①	②	③	④	⑤
(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문89의 8개 항목에 대해 모두 '① 없음' 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문91로** 가십시오.

문90) 귀하가 단체(모임)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
② 인맥을 쌓기 위해서
③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⑤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⑥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⑦ 기타(적을 것: _____)

문91) 귀하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단체(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①	②	③	④	⑤
(4)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술단체	①	②	③	④	⑤
(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문92) 귀하는 청년들의 단체나 모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③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되어서
④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⑤ 같이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⑥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⑦ 주변에 원하는 단체(모임)가 없어서
⑧ 청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93) 귀하는 다음과 같이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또는 공간을 지원하는 것, 교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예: 서울시 '놀자리', 대구시 '다모디라' 등)
**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장소들을 뜻합니다(예: 서울시 '무중력지대', 광주 'the 숲' 등)

문 항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①	②	③	④	⑤
(3)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예: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①	②	③	④	⑤
(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①	②	③	④	⑤

문94) 귀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②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③ 청년정책 전담부처 구성
④ 청년참여 공간(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
⑤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⑥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⑦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⑧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⑨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⑩ 청년 할당제 도입(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
⑪ 기타(적을 것: _____)

문95) 귀하는 10대(중 · 고등학교) 시기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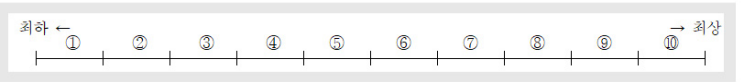
문항	참여한 적이 없음	참여한 적이 있음
(1)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①	②
(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학생회, 학생자치법정 등)	①	②
(3)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활동 등)	①	②
(4) 봉사활동	①	②
(5)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7) 사회단체 활동	①	②
(8)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4) [취업]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_____)	
(5)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아래 사업체 기준 참고)	① 1-4인 ③ 10-29인 ⑤ 100-2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④ 30-99인 ⑥ 300-499인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 년 □□ 개월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1 관리자	
	공공 및 기업 고위직(11)
1110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1120	기업고위임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12)
1201	정부행정 관리자
1202	경영지원 관리자
1209	기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전문서비스 관리직(13)
1311	연구 관리자
1312	교육 관리자
1313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1320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1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
1332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0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1350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139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14)
1411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1412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1413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1490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15)
1511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1512	운송 관련 관리자
1521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1522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1530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0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1)
2111	생명과학 연구원
2112	자연과학 연구원
2121	인문과학 연구원
2122	사회과학 연구원
2131	생명과학 시험원
2132	농림어업 관련 시험원
2133	자연과학 시험원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22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22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2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4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구분	직업분류 예시
2225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2226	컴퓨터 보안 전문가
2227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2228	웹 개발자
2230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0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2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2312	토목공학 기술자
2313	조경 기술자
2314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2315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2316	건설자재 시험원
232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22	화학공학 시험원
2331	금속·재료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2332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2341	환경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2342	환경공학 시험원
235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5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53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54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시험원
2361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
2362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2363	비파괴 검사원
2371	항공기 조종사
2372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2373	관제사
239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92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93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2394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95	식품·섬유공학 및 에너지 시험원
2396	캐드원
2399	기타공학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
2411	전문 의사
2412	일반 의사
2413	한의사
2414	치과 의사
2415	수의사
2420	약사 및 한약사
2430	간호사
2440	영양사
2451	임상병리사

구분	직업분류 예시
2452	방사선사
2453	치과기공사
2454	치과위생사
2455	의지보조기기사
2456	물리 및 작업 치료사
2459	임상 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2461	응급구조사
2462	위생사
2463	안경사
2464	의무기록사
2465	간호조무사
2466	안마사
2471	사회복지사
2472	보육 교사
2473	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
2474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2475	시민 단체 활동가
2479	기타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2481	성직자
2489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25)
2511	대학 교수
2512	대학 시간강사
2521	중·고등학교 교사
2522	초등학교 교사
2523	특수교육 교사
2530	유치원 교사
2541	문리 및 어학 강사
2542	컴퓨터 강사
2543	기술 및 기능계 강사
2544	예능 강사
2545	학습지 및 방문 교사
25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1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592	대학 교육조교
2599	보조 교사 및 기타 교사
	법률 및 행정 전문직(26)
2611	판사 및 검사
2612	변호사
2613	법무사 및 집행관
2614	변리사
2620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27)
2711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2712	회계사
2713	세무사

구분	직업분류 예시
2714	관세사
2715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21	투자 및 신용 분석가
2723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2724	증권 및 외환 딜러
2725	손해사정인
2729	기타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31	상품기획 전문가
2732	여행상품 개발자
2733	광고 및 홍보 전문가
2734	조사 전문가
2735	행사기획자
2741	감정평가 전문가
2742	해외 영업원
2743	기술 영업원
2744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2745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2749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12	번역가
2813	통역가
2814	기자 및 논설위원
2815	출판물 전문가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282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2832	배우 및 모델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2834	촬영기사
2835	음향 및 녹음 기사
283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2837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2839	기타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2841	화가 및 조각가
2842	사진기자 및 사진가
2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2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284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2846	가수 및 성악가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2851	제품 디자이너
2852	패션 디자이너
2853	실내장식 디자이너
2854	시각 디자이너
2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구분	직업분류 예시
2861	경기감독 및 코치
2862	직업 운동선수
2863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2864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2869	기타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2891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2899	미술사 및 기타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1)
3111	조세행정 사무원
3112	관세행정 사무원
3113	병무행정 사무원
3114	국가·지방 및 공공행정 사무원
3121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3122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3123	자재관리 사무원
3124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3125	무역 사무원
3126	운송 사무원
3127	총무 사무원
3131	회계 사무원
3132	경리 사무원
3141	비서
3142	전산 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금융 및 보험 사무직(32)
3201	출납창구 사무원
3202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3203	금융 관련 사무원
3204	신용 추심원
	법률 및 감사 사무직(33)
3301	법률 관련 사무원
3302	감사 사무원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39)
3910	통계 관련 사무원
3921	여행 사무원
3922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 교환원
3991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3999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41)
4111	경찰관
4112	소방관
4113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4121	경호원
4122	청원 경찰
4123	무인 경비원

구분	직업분류 예시
4129	기타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42)
4211	간병인
4219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
4221	이용사
4222	미용사
4223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422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4225	애완동물 미용사
4229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
423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4232	혼례 종사원
4233	장례상담원 및 장례 지도사
4290	기타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 종사원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43)
4311	항공기 객실승무원
4312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4321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4322	숙박시설 서비스원
4323	오락시설 서비스원
4329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44)
4411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4412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4413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4414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4419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
4421	바텐더
4422	웨이터
4429	기타 음식서비스 종사원
5 판매 종사자	
	영업직(51)
5101	자동차 영업원
5102	제품 및 광고 영업원
5103	보험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매장 판매직(52)
5211	상점 판매원
5212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5213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5220	상품 대여원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53)
5301	방문 판매원
5302	통신서비스판매원
5303	텔레마케터
5304	인터넷 판매원
5305	노점 및 이동 판매원
5306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 1 -

별첨.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축산 숙련직(61)
6111	곡식작물 재배원
6112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6113	과수작물 재배원
6121	원예작물 재배원
6122	조경원
6131	낙농업 관련 종사원
6132	가축 사육 종사원
6139	기타 사육 관련 종사원
	임업 숙련직(62)
6201	조림·영림 및 벌목원
6209	임산물채취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어업 숙련직(63)
6301	양식원
6302	어부 및 해녀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 가공 관련 기능직(71)
7101	제빵원 및 제과원
7102	떡제조원
7103	정육원 및 도축원
7104	식품 및 담배 등급원
7105	김치 및 밑반찬제조 종사원
7109	기타 식품가공 관련 종사원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72)
7211	패턴사
7212	재단사
7213	재봉사
7214	제화원
7219	기타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7221	한복제조원
7222	양장 및 양복제조원
7223	모피 및 가죽의복 제조원
7224	의복·가죽 및 모피 수선원
7229	기타 의복 제조원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73)
7301	목제품 제조 관련 종사원
7302	가구 제조 및 수리원
7303	악기제조 및 조율사
7304	간판 제작 및 설치원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74)
7411	금형원
7412	주조원
7413	단조원
7421	제관원
7422	판금원

구분	직업분류 예시
7430	용접원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75)
7510	자동차 정비원
7521	항공기 정비원
7522	선박 정비원
7523	철도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7529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7531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2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7533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7534	냉동·냉장 ·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7535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7536	건설 및 광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76)
7611	PC 및 사무기기설치 및 수리원
76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7619	기타 전기·전자기기설치 및 수리원
7621	산업전공
7622	내선전공
7623	외선전공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77)
77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712	경량 철골공
7721	철근공
7722	콘크리트공
7723	건축 석공
7724	건축 목공
7725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7729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7731	미장공
7732	방수공
7733	단열공
7734	바닥재 시공원
773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736	건축 도장공
7737	섀시 조립 및 설치원
7739	기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7741	광원·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7742	철로 설치 및 보수원
7749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자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78)
7801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7802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7803	통신·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구분	직업분류 예시
	기타 기능 관련직(79)
7911	공예원
7912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7921	건설 배관공
7922	공업 배관공
7929	기타 배관공
7991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79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 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81)
8111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 조작원
8112	곡물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8113	육류·어패류 및 낙농품 가공 기계조작원
8114	과실 및 채소 관련 기계조작원
8120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8190	기타 식품 가공 관련 기계조작원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82)
8211	섬유제조 기계조작원
8212	표백 및 염색 관련 조작원
8221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8222	신발 제조기 조작원 및 조립원
8229	기타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230	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83)
8311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제어장치 조작원
8312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8319	기타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321	화학 제품 생산기 조작원
8322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작원
8323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83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84)
8411	주조기 조작원
8412	단조기 조작원
8413	용접기 조작원
8414	금속가공 관련 제어장치 조작원
8415	금속가공 기계조작원
8416	제관기조작원
8417	판금기 조작원
8421	도장기 조작원
8422	도금 및 금속분무기 조작원
8431	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8432	점토제품 생산기 조작원
8433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구분	직업분류 예시
8434	광석 및 석제품 가공기 조작원
8439	기타 비금속 제품 관련 생산기 조작원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85)
8510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8520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30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8541	자동차 조립원
8542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8543	운송장비 조립원
8544	일반기계 조립원
8550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86)
8610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8620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8631	전기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조작원
8632	전자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조작원
8640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87)
8710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0	화물열차 차장 및 관련 종사원
8731	택시 운전원
8732	버스 운전원
873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8739	기타 자동차 운전원
8740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8750	건설 및 채굴 기계 운전원
8760	선박 갑판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88)
8810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8820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89)
8911	목재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912	가구조립원
8913	펄프 및 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8914	종이 제품 생산기 조작원
8919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8921	인쇄기 조작원
8922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8990	기타 제조 관련 기계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91)
9100	건설 및 광업단순 종사원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92)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1	우편물 집배원

구분	직업분류 예시
9222	택배원
9223	음식 배달원
9229	기타 배달원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93)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94)
9411	청소원
94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1	경비원
9422	검표원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95)
9511	가사 도우미
9512	육아 도우미
9521	패스트푸드원
9522	주방 보조원
9531	주유원
953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99)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9921	계기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9922	수금원
9923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9991	구두 미화원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10 직업군인	
A111	영관급 이상
A112	위관급
A120	장기 부사관 및 준위

- 2 -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II / 김경준·김정숙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I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I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헌·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헌·유민상(자체번호 19-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 탁 과 제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 · 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 ·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 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헌·김형주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헌·하형석·이용해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험(12.16)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청소년복지 지원법」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17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인 쇄 2019년 12월
발 행 2019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53-7 94330
979-11-5654-252-0 (세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9-R17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학교 졸업예정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4330
9 791156 542537
ISBN 979-11-5654-253-7 94330
ISBN 979-11-5654-252-0 (세트)